연구보고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강경균
공동연구원 성윤숙 김승보 장현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_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장현진(서울교육대학교·조교수)
연구보조원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사례분석, 설문조사, 다중사례연구, 델파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방향 및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진로체험 우수사례와 국외(미국, 독일, 영국, 일본) 진로체험에 관한 법, 제도, 프로그램 등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지원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을 경험한 교사에게 진로체험 운영 경험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여, 진로체험 지원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진로체험활동지원의 방향, 진로체험활동 공간구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을 등을 고려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기관, 청소년 진로, 진로체험,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 활성화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진로교육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관련 이론적 고찰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을 분석함. 또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탐색하였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모형 탐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함.
-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 국내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진로체험 우수사례와 국외(미국, 독일, 영국, 일본) 진로체험에 관한 법, 제도, 프로그램 등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을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운영 경험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설문 조사하였음. 그리고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여, 진로체험 지원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 청소년기관 중심의 실제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함.
- 질적 연구방법인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방향, 진로체험활동 공간 구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음.
- 개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현황 및 실태조사, 델파이를 통한 모형 타당화 검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구체적 전략을 도출함.

3. 주요결과

1) 이론적 고찰 결과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방향 및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기반하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됨.
-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는 '지역 단위'의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관이 가진 지역의 학습자원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학교,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관련 진로체험처 등이 서로 협력적으로 지역사회 진로체험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주도성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높이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기관,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유관 기관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해야 함.

2)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념 정의와 운영구조에 대한 제도화 등의 '법제적 접근'이 요구됨.
-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산업 기반과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된 체험활동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 청소년기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공감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3)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주체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지원)청의 위탁, 민간 위탁,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통해 운영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지원 받아 진로체험활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가 진로체험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진로체험 지원 생태계를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위 학교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기관과 단위학교가 참여 방식, 프로그램, 체험 공간, 강사 및 인력 등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다른 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면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청소년이 원하는 체험이 아닌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할 때에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 업무 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조사에서도 담당자의 업무 과중,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기존의 업무에 추가 겸무를 하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과 관련한 역량을 함양하여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기관에서 연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경우의 운영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관내 학교 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목적은 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있음.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대',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추진력과 적극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 공간을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의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함께 상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중사례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지원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탐색하였음. 그 결과,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의 비전, 지원 유형, 지역사회의 역할[단위학교, 시민단체/주민협의체, 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도출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함. 또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함.



[그림]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4. 정책제언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 3항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청소년활동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3조) 역시 진로활동을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함.
- 「교육기본법」 제21조에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함.

2)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 청소년기관의 ‘말 걸기’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전략과 함께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시민단체/주민협의체의 역할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개방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공간을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과의 진로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진로체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지침을 제안함.

3) 청소년기관의 신뢰로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청소년기관 소속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과목에 '진로체험활동론' 신설과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 이수 과목으로써 진로체험활동 관련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연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시설 활용을 통한 진로역량 개발 지원 전략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을 제시함.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주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 분야로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함.

4)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

- 청소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에 진로체험활동 운영 실적을 반영하고, 지역의 「청소년진로체험활성화조례」 제정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예산 지원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함.

차 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04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8
4. 연구 범위와 제한점 ····· 13
5. 연구 추진체계 ····· 14

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17
2.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역할 탐색 ····· 27
3.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모형 탐색 ····· 40

Ⅲ.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1.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 65
2. 국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 84
3. 결론 및 제언 ····· 209

Ⅳ.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1. 연구개요 ····· 219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226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요구 조사 ····· 261
4. 소결 ····· 277

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 285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타당화 ····· 32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349
2. 정책 제언 ····· 352

참고문헌 ····· 385

부　　록 (설문지) ····· 403

표 목차

표 Ⅰ-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표 Ⅰ-2. 전문가 자문 개최 내용 ····· 9
표 Ⅰ-3. 다중사례연구 개요 ····· 10
표 Ⅰ-4. 델파이 조사 개요 ····· 12
표 Ⅰ-5.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개최 ····· 12
표 Ⅰ-6. 콜로키움 개최 ····· 13
표 Ⅱ-1. 「진로교육법」 상 진로체험 관련 용어 ····· 18
표 Ⅱ-2.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 내용 ····· 19
표 Ⅱ-3. 진로체험활동의 개념과 범주 ····· 20
표 Ⅱ-4.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 ····· 21
표 Ⅱ-5.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 관련 정책 ····· 23
표 Ⅱ-6. 진로체험활동의 유형 ····· 30
표 Ⅱ-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항 ····· 32
표 Ⅲ-1. 17개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 65
표 Ⅲ-2.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현황 ····· 66
표 Ⅲ-3. 뉴욕주 '일-기반 학습(WBL)' 등록 프로그램 비교 ····· 96
표 Ⅲ-4. 뉴욕주 '일-기반 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비교 ····· 105
표 Ⅲ-5. JA 잡 쉐도우 프로그램의 세션 비교 ····· 107
표 Ⅲ-6. 미국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 ····· 111
표 Ⅲ-7. 개츠비 기준점들(Gatsby Benchmarks) ····· 149
표 Ⅲ-8. 진로지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학교 권고사항 및 지원 사항 ····· 152
표 Ⅲ-9. Compass 자체평가도구의 구성과 지표 내용 ····· 154
표 Ⅲ-10. 진로지도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역할 ····· 163
표 Ⅲ-11.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시 ····· 167
표 Ⅲ-12. PSHE 교육의 핵심 주제 및 학생들의 갖추어야 할 필수 기술 ····· 170

표 Ⅲ-13. SEND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시(Catcote Academy) ····· 173
표 Ⅲ-14.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 181
표 Ⅲ-15. 법, 제도 상 진로교육 관련 내용의 변화 ····· 182
표 Ⅲ-16. 학습지도 요령 상 진로교육 관련 내용 ····· 189
표 Ⅳ-1.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 222
표 Ⅳ-2. 자료 수집 및 분석 ····· 225
표 Ⅳ-3. 응답 기관 일반사항(기관담당자) ····· 227
표 Ⅳ-4. 지역 유형별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기관담당자) 229
표 Ⅳ-5.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별 기관 실시 진로체험 프로그램(기관담당자) ····· 230
표 Ⅳ-6. 지역 유형별 관련기관과의 지원 협력 및 연계 수준(기관담당자) ····· 234
표 Ⅳ-7.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 구성(기관담당자) ···· 235
표 Ⅳ-8.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 구성(기관담당자) ···· 238
표 Ⅳ-9.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기관담당자) ····· 239
표 Ⅳ-10. 응답자 일반사항(학생) ····· 241
표 Ⅳ-11.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 243
표 Ⅳ-12.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 244
표 Ⅳ-13.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전반 만족도(학생) ····· 245
표 Ⅳ-14.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 및 환경 평가(학생) ····· 247
표 Ⅳ-15. 응답자 일반사항(교사) ····· 248
표 Ⅳ-16.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식(교사) 250
표 Ⅳ-17. 응답자 일반사항(교육청/지자체) ····· 256
표 Ⅳ-18.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 259
표 Ⅳ-19.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 260
표 Ⅳ-20.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교육청/지자체) ····· 261
표 Ⅳ-21.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적자원 어려움(교육청/지자체, 1+2순위) ····· 273
표 Ⅴ-1. 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인원 ····· 286

표 Ⅴ-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사례 탐색을 위한 주제 분석 결과 ····· 292
표 Ⅴ-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내용 ····· 321
표 Ⅴ-4.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 ····· 328
표 Ⅴ-5.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 330
표 Ⅴ-6. 델파이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솟값 ····· 332
표 Ⅴ-7. 델파이 1차 조사 분석결과 ····· 333
표 Ⅴ-8. 델파이 1차 분석결과 및 수정·보완 사항 ····· 336
표 Ⅴ-9. 델파이 2차 조사 분석 결과 ····· 339
표 Ⅴ-10.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의 구성요소 ····· 341
표 Ⅵ-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 356
표 Ⅵ-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 357
표 Ⅵ-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 358
표 Ⅵ-4.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원 내용 ····· 362
표 Ⅵ-5.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침(안) ····· 36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도 ····· 14
그림 Ⅱ-1. 청소년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조정·연계 절차 ····· 42
그림 Ⅱ-2. 창의적 체험활동의 가설적 운영 모형(초기모형-장기모형) 44
그림 Ⅱ-3. 지역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 ····· 45
그림 Ⅱ-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매트릭스 ····· 48
그림 Ⅱ-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 49
그림 Ⅱ-6.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51
그림 Ⅱ-7.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직업체험 협의체 구성(안) ····· 52
그림 Ⅱ-8.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확충 지원 체계(안) ····· 54
그림 Ⅱ-9. 지역 단위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도 55
그림 Ⅱ-10. 진로체험 운영체계 ····· 56
그림 Ⅱ-11. 진로체험 운영체계-진로체험 생태계 ····· 57
그림 Ⅲ-1. 창원시 진해 마을학교 추진 체계도 ····· 71
그림 Ⅲ-2. 김포청소년수련원 1박 2일 진로캠프 기본형 프로그램 일정표 79
그림 Ⅲ-3. 김포청소년수련원 2박 3일 진로캠프 기본형 프로그램 일정표 80
그림 Ⅲ-4. 김포청소년수련원 진로캠프 진로탐색활동 ····· 81
그림 Ⅲ-5. 김포청소년수련원 직업체험활동 ····· 81
그림 Ⅲ-6. 네바다(Nevada)주의 진로교육 개념화 모델 ····· 90
그림 Ⅲ-7.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200여 개의 프로그램 '역량중개소' 127
그림 Ⅲ-8. 역량중개소(Kompetenzagentur)의 과업 도식 ····· 130
그림 Ⅲ-9. 영국 CEC의 사업구조 및 주요사업 ····· 163
그림 Ⅲ-10. 개츠비자선재단의 진로교육 시범사업 참여 학교 ····· 165
그림 Ⅲ-11. Sandbach High School 동아리활동 예시 ····· 169
그림 Ⅲ-12.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 운영 모형 ····· 191
그림 Ⅲ-13.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 흐름도 ····· 192
그림 Ⅲ-14. 지역자율·민간활용형 진로교육 프로젝트 사업모델 ····· 199
그림 Ⅲ-15. 세토시 진로교육추진협의회 사업 모형 ····· 200

그림 Ⅲ-16. 세토시 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형 학습 관련 자료 ····· 201
그림 Ⅲ-17. 후쿠이현 진로교육연락협의회 모형 ····· 202
그림 Ⅲ-18. 안트레키즈 활동 사진 ····· 203
그림 Ⅲ-19. 이시노마키 서포트스테이션 지원 흐름도 ····· 205
그림 Ⅳ-1.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절차 ····· 221
그림 Ⅳ-2.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기관담당자) ····· 228
그림 Ⅳ-3.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기관담당자) ····· 232
그림 Ⅳ-4.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구성(기관담당자) · 236
그림 Ⅳ-5.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담당자) ····· 237
그림 Ⅳ-6.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 구성(기관담당자) ····· 237
그림 Ⅳ-7. 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기관담당자) ····· 238
그림 Ⅳ-8.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기관담당자) ····· 239
그림 Ⅳ-9.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기관담당자) ····· 240
그림 Ⅳ-10.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학생) ····· 242
그림 Ⅳ-11.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 242
그림 Ⅳ-12.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 전반 만족도(학생) ····· 244
그림 Ⅳ-1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평가(학생) ····· 246
그림 Ⅳ-14. 체험한 진로체험활동 유형(교사) ····· 249
그림 Ⅳ-15.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식(교사) ····· 250
그림 Ⅳ-16. 진로체험 참여율 및 연계 만족도(교사) ····· 251
그림 Ⅳ-17. 진로체험 만족도(교사) ····· 252
그림 Ⅳ-18.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시설 및 환경 평가(교사) ····· 253
그림 Ⅳ-19. 진로체험지원센터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사) ····· 254
그림 Ⅳ-20.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참여 적극성(교육청/지자체) ····· 257
그림 Ⅳ-21. 청소년기관의 진로교육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도(교육청/지자체) ····· 258
그림 Ⅳ-22.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 258
그림 Ⅳ-2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 259
그림 Ⅳ-24.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교육청/지자체) ····· 260
그림 Ⅳ-25.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추진력(기관담당자) ····· 262

그림 Ⅳ-26. 진로체험활동의 인적 자원 어려움(기관담당자) ····· 263
그림 Ⅳ-27. 진로체험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기관담당자) ···· 264
그림 Ⅳ-28.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여건 어려움(기관담당자) ····· 264
그림 Ⅳ-29.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의향(기관담당자) ····· 265
그림 Ⅳ-30.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혹은 지원 이유(기관담당자) 265
그림 Ⅳ-31.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기관담당자) ····· 266
그림 Ⅳ-32.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기여도(학생) ····· 267
그림 Ⅳ-33. 진로체험활동 참여 의향(학생) ····· 267
그림 Ⅳ-34. 희망 진로체험활동 유형(학생) ····· 268
그림 Ⅳ-35. 진로체험 시행의 어려움(교사) ····· 269
그림 Ⅳ-36. 진로체험지원센터 재방문 의향(교사) ····· 269
그림 Ⅳ-37.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추진력(교육청) ····· 270
그림 Ⅳ-38.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적극성(지자체) ····· 271
그림 Ⅳ-39.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적 자원 어려움(교육청/지자체) ·· 272
그림 Ⅳ-40.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교육청/지자체) 273
그림 Ⅳ-41.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어려움(교육청/지자체) ····· 274
그림 Ⅳ-42.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 재위탁 의향(교육청/지자체) ····· 275
그림 Ⅳ-4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 재위탁 및 지원 이유(교육청/지자체) ····· 276
그림 Ⅳ-44.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교육청/지자체) 277
그림 Ⅴ-1. 사례연구 분석 절차 ····· 288
그림 Ⅴ-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 324
그림 Ⅴ-3. 델파이 조사 추진 절차 및 방법 ····· 326
그림 Ⅴ-4. 내용 타당도 비율 공식 ····· 332
그림 Ⅴ-5. 합의도 및 수렴도 계산 공식 ····· 333
그림 Ⅴ-6.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 342
그림 Ⅵ-1.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 351
그림 Ⅵ-2. 정책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전략 ····· 353
그림 Ⅵ-3.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 363
그림 Ⅵ-4.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 364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5. 연구 추진 체계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이 급변의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평생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학교 안에서 직업에 대한 교과 및 지식 위주의 이론적, 일회적, 소극적, 정태적인 교육이었다면,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교의 안과 밖에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진로체험활동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14)으로,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활동 체험처가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기관에서도 청소년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확충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 이 장은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하나로 지역사회 협력망과 진로체험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세부과제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에 진로탐색 및 지역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진로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또한, 교육부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지역별 특화 사업 중심의 민·관 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러한 정부 기관의 정책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역의 특징 및 청소년의 활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청소년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기관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진로생태계에서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의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기관의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관 및 조직 간 구체적인 연계모형과 각 기관의 지원을 위한 역할 및 실천·운영 전략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어 왔다. 청소년기관이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 진로활동 및 체험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진로체험체계 운영 관련 연구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연계 관련 연구(성은모, 2013;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 2014),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운영(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며 청소년기관의 주된 활동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관은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활동으로서 진로체험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기관과 학교의 문화, 나아가 청소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진로교육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I-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범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진로교육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 탐색 •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모형 탐색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지원 현황	•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현황 • 국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현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안)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타당화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타당성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진로교육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이론적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분석을 위해 청소년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체험활동의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진로체험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와 교육

부의 진로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청소년 활동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 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역할 탐색을 위하여 기본적인 진로체험활동의 개념과 효과를 고찰하고,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학교, 청소년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체험활동 자료 및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여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에 관계된 요소 및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2)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지원 현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우수사례를 탐색하였다. 특히 국내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지원 우수사례를 탐색하고, 국외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외의 정부나 민간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법, 제도, 정책, 수행기관,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지원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요구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및 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 대한 고려사항과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기관의 역할,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등을 바탕을 다중사례연구를 통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의 진로교육 경험이 있는 학계의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5)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 및 환경 구축 등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이론적 고찰, 국내·외 사례 분석, 델파이를 통한 모형 개발 및 전략적 방안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관련 문헌,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을 통한 진로활동 관련 문헌, 정책 및 제도, 청소년 진로체험 모형 관련 문헌 등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운영사례에 대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안)을 설정하고, 사례조사, 심층 면접, 설문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모형 개발, 국내·외 우수사례 탐색, 정책 도출 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Ⅰ-2. 전문가 자문 개최 내용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설문 조사 개발 및 타당성 검토	• 학계(청소년, 진로교육 등) • 청소년기관 관련자 (지도사, 활동가 등 현장 실무자) • 정부부처, 지자체 공무원
국내·외 운영사례 탐색	
모형 개발 방향성	
정책과제 도출 및 타당성 확보	

3) 다중사례연구(qualitative multiple case study)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의 다양한 사례를 범주별로 분석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지원 및 운영사례들의 주된 양상과 각 사례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중사례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오랫동안 실시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심층면담의 방향과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점검하였다. 심층면담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5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각 사례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심층면담 시 기관의 활동 및 운영 자료, 홍보물 등을 함께 수집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실태조사 및 문헌 고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례 내 및 사례 간 주제 분석을 통해 범주별로 제시하였으며, 충분한 자료의 검토 및 문헌 고찰 내용과 함께 어우러지게 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다양한 진로체험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의 우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Ⅰ-3. 다중사례연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 참여자 섭외 과정	• 사례발굴을 통한 관련자 섭외
사례 수	• 총 7명
사례 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 등의 각각의 사례별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이후 주제 간 내용을 분석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특성을 제시함.
면담 방식	• 심층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 50분 ~1시간 30분 정도 각 1회
면담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녹취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4) 설문 조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을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운영 경험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에 위치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에 따라 수집한 설문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을 비교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에 대한 설문 자료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로부터 공공기관이 협력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에 대한 설문 자료에 대하여 중요도와 실행도 값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를 비교하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델파이 조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양적 조사로서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집단적 판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10명에게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4. 델파이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델파이 조사 목적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한 의견 수렴
델파이 내용	• 다중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의 내용(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방향, 유형, 전략, 지역사회 주체 및 협력 내용)
전문가 패널	• 10명
델파이 횟수	• 2회

6) 기타 연구방법

(1)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본 연구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가와 연구진이 함께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다.

표 Ⅰ-5.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개최

차수	주요 내용	전문가	개최시기	비 고
2회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위한 아젠다 도출	교육부, 여성가족부	10월	

(2) 콜로키움

해외의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활동 지원 현황 및 사례 탐색을 위해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인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콜로키움을 통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활동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Ⅰ-6. 콜로키움 개최

차수	주요 내용	전문가	개최시기
1회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 현황 및 사례	학계, 지도사 및 활동가	8월 30일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범위와 제한 내에서 수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1)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진로개발을 위한 활동(experiential learning for career development)으로 제한하였다.
2) 본 연구는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연구로써, 실제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실태 및 요구조사를 수행하였다.
3) 본 연구는 실제 현장적용이 가능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지원 및 운영경험이 있는 사례에 기초하여 다중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5.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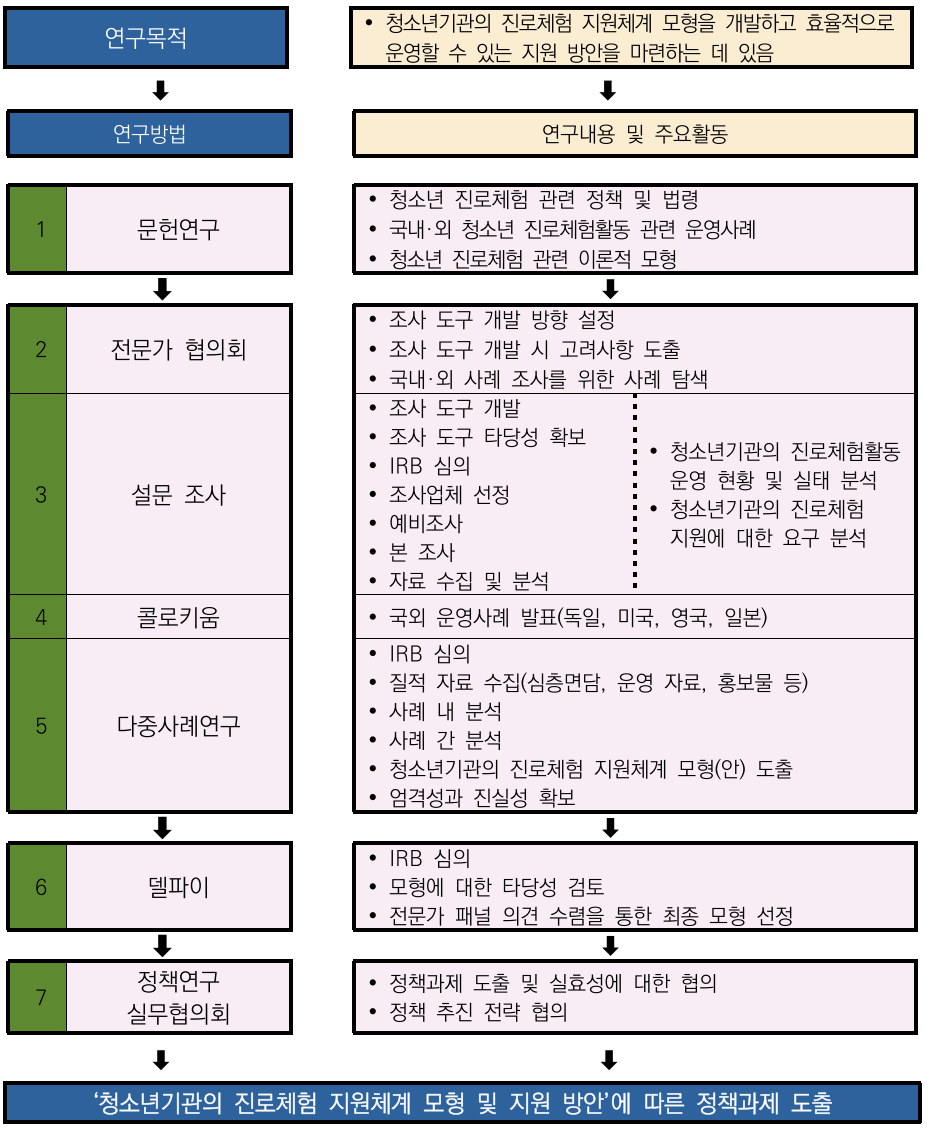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추진 체계도

제Ⅱ장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 분석
2.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 기관의 역할 탐색
3.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모형 탐색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 분석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을 살펴보고,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과 진로교육지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1) 진로체험활동의 개념

최근 진로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김기헌, 맹영임, 2011;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7)되고 있다. 동시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효과성에 대한 정책 보고서가 출간되는 등(김승보, 주휘정, 김영식, 2016; 주휘정, 김영식, 양정승, 2017) 진로체험활동의 실질적, 효율적 정착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로교육이론 차원에서 진로체험활동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김현철 외, 2017).

진로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 체험학습 형태로 이루어지

* 이 장의 1절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 분석'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역할 탐색'은 김승보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3절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모형 탐색'은 장현진 조교수(서울교육대학교)가 집필함.

는 진로지도 프로그램'(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21)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승보 외(2016)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체험·실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진로개발이나 진로성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태도·사고방식을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북돋는 학습 기법(혹은 형태)'(김승보 외, 2016: 19-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자율적 자기발전의 방향과 내용이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율적 동기부여의 측면이 간과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체험활동의 실질적 유형 및 범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실제 「진로교육법」 [법률 제13336호]에서 정의하는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을 보면 현장에서 활용되는 체험활동의 유형 및 범위가 지니는 다양성을 볼 수 있다.

표 II-1. 「진로교육법」 상 진로체험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진로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진로상담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 활동 포함)
진로체험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진로정보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

* 출처: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 법률 제13336호).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직업현장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진로교육법」 상에서는 직업현장체험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진로교육 역시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제공하는 직업체험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서도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수련활동, 교류 활동 및 문화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들 활동의 구체적 정의에서는 '체험활동'으로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7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진로체험 매뉴얼」을 살펴보면 진로교육이 더욱더 직업영역에 국한된 것을 볼 수 있다. 매뉴얼은 진로체험을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14)으로 정의하고, 진로체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2.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 내용

구분	내용
현장직업체험형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 * 1일(6시간 이상) 운영
강연·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대화)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 대화형은 30명 내외 학생 기준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p.14. 〈표〉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위의 분류에서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은 '직업현장 기반'의 체험활동으로,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강연·대화형은 '일 기반'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진로체험 매뉴얼」 상의 진로체험활동은 일 기반 혹은 직업현장 기반의 체험활동이라는 좁은 범주에서 정의되고 있다(김승보 외, 2016). 다만 진로교육 상 진로체험활동이 특정 직업선택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미래의 여러 직업 선택(비직업 선택 포함)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 및 개인의 미래상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승보 외(2016)는 진로체험활동의 개념과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II-3. 진로체험활동의 개념과 범주

구분	내용
진로개발 체험활동 (learning for career development)	- 진로체험활동에도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활동만이 아니라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진로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와 관련된 활동이 가능해야 함.
일 기반 체험활동 (work-based learning)	- 일 체험을 반추하고 해석하며 개념화 및 경험의 확장을 일으키는 일 기반의 혹은 직업현장 기반의 체험학습이 전제될 때 일 체험은 학습활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직업현장 기반 체험활동 (job-based learning)	- 직업현장 체험활동은 어떠한 직업을 체험하는지, 일 기반 체험활동은 어떠한 일에 몰두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됨.

* 출처: 김승보 외(2016).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 연구. pp.21-26의 내용을 표로 제시함.

위의 구분에서 광의의 진로개발 체험활동을 차용할 경우 진로체험활동은 특정 직업선택을 전제로 직업 분야 업무의 숙련을 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업무적 특성을 탐색하고 직업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김승보 외, 2016). 동시에 직접적으로 직업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관련 청소년 활동 정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포함된 중앙부처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발췌하여 구성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2-1)'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구체적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2-1-1)'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학교의 체험 프로그램 수요와 수련시설, 전시관, 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개발 및 추진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2-1-4)'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지역 청소년에 대한 개별 지원서비스, 집단 지원서비스, 지역자원 조직 및 서비스, 학교 교육 활동 연계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활동의 허브(청소년센터)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

처 합동, 2018).

한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4-1)'와 관련하여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4-1-2)'이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설의 직접사업 비율을 최소화하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수퍼바이저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도 단위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허브 기능 강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각 부처 서비스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서비스와 상담복지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적용하는 혁신사업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아울러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4-2)'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4-2-1)'가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 확충을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학교-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러한 정책과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그 중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에 기반하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3) 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진로교육지원 관련 정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 관련 정책

구분	정책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2020)	3. 진로체험 활성화	3-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1-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3-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3-2-1.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4-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1-2.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출처: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3-1)'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3-1-1)'이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16.4.5.). 공공기관의 체험처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6.4.5.), 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 잡월드(고용노동부), 자연환경연수원(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시설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또한,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씨드콥', 극단 '더더더', 어썸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기업, 청년 벤처기업 등의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 활동과 진로체험활동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3-2)'와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3-2-1)' 세부과제가 있다(교육부, 2016.4.5.).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연계하여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지역 특화벨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한 바 있다(교육부, 2016.4.5.).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4-1)'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4-1-2)'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지역협의체,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또한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사업의 연계·조정 및 협조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진로교육협의회(범정부협의체)'와 지역의 진로교육 지원 및 자문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또한, 2015년 대구교육청과 SK가 진로교육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을 설립하여 13만여 명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지역협의체,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기업, 민간기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2-3)'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2-3-3)'을 세부과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에 진로탐색 및 지역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진로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또한, 교육부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활동 정보 제공 확대, 지역별 지역특화 사업을 중심의 민·관 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또한, 교육부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포함한 초·중등 창업체험교육을 학교 내·외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8.11.16.).

이러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진로교육 차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진로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와 더불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체험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메이커교육 등 진로체험 내용의 반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소결

국내에서는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과 함께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진로체험활동의 개념

과 관련하여 「진로교육법」 상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직업 현장으로 나가는 현장형 체험과 진로특강이나 진로캠프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기반형 체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직업현장체험이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또한, 2017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진로체험 매뉴얼」에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이 보다 더 직업영역에 국한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로교육 상 진로체험활동은 특정 직업선택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미래의 여러 직업 선택(비직업 선택 포함)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 및 개인의 미래상을 탐색하는 영역도 동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이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공공기관의 체험처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6.4.5.), 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 잡월드(고용노동부), 자연환경연수원(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시설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또한,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극단 '더더더', 어썸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기업, 청년 벤처기업 등의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 활동과 진로체험활동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4.5.).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지역협의체,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기업, 민간기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의 생산적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중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에 기반하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요구된다.

2.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역할 탐색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 진로지도에 있어서 진로체험활동의 의의를 살펴보고,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기관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소결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역동적인 진로체험활동 수행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다.

1)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진로체험활동의 의의

우리나라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학교 교육의 '입시 위주 교육풍토'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1]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일'을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풍토는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누려야 할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매년 조사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1)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출처: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일방적 지식 전달 및 입시 위주의 교육적 한계를 탈피하고자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체험활동 혹은 체험학습[2]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의 방과 후 학교 정책, 이명박 정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일련의 정부 시책들이 그것이다. 이들 정책은 지식전달식 혹은 입시 위주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교육으로서 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윤형한, 김승보, 정지은, 2018). 최근 교육현장에서 하브루타(Havruta) 교육이나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PBL(Project Based Learning) 등 각종 프로젝트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교육 및 수업 과정에 학생들의 실천적 참여를 위한 체험학습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학습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작 활동[3](hands-on activities)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교육학자 듀이(John Dewey)가 이야기한 '실천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에서의 실천 혹은 콜브(Kolb)가 제시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의미로 접근함이 마땅하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노작 활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록 애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대교육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는 이유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위한 경험학습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관찰, 역사적 유적지 방문, 지역사회의 자료수집, 직접 경험을 통한 현장견학, 단체활동을 통한

2)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학습'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적 콘텐츠와 관련한 사안이라기보다 행정적 측면의 이유가 강한 것으로 보임. 이 글에서는 활동과 학습을 문맥에 맞게 혼용하여 쓰고 있음.

3) 노작 활동은 공작, 원예, 요리 등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활동을 뜻하며, 노작 활동의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인내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음. 이 글에서는 노작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경험학습과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

협동심과 지도력의 배양, 규칙의 준수 등을 학습한다[4].

현재 학교 교육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체험활동 관련 정책들'이 청소년의 학습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과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노작 활동까지도 포괄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큰 프레임을 통해 이들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계기이자 촉매제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모든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학습이론(ELT: 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을 세운 콜브는 '경험의 변형을 통하여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으로서 학습을 정의[5]한 바 있다(Kolb & Fry, 1979). 여기에는 학생들이 단순한 피교육자로서 지식의 수동적 전수자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self-steering) 지식을 탐색하고 지식생산에도 참여하는 능동적 학습자 혹은 경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체험활동 관련 정책들이 학교의 정규 과정에서 청소년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실천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교혁신의 기제로서 역할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승보 외, 2016).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와 학교혁신을 위한 경험학습의 큰 프레임으로서 체험활동의 면모는 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본질적으로 경험학습이나 듀이의 '실천에 의한 학습'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교육과정 및 학교혁신의 기제로서 체험활동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이 배포한 「진로체험센터 매뉴얼」에는 진로체험활동을 '진로경험학습'을 뜻하는 'experiential learning for career development'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단순한 노작 활동의 미시적, 기술적 측면보다는,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생활인 혹은 직업인과 만남과 생활현장 혹은 업무현장에서의 폭넓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4) https://encykorea.aks.ac.kr/, 2019. 10. 1. 검색.
5) 우리 말에서 '경험'학습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을 뜻하는 체험이라는 개념에 더하여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음.

표 II-6. 진로체험활동의 유형

활동 구분	활동 내용
1. 현장직업체험형	일터(직업현장) 방문,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 수행
2.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직업관련 홍보관·기업체 등 방문, 생산 공정 등 견학활동
3. 학과체험형	특성화고·대학 방문, 실습·견학·강의를 통해 기초 지식·기술 습득
4. 진로캠프형	진로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 등 프로그램 6시간 이상 종합 운영
5. 강연·대화형	각 분야 직업인 초청, 직업과 인생에 대한 멘토링 혹은 강연 활동
6. 직업실무체험형	모의 일터에서 실제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 수행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진로체험 매뉴얼. p.5. 〈표〉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실제로, 체험활동과 결합한 진로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의 다른 체험활동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교 밖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노작 활동 중심의 다른 체험활동과는 달리, 진로 체험활동은 일 혹은 직업현장 기반의 실천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 학교 교육과정 상의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김승보 외(2016)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진로체험활동의 개념을 좁은 범주와 중간 범주, 넓은 범주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좁은 범주의 진로체험활동은 '직업현장 기반 체험학습활동(job-based experiential learning)'으로서 직업인(혹은 생활인)의 업무현장(혹은 생활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진로체험활동, ② 중간 범주의 진로체험활동은 '일 기반의 체험학습활동(work-based experiential learning)'으로서 모의 일터에서의 체험활동 및 가상현실 도구와 AR 등 증강현실과 결합한 체험활동 등을 포괄하며, 국토순례활동, 환경보호활동과 같이 직접적인 직업현장과는 차별화되는 체험활동까지 포함, ③ 넓은 범주의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개발을 위한 체험활동(experiential learning for career development)'으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활동만이 아니라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진로탐색’ 그리고 ‘진로설계 및 준비’ 등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범주의 어느 쪽을 보더라도 진로 체험활동은 미시적 노작 활동과는 다른 경험학습적 접근 및 학교 밖 세계와의 만남을 통한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활동에 배정된 공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선택교과인 ‘직업과 진로’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 공간에서 운영되는 진로체험활동 역시 단순한 진로 교과와 관련한 기술적 접근보다는 큰 프레임의 경험학습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자유학기활동 편성·운영 개요에는 ① 진로탐색 활동, ② 주제선택활동, ③ 예술·체육활동, ④ 동아리 활동 등 실천활동 중에서도 진로관련 체험활동은 학교 내 활동이 아닌 학교 밖 활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교육부, 2017.11.6.), 학교 내 진로 활동의 경우에도 단순한 노작 활동보다는 직업인 멘토링 등 경험학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정책은 경험학습의 큰 프레임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방적 지식전달 및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학교혁신 정책의 계기이자 촉매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독특한 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등을 청소년기관이라고 할 때, 청소년기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은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등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반의 활동’으로 재개념화하기

를 제안하고 있다(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131). 이는 그동안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한정'되어 사용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활동 또는 극기 훈련이나 정신교육이라는 제한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활동'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김현철 외, 2010). 〈표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수련활동, 교류 활동 및 문화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의 구체적 정의에서는 '체험활동'으로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김현철 외(2010)의 재개념화 논의는 탄력을 받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재개념화 하자는 제안은 앞 절에서 논의한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실천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및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큰 프레임으로 체험학습에 접근하는 맥락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이야말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경험'(김현철 외, 2010)으로서 청소년기관의 본질적인 임무인 것이다.

표 Ⅱ-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항

3.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6]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 간·남북 간·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의 내용을 발췌함.

6) 밑줄 및 강조는 필자가 하였음.

청소년기관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기반으로서 시설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등 광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지연, 김한별, 한도희(2016)는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험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① 청소년수련시설, ② 청소년단체, ③ 청소년지도사, ④ 각종 수련활동인증제도, 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사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임지연 외(2016)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수련관(187개소), 문화의집(233개소), 수련원(188개소), 야영장(42개소), 유스호스텔(128개소), 특화시설(9개소) 등이며,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 한국걸스카우트, MRA(한국도덕재무장운동본부), 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 등에서는 269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149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지도가 가능한 청소년지도사는 2015년 기준 38,021명이 배출되고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의한 국가 인증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3,743건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진흥사업에 의해 100여 개가 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이나 2,100개 이상의 청소년동아리활동 그리고 전국 9,249개소의 청소년 자원봉사터전과 연간 1,676,565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3,183,810명이 넘는 청소년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체험활동 자원은 곧바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직·간접 기반 인프라이다. 수련원이나 수련관에는 목공 등 '일'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스카우트의 구급활동 기능장과 같은 생활진로(lifewide career development)의 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을 청소년에 연결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지역사회의 진로체험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이나 인증제도, 동아리 활동 등도 진로체험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노하우가 담겨 있다. 비록 당장에는 이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진로체험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반의 활동'으로서(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131),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형성 그리고 삶과 미래의 탐색을 위한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활동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이들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이 곧바로 '진로'체험활동으로 구성·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자원이 진로체험활동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의 관점에서 이들 자원을 재구성하고 프로그램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원의 '진로'체험활동 전환에서 특히 강조될 부분은 청소년보다는 청소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성인 관계자들의 '진로'에 대한 관점과 시각 정립이다.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들이 참여하는 모든 체험활동 속에 '진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용해해서 인지적으로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성인 관계자들의 '진로' 요소를 구별하는 관점과 시각의 문제가 된다.

앞서 임지연 외(2016)가 정리한 청소년 진로체험의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진로' 관점의 체험활동으로 전환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재구성 및 프로그램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수련시설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은 '수련' 활동이라는 범주를 넘어, 청소년이 다양한 생활인 및 직업인과의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7], 관련 종사자들이 수련시설과 인프라를 진로체험활동의 관점에서 재구성 및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단체의 경우, 단체 고유의 성격과 활동 내용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재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7)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한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의 기능장 취득과정은 그 자체가 일 체험의 과정인 만큼 진로체험활동으로 운영하면 된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뿐 아니라 YMCA, YWCA, 적십자사, 4-H 등 많은 청소년단체는 이미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기술을 획득하고 일 체험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김희대, 2014).

셋째,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 지도역량에 진로체험활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재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사 자격과정에 '청소년 진로지도' 혹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과목을 추가하고 각 교과목에 관련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인증프로그램 전체의 진로체험활동 성격을 보다 강화하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진흥사업의 경우, 진로체험박람회 등과 연계 운영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진로탐색과 연계한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을 진로체험활동으로 재구성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이나 법적 존립의 근거와 관련되는 사안들이다. 이들 문제로부터 청소년 관련 부처와 청소년기관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 현행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갖는 한계와 정책과제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와 같은 명시적인 진로활동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진로'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청소년기본법」의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 이르러,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로서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등 15개 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진로상담'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8].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 정책에서 법적 근거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진로교육 관련 정책이 상위 법령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및 추진 동력의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당장에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진로활동' 요소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을 단편적, 일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중장기적 전망과 비전 속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체계를 갖추어가는 일이 올바른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기관 종사 인력들이 부딪히는 장애물과 정책과제이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는 청소년기관 종사 인력들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 및 연수 과정에서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공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활동 간의 공통점과 차별적 요소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로상담'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로활동을 상담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일부에 그친다. 이는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생소하거나 낯선 영역으로 남게 만든다. 청소년 활동현장에서는 이미 청소년지도자 등 인력들의 연수 과정에 진로체험활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현장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법률적 과정으로 반영하고 또한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일도 요구된다.

8) 출처: 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셋째, 청소년기관이 학교 교육과의 연계·협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정책과제이다.

청소년기관은 이미 지역사회 내에 체험활동을 위한 많은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체험활동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과거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이 학교 교육과 원활하게 연계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고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거나 일시적 결합의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학교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요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학교가 청소년기관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구성, 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여러 '체험처' 혹은 '일터'의 하나로서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많은 경우 청소년활동은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 차원의 유기적인 결합은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가 단편성과 일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관이 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총체적 허브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국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이다. 다음 절에서 소개하는 진로체험활동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전망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소결 및 시사점

앞서 제시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기관이 현장에서 보다 역동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진로체험활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은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확장된 학습생태계[9]를 구축하려는 교육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교육 정책에는 진로체험활동을 강조하는 진로교육 정책뿐 아니라 자유학기제 정책,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정책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들이 전례 없이 다양하게 논의·추진되고 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보다 넓은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정책적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적지 않은 학교가 여전히 학교-지역사회 연계 및 학교 밖 활동에 대해 소극적이고, 또 적지 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된 학습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계와 정부 소관 부처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교정책의 흐름은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허브로서 역할이 있는 청소년기관에는 위상 확보를 위한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으로서도 지역사회의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확장과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질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지역사회 연계의 핵심 매개체로서 진로체험활동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협소한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다 확장된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격려할 일이지만, 이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

9) 영국의 식물학자 탠슬리(A. G. Tansley)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생태계"라는 개념을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문·사회과학에도 적용하여, 사람 역시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론을 전개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협력 활동은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혀 왔다. 교실과 학교 안 수업 활동 중심의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학교 교육으로서는 교과서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실천을 통한 교육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육과정의 기획 및 재구조화, 수업 활동 수행 등에도 여력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resources) 확보가 교사에게는 새로운 업무 부과로 여겨질 수 있다. 비록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가교육과정[10]' 운영이 제시되더라도 학교 현실은 엄연히 높은 장벽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은 다른 체험활동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교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학교 밖 활동을 강조하고 일 혹은 직업 현장 기반의 실천적 체험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이 있다. 학교가 스스로 학교 밖의 활동을 통한 생활인(직업인)과의 접촉을 강조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의 독특한 위상은 청소년기관으로서 학교와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차원으로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이 방과후 활동이나 과외활동이 아니라, 교과연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청소년기관의 파트너십 구축은 새로운 계기로 작용한다.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적용 등을 청소년기관이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관으로서도 이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접 수탁·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허브로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협력하고 청소년의

10)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IV.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해 교육청 수준(38쪽)에서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를 제시하고 있음.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학습 및 체험활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기구이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실천학습이나 경험학습과 같은 상황과 맥락 중심의 동태적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지역사회 자원 접근 및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 접근에 있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유용성은 지역사회의 여타 기구들과도 차별화된다. 전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별 자원 분포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맥락에 따라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합의와 협력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조이지만, 이는 단점보다는 지역의 학습자원 접근성을 강화하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더 크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특성상 청소년시설·기관이 직접 수탁·운영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밀접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속성이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활동의 파트너로서 청소년기관을 원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간이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점도 청소년기관의 기회 요인이 된다. 그리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인프라는 청소년기관으로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프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 통로를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청소년기관은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및 학교와의 소통에 한 차원 더 들어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모형 탐색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성(모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주체

(기관, 단체 등), 주체들 간의 역할과 역학관계, 환경이나 고려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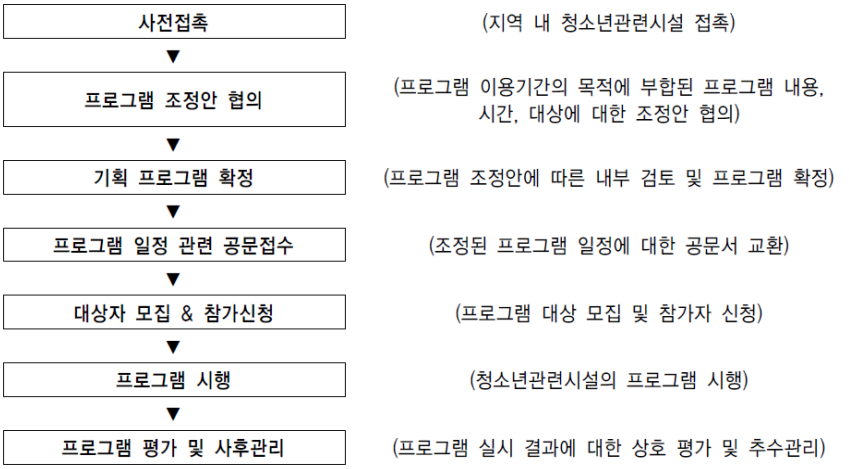
1) 지역사회 및 청소년기관 중심 진로체험 운영 지원 모형

(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11)]

김기헌과 맹영임(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활발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제언들 가운데 본 연구에 관련되는 방안으로 첫 번째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두 번째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교육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청소년 관련 시설은 이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프로그램 사용 취지와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은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활용도가 높지만, 학교와 같이 진로체험 연계가 필요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김기헌, 맹영임, 2011). 따라서 학교와 같은 이용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취지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과 연계 이용 기관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그림 Ⅱ-1]과 같은 프로그램 조정 및 연계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김기헌, 맹영임, 2011).

11) 출처: 김기헌, 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출처: 김기헌, 맹영임(2011: 82).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그림 Ⅱ-1. 청소년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조정·연계 절차

김기헌과 맹영임(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조정·연계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별로 적합한 대상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과도한 변경은 당초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진로 관련 체험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후 프로그램 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체험방식을 택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연수는 약 2주간의 6학점(90시간) 집중 이수 방식의 연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수 과목은 진로진학지도개론, 진로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진로직업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기획 및 운영, 진로포트

폴리오 지도 등으로 구성하였다(김기헌, 맹영임, 2011).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수요처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이 기획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수요처인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계와 조율을 통해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확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수준과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체험의 방식은 가급적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직접적이거나 실무적인 진로체험이 되면 수요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자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진로체험 운영 관련 주체들에게 연수를 제공하여, 서로의 소속 기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연계 진로체험을 실시할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핵심 주체가 되고,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된다. 이들이 각자 서로의 목적,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특징, 진로체험의 주요 운영 방식과 교육적인 지향점 등에 대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로체험 역량과 각 기관 및 주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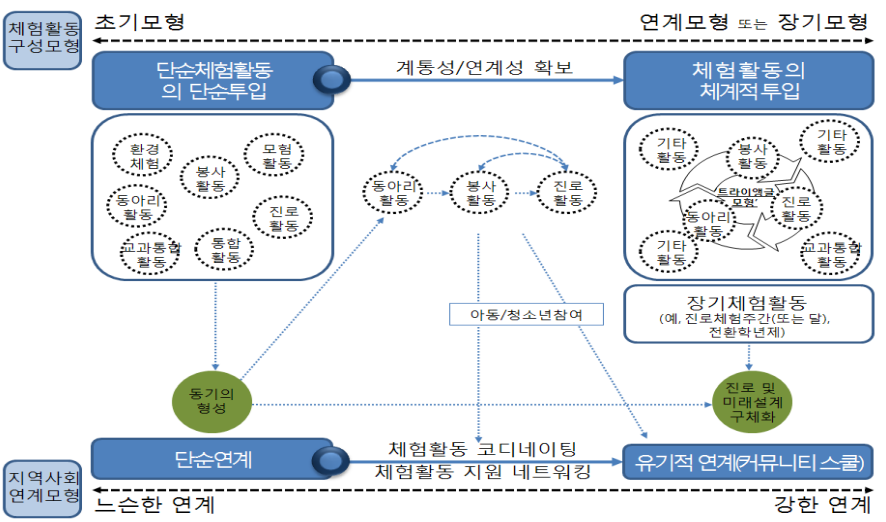
(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12)]

이기봉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운영모형을 연구하였다. 가설적 모형으로 지역

12) 출처: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

사회 연계의 시기에 따라서 초기모형에서 장기모형까지 제시하였다. 또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초기모형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운영모형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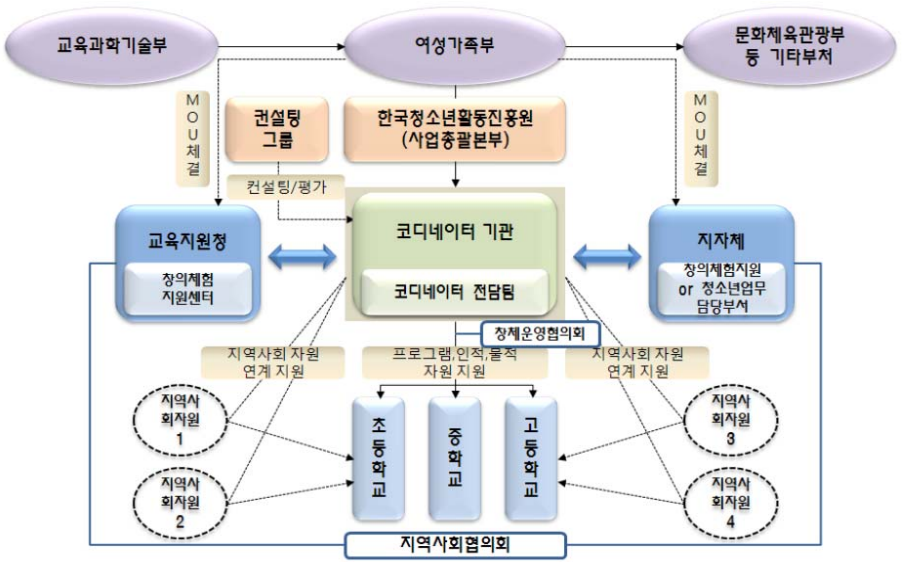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의 초기모형은 네 가지 체험활동 영역별로 단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느슨한 모델이다. 이후 학생의 개별적 체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학급 단위보다는 동아리 활동, 그룹 봉사활동, 이후 진로활동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아리 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이 연계된 체험을 '트라이앵글 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장기모형 또는 연계모형이 되면서 지역사회 자원이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커뮤니티 스쿨 모형이 될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체험활동은 자원의 연계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위계성 및 연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이기봉 외, 2011).



* 출처: 이기봉 외(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 p.22.

그림 II-2. 창의적 체험활동의 가설적 운영 모형(초기모형-장기모형)

한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초기모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당초의 모형을 수정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모형을 [그림 Ⅱ-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 모형의 핵심적인 구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총괄본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고 각 지역의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 및 조정한다. 둘째, 코디네이터 평가할 전문가 그룹을 둔다. 셋째,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로는 교과부와 여가부, 그리고 관련 다른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디네이터 기관 아래에는 코디네이터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 기관과 학교 간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기 및 수시로 협의를 통해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이기봉 외, 2011).



* 출처: 이기봉 외(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p.140.

그림 Ⅱ-3. 지역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기봉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활동 기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양성 및 역량개발을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 및 컨설팅 그룹이 필요하다. 셋째, 체험활동의 운영 방식 또한 다양한 형태(유형)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농산어촌형, 저소득층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교사와 코디네이터의 소진을 막기 위하여 코디네이터 팀제 운영 등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기봉 외(2011)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모습은 초기 단계부터 진로체험이 활성화되는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진로체험 관련 연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향후 이러한 연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체계 모델과 보다 더 활성화된 시기의 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시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기관을 통해 진로체험을 연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진로체험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성할 때 수직적 및 수평적인 연계기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 청소년기관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원, 각 지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이 고려될 수 있고, 교육청이나 학교 측면에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단위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상하 관계와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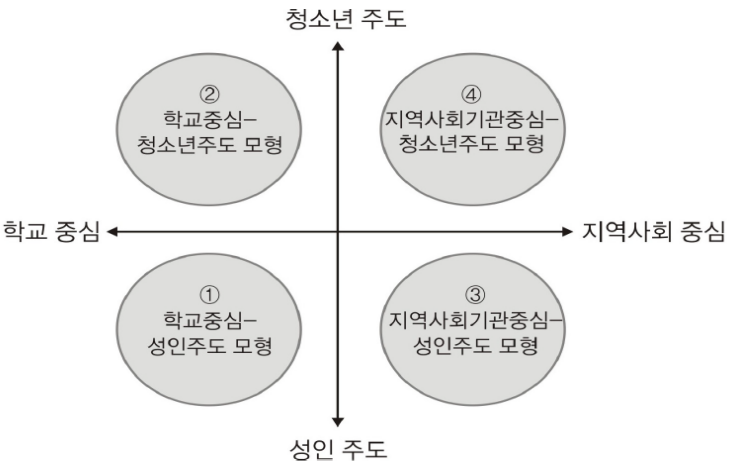
넷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이들이 팀을 구성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로체험의 운영 방식 또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체계 구축이 될 수 있다. 진로체험의 경우 현장견학형, 멘토강연형, 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 대상에 따라 농산어촌형, 저소득층형 등의 새로운 형태들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진로체험 운영 형태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체계의 경우에도 여러 진로체험 유형에 모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I[13)]

김현철 외(2012)의 연구는 앞서 이기봉 외(2011) 연구의 후속 2차 년도 연구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을 보다 정교화 및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을 청소년주도-성인 주도, 학교 중심-지역사회 중심에 따라 2×2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네 가지 모형의 운영이 가능하나, 결국 모형 4(지역사회 기관 중심-청소년 주도 모형)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13) 출처: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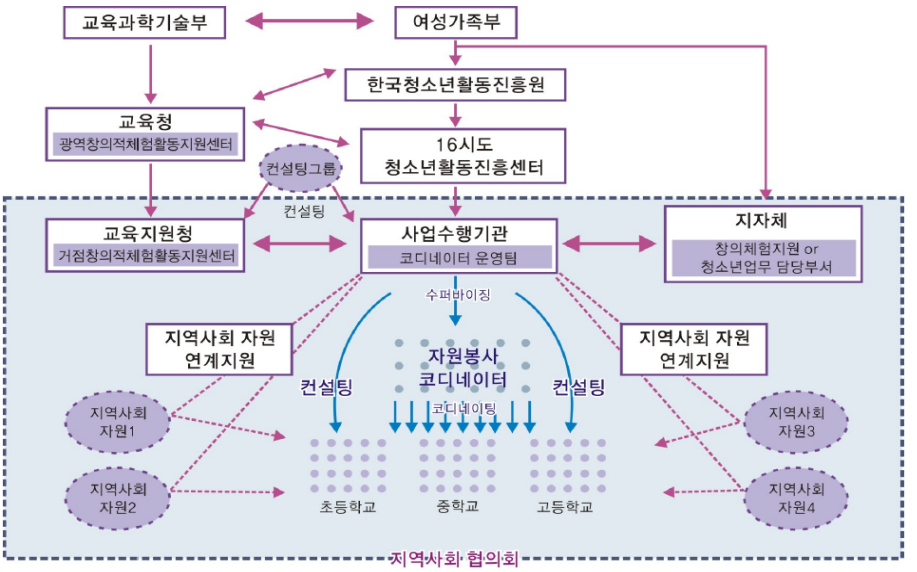


* 출처: 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p.180.

그림 II-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매트릭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기관 중심-청소년 주도 모형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기관이 지역의 체험활동 자원을 연계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고, 교사나 지도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운영하는 모델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모델이 추진되는 구체적인 운영 체제는 [그림 Ⅱ-5]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김현철 외, 2012).

지역사회 운영 모형의 특징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MOU를 토대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강화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와 청소년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전제는 청소년의 수요와 요구에 기반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김현철 외, 2012).



* 출처: 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Ⅱ. p.184.

그림 Ⅱ-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본 연구와 관련하여 김현철 외(2012)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지역사회 중심성의 정도와 청소년의 주도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 유형이 마련될 수 있다. 어떠한 모형이거나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구동 가능한 형태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주도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시도별 센터뿐만 아니라 각 수준에서 연계된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의 유기적인 단계별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의 체험 운영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관장에 해당하므로 청소년기관은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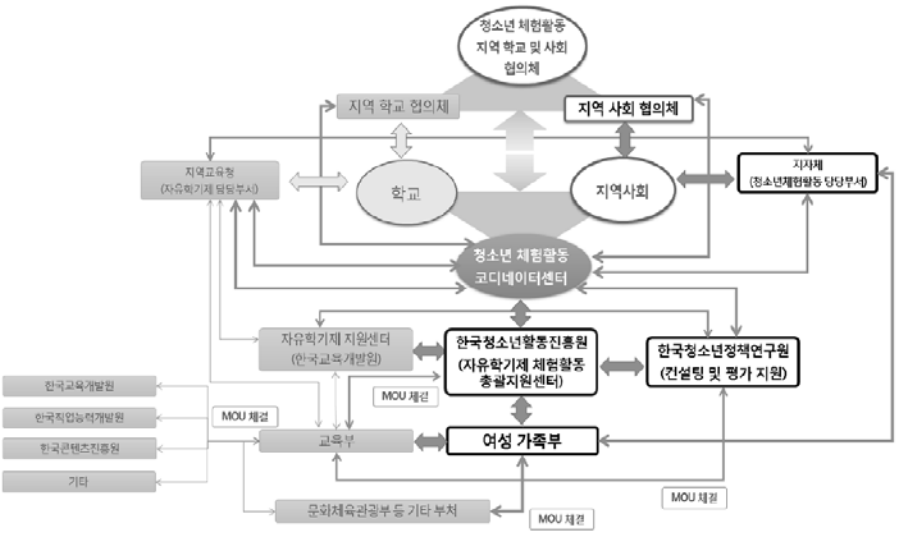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수행 코디네이팅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활동 체험을 운영하는 지역별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일하는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담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연수 제공 등이 필요하다.

(4)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14)]

성은모(2013)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잘 되기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바람직한 연계 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 체험 코디네이팅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조직과 지역사회조직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그림 Ⅱ-6]과 같은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총괄 지원센터로 중심에 두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컨설팅 및 평가 지원, 그리고 그 외에 교육부 사이드의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연계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체험활동의 지역 단위 시스템은 지역학교 협의체와 지역사회 협의체가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팅 센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및 연계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이기봉 외(2011), 김현철 외(2012)의 모형과 그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14) 출처: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 출처: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p.110.

그림 II-6.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시스템 모형의 틀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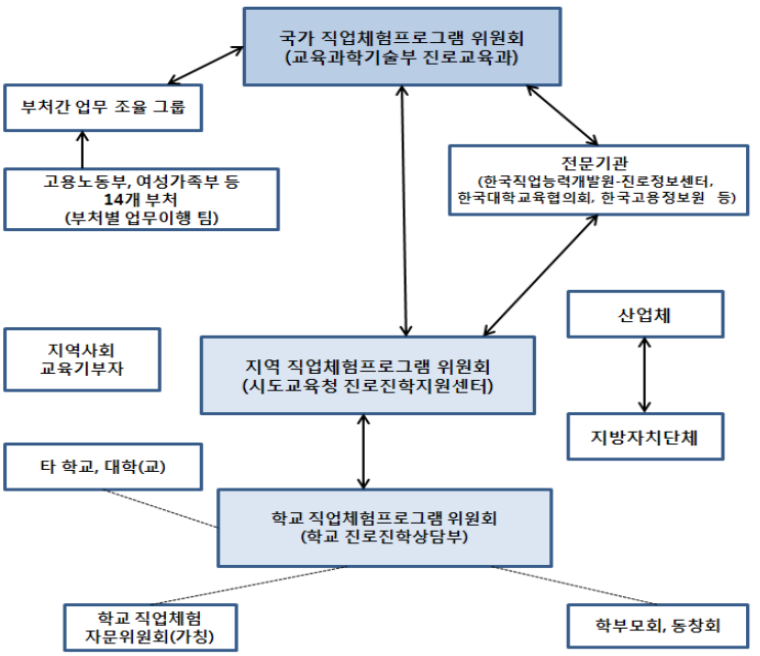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 진로체험의 지역 단위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가 기본이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학교 및 사회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코디네이팅 센터가 중요한 실무적 역할을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 코디네이팅센터(안)는 수직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하고, 수평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2) 교육청 및 학교 중심 운영 지원 모형

(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15]

정윤경, 김나라, 서유정(2011)의 연구에서는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여러 다양한 직업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담당 인력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가, 지역, 학교 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지역-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의 핵심으로서 국가와 지역 수준의 직업체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그림 Ⅱ-7]의 방안을 제언하였다(정윤경 외, 2011).



* 출처: 정윤경 외(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p.247.

그림 Ⅱ-7.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직업체험 협의체 구성(안)

15) 출처: 정윤경, 김나라, 서유정(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차원에서 지역 직업체험 프로그램 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 단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직적 체제 운영 모델을 제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협력을 제언하였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산업체, 지자체, 대학, 지역 교육기부자 등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 동창회 등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정윤경 외, 2011).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진로체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수직적인 교육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소년 진로체험 수요처인 학교의 수직적인 행정 전달체계를 고려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담당 인력의 진로체험 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차원의 인력도 있겠고, 청소년기관 및 진로체험처의 인력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내실 있는 진로체험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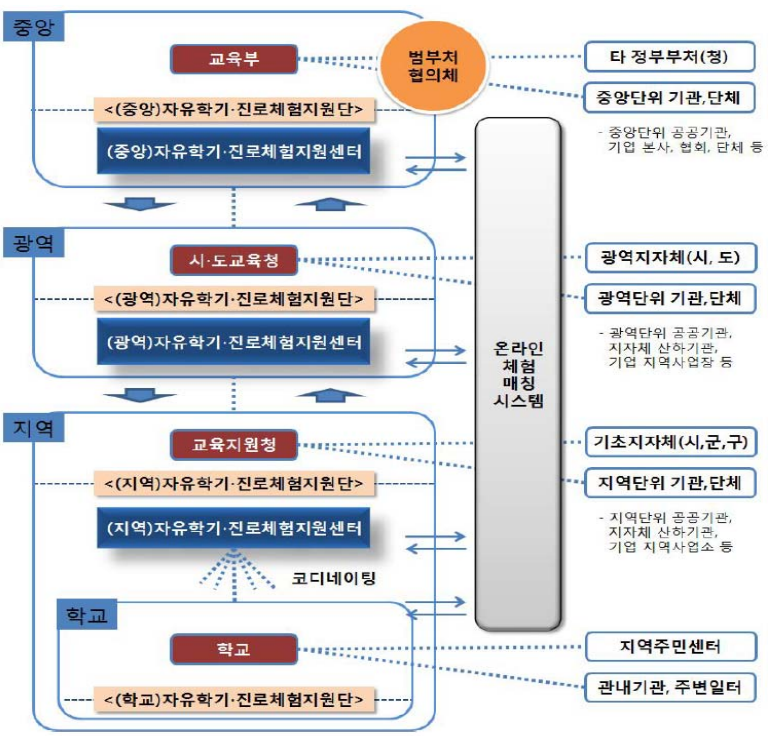
셋째,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학교 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공고화도 고려될 수 있다. 정기적·수시적인 진로체험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국가부터 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협의를 위한 기구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공식화 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장현진 외, 2014)[16)]

장현진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체험 인프라 확충 지원체계를 모식도로

16) 출처: 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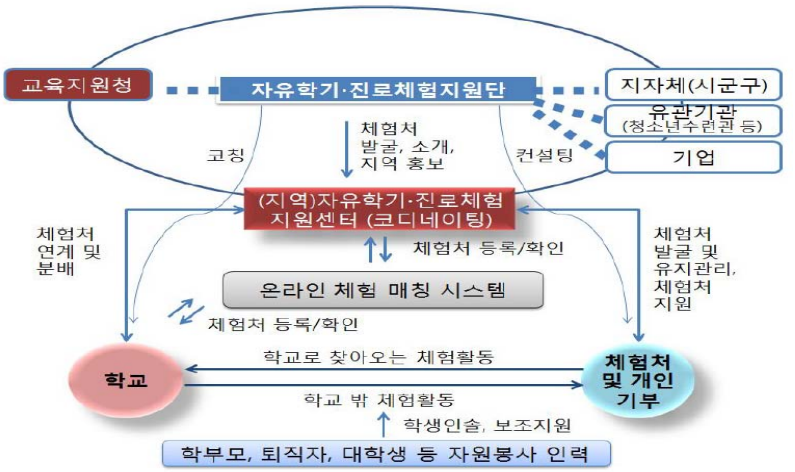
제시하였다. 이는 맨 하위의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위의 교육지원청(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연결되는 수직적인 네트워킹 체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나 지역 단위 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위학교는 지역주민센터와 관내기관 및 주변 일터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여기서도 온라인 체험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험처 컨텍 및 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처 차원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출처: 장현진 외(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p.200.

그림 II-8.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확충 지원 체계(안)

여기서 지역 단위 체험 지원체계는 [그림 Ⅱ-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가 코디네이팅 기능을 하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될 수 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이 연계되는 협의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학교로 찾아오는 활동부터 학교 밖 체험활동까지 다양할 수 있다. 학부모, 퇴직자,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출처: 장현진 외(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p.205.

그림 Ⅱ-9. 지역 단위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단위 체험 지원 시스템에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중요한 코디네이팅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센터가 있고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의 체험처 발굴 및 학교와의 연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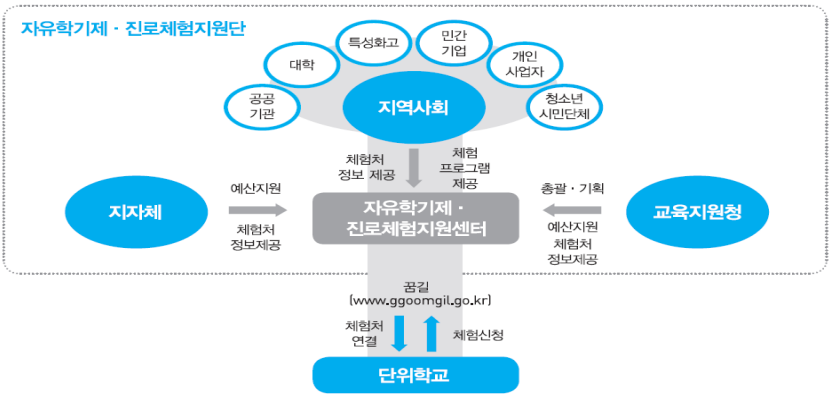
둘째, 온라인 체험매칭 시스템으로서 꿈길 사이트의 활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꿈길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체험처를 등록하고,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해

서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향후 더욱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국가 간의 수직적인 행정 및 명령체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 광역, 지역, 그리고 단위학교를 주요한 핵심 축으로 하는 수직적인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17)]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의 연구에서는 일선 학교를 위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여기서 [그림 Ⅱ-10]과 같은 진로체험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학교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야하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진로체험 매뉴얼. p.3.

그림 Ⅱ-10. 진로체험 운영체계

17)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진로체험 매뉴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용

이 지원단의 실무기구로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이 모형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설정함에 따라 중간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곳이 자유학기제·진로체험센터인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처는 꿈길(www.ggoomgil.go.kr)이라는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에 등록하고, 단위학교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진로체험처 연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아울러 진로체험 매뉴얼의 최근 개정판(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에서는 [그림 Ⅱ-11]과 같이 '진로체험 생태계'라는 용어를 신규 도입하면서 체험처와 학교 간의 연계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지원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용. p.15.

그림 Ⅱ-11. 진로체험 운영체계-진로체험 생태계

이 운영체계 모형에서는 지역 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체험처와 학교를 연계하는 핵심적인 코디네이팅 기관으로 보았으며, 꿈길이라는 전산망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간의 진로교육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서로 간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상위 단계의 체제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교육지원청 단위(시·군·구 단위)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구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216개 설치된 것이 청소년 진로체험에 중요한 코디네이터이자 동시에 자원이 될 수 있다. 각 센터는 예산과 운영 방식 및 설치 장소 등이 각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에 연계하고,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 이 센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사이트로서 '꿈길'이 있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등록 및 연계 전산 플랫폼으로서 꿈길은 이제 학교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향후 시스템화된 진로체험 신청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고려할 부분이다.

셋째, 진로체험 지원체제를 진로체험을 위한 일종의 생태계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3) 시사점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한 선행연구(김기헌, 맹영임, 2011; 이기봉 외, 2011; 김현철 외, 2012; 성은모, 2013)와 학교를 중심으로 접근한 선행연구(정윤경 외, 2011; 장현진 외, 2014;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가 있다. 하지만, 주체나 역할,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시사점을 청소년 대상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측면과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대상의 진로체험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청소년의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활동의 깊이나 수준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확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수요처인 학교에서는 교실 내에서 하기 어려운 직접적이거나 실제적인 진로체험을 원한다. 또 학생들이 보다 직접적이거나 실제적인 진로체험을 하였을 때 만족도나 진로에 대한 의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청소년의 주도성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높이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추진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여건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처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기획 및 지향점과 수요처인 학교나 학생의 진로체험 기획 및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조율하여 양측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는 진로체험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형에서부터 장기적인 모형까지 확장할 수 있다. 진로체험의 초기 단계에는 지역사회 연계 정도가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지역사회 연계가 공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원체계 모형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체험의 주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원체계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진로체험이 현장견학형, 멘토강연형, 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등 다양하고,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서 농산어촌형, 취약계층형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진로체험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체계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한 지원체계 모형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는 '지역 단위'의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의 기본 단위는 지역이 되므로 지역 내 학교와 청소년기관, 관련 진로체험처 등이 서로 협력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진로체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은 수직적 및 수평적인 연계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 측면에서는 상위로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수직적인 체계가 있고, 청소년기관의 경우에도 지역의 청소년기관 및 단체와 그 상위 기관 및 부처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수평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기관,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 여러 단위학교, 유관 기관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체험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 및 연계하는 사업 수행 핵심 코디네이팅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각 지역 단위에 설치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구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센터들은 예산구조나 거버넌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교육지원청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청소년기관에 위탁 운영 등의 형태들이다. 어떠한 운영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청소년기관이 있는 경우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팅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진로체험 지원체계에 있어서 온라인 진로체험 전산망 사이트의 활용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이미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으로써 체험처를 등록하고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전산 시스템인 '꿈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이 사이트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진로체험 운영 및 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진로체험 지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들이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진로체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Ⅲ장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1.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2. 국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3. 결론 및 제언

Ⅲ

국내·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

1.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현황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자료 수집을 위해 꿈길 누리집에 탑재된 진로체험지원센터 안내 자료(2019년 4월 기준)를 통해 진로체험센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꿈길 누리집에 제시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17개 시·도에 216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표 Ⅲ-1. 17개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구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강원	18
경기	28
경남	18
경북	23
광주	2

* 이 장의 1절 국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및 현황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의 1) 미국 사례는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2) 독일 사례는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3) 영국 사례는 손병덕 교수(총신대학교), 4) 일본 사례는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3절 결론 및 제언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구분	진로체험지원센터 수
대구	4
대전	5
부산	16
서울	25
세종	1
울산	5
인천	9
전남	22
전북	14
제주	2
충남	14
충북	10
합계	216

이 중 꿈길 자료의 주소, 누리집, 비고 정보를 바탕으로 웹 검색을 통해 청소년기관 여부를 파악하였다. 청소년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포털(www.youthnet.or.kr)의 청소년시설 검색을 통해 기관 유형(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현황

번호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지역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1	청소년 문화의집	강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속초센터
2		강원	정선교육지원청	강원정선센터
3		경기	가평교육지원청	경기가평센터
4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센터
5		경북	안동교육지원청	경북안동센터
6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산구센터
7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사하구센터
8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센터

번호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지역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9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서대문센터
10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서울마포센터
11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울산동구센터
12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울산북구센터
13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울산중구센터
14		전남	곡성교육지원청	전남곡성센터
15		전남	완도교육지원청	전남완도센터
16		충남	금산교육지원청	충남금산센터
17		충북	보은교육지원청	충북보은센터
18	청소년 수련관	강원	영월교육지원청	강원영월센터
19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강원춘천센터
20		강원	삼척교육지원청	강원삼척센터
21		강원	홍천교육지원청	강원홍천센터
22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경기광명센터
23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경기김포센터
24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경기수원센터
25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경기시흥센터
26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경기안산센터
27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의왕센터
28		경기	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의정부센터
29		경기	이천교육지원청	경기이천센터
30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경기평택센터
31		경기	포천교육지원청	경기포천센터
32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군포센터
33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대덕센터
34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구센터
35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구센터
36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유성센터
37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기장군센터
38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부산북구센터
39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부산사상구센터
40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부산영도구센터

번호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지역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41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강남센터
42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강북센터
43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광진센터
44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은평센터
45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중구센터
46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센터
47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연수센터
48		충남	보령교육지원청	충남보령센터
49		충남	서천교육지원청	충남서천센터
50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충남아산센터
51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충남천안센터
52		충남	홍성교육지원청	충남홍성센터
53	청소년수련원	전남	보성교육지원청	전남보성센터
54		충남	청양교육지원청	충남청양센터
55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충북충주센터
56	유스호스텔	전남	해남교육지원청	전남해남센터
57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전북익산시센터
58	특화시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용산센터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58개소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35개소, 청소년수련원 3개소, 문화의집 17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특화시설 1개소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지역별 진로체험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시 지역으로 서울은 청소년수련관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특화시설 1개소 총 9개소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청소년수련관 4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청소년수련관 4개소, 울산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인천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 광주는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 지역으로 경기는 청소년수련관 1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로 총 14개소

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은 청소년수련관 4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은 청소년수련관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로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전북은 유스호스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위탁 운영은 서울이 9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다음은 강원 6개소, 부산 5개소, 부산 및 대전, 전남 4개소, 울산 3개소, 인천 및 충북 2개소, 광주, 경북, 전북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각 시설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2항에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된다[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동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이 있다.

앞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체험센터의 위탁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많이 진로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중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1) 청소년수련관

① 진해청소년수련관

진해청소년수련관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 직업체험 기회를 얻도록 새로운 직업군의 발견과 함께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체험과 관련된 활동은 '청소년 진로 찾기'와 창원시 진해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현장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청진기(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

청진기(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은 진로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각종 검사를 수행하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창원시 관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 흥미 검사 및 심리검사, 진로 목표 설정 프로그램, 각종 직업체험,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18].

18) 출처: www.iyouth.or.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창원시진해마을학교

창원시진해마을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이 본격화되었지만 정보 탐색이나 견학 수준의 활동일 뿐 청소년이 실제적, 구체적으로 직업을 체험할 기회가 드물다는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현장직업체험'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마을을 학습의 장으로 삼는 현장중심, 마을 선생님을 멘토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직접적인 경험 중심의 현장체험형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 전면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활동을 덕산·여좌마을 주민이 청소년의 직업선생님이 되어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직업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창원시진해마을학교 추진사업은 2016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4년 동안 사업 정착 및 확충을 통해 사업성과를 냈다.



* 출처: http://school.iyouth.or.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1. 창원시 진해 마을학교 추진 체계도

마을학교 사업 장소는 덕산·여좌동 일대 마을학교 선생님의 가게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 일정은 학교 단체는 연간 2~3회 운영할 수 있고 개별 참여는 격주 또는 매월 상시 체험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마을학교는 덕산 마을학교와 여좌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교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교사협의체는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의 소통의 장으로 마을학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 및 방향에 대한 논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역할을 진행하는 마을교사 네트워크이다.

진해마을학교 선생님의 신청 자격은 덕산·여좌동 관내에 사업처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분야는 음식점, 관공서, 안경점, 애견샵, 피부샵, 학원, 법률 분야,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 의료 분야, 옷가게, 카페, 베이커리점, 인테리어점, 세탁소, 사진관, 신문사, 약국, 인쇄소, 가구점, 자동차 대리점, 세무서, 정비소 등 각종 자영업 분야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상시 체험처 및 연간 2~3회의 참여 횟수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 사업 성과로써 참가 청소년의 만족도는 97.3%로 나타났고, 참가한 마을학교 선생님(직업체험처)의 전체 만족도는 8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가 92.1%, '청소년에게 적절성'이 94.7%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도움 정도'는 89.5%로 나타났고, '추후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89.5%가 참가하고 싶다는 응답이 나타났다(진해청소년수련관 브로슈어 참고).

구체적인 마을학교 운영 성과로는 첫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이 가까운 마을 안에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가 연대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마을이 '인성교육이 장'이 되었다. 둘째, 멘토들은 청소년에 대해 '무서운 중학생'에서 '정말 착하고, 알아서 잘 하더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멘토 활동을 통한 본인 직업에 대한 가치 및 철학을 확인하였으며 직업현장이 교육의 장으로써 인식이 변화되었다. 셋째, 지역사회는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대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입소문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장으로 진로와 직업체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진해청소년수련관 브로슈어 참고).

② 광명시청소년수련관(광명진로지원센터)

광명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지원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 진로직업체험 지원,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요구 조사를 상·하반기 진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설문 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체험처 발굴 및 광명시 청소년시설과 초·중·고등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교사, 학부모 진로지원단, 마을 직업체험처, 직업인 멘토 등의 인적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탐색, 설계 및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주는 마을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맞춤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마을연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19].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진로직업체험박람회, 현장직업체험, 특수전문직 진로직업체험, 소소한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개인 및 단체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설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4차 산업 부스 운영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진로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19) https://career.gmyouth.org/subpage/index/352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자유학년제 연계 현장직업체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8시간(4회기)동안 광명시 관내 현장 직업체험처를 방문하여 현장직업체험을 제공한다.

특수전문직종 진로직업체험은 학교와 연계하여 개인 및 단체 청소년에게 폐자원으로 만든 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체험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광명동굴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소소한 박람회는 관내 청소년(14~16세) 1,380명 및 학부모 진로지원단 1·2기 19명을 대상으로 1차 박람회는 오월의 난장 진로직업체험부스 4개를 운영(30분씩 5회 진행)하여 일러스트디자이너, 곤충설계컨설턴트, 특수분장사, 원예치료사 등의 진로직업체험을 경험하고, 2차 박람회는 진로 특강 및 15개의 진로직업체험부스를 운영(50분씩 2회 진행)하고 있다.

㉡ 맞춤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맞춤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현장직업체험 'KBS', 직업인 멘토 특강, 학교맞춤형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자유학년제 연계 현장직업체험 'KBS'는 14~19세의 청소년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KBS 인재개발원(수원)을 방문하여 초·중·고등학교 KBS 현장직업체험 진행, 방송국 견학 및 멘토 강의를 통한 방송 관련 직업체험, TV/라디오스튜디오 제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직업인 멘토 특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현직 직업 종사자가 직접 들려주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직업정보를 통해 직업별 직업 세계 및 희망 직업실현과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맞춤형 진로체험은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4회기) 동안 청소년의 유형별 맞춤 지원으로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마을연계 프로그램

마을연계프로그램으로 체험처 및 멘토, 진로지원단, 학부모 진로지원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처 발굴은 상시 이루어지며 지역 내 기업체, 관공서, 병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명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관내 직업체험장에서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진로직업체험단 운영, 워크숍, 위촉식, 간담회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체험장&멘토 기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진로지원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우수 직업체험처 및 멘토를 발굴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삶과 멘티·멘토 간의 원활한 접촉을 유도하여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학부모 진로지원단은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시 사전교육-현장인솔-사후교육의 단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광명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진로직업 탐색의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 청소년문화의집

① 서대문구 홍은문화의집(서대문구진로직업지원센터)

서대문구진로직업지원센터 사업은 크게 학교연계 사업과 개인 진로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20].

㉠ 학교연계 사업

학교연계 사업은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직업실무체험, 자유학기활동, 행복진

20) http://myway1318.or.kr/main/sub/bbs.php?code=sc_21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로콘서트, 진로박람회, 양성평등 진로교육, 찾아가는 대학학과 탐방, 초등 진로탐색, 고등 진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직업체험(청진기)은 관내 중학교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장에서의 직업체험을 통해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설계하는 체험이며, 학교와 협력한 직업체험 일터 발굴 및 멘토 교육, 일터 사후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업실무체험은 모의일터에서 전문직업인이 진로 탐색 과정을 소개하고,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직업의 이해를 높이는 체험이며 학기 중 2시간 동안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활동은 교과 과정 중 정기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 나눔교육 등의 주제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진로콘서트는 진로정보, 비전을 기반으로 진로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주제 강연 및 멘토링, 전문가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박람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총 14개 중학교에서 2,394명(청소년 2,064명, 성인 33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하여 104개 진로직업체험부스(선전예약 56개, 자유체험 48개)를 운영하였다. 조사 대상의 전체적인 만족도 평균은 4.02로 높았으며, 지도사의 전문성이 4.24로 가장 높고, 체험활동시설 및 장비 적절성이 4.14, 행사장소 적합성이 4.11, 체험활동 내용 여부(흥미, 유익)가 4.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성평등 진로교육은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2시간 동안 직업세계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 모두가 평등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및 직업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대학학과 탐방은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2시간 동안 대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한 대학 및 학과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초등 진로탐색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학교에서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로탐색활동이며, 고등 진로지원은

연중 120분 동안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목표 및 진로계획이 필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맞는 진로지원을 통하여 관심 있는 직업 및 학과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개인진로체험

개인진로체험에서는 진로동아리, 인증프로그램, 토요진로체험, 방학진로체험, 진로설계지원,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제과제빵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과정을 통해 '재능기부'에 대해 배우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는 봉사동아리 모임이다.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로 대학학과 및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7~8월에 운영되며 방식은 (1단계) 탐색 및 설계 → (2~3단계) 실행 → (4단계) 종결로 이루어지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1회) 설계 및 탐색 - 진로검사 및 진로설계, (2회) 실행 - 대학학과 탐색 및 대학생활 가상설계, (3회) 실행 - 직업인과의 만남 및 직업체험, (4회) 종결 - 진로 로드맵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요진로체험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제공하며 주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진로설계지원은 연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3시간 동안 1:1 또는 1:다수의 맞춤형 진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주도적인 진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흥미, 적성

분야가 뚜렷한 청소년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게 탐색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해 1:1 또는 1:다수로 대학생,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추진하여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로상담은 연중 120분 동안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상담 전문 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청소년수련원

① 김포청소년수련원

2016년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수련활동과 진로활동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가치관과 진로계획을 수집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사회성함양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21].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360명의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활동 유형은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활동 내용은 진로특강, 직업체험, 문화선택, 아웃도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2].

21)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22)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table>
<tr><th colspan="2">1일차</th><th>시 간</th><th colspan="3">2일차</th></tr>
<tr><td colspan="2" rowspan="3">학교출발</td><td>07:00</td><td colspan="3">기상 / 세면 / 숙소정리</td></tr>
<tr><td>08:00</td><td colspan="3">아침식사</td></tr>
<tr><td>09:00</td><td>1모둠</td><td>2모둠</td><td>3모둠</td></tr>
<tr><td colspan="2" rowspan="2">도착</td><td>10:00</td><td colspan="3">외부강사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찾아서』
- 인생로드맵 작성
- 진로계획수립</td></tr>
<tr><td>11:00</td><td colspan="3">소감문작성/퇴소식</td></tr>
<tr><td colspan="2">점심식사</td><td>12:00</td><td colspan="3">점심식사</td></tr>
<tr><td colspan="2" rowspan="3">입소식
생활안내 / 숙소배정</td><td>13:00</td><td colspan="3">※ 문화선택활동
(사전협의)</td></tr>
<tr><td>14:00</td><td colspan="3" rowspan="2">1. 핸드벨
2. 난타
3. 모둠북
4. 수화</td></tr>
<tr><td>15:00</td></tr>
<tr><td rowspan="2">외부강사 프로그램
『직업체험 1~10』</td><td rowspan="2">문화선택활동</td><td>16:00</td><td colspan="3" rowspan="2">5. 복싱로빅
6. 탭댄스
7. 글로우스틱
8. 응원댄스</td></tr>
<tr><td>17:00</td></tr>
<tr><td colspan="2">저녁식사 및 휴식</td><td>18:00</td><td colspan="3">※ 직업체험활동(사전협의)</td></tr>
<tr><td rowspan="2">문화선택활동</td><td rowspan="2">외부강사 프로그램
『직업체험 1~10』</td><td>19:00</td><td>1. 가수</td><td colspan="2">2. 방송작가</td></tr>
<tr><td>20:00</td><td>3. 메이크업</td><td colspan="2">4. 아나운서</td></tr>
<tr><td colspan="2" rowspan="2">숙소정리 및 점호</td><td>21:00</td><td>5. 뮤지컬 배우</td><td colspan="2">6. 마술사</td></tr>
<tr><td>22:00</td><td>7. 통역사</td><td colspan="2">8. CEO</td></tr>
<tr><td colspan="2" rowspan="6">취 침</td><td>23:00</td><td>9. 축구선수</td><td colspan="2">10. 승무원</td></tr>
<tr><td rowspan="5">24:00</td><td>11. 케리커쳐</td><td colspan="2">12. 작곡가</td></tr>
<tr><td>13. 방송인</td><td colspan="2">14. 특수 분장사</td></tr>
<tr><td>15. 무술감독</td><td colspan="2">16. 바텐더</td></tr>
<tr><td>17.영상 디자이너</td><td colspan="2">18. 패션 디자이너</td></tr>
<tr><td>19. 호텔리어</td><td colspan="2">20. 기자</td></tr>
</table>

* 문화선택활동은 8종 활동 중 학교에서 선정한 4종 활동을 진행
* 직업체험활동은 20개 직업 중 10개 직업을 학교에서 선정하여 선정된 직업체험을 진행하며, 전체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문화선택활동과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며, 직업별 18명씩 10개 모둠을 나누어 진행
* 출처: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2. 김포청소년수련원 1박 2일 진로캠프 기본형 프로그램 일정표

<table>
<tr><th>1일차</th><th>시 간</th><th colspan="5">2일차</th><th colspan="3">3일차</th></tr>
<tr><td rowspan="2">학교출발</td><td>07:00</td><td colspan="5">기상/세면/숙소정리</td><td colspan="3"></td></tr>
<tr><td>08:00</td><td colspan="5">아침식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도착</td><td>09:00</td><td rowspan="2">외부강사
프로그램
「직업체험
1~10」</td><td colspan="3">아웃도어</td><td>1모둠</td><td>2모둠</td><td>3모둠</td></tr>
<tr><td>10:00</td><td rowspan="2">집라인</td><td rowspan="2">챌린지</td><td rowspan="2">암벽</td><td colspan="3" rowspan="2">외부강사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찾아서」
- 인생로드맵 작성
- 진로계획수립</td></tr>
<tr><td>11:00</td></tr>
<tr><td rowspan="2">점심식사</td><td>12:00</td><td colspan="5" rowspan="2">점심식사 및 휴식</td><td colspan="3">소감문작성/퇴소식</td></tr>
<tr><td>13:00</td><td colspan="3">점심식사</td></tr>
<tr><td rowspan="2">입소식
생활안내 / 숙소배정</td><td>14:00</td><td colspan="3">아웃도어</td><td rowspan="3">외부강사
프로그램
「직업체험
1~10」</td><td rowspan="4" colspan="3">* 문화선택활동(사전협의)
1. 핸드벨
2. 난타
3. 모둠북
4. 수화
5. 복싱로빅
6. 탭댄스
7. 글로우스틱
8. 응원댄스

* 아웃도어활동(사전협의)
1. 집라인
2. 챌린지하이코스
3. 인공암벽</td></tr>
<tr><td>1모둠</td><td>2모둠</td><td>3모둠</td><td>15:00</td><td>집라인</td><td>챌린지</td><td>암벽</td></tr>
<tr><td colspan="3" rowspan="2">외부강사 프로그램
「진로나침반」
- 애니어그램 프로파일링
- 유형별 모둠활동
- 모둠별 발표, 진로이해</td><td>16:00</td><td colspan="5">「문화선택활동」</td></tr>
<tr><td>17:00</td><td colspan="5" rowspan="2">저녁식사 및 휴식</td></tr>
<tr><td colspan="3">저녁식사 및 휴식</td><td>18:00</td><td colspan="3">* 직업체험활동(사전협의)</td></tr>
<tr><td colspan="3" rowspan="3">「문화선택활동」</td><td rowspan="2">19:00</td><td colspan="5" rowspan="3">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
문화선택활동 발표</td><td>1. 가수</td><td>2. 방송작가</td></tr>
<tr><td>3. 메이크업</td><td>4. 아나운서</td></tr>
<tr><td>20:00</td><td>5. 뮤지컬 배우</td><td>6. 마술사</td></tr>
<tr><td colspan="3">숙소정리 및 점호</td><td>21:00</td><td colspan="5">숙소정리 및 점호</td><td>7. 통역사</td><td>8. CEO</td></tr>
<tr><td colspan="3" rowspan="3">취 침</td><td>22:00</td><td colspan="5" rowspan="3">취 침</td><td>9. 축구선수</td><td>10. 승무원</td></tr>
<tr><td>23:00</td><td>11. 케리커쳐</td><td>12. 작곡가</td></tr>
<tr><td>24:00</td><td>13. 방송인</td><td>14. 특수 분장사</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5"></td><td>15. 무술감독</td><td>16. 바텐더</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5"></td><td>17.영상 디자이너</td><td>18. 패션 디자이너</td></tr>
<tr><td colspan="3"></td><td></td><td colspan="5"></td><td>9. 호텔리어</td><td>20. 기자</td></tr>
</table>

* 외부강사 프로그램(진로나침반, 새로운 나를 찾아서)은 360명 기준 120명씩 3개 모둠으로 진행
* 직업체험활동은 20개 직업 중 10개 직업을 학교에서 선정하여 선정된 직업체험을 진행하며, 전체인원(360명)을 반(180명)으로 나누어 아웃도어활동과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며, 직업별 18명씩 10개 소규모 모둠을 나누어 진행
* 문화선택활동은 총 8종 중 학교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프로그램 수 변동 가능
* 출처: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3. 김포청소년수련원 2박 3일 진로캠프 기본형 프로그램 일정표

프로그램	인원	분 류	내 용	비 고
진로나침반	360	진로탐색활동	1. 올바른 진로적성탐색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보기 2. 진단검사 프로파일링 사례분석 3. 검사프로파일링	외부강사
새로운 나를 찾아서	360	진로탐색활동	1. 새로운 나를 찾아서 2. 미래설계의 동기부여와 미래 직업탐색	외부강사

* 1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6개 모둠으로 나누어 동시 운영.
* 출처: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4. 김포청소년수련원 진로캠프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 프로그램(20종)	체험인원	체험시간	비 고
생명과학자, 뷰티미용사, 경호원, 연극배우, 문화재복원사	360명	150분 체험	외부선임
응급처치사, 운동선수, 프로게이머,연예인, 프로그래머 (변경가능)			

* 직업체험 20종 중 10종 선택
* 출처: http://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5. 김포청소년수련원 직업체험활동

3) 소결

국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현황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꿈길누리집에 제시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17개 시·도에 21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58개소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35개소, 청소년수련원 3개소, 문화의집 17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특화시설 1개소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위탁 운영은 서울이 9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다음은 강원 6개소, 부산 5개소, 부산 및 대전, 전남 4개소, 울산 3개소, 인천 및 충북 2개소, 광주, 경북, 전북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사례를 살펴보았다.

진해청소년수련관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새로운 직업군 발견과 함께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체험과 관련된 활동은 청소년 진로 찾기와 창원시 진해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현장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광명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진로직업체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지원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 진로직업체험 지원,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요구 조사를 상·하반기 진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마다 설문 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체험처 발굴 및 광명시 청소년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교사, 학부모 진로지원단, 마을직업체험처, 직업인 멘토 등의 인적자원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탐색, 설계 및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주는 마을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청소년수련관은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 및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진로직업지원센터 사업은 크게 학교연계사업과 개인진로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교연계사업은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직업실무체험, 자유학기활동, 행복진로콘서트, 진로박람회, 양성평등 진로교육, 찾아가는 대학학과 탐방, 초등 진로탐색, 고등 진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진로체험은 진로동아리, 인증프로그램, 토요진로체험, 방학진로체험, 진로설

계지원,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학교연계사업과 개인진로체험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복진로콘서트, 진로박람회 등의 대단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진로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도 돋보이는 사례이다.

김포시청소년수련원은 2016년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수련활동과 진로활동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가치관과 진로계획을 갖도록 하고, 수련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사회성 함양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23].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360명의 중·고등학생이며 활동 유형은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활동 내용은 진로특강, 직업체험, 문화선택, 아웃도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4].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의 특성과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잘 접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교육까지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융합형 진로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진로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형 개발,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진로교육 차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과 진로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와 더불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체험교육, 기업가정신교육, 메이커교육 등의 진로체험 내용 반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청소년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진로교육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진로교육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관계부처

23) 출처: http://www.fgy.or.kr/gpyc/PageLink.do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24) 출처: http://www.fgy.or.kr/gpyc/PageLink.do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합동, 2018). 다만 청소년기관은 이미 지역사회 내에 많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연계 방식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교육부(학교)는 청소년기관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상정하기보다는, 여타 체험처 혹은 일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기관의 '교육기부'를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여러 '체험처' 혹은 '일터'의 하나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 나아가 청소년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인력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과정에 청소년들의 진로활동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과정에서는 상담의 여러 분야 중 한 요소로 취급되어 진로체험활동이 생소한 분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진로체험활동의 관점과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검토 역시 요구된다.

2. 국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및 현황

1) 미국

(1) 서론

미국에서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제도와 지원체계의 동향과 그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제도적 발전의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역사와 교육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미국 청소년들의 진로 진입과 관련한 흐름은 크게 1950년대의 '생애조정(life adjustment)운동'으로부터 1990년대의 '학교로부터 일(school to work)의 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강조를 지나 오늘날에는 '진로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변화와 발전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McFarland, 1954; Gordon, 2014).

이에 따라, 현재는 진로기술교육(CTE)이라는 이름으로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논의와 관련하여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WBL)'이라는 용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업세계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일-기반 학습(WBL)'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방법과 잡 쉐도우(job shadow), 학교기반기업(school-based enterprise)활동, 인턴십(internship), 청소년도제제도(youth apprenticeship) 등을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활동을 강화하면서 퍼킨스 법(Perkins Act) 등 관련 법령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진로기술학생단체(CTSO)와 America's Promise, Junior Achievement(JA) 등의 청소년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ACRN, 2019). 미국은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많은 법률과 정책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들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입학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규모의 종합적인 방과후 활동과 여름방학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생활 중심의 체험활동들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윤경 외, 2011).

이런 인식에서 미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현황과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사례 등을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요 수행기관, 그리고 진로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2) 미국의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대책

미국의 청소년진로체험활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71년 이후 주정부 단위에서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발전해 온 진로교육 모형과 1990년대 이후 진로체험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용어가 되고 있는 '일-기반 학습(WBL)'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진로모델과 '일-기반 학습(WBL)' 체험

① 진로모델

Jesser와 Vanier(1974)는 대표적인 진로교육모델을 학교 중심 진로교육모델, 고용자 중심 진로교육모델, 가정, 지역사회 중심 모델, 농촌 주거 모델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모델 I - 학교중심 진로교육모델(Model I: School-Based Career Model)은 학습 경험이 학습자에게 보다 적실성 있고 의미 있게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에서 학습경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점을 강조한 진로교육목표(career education objectives)와 밀접하게 관련된다(Jesser & Vanier, 1974).

모델 I에서는 그 개념적 모델로 학교중심 종합진로교육모형(School-Based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Model: CCEM)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와 상담을 크게 강조하고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델은 과목문제와 다양한 진로 개발단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참여학교와 센터는 각 학년 단위에서의 진로 인식(career awareness), 자기 인식(self-awareness), 가치관정립(appreciation & Attitude). 의사결정(decision making skill), 경제

인식(economic awareness), 기술인식과 기초역량(skill awareness & beginning competencies), 고용기술(employable skills), 그리고 교육적 인식(educational awareness) 등과 관련한 8가지 요소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Jesser & Vanier, 1974).

모델 II - 고용자 중심 진로 모델(Model II: Employer-Based Career Education Model)은 지역사회 내 기업 고용주가 직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델로서 수업전체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면서, 선택적인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업과 실제적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체 및 학교와 함께 조정하여 필요한 생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Jesser & Vanier, 1974).

이 모델의 목표는 첫째, 고용자 중심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둘째, 학업, 일반적 및 직업적 커리큘럼의 긍정적 요소들을 종합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종합하는 것, 셋째, 일의 세계에 대한 교육의 적실성을 증대하는 것, 그리고 넷째, 지역사회 참여, 특히 공적 및 사적 고용자들을 교육에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관련시킴으로써 이를 확장하는 것 등이다(Jesser & Vanier, 1974).

모델 III - 가정·지역사회 중심 모델(Model III: Home/Community-Based Model)로서 이는 18세에서 25세까지를 주 대상으로 가정을 학습의 센터로 활용하여 진로 선택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선택하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열망을 규명하고, 자신의 능력, 경험 및 동기에 맞는 것을 연결하도록 돕는 성인들을 지원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진로상담을 위해서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와 지역사회에 있는 진로 클리닉(clinics) 등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Jesser & Vanier, 1974).

모델 IV - 농촌 주거 모델(Model IV: Rural Residential Model)은 필요한 취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가족들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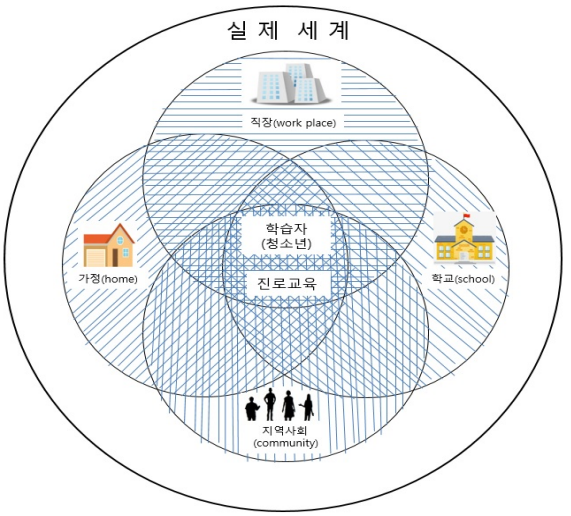
경제발전과 가족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모델의 프로그램은 인터뷰, 개인 자료, 흥미, 필요, 적성 자료 및 가용자원 등에 기반하여 각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만들어진다. 가족들은 관광, 공공서비스, 보건 등의 직업적 분야에서의 직업 인식, 직업 탐색 및 직업 준비 등을 통하여 나아가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재정관리, 식량 계획 및 준비, 가족계획과 돌봄, 보건 교육, 신체적 운동 등과 같은 가족 활동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훈련이 실시된다(Jesser & Vanier, 1974).

미국의 네 가지 진로교육 모델은 오늘날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그 특징의 구체적인 상황과 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준거틀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중심 진로교육 모델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인식, 중학교는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진로준비 등으로 연속적으로 진로지도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고용자 중심 진로모델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통해 '일 기반 학습(WBL)' 체험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가정·지역사회 중심 모델은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성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직업교육을 강조하며, 농촌 주거 모델은 취약한 교육환경에 있는 농촌 청소년의 진로교육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Greeehaus & Callanan, 2006).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진로교육 모델은 진로교육의 전달을 위한 여러 대안적 가정들을 조사하고 시험하며 다양한 가정들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실제로는 진로교육의 개념이 발전되면서 나타난 일부 프로그램들은 커리큘럼의 모든 과목에 진로교육 개념을 통합하고자 했으며, 수많은 개념만큼이나 수많은 모델이 각 주와 지방정부, 교육기관 등에서 제시되었다(Jesser & Vanier, 1974). 대부분의 모델은 진로교육이 전체 교육체제 속으로 통합되는 절차와 시스템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 어떤 모델도 모든 상황에 맞는 대답을 모두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오리건(Oregon)주의 경우, 학습자들이 초·중·고 및 성인에 이르는 전반적 교육과정을 통해 점차 진로선택의 폭을 확장해나가는 규칙적 피라미드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오하이오(Ohio)주는 교육과정의 연속체(continuum) 속에서 점차 확장해가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미시간(Michigan)주의 경우는 '진로교육의 나무모델(Tree Model of Career Education)'을 통해 나무의 뿌리 부분은 진로교육의 '학교 내(in-school)'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기둥 부분은 다양한 직업을 표시하고 가지와 잎 부분은 삶의 역할(life roles)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Jesser & Vanier, 1974).

특히, 네바다(Nevada)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정부가 수직적인 구조의 모델을 개발한 것과 달리 벤 다이어그램(venn-diagram) 형태로 진로교육을 개념화한 모델을 통하여, 실제 세계(real world) 속의 학습자(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상호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네 가지 학습환경 즉, 고용현장인 직장(work place), 학교(school), 가정(home) 및 지역사회(community) 등을 동시에 포함한 바 있다(Jesser & Vanier, 1974). 이 모델은 다이어그램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앞에서 고찰한 학교중심 진로교육 모델, 고용자 중심 진로교육 모델, 가정, 지역사회 중심 모델, 농촌 주거 모델 등에도 응용 가능한 것이다.



* 출처: Jesser & Vanier, 1974, p. 15.

그림 Ⅲ-6. 네바다(Nevada)주의 진로교육 개념화 모델

②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또는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WBL)'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업세계에 연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기술과 현장기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실제 직업세계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희대, 2014). '일 기반 학습(WBL)'은 청소년들을 위한 구조화된 학습경험을 위해 고용주와 학교가 공동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인정하고 식별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이 중등교육 이후와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기술들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25]. '일-기반 학습(WBL)'은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진출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의 질과

25)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성취기준을 강화시켜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직업부문에 대해 학습하도록 직업기술교육을 확장하는 것이다(진미석, 손유미, 주용국, 2006).

교육, 훈련 및 진로 발전에서의 진로 경로(career pathways)는 중등교육과 그 후의 교육, 인력기관 및 고용자들에게 모두 끊김 없이 이어지는 연속체(seamless continuum)이다(Raelin, 1997). 따라서 진로 경로의 맥락에서 보면, '일-기반 학습(WBL)'은 교실과 일의 세계를 연결해주고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적 성과와 고용상황을 개선하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Cahill, 2016). 또한, '일-기반 학습(WBL)'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관련 과목 이수, 출석률, 졸업률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 중심(book oriented), 교사 주도(teacher-driven), 추상적 교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Bailey, Hughes, & Moore, 2003).

'일-기반 학습(WBL)'의 성공적 디자인과 실행은 교육과 기업 및 산업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기반 학습(WBL)'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산업적 기준에 맞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공동 협력하여 발생하는 학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Cahill, 2016). '일-기반 학습(WBL)'은 진로교육에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산업체,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협력 촉진을 강조한다(진미석 외, 2006). 구체적인 예로는 WBL 기회와 청소년들과의 연결, 학교 내 멘토(school site mentor)의 제공,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WBL의 지원, 교사와 산업체 멘티 대상의 연수 등의 기술지원,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있다(진미석 외, 2006).

미국의 각 주와 지방정부 등 자치단체들은 등록된 WBL 프로그램과 등록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미등록 프로그램들을 진로를 위한 탐색, 개발, 적용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모든 WBL 경험은 청소년들이 특정한 진로 경로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훈련을 관찰하고 경험하도

록 해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26].

WBL은 또한 기본적 경험에서부터 장기적이고 보다 집중적인 경험까지를 아우르고 유급 및 형식적 훈련을 포함하는 등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하는데, 인턴십(internship)과 도제(apprenticeship) 프로그램부터, 산업체 현장 방문, 잡 쉐도우(job shadow)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봉사, 진로연구 프로젝트, 학교기반 기업(SBE) 프로그램들은 진로 인식과 진로탐색 경험으로 고려된다.

나) 법령과 제도

미국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역사에서 중요한 입법은 주로 1917년에 제정된 Smith-Hughes Act를 들지만, 오늘날의 진로교육을 지지하는 유사한 입법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Gordon(2014)은 주요한 직업 관련 입법으로 1984년 이전과 그 이후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것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초 미국 교육이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교육개혁과 중등교육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특히, 1984년 Carl D. Perkins 직업기술교육법(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1984년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미국 내 진로기술교육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대부분의 주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보급을 비롯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등 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Carl D. Perkins 법들은 1990년 기술 및 응용기술 교육법(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ct of 1990) 이후, 1998년 재승인되고 2006년 Carl D. Perkins 진로기술교육향상법(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6: Perkins IV)으로 새롭게 개정되면서 책무성과 프로

26)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그램의 개선, 중등교육과 그 후의 교육과의 연결, 엄격한 학업과의 연계 및 기업과 산업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을 주요 테마(theme)로 하였다(Gordon, 2014). Perkins IV법의 목적은 진로기술교육을 받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기술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였다(이지연, 2014).

미국의 청소년 진로기술교육과 관련한 법들은 이 외에도 1994년의 '학교로부터 일 세계로의 이행 지원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STWOA)'과 1998년 '노동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및 이를 개정한 2005년의 '노동투자개정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Amendments)'이 있으며, 이 법은 2012년의 개정을 거쳐 2013년의 '2013 노동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2013)'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1년에는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기술, 교육, 과학에서의 의미 있는 수월성 증진을 위한 기회창출법(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약칭 COMPETES Act 또는 ACA)'이 제정되고 2010년 '미국 COMPETES 재승인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으로 바뀌게 되었다(Gordon, 2014).

이와 같이 진로기술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청소년들과 고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17년 Smith-Hughes Act 통과 이후, 연방정부는 직업지향적 교육의 개선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을 이끄는 연방의 입법은 점차 학생들의 욕구와 변화하는 경제 및 직장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Gordon, 2014).

한편, 미국의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주 정부차원의 정책 제도의 하나로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가제'를 들 수 있다. Perkins 법에 의해 연방이나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진로개발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North Dakota 주정부의 예를 들면, 우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주정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진로지도 상담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상담, 진로 사정(assessment), 직업정보, 학생조사 및 요구분석, 직업 소개(placement), 후속활동(follow-up), 기타 학생들의 진로발달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등의 요소들로 구성해야 한다(정윤경 외, 2011).

1992년 '직업훈련개혁개정법(Job Training Reform Amendment)'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 경제적으로 불리한 약자들에게 다양한 훈련과 고용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였으며(김희대, 2014), 고용지원, 인턴십, 교육서비스와 결합한 지역사회기반 훈련, 도제훈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Brolin, 1995).

(3) 미국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사례

가) 진로체험활동 수행기관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 교육부 등에서 진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정부의 고용서비스 기관, 정신건강 및 상담기관, 대학의 부설기관 등도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돕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진로기술교육협회(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E)가 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진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하고 입법기관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진로기술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이지연, 2014). 직업 재활,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 재향군인회, 주 정부의 장애인 고용위원회 등도 청소년의 직업체험 기회습득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김희대, 2014). 지역사회에 있는 은행, 백화점, 식품

점, 보험회사, 주유소, 대출회사 등도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직업학습활동에서 효과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진로체험은 또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도 관련되는데, 미국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조직으로는 YMCA, YWCA, 적십자사, 여성유권자연맹, 상공회의소, 4-H, 스카우트연맹, 캠프파이어 등과 같은 시민클럽 등이 있다(김희대, 2014). 로터리 클럽(Rotary Club), 키와니스(Kiwanis) 등도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젝트들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회, 병원, 요양원, 도서관 등도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에게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공공영역은 뉴욕주(New York State)의 '일-기반 학습(WBL)'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민간영역은 진로기술학생단체(carr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CTSO)와 Junior Achievement(JA)의 활동과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뉴욕주의 '일-기반 학습(WBL)' 프로그램

미국의 중등학교에서의 '일-기반 학습'의 유형은 잡 쉐도우(job shadow)에서부터, 졸업학점을 받기 위해 감독(supervision)하에 수행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뉴욕주는 4가지 유형의 공인 '일-기반 학습(WBL)'을 인정하고 있는데, 진로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각급 학교들이 '일-기반 학습(WBL)'을 수행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정부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27]. 뉴욕주의 경우, WBL 경험은 주정부에 등록된 프로그램과 미등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수 시간에 대한 근거를 학생들의 파일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구(school district)의 책임이다. 학교구는 학생들이 WBL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지역센터와 공동 협력할 수 있다[28].

27)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28)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CDOS_Credential-1에서 2019년 7월 25일에 인출.

뉴욕주(NYS)는 일종의 졸업자격 증명으로 볼 수 있는 진로개발과 직업연구(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Studies: CDOS)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진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수증명(certificate)이다. 이러한 CDOS 이수증명을 얻기 위해서, 학생은 CTE 과정과 '일-기반 학습(WBL)' 경험 중에서 2단위의 수업(216시간)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29].

뉴욕주 교육부는 네 개의 '일 기반 학습(WBL)' 프로그램을 등록하는데, 유급과 무급이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 파트너와 공동협력 속에서 자신의 진로 관심을 탐색하도록 해준다[30]. 각 프로그램들은 기업 멘토들과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탐색 인턴 프로그램(Career Exploration Internship Program: CEIP), 일반교육일경험프로그램(General Education Work Experience Program: GEWEP), 일 경험과 진로탐색 프로그램(Work Experience & Career Exploration Program: WECEP) 및 협동 진로와 기술교육 일경험 프로그램(Cooperative Career & Technical Education Work Experience Program: CO-OP) 등이 포함된다.

표 Ⅲ-3. 뉴욕주 "일-기반 학습(WBL)" 등록 프로그램 비교

	CEIP	GEWEP	WECEP	CO-OP
대상	9-12학년	16세 이상	14-15세	16세 이상
급료	무급	유급과 무급	유급	유급과 무급
졸업학점 인정시간	.5/54시간 1/108시간	.5/150시간 1/300시간 1.5/450시간 2/600시간	.5/150시간 1/300시간	.5/150시간 1/300시간 1.5/450시간 2/600시간
관련 교육	27시간/.5학점 54시간/1학점	적어도 주당 한 회기	적어도 주당 한 회기	주당 5회기

29)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urriculum-instruction/cdos-pathwayq-9-18.ose_.pd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30) http://www.p12.nysed.gov/cte/wbl/home.html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CEIP	GEWEP	WECEP	CO-OP
교실수업 여부	필수	없음	없음	없음
진로기술 개발훈련	없음	있음	있음	있음

* 출처: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p.12)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이러한 네 가지 등록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조건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성요소들을 충족해야 한다[31].

- WBL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유자격 교사나 상담지도사
- 뉴욕주 교육부(NYSED)의 등록과 승인
- 산업 자문 위원회 구성
- 적절한 일터 배치
- 일터 배치 전의 안전훈련
- 감독이 있는 현직실무 훈련
- 관련한 학교 내 교육
- 교내 및 작업장 구성요소들의 조정
- 교실연장에 대한 상호협약체결
- 학생훈련계획
- 위기의료양식
- 고용주 평가
- 학생작업페이퍼 복사본

한편, 등록된 '일-기반 학습(WBL)' 경험은 아니지만, 등록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31)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CDOScredential-att3.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학습 경험(미등록 프로그램) 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잡 쉐도우(job shadow), 지역사회서비스/자원봉사(community service/volunteering), 진로연구 프로젝트(career-focused research project), 학교기반 기업(school-based enterprise),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지역사회 중심 업무 프로그램(community-based work program)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도 앞서 언급한 등록을 위한 구성요소 중에서 '뉴욕주 교육부(NYSED)의 등록과 승인'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들은 충족해야 한다.

특히, 뉴욕주의 등록 프로그램 중 WECEP는 14-15세의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목적은 고용기술과 기본 교육역량을 재강화하고, 학생들이 수입을 얻고 학점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의 세계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00시간의 유급 또는 무급의 일 경험과 주당 한 번의 수업회기에 상응하는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32].

또한, 장애청소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 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진로 계획과 탐색 및 지역중심 WBL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청소년들은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고용되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관심을 찾고, 자신의 훈련 욕구를 평가하고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21세기 고용기술과 태도 등을 개발하도록 돕는다[33]. 한편, 미국 연방정부 노동부와 교육부에서는 주가 승인한 WBL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필수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구에서 지역중심 직업현장 프로그램을 14세 이상의 장애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34].

② 진로기술학생단체(CTSOs)

32)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33)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34)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단체로 다양한 진로기술학생단체(Care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 CTSO)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 기반 학습(WBL)'과 진로탐색 등과 관련하여 진로기술학생단체(CTSO)들이 학교에서의 학습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학생 협회로 고등학교에서 활동한다.

CTSO들은 특정한 직업분야로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리더십과 직업기술을 확장하도록 설계된 개인적, 협력적, 경쟁적 활동들을 제공한다. 어떤 CTSO들의 활동은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도 포함되며 교실 밖의 교과과정과 관련한 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회원들은 이들 단체의 모임에 참가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며, 선출직에 도전하고, 연방, 주, 지역의 워크숍, 콘퍼런스(conference), 경진대회(competition) 등에 참가한다.

또한, 학생회원들은 학교 내 협회의 재정모금 활동과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다른 진로기술교육(CTE)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멘토로 활동한다(Gordon, 2014). 연구결과들은 학생단체활동은 학생들이 각자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학생들이 직업적 분야에서 자신의 관심을 탐색하는 수단과 리더십, 사회적, 시민적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다(Threeton, 2006).

이러한 진로기술학생단체(CTOS)들 중에서도 '전미 미래의 기업지도자(Future Business Leaders of America: FBLA)', '전미 경제교육클럽엽합(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DECA)', '전미 미래 농업인 연합(Future Farmers of America: FFA)' 및 '전미 가족, 진로 지역사회 지도자 연합(Family, Career and Community Leaders of America: FCCLA)' 등은 진로체험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기 기업과 기업관련 분야(FBLA), 마케팅과 경영관리 및 기업가

정신(DECA), 농업과 농업관련 진로(FFA) 또는 가족 및 소비자학 진로(FCCLA) 등과 관련한 분야의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35]. 학생들은 콘퍼런스,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을 하고 리더십, 소통, 팀워크 및 사회화 기술 등을 함양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이러한 진로기술학생단체(CTOS)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각종 기술함양 경진대회 등에 참가하고 수상을 하게 되거나, 장학금을 받고 인턴십에 참가하는 등의 기회를 갖는다(ACRN, 2019).

③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JA)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기관으로 Junior Achievement(JA)를 들 수 있다. JA는 1919년 설립된 청소년을 교육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다[36].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금융교육, 진로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37].

Junior Achivement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직장에 관해 가르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체험활동의 한 유형인 '학교기반 기업(school-based enterprise)' 활동 외에도 한 학기 동안의 경제학 과정, 웹 기반의 기업 시뮬레이션, 직장에서 필요한 개인 간 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및 개인 재무관리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ACRN, 2019). 일반적으로는 교실 프로그램은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 및 기업운영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기반 기업(SBE) 활동, 일일 직장 경험 등으로 구성된다. 교사와 자원봉사자들

35) https://www.fbla-pbl.org/, https://www.ffa.org/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https://www.deca.org/등 참조. 각 2019년 8월 1일 인출
36) https://www.juniorachievement.org/web/ja-usa/home
37) https://www.jakorea.org/front/program/user/allprogram.do?navDepth1=1&navDepth2=1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38].

JA는 연간 약 49백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43,756개의 교실과 방과후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 교외지역, 농촌 지역 등 미국 전역의 50개주 151개 도시에서 총 106개의 지부와 전 세계 120개 주요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JA의 프로그램은 또한 다양한 전국적, 주별, 지역별 교육기준과 연계하며,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미국의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ndards)과 연계한다[39]. 한국에 있는 JA Korea는 JA Worldwide의 지부로 설립되었으며, 기업, 공공기관,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40].

나) '일-기반 학습(WBL)'과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진로체험활동은 주체와 참가자는 물론 그 방법과 내용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로체험시설견학, 강연 등은 물론 현장탐방과 실습 등이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한 진로정보자료를 활용한 진로탐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철 외, 2017; 정연순, 2012). 미국의 경우도 진로박람회(career fairs)와 필드 트립(field trips) 등의 진로탐색활동과 함께, 잡 쉐도우(job shadow), 봉사학습(service-learning), 학교기반 기업(SBE) 활동, 인턴십(internship), 청소년 도제(youth apprecticeshihp) 등의 진로체험활동(work experience options)들이 진로기술교육(CTE)과 '일-기반 학습(WBL)'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ACRN, 2019)[41].

---

38) https://www.jakorea.org/front/program/user/allprogram.do?navDepth1=1&navDepth2=1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39)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63782/JA+Scope+and+Sequence+Composite.pd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0) https://www.jakorea.org/front/jakorea/user/organization.do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1)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0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① 잡 쉐도우(job shadow)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이다. 학생들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따라서 1-8시간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 경로에 대해 배운다. STWOA법의 발효 이후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주인 기업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활동에 의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김은석, 변정현, 어윤경, 양안나, 이승구, 이나라, 김성두, 2012; 정연순, 2012). 뉴욕주의 경우 참가 학생들에게는 학점은 별도로 부여되지 않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경험은 NYS CDOS라는 졸업 증명자격에 필요한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2].

② 멘토링(mentoring)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관심진로와 유사한 일과 관련한 성인들 간의 장기적인 멘토-멘티 관계성을 갖는 것이다. 성인 멘토는 청소년의 새로운 진로 개척을 위한 영역 진입에 대해 지지하고, 안내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는 멘토가 되고자 하는 성인에 대해 배경 점검과 필요한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멘토링의 전 과정은 무보수로 진행된다[43].

③ 지역사회서비스/자원봉사활동(community service/volunteering)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은 책임감, 지역사회 개입 및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인식 등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 기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44].

---

42)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3)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4)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④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봉사학습은 교실과 서비스관련 활동의 통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지역사회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 중에서도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45].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기여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서 획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다. 청소년이 봉사학습에 참가하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하나의 학교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46].

⑤ 학교기반 기업(school-based enterprise: SBE)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 내에 학생과 교사 및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학점은 따로 없지만, 관련 교과목에 학점이 포함된다. 학교기반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내 스토어(store), 매점,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등이 있다[47]. 앞에서 언급한 진로기술학생단체(CTOS) 들과 Junior Achievement 등의 청소년기관은 이러한 학교기반 기업(SBE)을 만들어 학생들이 비용관리, 주문, 압력 속에서 일하고, 공급품을 보존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등과 같은 전반적 사업 운영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일을 주로 한다[48].

⑥ 인턴십(internships)

인턴십은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일시적인 직업경험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이다. 교실에서의 학업을 보완하는 구조화된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인턴십

45)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6)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7)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48)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참가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며 보통 2주부터 8주 동안의 정해진 기간 동안 수행된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많이 시행되며, 유급 또는 무급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49].

⑦ 협동 교육(cooperative education)

고등학교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현장실무수업과 연계하여 직업관련 교실 내 학습을 제공한다. 다른 필수 과목도 배우면서 시간제로 고용되는데 이상적으로는 본인들의 진로 선택과 관련한 직업에서 이루어지고 본인들의 직업과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교실 내 수업을 받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학교 측과 학생 그리고 학생의 부모들과 일에 대한 협정을 맺고 선택한 직업에서의 고용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훈련계획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개발한다[50].

⑧ 청소년 도제(youth apprenticeship)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은 교실 내 교육과 현장직무훈련을 조합한 것이다. 세부 훈련계획은 고용주와 청소년 간의 협의를 통해 개발한다. 도제 프로그램은 2년에서 5년까지 지속되는데, 학교 재학 중에는 1-2년 정도 참가한다. 도제 프로그램 가운데 현장직무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받는다[51].

⑨ 진로연구 프로젝트(career research project)

4학년 프로젝트(senior project)라고도 하는데, 학생들이 특정한 진로 경로에서의 한 가지 주제나 진로 관심을 연구하는 것이다. 해당 경로에서 성공적이 되는데 필요한 대학 준비와 기술 훈련에 관하여 배우는 데 있어서 안내하는 역할을

49)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50)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51)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 에서 2019년 7월 20일 인출.

한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 학점은 인정하지 않지만, 관련 교과목에 학점이 포함된다[52].

미국의 진로체험활동은 이 밖에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등을 포함하는데, 그 성격과 특징이 다르거나 유사하게 주와 지방정부별로 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고 인정받는 형태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은 '일-기반 학습'과 관련하여 실제로 학교의 진로교육과 연결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잡 쉐도우(job shadow), 학교기반 기업(SBE), 봉사학습 등의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 인정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뉴욕주의 '일-기반 학습' 관련 6가지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Ⅲ-4. 뉴욕주 '일-기반 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비교

	지역중심 일 프로그램	잡 쉐도우잉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봉사	학교기반 기업	진로연구 프로젝트	봉사학습
감독기관	학교구	학교구	학교구	학교구	학교구	학교구
대상	9-12학년 14세이상	9-12학년 14세이상	9-12학년 14세이상	9-12학년 14세이상	9-12학년 16세이상	9-12학년 14세이상
유급여부	유급과 무급	무급	무급	무급	무급	무급
졸업학점 인정여부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인정
관련 교실 수업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있음	있음	있음
진로관심 관련성	없음	없음	없음	선택가능	선택가능	없음
직업기술 개발훈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출처: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p.13)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52)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한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노동투자법(WIA)에 의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Job Corps(직업봉사단), 직업훈련파트너십(Job Training Partnership)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진로체험보다는 직접적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노동숙련성을 높이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한상근, 2014). 노동투자법에 의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은 14-21세의 저소득 청소년과 중퇴, 가출, 임시 기거, 자녀 양육 등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관련하여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Job Corps의 경우 1964년 수립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의 한 부분으로서 주로 16-24세의 저소득 및 중퇴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고용과 직업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이상봉, 2015).

다) 진로체험활동의 주요 사례

① Junior Achievement 잡 쉐도우(Job Shadow) 프로그램

Junior Achievement(JA)에서 운영하는 잡 쉐도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적 사고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은 요구가 많고 항상 변화하는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획득하고 적용하게 된다[53].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클러스터와 잠재적 직업 직책에 대해 인식하고 직책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필수요건들을 연구하는 중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직업을 구하는 데(job hunting) 필요한 네트워킹, 이력서 작성, 인터뷰 기술 등의 도구를 개발한다. 셋째, 각자의 개인적 진로준비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찾는다.

Junior Achievement(JA)에서 운영하는 잡 쉐도우 프로그램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세 개의 세션과 한 개의 잡 쉐도우 현장방

53)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4537608/JA+Job+Shadow+Program+Overview.pdf/75d32f83-3290-40af-9996-69fc462759f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문을 포함한다. 둘째, 각 세션은 평균 45분이며 적어도 3시간의 현장방문 경험을 포함한다. 셋째,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코디네이터, 학생, 교사들을 위한 자세한 세션 계획이 담겨있다. 넷째, JA 잡 쉐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자체 개발한 Kuder Navigator라는 온라인 교육 및 진로계획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시작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다섯째, 세션별로 준비된 학생친화적 자료들은 학생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JA의 학습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강조한다. 여섯째, JA 잡 쉐도우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사회과목 기준과 영어의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잘 연관된다[54].

표 Ⅲ-5. JA 잡 쉐도우 프로그램의 세션 비교

	개관	목표
세션 1 취업 전	학생들에게 JA 잡 쉐도우와 취업과 성공을 위한 7단계를 소개한다. 구체적 기술과 진로 클러스터 세부조사를 통해 진로계획에서 조사하는 기술, 흥미, 일 우선순위와 직업 전망 등 핵심 요인들에 대해 배운다.	• 기술과 흥미가 부합하는 진로 클러스터를 인식한다. • 작업시나리오에서의 각자의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 대한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증명한다.
세션 2 완벽 조합	취업과 성공을 위한 7단계를 검토하고 취업 기술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장방문에서 잡 쉐도우 참가를 위해 필요한 모의 인터뷰에 참여한다.	• 구직광고를 찾는 방법을 검토한다. • 전문 인터뷰 기술을 증명한다. • 다가올 현장방문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
세션 3 다음 단계	현장방문 이전과 도중에 배운 것을 숙고하고 감사노트 작성을 통해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한다. 다음으로 네 가지 진로 준비 도구-진로 평가, 간략한 사업소개(elevator pitch)이력서, 또는 인포그래픽 프로필(infographic profile) 중 한 개 만들기	• 현장방문 경험에 입각한 개인적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알게 된 기술을 시연한다. • 네 가지 진로준비 도구 중 적어도 한 개에 대한 프로그램 지식을 적용한다.

* 출처: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4537608/JA+Job+Shadow+Program+Overview.pdf/75d32f83-3290-40af-9996-69fc462759ff (p.1)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54)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4537608/JA+Job+Shadow+Program+Brief.pdf/4cb8c470-2562-497e-af4b-cf555b565138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한편, JA 잡 쉐도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개념과 기술들에 대한 학습을 증대시킨다[55]. 우선 개념들에는 진로 평가, 진로 클러스터, 진로계획, 간략 사업소개(elevator pitch), 인포그래픽 프로필(infographic profile), 관심분야(interest), 잡 헌팅(job hunting), 잡 인터뷰(job interview), 직업전망(job outlook), 네트워킹, 전문적 및 윤리적 행동, 이력서(resume), 스킬(skill), 감사 노트(thank you notes), 일 우선순위(work priorites)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기술(skill)들 중 데이터 분석과 응용, 기업 커뮤니케이션, 창의성과 혁신, 서면 교육,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해답 공식화하기, 행동 알기, 인터뷰하기, 구두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 정보 조직화, 정보 발표하기,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이해하기, 역할 연기(Role-play), 자기 평가, 문서작성기술(technical writing), 공동협력으로 일하기 등과 같은 것을 향상시키게 된다.

② 진로기술학생단체(CTSO) DECA의 학생기반기업 운영사례

학교기반 기업(SBE)은 학교환경에서 시장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적 운영을 말한다. 시장, 재무, 서비스산업 또는 경영관리에서 학생들이 국가교육과정기준(National Curriculum Standards)에 맞추어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실험실로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SBE는 교실에서의 수업을 재강화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기반 기업(SBE)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영속적인 입지, 모바일 Kiosk 또는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의류, 음식, 식음료, 학교 물품, 사인과 배너 등과 같은 아이템이 해당된다. 또 어떤 SBE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광고 판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을 돕는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인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번째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경영관리, 지도감독, 리더십 기술 등을 배우는

55) https://www.juniorachievement.org/web/ja-usa/home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기회를 제공한다[56].

DECA는 진로기술학생단체(CTSO)의 하나로서 주로 마케팅과 경영관리 및 기업가정신 등과 관련한 진로체험활동을 수행한다(Gordon, 2014). 학교기반기업(SBE)운영은 DECA의 주요 진로체험관련 활동으로서 프로젝트 서면제안을 통한 각 학교별 지회 수준(chapter level)과 종합시험을 통한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의 두 개의 SBE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수료 프로그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 Standards)과 21세기 고용기술을 SBE 학습 랩 환경에 맞게 강화한 것이다.

서면제안 프로젝트와 종합시험 두 개에 포함되는 기준에는 소매, 마케팅,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기업운영기준 등이 있다. 학교별 지회나 개인 증명을 받게 되면, 국제적 인정을 축적하고, 신뢰성을 제공하고, 교과과정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가치있는 교육도구로서 SBE의 적실성을 강화한다. SBE 증명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DECA의 경연이벤트와 미래의 더 높은 학습과 진로를 준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57].

DECA의 학교기반 기업(SBE) 프로그램은 교실 수업과 일 경험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SBE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교육적 활동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선택한 진로 클러스터 지식 내용과 이행실적 지표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한다. 셋째,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공동협력 및 창의성 등과 같은 21세기 기술을 개발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학생들이 더 높은 학습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한다[58].

---

56) https://www.deca.org/high-school-programs/school-based-enterprises/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57) https://www.deca.org/high-school-programs/school-based-enterprises/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58) https://www.deca.org/wp-content/uploads/2014/08/hs_sbe_Outreach_Pamphlet.pdf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③ 청소년 도제(youth apprenticeship) 프로그램 사례

도제제도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특징은 고용자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자는 현직과 교실 모두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내용을 전달하며, 문서 학습을 돕는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이는 관련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수업장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도제제도 등록 시스템은 도제들이 노동시장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양도 가능한 기술을 배우며 특정 고용자에게 한정된 기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Parton, 2017).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자는 도제를 고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일 때 고용한다. 프로그램 동안, 해당 도제청소년은 주당 며칠을 숙련된 멘토의 감독 하에 일을 하면서 배운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고등학교나 커뮤니티 대학의 수업에 참여한다. 과목은 도제청소년이 현직에서 배우는 것과 관련되며 일반적 지식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 도제들은 제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졸업 후 1년-3년 이상 일을 지속한다. 종료할 무렵, 청소년 도제들은 직무경험에 대한 기간을 채우고 대학교 학점(어떤 경우에는 전문학사를 받는다) 또는 산업체 자격증을 받는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네트워크와 시장성 있는 기술 및 직무경험을 활용하여 정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도제제도를 통해 얻은 학점을 통해 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다(Parton, 2017).

이러한 수준 높은 청소년도제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는 드물다. 미국 청소년 도제제도의 수적 부족과 다양한 특징들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따라서 또 고용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9]. 미국인들은 도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59) https://na-production.s3.amazonaws.com/documents/report.New_America.omnibus.F. 2017.08.17.pdfd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그 이유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학업과 직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Sneel, Voss, & Kline, 2017). 다음 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도제제도의 기본 특징을 비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Ⅲ-6. 미국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	등록청소년도제 프로그램	청소년도제 파트너십	CTE 도제과정
시행 주	조지아 위스콘신	북 캐롤라이나 남 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켄터키, 오하이오 워싱턴
지원사항	중개기관지원 관련 지침	관련 지침 세제 혜택 중개기관지원	중개기관지원	관련 지침 중개기관 역량지원
수준 보장	주별 프로그램 필수요건지정	등록 시스템	프로그램 필수요건 지정 및 등록 가능	등록 도제제도 연계, 필수요건 지정
산업 중점분야	제조업, 보건, 농업, 바이오테크	제조업, 서비스산업, 보건	제조업, IT, 재무 서비스	기술직 노동, 제조업
기간	1-2년	2-4년	3년	1-2년
참가규모	수천명	수백명	수백명	수백명
최소 자격증	주 자격증	기본자격증, 전문학사	최소 1개 산업의 자격증, 한 학기 학점인정	주 자격증

* 출처: Parton, 2017, p. 24.

각 주별로 도제 프로그램의 명칭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각 주별 관련기관 협의회와 같은 중개적 성격의 단체를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주별로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지정하거나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등 유사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간은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며, 중점적으로 도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산업분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농업, 보건, 서비스사업, IT와 바이오테크 등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참가규모는 각 주별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위스콘신(Wisconsin)주의 도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주 참가대상은 고등학교의 3학년과 4학년이며, 프로그램의 기간과 필수요건은 1년 또는 2년이며, 각기 현직훈련 450시간과 900시간, 교실수업은 2학기 또는 4학기 동안 고등학교나 지역 기술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주의 청소년도제 자격증을 취득하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주의 각 지역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등록된 도제 프로그램, 대학교 학점 또는 해당 산업의 자격증 등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 중점분야는 제조업, 바이오테크 분야, 농업 및 건축 분야를 포함하여 주의 진로기술교육 경로와 연결된 여러 산업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용자들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의 지역별 보조금을 보장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s)를 투자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할 수 있다. 주정부의 보조금은 지방정부 대응자금과 함께 지방의 중간매개기관(intermediaries)과 교실 수업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현지 교육 재원은 관련 교실 교육 비용을 보충할 수 있다(Parton, 2017).

(4) 소결(시사점)

다양성과 실용성에 기초를 둔 미국 사회는 주별, 지역별로 유사하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조건 및 교육적 특색 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미국 경제를 위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제도를 마련해 왔다. 최근에는 진로기술교육(CTE)과정을 운영하면서 '일-기반 학습(WBL)'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기업체 등을 연계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ray & Lewis, 2018).

이제 지금까지 서술한 미국의 청소년진로체험활동의 현황과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원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주체를 진로교육적 측면과 청소년 업무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병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수행기관은 정부의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학생단체와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뉴욕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경우 '일-기반 학습'을 활용한 제도화와 등록관리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등의 실제적인 업무를 학교 당국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과 교과목과 관련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진로체험활동의 실질적 참여증진과 연계활동 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측면에서도 일부 청소년기관들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단체, 인력, 프로그램 등의 청소년체험활동 기반이 되는 자원을 진로체험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제도 등 청소년업무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접근은 과제로 남아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진로체험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체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험중심의 진로활동을 청소년업무의 주요한 우선 과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념 정의와 운영구조에 대한 제도화 등의 '법제적 접근(a legal approach)'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3조) 등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개

념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기반 학습'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중심으로 등록 및 등록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의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 시범학교나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통한 미비점을 진로체험활동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참여청소년에 대한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한 혜택을 확대함은 물론, 기업과 산업체를 진로체험을 위한 직업현장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 대한 설비, 장비,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에게는 학점으로 연결되어 진학에 도움을 주거나 인턴제 등과 같이 취업 시에 우대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기반기업(SBE), 청소년 도제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형 진로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등의 적극적 '지역사회중심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이 요망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주정부-지방정부 등으로 연계되는 역할 분담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와 학교, 청소년기관 등은 횡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이른바 지역사회의 명칭을 앞세운 정책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청소년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산업기반과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체험활동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선도기술, 주요 생산물, 산업단지의 성과,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특성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기업과 산업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의 청소년업무(youth work)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된 가치이며 접근법이다.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중심

의 청소년업무 모델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중심 사업으로 하는 진로 우선(career-first)의 청소년기관과 단체를 발굴하고 청소년기관을 특화하는 등의 '진로 우선적 접근(career-first approach)'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진로체험 관련 기관을 보면, 진로와 관련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진로교육과 상담, 네트워킹 등을 전반적으로 맡아 하고 있으며, 한두 개로 특화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오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진로기술학생단체(CTSO)는 특정 진로영역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공동협력적, 경쟁적 경험과 활동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Junior Achievement(JA)와 같은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진로체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중에서 설립 목적과 활동내용이 진로체험에 초점을 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기존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중에서 특정한 체험활동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실익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병진적 접근, 법제적 접근, 지역중심 접근 및 진로 우선적 접근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기반 학습(WBL)'과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기반 기업(SBE), 청소년 도제(youth apprecticeship) 등은 우리나라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의 비영리기관, 각종 학교,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시설과 단체 등을 평가하는 제도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을 활용하여 해당 평가지표에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진로체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확산, 지역사회서비스나 자원봉사제도의 진로체험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인식개선과 사회 전반의 지지체제가 중요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게 개발하고, 확산함으로써 일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신들이 강점과 약점을 찾아 학업적인 배움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일 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독일

(1) 서론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1960년대 말 이래 서독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3종류의 학교 형태인 인문계 학교 김나지움(Gymnasium), 직업계 학교인 실용학교(Realschule), 직업훈련학교인 주요학교(Hauptschule)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체제가 운영되고 있었다(이민희, 2018). 1970년대부터 서독에서는 이러한 교육체제의 조기 선별 기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대두되었다. 이후 위의 세 가지 형태 학교로의 진학을 2년 늦추어 7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초등학교의 형태의 총합학교(Gesamtschule)가 추가로 등장하게 되었다[60]. 이렇게 볼 때 독일의 교육체계에 따르면 독일의 진로교육은 따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보다는 교육체계 상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미 인문계 상급학교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의 진로로 일찍부터 선별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통일 전 동독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0학년까지 일반기술교육을 받게 되는 통합학교(Einheitsschule)가 있었다(이민희, 2018). 그러나 독일의 통일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

60) 총합학교 형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다.

이었기에 이 통합학교는 통일 직후 해체되고 서독의 진로교육 체계로 일원화되게 되었다.

갑작스런 동·서독의 통일은 특히 동독지역의 교육체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지금까지 구 동독지역의 학생들은 새롭게 직면한 진로교육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서독 지역보다는 동독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직업교육에의 진로 지원에 있어 취약한 목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관련 대책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의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된다. 먼저 크게는 인문계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진로교육 방향과 직업계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진로교육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인문계 상급학교인 김나지움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보통 우리나라 학생보다 1년 더 많은 7~9년[61] 동안의 중등교육과정을 통해 진로를 더 탐색한 후, 20세에 대학의 각 학과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입학하게 된다. 직업계 진로교육은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중등교육 이수 과정으로 실용학교(Realschule)와 주요학교(Hauptschule)로 구분된다. 실용학교는 이미 19세기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부터 수공업과 공장공업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산업,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직업학교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10학년이 지나면 직업계 전문상급학교나 전문김나지움에 진학할 수 있고, 이후 고등교육과정인 전문대학교나 관리전문대학교 등에 진학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직 지식을 습득하

61) 총합학교를 졸업한 초등학생들이 인문계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7년의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 중등교육과정에 들어가 9년을 공부하게 된다.

게 된다. 주요학교도 실용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지만 실용학교에 비해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며, 이론적인 직업교육보다는 실천적 직업훈련에 더 방점을 두고 노동교육을 강조하여 진로교육이 수행된다. 교육내용도 기초 지식, 수공 숙련과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독일어, 수학, 영어, 기술공업, 가정경제, 섬유공업 등도 중점적으로 교육된다. 9학년이 지나면 독일 특유의 중세로부터의 전통적 장인과 도제 시스템으로서 직접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공부하는 이중체계(duales system)의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62]. 그러나 1960년대에 70% 정도의 높은 진학률을 보였던 주요학교는 80년대에는 30%대로 낮아지면서 이후 점차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Lenzen, 1989: 258~267)[63].

사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에 들어와 형성된 학교라는 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가 도입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정체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즉,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양질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민희, 2018). 학생 개개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필요한 일정한 전문적 자격 기능을 갖춘 후 각 직업분야에서 임금 노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은 졸업 후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위한 교육이요,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영역에 취업하기 위한 직업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에 독일의 교육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학교

62)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한 이래 이러한 독일의 도제교육 체제(Dual System)를 도입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특성화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의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63) 2018년 5월 현재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주요학교 수는 2,600개로 10년 전보다 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 학년에는 3명 중 1명이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에, 5명 중 1명이 실용학교나 총합학교에, 10명 중 1명이 주요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piegel online, 2018). https://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deutschland-zahl-der-hauptschulen-binnen-zehn-jahren-nahezu-halbiert-a-1208012.html, https://de. m.wikipedia.org/wiki/Hauptschule 2019.08.18 인출

형태를 통해 일찍부터 진로를 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향후 이들이 사회에 나아가 어떠한 직업군에 속해 일하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문계 진로교육 방향인 김나지움의 진로에서는 향후 대학 등 고등교육과정을 거쳐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관련 직업으로 나아가 주로 관리직으로 일하게 된다. 직업계 진로교육 방향 중 하나인 실용학교를 통해서는 졸업 후 자격증을 가지고 관공서나 일반기업, 은행 등 주로 각 직업 분야에 맞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주로 사무직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진로교육 방향인 주요학교는 산업현장의 최 일선에서 일하게 되는데, 현장 실습을 통해 익혀진 숙련된 경험을 통해 주로 육체노동 형태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독특한 전통적인 독일의 교육체계이자 진로교육 체계는 지금의 독일을 부흥시킨 여러 산업영역에 공급자 위치를 가지고 지속적인 기여와 발전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용은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이었다. 아래에서 서술되는 내용들은 독일 정부가 주목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대책과 진로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이다.

① 법·제도

독일에 있어서 진로교육 대책은 이미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교육 제도와 체계 안에서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기에 따로 특정한 교육적 차원의 대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러한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지원 대책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청소년이나 졸업을 못 하고 직업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로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transition)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지원 대책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그룹의 청소년들이 해당되

고 있다(Hampel, 2006: 30~31).

- 학업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
- 미 직업숙련 청소년
- 진로에 무기력한 청소년
-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실업 청소년
-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청소년
- 직업훈련 중단 청소년
- (수업)장애 청소년
- 취약계층 청소년
- 자격증 소지 취업준비 청소년
- 외국인 청소년
- 난민 청소년

이들은 모두 학교체계에서 직업교육으로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직업교육에서 취업체계로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한 대상들이다. 특히 주요학교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정보기술 사회에 직면해서 선발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주변으로 밀려나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업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과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은 독일의 사회법 3권(SGB Ⅲ[64]) 242조 1항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지원 없이 직업교육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지속하지 못했거나 혹은 제대로 마칠 수 없었던 배움이 부족한 자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직업교육에서 소외된 자들'로 정하고 있다. 또 다른 독일의 사회법 8권(SGB Ⅷ[65]) 13조 1항에는

64) Das Dritte Buch Sozialgesetzbuch은 이전의 근로지원법이 폐기되고 1998년 새롭게 제정된 '노동지원' 관련 법령이다.

65)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불리는 법으로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왔던 "청소년복지법"을 폐기하고 독일 통일 직후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거나 개인적인 결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직업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독일의 직업교육법(BBiG[66]) 68조에는 ‘직업교육의 준비는 그들의 발달 정도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배움에 장애가 있는 자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노동청은 제도적으로 2004년 직업준비 교육대책을 위한 새로운 전문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목표 그룹에는 특히 (...) 직업교육에 입학을 못했거나 지원의 확대로 직업역량이 강화되어 직업교육의 기회나 노동시장의 기회가 상승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Hampel, 2006: 31~32)

독일의 사회법 3권 제33조(직업오리엔테이션)에는 특히 중등교육과정의 졸업을 앞에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의 심화된 직업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직업교육 대책이 제도적으로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다.

- 직업결정 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 여기에는 직업선택 경쟁력 제고, 직업결정 태도의 개선, 자기평가의 개선들이 해당된다.
- 직업과 경영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심화를 위한 대책: 심화된 직업과 경영에 있어서의 실천현장 탐색, 체계적인 직업과 경영의 지식 또는 폭넓은 직업 관련 현장방문들을 위한 지원이 있게 된다.
- 적성 확정을 위한 심화 대책: 여기에서는 직업교육이나 노동을 위한 시민단체, 직업훈련 실습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평가와 강화, 적성 탐색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연방노동청은 2004년까지 중요한 직업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66) Berufsbildungsgesetz(BBiG)는 1969년에 제정된 법으로 독일의 도제교육 체계인 Duales System을 통한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준비와 지속교육, 재교육 등의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데 2005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

4개의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 먼저 TIP[67] 교과과정은 직업생활을 위협받거나 이미 직업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대책으로 이들에게 최장 3개월 동안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지원된다. 이 과정은 다른 직업교육 대책의 교과과정들과 연계되도록 "임시대책"으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기초직업교육과정은 1차 중등교육과정[68]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으로 아직 상급단계의 직업교육 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입학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의 학생들은 최장 1년 동안 다양한 직업들에 관한 실용적, 이론적 기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적 적성과 성향을 확정하게 되고, 직업교육을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질 수 있게 된다. 지원교과과정은 청소년사회사업과 청소년직업지원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정에의 입학이나 처음으로 근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여 그룹에 따라 6개월~36개월의 과정이 있게 된다. 마지막 과정은 직업적 교육기회와 편입기회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직업교육이나 일자리의 기회가 있을 시 집중적인 지원과 도움, 개인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의 대상들은 위에서 서술한 기초직업교육과정과 지원교과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 범죄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독일의 연방노동청은 2004년 이후에는 사회법 제61조(직업교육 중 생계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맞춤형 직업준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개선, 무 직업교육이나 실업을 없애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영 친화적이고 경제영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추어 고용주들의 만족

67) Testen(시험하라), Informieren(알려라), Probieren(시도하라)의 약자
68) 독일에서 1차 중등교육과정은 10학년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고, 2차 중등교육과정은 이후 3년 정도 전문성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후 원하는 학생은 상급학교인 대학교 등 고등교육과정으로 진학한다.

도를 상승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적성분석 단계에서는 2주 동안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장단점이 파악되고, 참가 청소년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는가가 확정되게 된다. 다음으로 기초단계에서는 직업교육에의 참여를 위한 능력들과 숙련정도가 도출된다. 기초단계는 적성분석 단계를 포함하여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기초단계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3개월 동안의 지원 단계를 통해 개별적인 기초숙련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직업교육이나 근로 기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도 아직 직업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직업역량의 개선을 목표로 자격과정 단계가 마련되어 있고, 기간은 개별적인 자격의 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단계적 맞춤형 지원은 결국 성공적인 직업교육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수반 대책인데, 이는 무엇보다 자격취득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고 자료의 축적이다. 즉, 이 새로운 직업교육 대책은 청소년 참가자들의 적성분석으로 시작해서 직업준비를 위한 단계적 대책들을 통과하면서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교육 지원 대책은 총 10개월을 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다(Hampel, 2006: 39-42).

독일의 사회법 3권의 제241조 이하에서는 지원이 없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학업부적응 청소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들이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직업교육지원 차원의 사회교육적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은 직업훈련에 동반하는 지원, 실습현장 밖의 기관들에서의 직업훈련, 훈련과정 지원의 세 영역으로 마련되어 있다. 먼저 직업훈련에 동반하는 지원은 현장실습을 통한 직업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언어와 교육에 있어서의 결손을 줄여나가는 대책, 전공의 실천과 이론 병행 지원 수업 및 사회교육적 동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실습현장 밖의 기관들에서의 직업훈련은 실습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외부 기관

들에서 직업훈련을 1년 동안 받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이다. 청소년이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훈련 관련 현장을 찾지 못하면 졸업시험 때까지 훈련받던 기관에서 위탁을 계속 받아 훈련이 마쳐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훈련과정 지원은 1990년대 이후 추가적인 핵심 지원 대책으로 처음 마련되었는데, 이로써 현장실습 훈련에서의 근로조건들의 근거 설정과 확정이나 새로운 직업훈련 자리를 찾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었다(Hampel, 2006: 44~45).

② 수행기관

독일의 사회법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들을 마땅히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법은 사회적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법 1권 제17조 3항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은 수요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협력적으로 보충되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관들의 협력은 사회법 3권의 제33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직업훈련-직장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직업오리엔테이션이나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자격취득, 일자리 대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최소 50% 이상의 자부담이 있을 시 정부에서 협력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공공 및 민간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이 촘촘히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③ 프로그램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mfFSFJ[69])는 2008년 9월부터 유럽사회기금(ESF[70])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동의 지원체계로부터 지원을

6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70) Europäische Sozialfonds의 약칭이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이 유럽사회기금의 재원으로 지원되었고, 자치단체의 역량중개소 위탁기관들의 재정 부담으로 참여되었는데, 2008년 8월까지 수행된 프로그램의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지원과정의 진입 경로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역량중개소(Kompetenzagenturen)'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가.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의 개요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취약 청소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을 목표로 하여 처음에는 2002년부터 모델 프로그램으로서 18개의 중개소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이니셔티브 '청소년 강화(JUGEND STÄRKEN: Ative in der Region)'[71]라는 프로젝트 사업들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부터 전국에 현재 대략 200개가 넘는 중개소들로 확장되었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의 결과가 좋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사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게 되어 지속적 사업으로 연장 시행되는 과정에 있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대책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 중립적인 지원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참가 청소년들과 합의된 지원 및 자격취득 계획에 근거한 장기적인 수요에 밀접하게 동반하게 된다. 사례 관리는 참가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함께 이들이 체계적인 사회통합과 자격취득의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사회법 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의 '취약'의 의미가 가지는 결손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도록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준비에로의 중개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역량중개소는 청소년들과 기존의 교육 및 직업교육 체계의 서비스들, 청소년사업들, 노동시장, 고용센터, 민간 기관들, 체육 및 문화 서비스들, 공공분야 서비스들

첫 번째 기간에는 6,32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이후 2013년 말까지 ESF의 지원으로 102,812,997€가 투입되었다.

71) 이니셔티브 "청소년 강화"는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취약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직업교육과 직업세계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2010년에 마련하였다. 전국적으로 이를 위해 총 1,000개가 넘는 거점이 마련되었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의 중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 서비스 영역들에서 구멍이 생기면 역량중개소들은 다양한 중개서비스들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한 전제는 자치단체 통합관리의 의미로서 지역의 밀도 있는 지속적 협력들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중개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역의 공적 청소년지원 단체들, 구직자들의 기초적인 보호, 고용중개소 그리고 참여 학교들과의 공동 작업을 제시하여야만 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하여 협력 파트너들은 역량중개소의 재정적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용의 반 이상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특히 취약 청소년들과 14세~2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로서, 예를 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무직 청소년, 비행청소년, 사회부적응 청소년, 언어장애 청소년, 학습부적응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 중독 청소년, 성격장애 청소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교 밖의 청소년시설, 기관, 단체 혹은 추천으로 인해서 역량중개소로 오게 된다. 이주배경청소년들도 역량중개소의 목표 그룹 중 하나이다.



*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sa=G&hl=ko&tbs=simg:CAQSowIJnQsJp1KNDgoalwILELCMpwgaYgpgCAMSKNQCyQfdAsoH0wLGB9AH1QLeAtAI9CLyPug_15z-WOe8-8D7xPpspnDkaMCLhxF7LWXQjFpF8W-m4t3O-727pXmWgWY4nIgCuukDQ27-0UVNVXrDTZxvve-RK7yAEDAsQjq7-CBoKCggIARIEaAdt9gwLEJ3twQkajwEKFwoFYXRsYXPapYj2AwoKCC9tLzBjcm5mCh8KDGlsbHVzdHJhdGlvbtqliPYDCwoJL20vMDFrcjhmChkKB2N1bXVsdXPapYj2AwoKCC9tLzBjc2g1ChsKCHBhcmFsbGVs2qWI9gMLCgkvbS8wMzB6Zm4KGwoIZ3JhcGhpY3PapYj2AwsKCS9tLzAyMXNkZww&q=arbeitslosigkeit+deutschland&tbm=isch&ved=2ahUKEwizgaXjt_XmAhWDad4KHY3yDyIQwg4oAHoECAgQJg&biw=1920&bih=940#imgrc=f9wYam0WLAgnqM:&spf=1578535753075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7.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200여 개의 프로그램 '역량중개소'

1, 2차 역량중개소의 수행과정에서 위의 [그림 Ⅲ-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일 전역에 소재해 있는 약 200여개소의 역량중개소들은 대략 21,000명이 넘는 취약 청소년들을 지원하였다. 이들 중 약 60% 정도의 청소년들이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거쳐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 위탁되었다. 프로그램 관리는 독일항공.우주비행센터(DLR[72]) 내 '교육연구, 사회통합, 양성평등연구' 부서의 취약지원에 대한 폭넓은

72) Deutsches Zentrum für Luft-und Raumfahrt e.V.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담당자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역량중개소는 지역 회의와 워크숍, 자격증명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는 수행 상담의 차원에서 직업교육, 고용시장 및 사회정책 전문 기관 INBAS[73]에 의해 컨설팅을 받았다. 이 외에도 사례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지원도 역량중개소 웹 어플 서버(WASKA[74])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와 함께 역량중개소를 위한 인터넷포털 www.kompetenzagenturen.de의 개통은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의 모든 참여자들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차원의 정보들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의 개별 역량중개소에 대한 소개들을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1월 11일 전국의 역량중개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미래로의 다리 : 역량중개소 - 직업과 사회에서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처음으로 함께 수도인 베를린(Berlin)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4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5개의 주제들의 분과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들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발전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단상토론에서는 지원 분야, 유럽정책, 자치단체 및 고용 공공기관과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서 토론이 개최되었다.

나.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에 대한 종합평가[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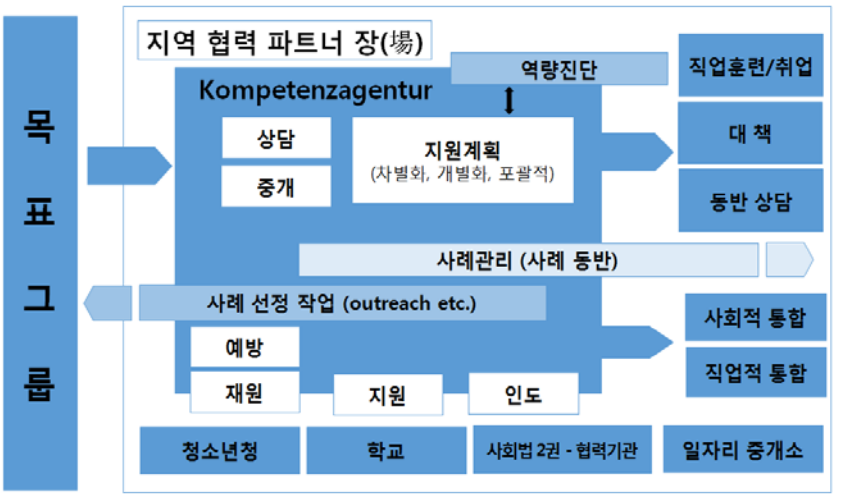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시도한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스스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역량중개소에 대한 종합평가는

73) Institut für berufliche Bildung, Arbeitsmart- und Sozialpolitik GmbH
74) Web-Application-Server für die Kompetenzagenturen
75) 이 부분의 글은 2013년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InterVal GmbH와 INBAS에게 용역을 주어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으로 수행된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요약과 결론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개의 영역에 집중하였는데, 목표 그룹에의 접근, 네트워크, 목표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통제, 사례 관리, 기회균등과 지속성이 그것들이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소개된다.

㉠ 목표 그룹에의 접근과 참여자들의 구조

유럽사회기금이 지원된 2008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의 80,676 사례 관리의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 여성이 43.6%, 남성이 56.3%로 나타났는데, 이 중 35%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9.1세로 나타났고, 참가자들의 37.2%로 실업상태였거나, 35.9%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 정도는 학교졸업장이 없었으며, 3명 중 1명은 주요학교(Hauptschule)를 졸업했거나, 상급 주요학교와 관련된 졸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10개의 문제 영역들 중에서 2개의 영역에 대부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어려움은 52.5%가 직업훈련과 노동 영역에서 있었고, 42%는 학교에서의 발전, 41.2%는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지원이 요청되는 영역은 직업준비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35%가 해당되었고, 생활고가 31.5%에 해당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시작할 당시 참여자들의 81.8%가 향후 2년 동안 바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했고, 81.3%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랐으며, 77.8%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67.4%의 참가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달성의 기대치가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기대치는 더욱 상승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n und Jugend(Hg.).(2007). Kompetenzagenturen. erreichen, halten, stärken. Berlin: Druckrei Thierbach, p.1.

그림 Ⅲ-8. 역량중개소(Kompetenzagentur)의 과업 도식

㉡ 네트워크와 협력

역량중개소가 중요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수준은 대체로 매우 높았다. 협력과정에 문제점들이 가끔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계몽작업, 집중적인 정보교환 및 관계당국과의 명확한 경계설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역량중개소들에 있어서 잡 센터(Jobcenter), JMD[76], 공공 청소년지원기관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프로젝트 시작이래로 많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현장실습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량중개소가 지역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의 내용적, 구조적 확대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협력 파트너들이 모두 인정하는 결과이다. 많은 역량중개소들은 지역 내의 지원체계에서 참가자들과 서비스제공자들의 조정 역할과 조율을 위한 중요한 접점 기능을 떠맡았고,

76) Jugendmigrationsdienst(청소년이주서비스) 기관의 약칭

이를 통해 구조화된 지역적 과정관리의 확장과 확대발전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중개소들의 1/3 정도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를 보고하였다. 역량중개소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인 잡 센터, 일자리 중개소, 공공 청소년지원 기관장들과 함께 역량중개소들은 대체로 좋은 기본조건들 아래에서 상호 협력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역량중개소들은 이들 파트너들에게 개별적으로 탄탄한 대화의 파트너들로서 소통이 아주 잘되었다. 협력들은 거의 모든 도처에서 신뢰와 명확한 과제와 관할의 위치, 목표를 위한 상호 이해와 관용으로 깊은 인상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파트너들의 측면에서 1/3 정도는 협력을 위한 자원의 준비와 참가자들의 중요한 데이터들의 지속적인 전달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관계 분석에 따르면 좋은 소통의 실천과 함께, 파트너들의 측면에서 볼 때 작업분담과 기초 자료들의 준비에 대한 특별한 협의들은 파트너들과 높은 질적 협력수준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협력 파트너들 간 접점의 형태화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자들의 입학과 퇴소에 대한 역량중개소의 정보가 잘 전달될수록 진행 과정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례 관리의 이행

역량중개소에는 2010/2011년에 평균 주당 156.2 시간의 인력들이 지원되었다. 이 중 82.1%는 고용된 근로자로서 대부분 여성이고 이주 배경을 가졌다. 이중 매년 평균 5명 정도는 자리를 떠나는데, 이는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에 좋지 않은 조건들이다. 고객들을 위한 정보나 상담 서비스나 네트워크 형성이나 사무관리 일을 제외하고 인력들의 근로시간 2/3 정도는 직접 참가청소년들의 사례 관리를 위하여 일하는 데 쓰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일의 수행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영역에 9.7%, 직업 영역에는 7.3% 정도로 해당된다.

약 3/4 정도인 73.3%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사례 관리를 제대로 이수한다.

16.5%는 도중에 하차하고, 10.2%는 이사나 질병 등으로 조기에 이수했다. 들어온 지 1년 후 이미 55.2%가 사례 관리 과정을 마쳤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동안 모든 사례 관리들은 종료된다.

사례 관리의 개념에 따르면 지원의 원칙은 이론에 근거한 좁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원 서비스들로부터의 성과 도출은 사례 관리의 수행 연계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필요 상황의 도출, 서비스들의 계획과 조정,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고 있다. 실천 현장에서는 그러나 지원수행들의 중요한 부분이 직접 역량중개소로부터 수정되거나 조정되고, 동반된다. 일의 수행에 있어서 역량중개소의 몫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경쟁력 및 개별적인 안정에 대한 지원 영역에서의 제3자가 기여하는 바는 아주 적다. 직업훈련이나 직업관련 역량에 대한 지원 대책에 있어서 역량중개소의 역할은 29%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미 네트워크 파트너들의 현존하는 수행들과 서비스들에 나머지 대부분이 의존되고 있다.

사례 관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기대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들은 사례 관리 속에서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과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들이 조직화 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지원 서비스 체계에 틈이 있다는 것은 참가청소년들의 54.1%가 처음 사례 관리에 들어왔을 때 도움이 필요했으나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례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참가청소년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역량중개소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94.7%에 달하는 거의 모든 참가자는 사례 관리의 대화 상대자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88.8%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솔직하게 대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92.5%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해준 것들이 설득력이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고, 89.7%는 자신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대화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참가청소년들 중 3/4은 자신들의 생각

에는 그들이 상담해준 대로 자신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관리의 잠재적 수행 업적은 참가자들의 설문에서 나타나는데, 응답자의 80.4%가 사례 관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76.1%는 그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으며, 79.2%는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 및 도움의 계획이 발전적으로 있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참가청소년들의 93.2%는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했으며, 87.9%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 목표달성

역량중개소 프로그램의 목표는 추가적인 사회교육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며 이들에게 직업적인 전망에 대한 기회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목표는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의 목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일치한다. 사례 관리 참가 청소년 중 2/3가 정규 과정을 이수한 것은 사례 관리의 모든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직 참가 청소년 중 43.6%가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 들 중 1/3은 이미 이 목표를 일찍 달성하였다.

참가한 청소년들 중에서 사례 관리의 시작 시기에 생활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피력했었던 청소년의 19.9%가 사례 관리가 종료할 시점에 관리자들에 따르면 완전히 삶에 대한 자립 능력이 형성되었고, 50.6% 정도도 거의 독립적 생활력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7.0%는 아주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22.5%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관리 과정을 마치며 참가자들에게서 응답된 결과를 보면 역량중개소를 통한 과정 동안 많은 긍정적인 발달들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가 청소년들 중 오직 11% 정도만 자신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 6.4%는 신뢰할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5.5%는 전에 문제가 있었던 주변 사람들과 관계 개선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다수인 60.1%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시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었고, 66.4%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피력하였다. 사례 관리 전후를 비교한 자기 효용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의 추세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 관리에의 입학과 졸업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직업훈련을 받은 숫자만큼, 실업자의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관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한 자격취득은 참가 청소년의 다수인 83.8%가 자신들의 기대와 능력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관리 과정의 졸업까지 참가 청소년의 80%가 직업훈련, 근로, 혹은 직업준비 대책의 과정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의 3/4은 역량중개소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의 기여가 얼마나 크고, 다양한 개인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측정은 참가자들을 통한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참가 청소년 중 17.9%는 역량중개소의 지원이 없었다면 자신들의 성공은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8.7%는 성공이 어려웠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26.1%는 성공이 아주 적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통한 성공의 지속성을 알아본 결과 사례 관리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참가자의 1/4 정도는 학교와 직업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 과정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직업준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대책을 새롭게 시작한 후 일자리를 얻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반 수 정도는 6개월이 지난 후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7명 중 1명 정도는 지원 대책들에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사례 관리를 통한 성공의 지속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 효과분석

높은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치는 사회적 통합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례 관리를 마친 후에도 사회적 환경에서의 문제로부터의 부담이 클수록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사례 관리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는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켰다. 즉, 참가 청소년들은 사례 관리 매니저들에게 가졌던 신뢰와 솔직히 말해서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이나,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상담해주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문제들에 함께 있어 주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도움이 컸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사례 관리의 기능적 수행들은 특히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을 강하게 만들고, 문제들을 분석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중요한 지식들을 중개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이러한 기능적 수행들과 사회적 통합의 발전 사이에는 한 강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기능적 수행들이 변화를 가져올수록 사회적 통합 영역에서의 발전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교와 직업으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연쇄효과가 형성되는데 사례 관리의 총체적인 효과가 간접적으로 사회통합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례 관리 종료 후 사회통합이 높아질수록, 학교와 직업에서의 통합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쇄효과는 역량중개소가 대체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중개영역에서의 잡 센터(Job center)나 연방노동청과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활발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역량중개소의 기여는 오히려 전초기지와 같거나 보충적인 서비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량중개소가 청소년들에게 사회통합의 지원을 통하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맞는 다음 단계의 직업훈련과 근로 지원의 서비스들을 준비하게 하거나,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비록 조사 자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관리가 학교나 직업에의 통합과정에 의미 있는 지원이었던 것임을 보여줄지라도, 최근 달성된 과정과 상태

에서의 절대적 수준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일부분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은 대부분 개별적인 출발조건, 지역적인 노동과 직업훈련 시장 혹은 현존하는 대책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의 자치단체 사례들[77]

㉠ 역량중개소 바이마르(Weimar)

바이마르는 구 동독지역의 튀링겐(Türingen) 주의 중심 도시이다. 역량중개소 바이마르는 이웃 기초자치단체 도시인 아폴다(Apolda)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2명의 여성 사례 관리자들이 역량중개소 바이마르 팀 사무소를 바이마르와 아폴다 시에 개소하였다. 이 팀은 농촌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역량중개소에의 입소를 쉽게 하기 위하여 매일 이들을 찾아나서 청소년의 집이나, 청소년클럽 또는 학교에서 만나 상담시간을 약속한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역량중개소 바이마르의 중점적인 방법이다.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상담과 동반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의 상황과 기회를 개선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역량중개소 바이마르는 지역 서비스들을 묶고, 네트워크하고, 조정한다. 중개소는 청소년이주서비스 기관이나 청소년청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잡 센터, 교육지청, 학교, 민간 청소년지원 기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의 파트너들과 네트워크하고 있다. 청소년이주서비스 기관과는 함께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협업파트너로 네트워크 하고 있다. 매달 개최되는 청소년상담 회의에서 이 두 기관은 경험들과 실제적인 수행에 따른 필요한 점들과 생각해볼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교환하고 있다.

사례를 들자면, 마이크(Maik; 가명)는 2011년 초에 역량중개소에 들어왔다.

77) 아래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mfFSFJ)에서 발행한 역량중개소 실천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BmfFSFJ.(2012). Praxisbeispiele aus den Standorten. Kompetenzagenturen. Berlin.

그는 25세로 실업 상태였으며 도움을 청했다. 2002년 그는 주요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의 인생 경력은 허점투성이였다. 약물중독의 일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갚아야만 할 빚이 있었다. 사례 관리자와의 집중적인 상담으로 다양한 필요한 지원들이 마이크에게 주어졌다. 마이크를 둘러싸고 역량중개소 바이마르의 네트워크가 가동되어서 중독 상담, 채무 상담, 직업 상담, 그리고 일자리 소개, 심리치료사, 법률상담가 등이 그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마이크가 규칙적으로 역량중개소를 방문한 이래 그는 사례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지원계획을 수행하였고, 중독과 싸우기 시작하여 이미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1년 가을 마이크는 화물차 기술자 직업훈련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극복하게 되었다. 직업훈련이 시작된 지 몇 주 안 되어서 그는 사례 관리자를 통해 사후관리가 종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례 관리에서 마이크는 적극적인 참여와 그의 삶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역량중개소 바이마르는 직업훈련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이끌었던 신뢰할만한 파트너를 만들어냈다.

㉡ 역량중개소 울름(Ulm)

울름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Württemberg) 주 튀빙겐(Tübingen) 지역의 중소도시다. 역량중개소 울름의 위탁기관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청소년지원기관으로 Die Andere Bausstelle Ulm e.V. 이다. 이 기관은 이미 1982년부터 직업과 노동에서 삶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였다. 역량중개소 울름에는 2명의 남성 사례 관리자가 일하고 있다. 역량중개소 울름은 정확한 상황진단과 상세한 역량진단을 수반한 폭넓은 상황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들로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가운데에 통합의 길로 발전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신의 역량과의 연계가 직업적,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집중적인 목표지향적 상담과 동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 고유의 개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자의 직업적, 기관

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사례 관리는 따라서 상담과 동반의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통합전략이 개발된다. 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첫 상담 후, 과거의 회상, 역량진단, 사회통합 계획, 수행 조정, 평가가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16세 우타(Uta; 가명)는 두 번의 학교 징계로 주요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2010년 1월 울름의 아웃리치(outreach) 청소년사업과의 협업에서 청소년사법지원을 거쳐 역량중개소에 입소하였다. 첫 번째 대화에서 우타는 학교에서 많은 결석과 눈에 띄는 행동으로 주요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그녀의 학교 상황은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우타는 2건의 심한 신체적 폭력으로 청소년법정에 구속을 앞두고 있었다. 우타와 함께 역량중개소는 먼저 사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우타가 위협적인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 길을 제시하였다. 우타는 역량중개소의 지원을 받아 그녀의 학교 상황을 성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례 관리 과정에서 BVJ[78]에 입학함으로써 스스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발전하였다. BVJ의 과정을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우타는 주요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좋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학업중단의 두려움 없이 계속 역량중개소 울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함께 동반하고 있다.

㉢ 역량중개소 연합 도르트문트(Dortmund)

도르트문트는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는 도르트문트 북쪽 도심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는 민간기관인 dobeq GmbH

78) Berufsvorbereitungsjahr(직업준비해)의 약칭. BVJ는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숙려제와 유사한 제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직업교육 학교에 입학시켜 직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및 GrünBau GmbH 기관과 연합을 하고 있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는 청소년 이주서비스 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도르트문트-코디네이션 '2.Chance', 모델 프로그램 'JUGEND STÄRKEN: Ative in der Region'을 수행하는 도르트문트 청소년청과 도르트문트 상담 네트워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 팀은 도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의 목표는 문제가 있는 생활환경 때문에 직업을 찾기가 어렵거나 삶을 위협하는 한계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에 있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 통합시키는 데에 있다. 생활 속에서의 개별적인 동반자 수행과 만남, 가족들의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참여와 직업적 통합의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례 관리자들을 통한 지속적인 동반과정과 이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들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는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이 중개소의 서비스와 방법은 통합적인 사례 관리, 경쟁력 있는 교수방법, 문화적 성향과 성별에 따른 서비스와 역량 중개, 부채 상담, 진단심리적 상담, 청소년지원 상담을 담당하는 지역 파트너들과의 상담 협업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11년 초 18세 도리스(Doris; 가명)는 지역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에 들어왔다. 그녀는 잡 센터 지원 대책에서 아주 유별나게 행동을 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할 위기에 있었다. 가정환경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그녀에게는 청소년의 안정적 성격형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리스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중개소에 마련되어 있는 진단 심리적 첫 상담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도리스는 신뢰 있는 대화를 통해 처음에 강하게 거부했던 병실에서의 심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치료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중개소의 청소년들과 심리치료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지원서비스와 잡 센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그녀는 먼저 청소년직업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 연극프로젝트와 8월부터 4주간의 '교류를 통한 통합"'이란 터키 방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복합서비스들과 도리스에 대한 역량중개소 도르트문트의 동반자 역할의 지원은 그녀의 긍정적인 발전과 자신의 장점에 대한 인식과 솔선수범,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 대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부터 도리스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자신의 집도 마련하고 좋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지게 되었다.

(3) 소결(시사점)

독일의 교육체계와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는 많이 다르다. 초·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학교들이 대부분 국가가 세운 시설이고, 주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 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평준화 제도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민국과 같은 심한 교육경쟁이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1386년 최초로 하이델베르그(Heidelberg)에 대학이 세워진 이래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진출한다. 독일에서 대학진학률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이도 통일 직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구동독 출신 청소년들이 신분상승을 위해 대학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진학률이 상승한 결과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세부터 있었던 도제제도가 교육문화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독일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도제제도로부터 유래한 학업과 현장실습의 병행 직업교육체계인 이원체제(duales system)를 통해 수급한다. 대한민국이 학벌사회인 반면, 독일에서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취업을 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중등교육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을 배워서 직업세계로 진출하기에 진로교육이라고 따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다만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후에 향후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고등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직업을 가질 것인지 진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 교육의 수월성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보통 인문계 상급학교인 김나지움으로 진로를 택해 향후 고등교육과정인 대학교로 진학할 목표를 가지게 된다. 대학진학보다 일찍 직업세계로 진로를 택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은 실용학교를 선택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주요학교에 입학하여 이원체계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 중에서 독일 정부가 가장 지원의 대상으로 목표를 정하는 그룹이 주요학교에 재학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거나, 졸업증명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으로 직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위에서 소개한 독일 사례의 프로그램인 '역량중개소'도 이러한 목표그룹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진로교육 문제는 진로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사회학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가치와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학벌사회 중 하나이다. 흔히 한 국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으면 경제와 교육의 관계에서 엘리트교육이 주장되고, 고용과 교육의 상황에서 학력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도래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동화, 로봇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직적인 대학서열구조의 고등교육과 함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상위에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과열된 입학경쟁, 학교폭력, 청년실업, 청소년자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그동안 급속한 국가경제발전과 개인의 부와 신분상승을 위하여 절대적인 위치와 의미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개인의 소득은 늘어났으나, 이로 인한 후유증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

적인 현상 중 하나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다. 최근 10년간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50만 명을 훨씬 넘고 있다. 이들이 다시 상급학교에 복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이들 개인의 삶이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명확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대에 부응하여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면서 맡은바 소명을 다하였다면,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국가와 개인을 위하여 교육의 본연이 찾아져야 할 때이다. 교육은 교육의 본연으로 돌아가고, 국가와 국민은 이를 위하여 성찰적 지원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독일은 독일의 역사 속에서 교육의 본연을 잘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은 일찍부터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국가는 선택된 교육과정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의 교육 환경과 학교 밖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전역에 걸쳐 200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낙오된 청소년이나, 낙오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마련된 독일 정부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각 지역의 역량중개소는 자신이 속해있는 자치단체 내의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 및 청소년 상담과 심리치료, 병원, 법조기관, 현장실습 기업 등과 촘촘히 네트워크를 이루어 한 명도 낙오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역량중개소 프로젝트는 2002년 18개로 시작한 후, 2008년부터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제도로서 17년간 수행되어 오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험난한 사회 속에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독일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

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역량중개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나 교육청 산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역량중개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역량중개소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노동청에서 긴밀히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직업교육 체계 안에서 이원체계로 직업을 실습하는 현장과 잘 연계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이다. 교육부는 늦게나마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독일의 이원체계와 같은 산학일체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학교를 특성화 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져 기업의 현장실습 줄어들고, 취업률도 낮아지자 다시 인문계고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의 고민에 빠지고 있는 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제학교와 특성화고의 지속적인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교육에의 질적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율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확대 투입하고 직업교육의 체계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한 학생도 낙오 없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안팎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은 관련 부처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직업을 준비하거나 찾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영국

(1) 서론

영국 공교육제도의 시작은 1870년 초등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 1944)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7년 개혁법(Reform Act 1867)에 따라 투표권이 확대되고,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도 높아지면서 1870년 초등교육법이 제정되어 만 5-13세 아동에 대한 교육 시행, 학교 위원회(School Board)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Armytage, 2012). 이후 1899년 교육위원회법(Board of Education Act 1899)에 의해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1902년 교육법(Education Act 1902)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세워지면서 교육행정체계가 마련되었고, 194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44)을 통해 만 5-15세 초중등교육과정이 구조화 및 의무화되면서 현 교육체계의 기초가 정립되었다(최상덕, 2005; Simon, 1986).

현재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기간인 만 5-16세를 네 단계(Key Stage)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단계(Key Stage 1)는 5-7세로 1-2학년, 2단계(Key Stage 2)는 7-11세로 3-6학년, 3단계(Key Stage 3)는 11-14세로 7-9학년, 4단계(Key Stage 4)는 14-16세로 10-11학년을 말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각 단계에 따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지리, 음악, 체육, 외국어, 예술과 디자인, 디자인과 기술, 시민교육 등 필수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이 가운데 중등교육과정인 8-13학년에 대하여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9-11학년(만 13-14세에서 15-16세)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듬해인 2013년 진로교육 의무 대상을 8학년(만 12-13세)에서부터 후

기 중등교육과정인 12-13학년(만 16-18세)까지 확대하여, 대학준비과정(sixth form)과 직업교육과정(further education)에서도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Long & Hubble, 2019). 또한, 진로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기관인 'National Careers Service(NCS)'를 2012년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관련 상담을 온라인 및 전화로 제공하도록 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학교 진로지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학교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과 하원의회 교육위원회(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는 각각 학교 진로지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 2013; Ofsted, 2013)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는데, 진로지도의 모든 책임과 역할이 개별 학교에 위임된 점, 진로지도에 관한 학교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한 점, 그로 인해 개별 학교들의 진로지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양하며 양극화된 점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진로 상담 기관인 NCS의 한계, 예를 들어 대면 상담은 성인에 대하여만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및 전화 상담만 제공하는 등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 문제도 제기되었다(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이에 교육부는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Careers Strategy: Making the Most of Everyone's Skills and Talents)를 2017년 발표하여 보다 양질의 진로지도가 학교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영국의 진로교육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청소년이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진로체험 기회를 통해 직업과 직업기술에 대한 배움과 직접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한다. 둘째, 중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청소년들이 진로지도 관련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과 지도를 받도록 한다. 셋째, 각자의

여건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즉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는 오히려 진로지도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오히려 진로 관련 상담과 조언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Mann & Percy, 2013)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가능한 진로와 직업 기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 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 '진로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 및 접근(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을 발표하여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 그리고 지켜야 할 지침,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학교들은 8-13학년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하고, 2018년 1월부터는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과정(apprenticeshi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20년 말까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을 개선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이러한 정책과 지침들을 통해 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보람 있는 진로를 발견하고 설계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 기술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관련 대책

① 법·제도

A. 법적 근거

영국의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1997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7)' 제42A조(Section 42A)와 제42B조(Section 42B) 그리고 '2008년 (잉글랜드) 학교정보법(School Information (England)

Regulations 2008)' 별표 4의 제15조(Schedule 4(15))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1997년 교육법은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제42A조를 신설함으로써 '학교는 8-13학년(만 12-13세에서 17-18세)의 모든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 이때 '독립적(independent)'이라 함은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자원을 통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및 고용주의 방문, 외부 전문가의 상담과 멘토링,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과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포함하며, 학교 교직원이 관련 훈련을 받은 경우 개인 상담이나 지도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의 멘토링이나 기업 방문 등 학교 외부자원에 따른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진로지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제4항은 진로지도가 '특정 학교나 기관, 직장 등에 편중됨 없이 공평하게(impartial) 제공되고, 학생의 이익을 최선으로(the best interests of the pupils) 고려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16-18세 학생들에 대하여는 교육 또는 연수, 견습 등의 기회에 대한 실질적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및 지도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제42B조는 '2017년 기술 및 직업교육법(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Act 2017)' 제정으로 인하여 1997년 교육법 내 추가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으로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그에 따르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은 8-13학년 학생들에게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인증된 기술교육증명(approved technical education qualifications)'은 '견습 및 기술교육원(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and Technical Education)'에 의해 인증 받은 것을 말하고(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Section A2DA), '견습과정(apprenticeship)'이라 함은 최소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수, 훈련과 임금노동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한편 2018년에는 '2008년 (잉글랜드) 학교정보법(School Information (England) Regulations 2008)' 별표(Schedule) 4에 제15조를 신설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진로지도 관련 주요 정보, 곧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 이름과 연락처,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 방법,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하고 있다.

B. 정부(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모든 학교들이 8-13학년 학생들에게 독립적 진로지도 및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진로지도에 관한 학교의 주요 정보와 정책을 학교 누리집 내 공개할 의무를 갖는 가운데, 교육부는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2017)'와 '진로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 및 접근(2018)'에서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개츠비 기준점들(Gatsby Benchmarks)'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츠비 기준점들(Gatsby Benchmarks)'은 개츠비자선재단(Gatsby Charitable Foundation)이 2014년 발표한 '양질의 진로지도(Good Career Guidance)' 보고서에서 소개한 것으로, 양질의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8가지 기준들을 말한다(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진로지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택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더 나은 직업과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도와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구체적인 개츠비 기준점들은 (i)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 (ii) 진로와 노동시장 정보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iii) 각 학생의 수요 고려(addressing the needs of each student), (iv)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의 연계(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v)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만남(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vi) 직무현장경험(experiences of workplaces), (vii) 직업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viii) 개인 지도(personal guidance)의 8가지로 다음 표에서 세부 내용과 지침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Ⅲ-7. 개츠비 기준점들(Gatsby Benchmarks)

기준점	내용	교육과 연수 제공자를 위한 지침
(i)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 (a stable careers programme)	모든 학교와 대학은 진로 교육과 지도가 내재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진 및 고용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 모든 학교는 고위 운영진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진로 프로그램 및 이를 위해 훈련된 담당자를 마련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고용주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은 평가 절차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고용주의 피드백을 수렴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ii) 진로와 노동시장 정보를 통한 학습 (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모든 학생과 부모는 미래의 학습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있고, 이들이 이러한 정보를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진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학습 선택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미래 학습 관련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과 활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iii) 각 학생의 수요 고려 (addressing the needs of	학생들의 진로지도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은	•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 포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학교는 각 학생에게 제공하는 개별 조언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준점	내용	교육과 연수 제공자를 위한 지침
each student)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내포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는 각 학생의 교육(진학)과 연수, 취업 관련 정확한 자료를 학생 졸업 후 최소 3년간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
(iv)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의 연계 (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모든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를 연계해야 하고, STEM[79] 과목 교사는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STEM 과목 간 연관성을 강조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서로 다른 STEM 과목들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되고, 보다 효과적인 직무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v)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만남 (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모든 학생은 고용주로부터 일, 취업, 직무현장에서 중시되는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강연과 멘토링, 기업체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 만 11세부터 모든 학생들은 매년 최소한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1회 이상 가져야 한다. '의미 있는 만남'이라 함은 학생이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vi) 직무현장경험 (experiences of workplaces)	모든 학생은 진로 기회를 탐색하고 인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무현장 방문, 작업 관찰, 직무경험 등의 직접적인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1회 이상 시간제 근무경험 및 직무현장체험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경험을 한 번 더 가져야 한다.
(vii) 직업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만남 (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배움의 기회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중등학교와 대학교, 직무현장에서의 학문적, 직업적 학습 모두가 포함된다.	• 모든 학생은 만 16세가 될 때까지 대학준비과정, 대학교, 견습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기관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때의 만남은 해당 기관의 교육자(직원)과 학생 모두를 만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학습환경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 • 대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2곳 이상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직원과 학생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기준점	내용	교육과 연수 제공자를 위한 지침
(viii) 개인 지도 (personal guidance)	모든 학생은 진로교육 담당자와의 진로지도를 위한 면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면담 기회는 학습(진학) 또는 진로 관련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꼭 주어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1회 이상의 진로지도를 위한 면담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이후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러한 면담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한다.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Good Career Guidance. London: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교육부는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2017)'와 '진로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 및 접근(2018)'을 통해, 각 학교들에서 이러한 개츠비 기준점들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과 2018년에 법적 의무화된 8-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 제공 및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지도 관련 정보의 누리집을 통한 공개를 지속할 것, 그 외 개츠비 기준점들을 사용하여 현행 진로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2020년까지 개츠비 기준점 모두를 충족할 것, 특히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7-13학년 학생들 모두가 매년 최소 1회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현재부터 준비하여 2020년까지는 개츠비 기준점에 부합하게끔 할 것, 이러한 진로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를 정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9).

79) STEM 교육: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해당하는 영단어의 줄임말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중점을 둔 융합교육을 지칭함.

표 Ⅲ-8. 진로지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학교 권고사항 및 지원사항

구분	시기	내용
학교의 추진 사항 (교육부 권고)	현재 진행 중 (2012년 9월부터 법적 의무)	• 모든 학교는 8-1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 (2018년 1월부터 법적 의무)	• 모든 학교는 8-1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학교는 진로지도 관련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야 한다.
	2020년 말까지 추진	• 모든 학교는 개츠비 기준점들을 사용하여 현행 진로교육 및 지도의 질을 제고하여, 2020년 말까지 개츠비 기준점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7-13학년 학생들 모두가 매년 최소 1회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현재부터 준비하여 2020년까지는 개츠비 기준점에 부합하도록 함. 이때 의미 있는 만남의 일정 부분은 STEM 분야 고용주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권장한다.
	2018년 9월부터 추진	• 모든 학교는 진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를 정하여 진로지도 역할을 주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 지원 (추진 계획)	2018년 9월부터 추진	•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의 기준과 요건, 직무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지도를 위해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고자 설립된 '진로와 기업(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를 개츠비 기준점과 관련한 전반적인 역할과 지원을 맡는 전담 체계로 세운다.
	2019년 말까지 추진	• CEC를 통해 학교들이 개츠비 기준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방편과 도구들을 개발, 학교들에 공급한다. • 1,300여개 학교와 대학의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s)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지원한다.
	2020년 말까지 추진	• 모든 학교가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C. 학교 진로지도 모니터링 및 평가

개츠비자선재단과 '진로와 기업(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은

학교들이 스스로 개츠비 기준점들의 적용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평가도구인 Compass를 공동 개발, 보급하고 있어, 오늘날 영국 전역에서 3천 개 이상의 중당학교와 대학들이 Compass를 사용하여 개별 학교의 진로교육 발전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개를 허용한 학교들의 응답결과를 통해 현재 전체 학교들의 개츠비 기준점 도입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진로지도에 관한 자체평가도구인 Compass는 학교 기본정보를 묻는 영역과 결과 발송 등에 대한 동의를 얻는 영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진로지도 실태를 점검, 평가하는 5개 영역,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진로 프로그램 추진과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와 책임자 역량과 역할 등), 의미 있는 만남(직무현장과 고용주, 후기 중등교육과정 및 대학교 등 미래 학습과 취업 선택과 관련한 현장 체험과 담당자 만남), 정보(진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 교육과정 학습과 진로의 연계), 계획(개별 학생들의 수요 고려, 특히 취약계층 또는 장애 학생 등 특별한 필요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고려와 시도, 개인 지도), 추가 정보(진로지도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성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80]. 아래 표로 진로지도에 관한 자체평가도구, Compass의 세부 구성과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80)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홈페이지. 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표 Ⅲ-9. Compass 자체평가도구의 구성과 지표 내용

구분		지표
Section A: About your school (학교 기본정보)		1. 학교 이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 (학교 이름이 목록에 없는 경우), 학교의 우편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3. (학교 이름이 목록에 없는 경우), 학교의 고유번호(URN)를 적어 주십시오.
		4.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Section B: A stable programme (안정적인 프로그램)	B1. A Stable careers programme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	5. 귀 학교는 학교 전반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whole-school careers programme), 곧 진로지도 전략, 정보 및 구체적인 활동을 갖추고 있습니까?
		6. 귀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7.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진로 프로그램 정보는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학생, 교사, 고용주, 학부모 등)
		8. 귀 학교는 현재 독립적이고 공평한 진로지도를 각 학년의 상당수 학생(76~99%)에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9. 귀 학교는 매 3년마다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10. 위의 진로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 대상 각각의 피드백을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까? (학생, 교사, 고용주, 학부모, 고등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 담당자, 학교운영진 등)
		11. 귀 학교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12. 진로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학교 내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부장교사, 학년주임교사, 진로지도 리더, 행정가, 학교 진로 코디네이터 또는 자문가로 채용된 별도 담당자 등)
		13. 진로 프로그램 책임자는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어떤 자격이나 연수경험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14. 위 책임자가 구체적인 진로 프로그램 각각의 실행과 운영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15. 만약 진로 프로그램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행과 운영을 담당할 경우엔,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16. 진로 프로그램의 실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은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어떤 자격이나 연수경험 등을 갖추고 있습니까?
Section C. Meaningful	Section C 개요	17. 고용주 및 후기 중등교육과정 제공자와의 직접적 만남의 경험에 관한 평가 영역입니다(질문 18번~31번)

구분		지표
encounters (의미 있는 만남)	C1. Meaningful experiences of workplaces (직무현장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	18.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직무현장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함은 직무현장 견학, 작업 참관, 진로 관련 봉사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19. 위의 의미 있는 경험이 각 학년별로 연간 평균 몇 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 귀 학교의 경우, 11학년 말까지 직무현장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갖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1. 12-13학년 기간 동안 직무현장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갖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2. 앞의 질문들에서 학생들이 갖는 의미 있는 경험의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견학, 작업 참관, 고용주와의 네트워킹, 직무 연관 학습, 단기(1~2주) 직무체험, 진로 관련 봉사활동, 진로 관련 직무기술 훈련 등
	C2. Meaningful 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고용주 및 직원과의 의미 있는 만남)	23.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고용주 및 직원과 의미 있는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4. 위의 의미 있는 만남이 각 학년별로 연간 평균 몇 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 귀 학교에서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6. 귀 학교는 학생들이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진로 박람회, 특강, 이력서 작성 워크숍, 모의 면접, 온라인 멘토링, 고용주와의 멘토링 결연 등)
	C3. Meaningful encounters with providers of post-16 education (16세 이상을 위한 후기 중등교육 과정 제공자와	27.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대학준비과정 교직원 및 학생과 의미 있는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8.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일반 직업교육대학 교직원 및 학생과 의미 있는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9.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독립연수과정(견습, 산학연계 학습 등) 담당자 및 학생과 의미 있는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9. 귀 학교에서 학년 전체 또는 상당수(76~99%)가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 의미 있는 만남을 최소 1회 이상 갖는 학년 그룹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지표
	의미 있는 만남)	30. 귀 학교에서 졸업 전까지 졸업 후 배움의 기회(대학준비과정, 견습과정, 직업교육대학, 독립연수과정, 대학교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1. 귀 학교의 16세 이상 학생들 중 졸업 전까지 대학교를 방문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최소 2회 이상 갖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Section D. Information (정보)	D1. Learning from up-to-date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최신의 진로 및 노동시장 정보로부터의 배움)	32. 귀 학교 9학년 이상 학생들 중 자신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로 및 노동시장에 대한 최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3. 귀 학교는 부모 등의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미래 학습 기회, 진로 등에 대한 최신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합니까?
	D2. 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교과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의 연계)	34. 귀 학교에서 졸업 전까지 영어, 수학, 과학, PSHE(신체, 사회성, 건강 및 경제교육) 수업에서 진로와 연계한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35. 귀 학교의 모든 교과목과 수업 전반에서 진로와 연계한 학습은 각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유형: 고용주가 참여하는 진로에 대한 배움, 교과 과정 내 미래 진로에 대한 내용을 다룸, 직업에 관한 학습, 직업세계에서 얻는 자료들의 수업 내 활용, 직업인들의 수업 참여 봉사, 미래 진로에 있어 수학과 영어의 중요성 확인 등)
E. A plan (계획)	E1. Addressing the needs of each student (학생별 수요 고려)	36. 귀하는 귀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다음의 5가지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6A) 모든 학생의 포부 증진에 기여 (36B) 학부모(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포부 증진에 기여 (36C) 성차별 등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생각 타파에 기여 (36D) 다양한 고용주의 진로지도 참여에 기여 (36E) 의무교육 이후 교육과정(직업교육, 고등교육과정) 제공기관과 담당자들의 중등학교 진로지도 참여에 기여
		(37A) 귀 학교는 각 학생의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37B) 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기록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까? (37C) 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가 이러한 기록에 접근하여 진로발달을 보다 증진하도록 독려합니까? (38A) 귀 학교는 모든 학생의 진학,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데이터를 졸업 후 6개월 동안 수집 및 관리합니까?

구분		지표
		(38B) 귀 학교는 모든 학생의 진학, 취업 등 진로에 대한 데이터를 졸업 후 3년 동안 수집 및 관리합니까? (38C) 귀 학교는 이러한 학생의 진로 관련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자료를 지역교육청과 공유합니까? (38D) 귀 학교는 졸업생이 참여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또는 졸업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38E) 취약계층 학생, 장애 학생, 특수교육 필요 학생 대상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E2. Personal guidance (개인 지도)	39. 귀 학교에서 11학년 말까지 전문적이고 공평한 진로 상담가(careers adviser)와의 개별 인터뷰를 경험한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40. 귀 학교에서 13학년 말까지 전문적이고 공평한 진로 상담가(careers adviser)와의 개별 인터뷰를 최소 2회 이상 경험한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41. 귀 학교는 진로지도 및 상담 전문가를 어떠한 형태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상근 전문가, 외부 진로지도 전문가로 상담/지도 건별로 학교에서 대신 비용 부담, 대학이나 정부 등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를 연계)
Section F. Further information abut your school's careers provision (진로지도 제공에 관한 추가 정보)		42. 귀 학교는 다음 중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42A) PSHE 교육의 일부로써 전 학년에게 진로수업 진행 (42B) 진로에 있어 가능한 선택 중 하나로 창업을 독려 (42C) 진로교육의 질 또는 기준 등에 대한 인증을 획득 (42D) 진로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나 기관과 협력
		43.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어느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44. 귀 학교에서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과 도전, 귀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지도 활동,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이러한 증거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 방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진로지도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45. 귀 학교의 향후 진로지도 관련하여 활동, 프로그램 등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46. 본 평가과정과 평가도구에 대한 피드백 또는 제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홈페이지. 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② 수행기관(공공영역, 민간영역)

영국의 진로교육 수행기관은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영역의 수행기관으로는 진로교육과 지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들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교육부와 교육기준청(Ofsted), 그리고 진로지도를 의무화하면서 설립한 진로 관련 정보 및 상담기관 'National Careers Service(NCS)'가 있고, 민간영역의 수행기관으로는 정부의 진로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어 현재 학교들의 진로지도 개선과 내실화를 견인하고 있는 '진로와 기업(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과 개츠비 기준점 제시를 비롯하여 역시 오늘날 영국의 진로지도 정책 추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츠비자선재단이 주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공 및 민간영역의 지도와 지원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진로지도를 제공·운영하고 있는 개별 학교들과 그에 참여·협력 중인 기업 등 진로제공기관들도 중요한 수행기관이라 하겠다.

A. 교육부와 교육기준청

교육부는 진로지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이들의 실천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2017)'와 '진로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 및 접근(2018)'을 발간하여 학교들의 진로지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 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학교들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 사항들을 전달하였다.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및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양육시설, 입양 또는 위탁보호기관 등)의 서비스를 조사, 평가하는 기관으로(Ofsted, 2019), 학교 평가항목 중 하나로 진로지도를 다룸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준청의 학교 평가 기준은 크게 7가지로, 전반적 효과성(overall effectiveness), 교육의 질(the quality of education), 행동과 태도(behaviour and attitudes), 학생 개인적 발달(personal development), 리더십과 학교운영(leadership and management), 유아교육의 질(the quality of early years education in schools, 방과 후 돌봄 등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한함), 대학준비과정(sixth-form provision, 대학준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교육 관련하여서는, 개인적 발달에 대한 항목에서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providing an effective careers programm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statutory guidance on careers advice), 이때 진로지도는 편견이나 편향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unbiased careers advice), 직무현장 경험 및 고용주와의 만남 등이 제공되는지(experience of work and contact with employers to encourage pupils to aspire, make good choices and understand what they need to do to reach and succeed in the careers to which they aspire), 그리고 이러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 준비를 도와 졸업 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는지(supporting readiness for the next phase of education, training or employment so that pupils are equipped to make the transition successfully) 등을 평가한다(Ofsted, 2019).

B. National Careers Service (NCS)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모든 공립학교에서 9-11학년(만 13-14세에서 15-16세)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같은 해 4월 National Careers Service(NCS)를 출범시켰다. NCS는 13세 이상 학생들에게 학습과 연수, 직업 기회 등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 지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81].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 곧 그 직업의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진로준비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견습, 전문대학과 대학 등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진단하여 어떤 진로와 직업이 잘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진단검사 'Skills Health Check'도 제공한다. Skills Health Check는 크게 개인기술(Personal skills)과 활동기술(Activity skills)로 구성되어, 개인기술은 다시 기술과 흥미, 성향, 동기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기술은 숫자 다루기, 도형 다루기, 글 다루기, 정보 확인, 기술 문제해결, 추상적 문제해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시간이 소요되는 진단검사로, 학생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시하여 자신의 성향과 강점,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차를 두고 반복 실시하여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NCS는 청소년들에게 전문가와의 일대일 전화 및 온라인(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휴무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전화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의 1년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경험자 대부분(93%)은 NCS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였고 이러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Ipsos MORI, 2018).

C. 진로와 기업(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

2014년 교육부는 정부의 장기적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청소년이 졸업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81) 출처: National Careers Service 홈페이지. https://nationalcareersservice.direct.gov.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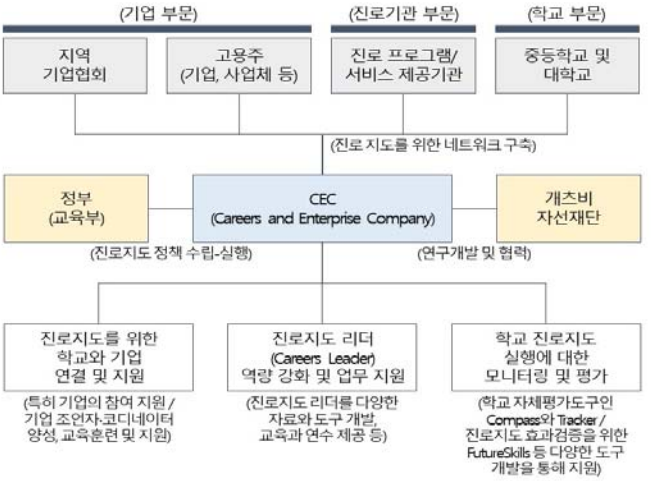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중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고용주 간 연결을 돕는 진로와 기업(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이하 'CEC')을 설립하였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a). CEC는 그간 학교와 고용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와 기금을 바탕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중등학교와 대학의 절반이 넘는 2천여 개 학교를 기업과 고용주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 제공자와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150개 이상의 양질의 고용주 참여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 결과적으로 54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a). CEC 지원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상당수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고(80%),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배우고(75%),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화되었다(70%)고 응답하였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a).

2017년 12월 교육부는 새로운 진로지도 전략(Department for Education, 2017)을 발표하면서, CEC는 중추적 실행 체계로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 지원, 개츠비 기준점 실행 지원의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a). 구체적으로 CEC는 교육부가 202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계획한 바를 위해, 현재 125명의 기업 코디네이터(enterprise coordinator)를 200명으로 늘리고자 지역기업협회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도구, 교육·연수 등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는 각 학교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기업과 고용주, 고등교육기관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나가는 진로지도 책임자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 진로지도 코디네이터(Careers Coordinators) 등 다양한 담당자와 역할을 제시하는데, 이 중 진로지도 리더는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이끌어가는 리더로 리더십과 관리능력, 코디네이션, 네트워킹 등의 역량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개별 학교들의 개츠비 기준점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자체평가도구 'Compass'와 'Tracker', 외부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발굴과 연계를 돕는 맞춤형 검색도구 'Find an Activity Provider', 학생들의 취업 기술(employability skills), 진로 준비도(career readiness), 개인적 효과성(personal effectiveness)에 대한 자가 평가도구로서 진로지도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Future Skills' 등 다양한 지원 도구들을 개발하며 보급하고 있다. CEC의 2017/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CEC는 이러한 다양한 학교 진로지도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연간 1,880만 파운드(한화로 약 276억 8,2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CEC의 협력체계 및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홈페이지(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및 보고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Ⅲ-9. 영국 CEC의 사업구조 및 주요사업

표 Ⅲ-10. 진로지도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와 역할

역할	책임
Careers Leader (진로지도 리더)	• 학교의 진로지도 추진 전반에 대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설득, 프로그램 관리감독, 진로지도 실무자 관리 등 포함)
Careers Coordinator (진로지도 코디네이터)	•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계획, 배치, 실행 및 관리
Careers Adviser (진로지도 자문가)	• 진로에 관한 정보, 조언과 지도, 상담 제공 (일대일 및 그룹 형태)
Careers Administrator (진로지도 행정가)	• 진로지도에 관한 방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진로지도 리더를 지원함
Enterprise Adviser (기업 조언자)	•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진로지도 리더 및 학교 운영진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관련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 측 자원봉사자
Enterprise Coordinator (기업 코디네이터)	• 기업의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하는 기업 측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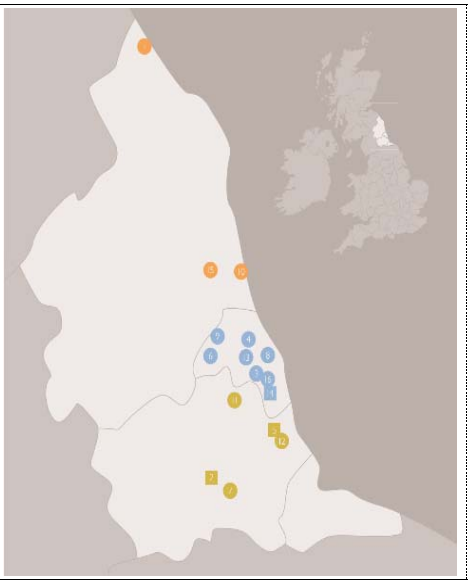
*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8).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Careers Leader – A Guide for Secondary School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D. 개츠비자선재단

1967년 설립된 개츠비자선재단(Gatsby Charitable Foundation)은 모든 청소년에게 양질의 진로지도가 제공되는 것이 개개인의 삶과 미래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과 사회정의를 견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교 내 진로지도가 부적절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질적 차이가 매우 큰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82]. 이에 2013년 요크대학교의 석좌교수인 John Holman 경과 함께 양질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하여, 해외 6개국 및 영국 내 학교 현장 방문, 다양한 문헌 및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8개 개츠비 기준점들(Gatsby benchmarks)을 포함한 2014년 '양질의 진로지도(Good Career Guidanc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개츠비 기준점들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2017)'와 '진로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 및 접근(2018)' 등에 반영되며, 오늘날 영국 정부의 진로교육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개츠비자선재단은 2015년부터 동북지역기업협회(North East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North East LEP)와 함께 동북지역 13개 중등학교와 3개 대학에서 개츠비 기준점에 근거한 진로교육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며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모델과 틀을 개발하고, 개츠비 기준점에 근거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진로지도 전략이 개별 학교들에 성공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CEC와 함께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진로지도 리더 등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82) 출처: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gatsby.org.uk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1. Berwick Academy, Berwick
2. Bishop Auckland College, Bishop Auckland
3. Castle View Enterprise Academy, Sunderland
4. Churchhill Community College, Wallsend
5. East Durham College, Peterlee
6. Excelsior Academy, Newcastle
7. Greenfield Community College, Newton Aycliffe
8. Harton Academy, South Shields
9. Kenton School, Newcastle
10. Northumberland CoE Academy, Ashington
11. Park View School, Chester le Street
12. Shotton Hall Academy, Peterlee
13. St Joseph's Catholic Academy, Hebburn
14. Sunderland Colllege, Sunderland
15 The King Edward VI School, Morpeth
16. The Link School, Sunderland

* 출처: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gatsby.org.uk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그림 Ⅲ-10. 개츠비자선재단의 진로교육 시범사업 참여 학교

E. 학교와 진로 제공기관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행기관이다. 정부의 진로지도 의무화 방침에 따라 8-13학년 모두에게 진로지도 및 인증된 기술교육증명이나 견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에 관한 학교의 주요 정보와 정책을 학교 홈페이지 내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츠비 기준점들을 참고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 대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 구축하는 역할들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를 세워 해당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실행의 관리감독,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그런데 학교의 진로교육 활동은 학교만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에, 진로 제공기관 곧 기업, 직업교육·연수기관, 대학교 등의 협력과 참여 또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참여 기업들은 개츠비 기준점에서 제시하는 직무현장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 작업 참관, 1-2주 정도의 단기 직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하여 고용주가 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하거나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기업 조언가(Enterprise Adviser)로 참여하여 진로에 대한 조언과 상담,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83]. 대학교 또한 개츠비 기준점에 따라 학생들에게 대학교 방문, 교수 및 학생과의 만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진로 제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생생한 진로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영국 교육부는 학교 내 8-13학년에 대한 진로지도 의무만을 규정할 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들에서는 특강과 개인 지도, PSHE 또는 STEM 과목과의 연계, 직무현장 체험, 기업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로 교육부 지침에서 설명하는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시를 제시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34-35). 다양한 진행 방식 가운데, 여기에서는 STEM 연계 진로지도와 PSHE 연계 진로지도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살펴보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83)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홈페이지. 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표 Ⅲ-11.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시

구분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8학년	• 학생과 부모 대상의 후기 중등교육과정(16세 이후)에 대한 개관 -대학교 진학, 직업교육, 견습, 인턴 등	• 고용주와의 행사(참여 고용주별 부스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취업 정보 습득)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기술교육/직업교육 체험 행사(지역사회 전문대학과 연수기관 등이 참여)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9학년	• 기술교육/직업교육 심화 체험행사(직업교육 대학, 연수기관, 견습과정 운영기관 참여)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기술교육/직업교육 체험 행사(지역사회 전문대학과 연수기관 등이 참여)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10학년	• 일상기술 - 직무경험 준비 세션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기술교육/직업교육 체험 행사(지역사회 전문대학과 연수기관 등이 참여)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일상기술 - 집체교육 및 그룹 튜터링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11학년	• 후기 중등교육과정 견학 행사: 사전 신청을 받아 그룹별로 대학준비과정 및 직업교육 운영기관, 대학교, 전문대학, 기술교육/직업교육/견습기관 등 방문, 견학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후기 중등교육과정 지원	• 후기 중등교육과정 인터뷰	• 학생별 후기 중등교육과정(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확정
12학년	• 고등교육 박람회(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참여) • 고등교육 및 심화 견습 과정에 대한 교육(18세 이후)	• 소그룹 세션: 미래교육, 연수와 취업 등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소그룹 세션: 미래교육, 연수와 취업 등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13학년	• 워크숍 - 고등교육 및 심화 견습 과정 참가 지원	•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학생별 개별 진행)	• 학생별 고등교육 및 심화 견습 과정 확정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School Leaders and School Staff.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A. STEM 연계 진로지도

교육부는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지침으로 개츠비 기준점들을 소개하면서, 그중 하나로 교과과정 학습과 연계한 진로지도, 특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과 진로지도의 연계를 강조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오늘날 세계 산업현장에서 수학과 과학, 기술, 공학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의 중요성이 지대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과 현장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학교들에 요청하고 있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b).

이와 관련하여 CEC의 개츠비 기준점 툴킷(The Gatsby Benchmark Toolkit)은 STEM 교과목과 공학 분야 직업세계를 연계하는 'Tomorrow's Engineers'프로그램을 소개한다. Tomorrow's Engineers 프로그램은 11-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과목(수학, 물리학, 디자인과 기술 등)과 내용들과 연계하여 주요 공학 분야 및 공학자가 하는 일, 직업 예시, 공학자가 되기 위한 경로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및 진로지도 자료(PPT, 포스터, 책자 등)를 다운로드 받아 수업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4].

한편 교육기준청에서 STEM 연계 진로지도 우수 사례로 발표한 샌드바흐 여자 고등학교(Sandbach High School and Sixth Form College)는 STEM과 연계하되 관련 기업이나 대학 탐방, 직무 체험, 동아리 활동 등 수업 외 활동 방식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학년 학생은 1주일간 기업 현장에서 직무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열 개 중 한 개 이상의 현장이 STEM 관련 현장으

84) 출처: Tomorrow's Engineers 홈페이지. https://www.tomorrowsengineers.org.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로 마련되고, 과학공학기술 주간(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eek)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행사 현장에서 STEM 관련 주요 기업과 학교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Ofsted, 2015). 그 외 학교 내 전기자동차 동아리인 CUCC(Complete and Utter Chaos Club)에 참여하여 직접 전기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보고 경주에 참여하기도 하고, STEM 동아리(STEM Club)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아리 내 팀을 구성하여 실험, 발명 등을 진행하고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 출처: Ofsted (2015). Encouraging Girls into STEM-related Careers: Sandbach High School and Sixth Form College. Manchester: Ofsted.

그림 Ⅲ-11. Sandbach High School 동아리활동 예시

B. PSHE 연계 진로지도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s) 교육은 인성과 사회성, 건강 및 경제에 관한 교육이다. 법에서 정한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교육이 다루는 주제 곧 인성과 사회성, 건강, 경제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고유 교과목 또는 교과목 내 통합 형태로 실행하고 있다. PSHE 협회는 학교에서 PSHE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되, 정체성, 관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양식, 위험과 안전, 다양성과 평등, 권리와 책임

과 합의, 변화와 레질리언스, 힘, 진로 등의 주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PSHE Association, 2014). 아래 표를 통해 PSHE 교육의 핵심 주제 및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필수 기술을 정리하였다.

표 Ⅲ-12. PSHE 교육의 핵심 주제 및 학생들의 갖추어야 할 필수 기술

PSHE 교육이 핵심 주제
1. Identity (정체성) - 개인적 특성, 태도, 기술, 자질, 성취 등 2. Relationships (관계) - 다양한 환경과 관계유형 고려 3. A healthy balanced lifestyle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양식) - 운동, 식습관, 소비와 저축, 일과 삶의 균형 4. Risk and safety (위험과 안전)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의 분별과 평가, 관리, 안전한 행동과 전략 5. Diversity and equality (다양성과 평등) 6. Rights, responsibilities and consent (권리, 책임 그리고 합의) 7. Change and resilience (변화와 레질리언스, 곧 변화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내적 자원) 8. Power (힘) - 설득, 따돌림, 협상, 윈-윈 등 9. Career (진로) - 취업과 창업, 경제적 이해

PSHE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필수 기술		
자기이해 기술 (intrapersonal skills)	대인관계 기술 (interpersonal skills)	연구조사 기술 (Skills of enquiry)
- 분석적, 건설적 자기반성 - 건설적 피드백을 찾고 활용한 경험과 교훈 - 개인의 목표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 의사결정 - 일반화, 왜곡 등 해로운 사고를 인식하고 이로부터 자신을 지킴 - 레질리언스(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적응, 스트레스 관리 등 포함) - 자기 조절 - 또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이해와 관리 - 자기관리(시간관리 포함)	- 적극적 경청 - 공감 -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모두 포함) - 팀워크 (협력, 네트워킹, 역할 분담,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등) - 협상 (융통성, 자기변호, 타협 등) - 압력과 강요, 설득을 분별하고 관리하는 기술 -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긍정적 확신	- 질문의 구조화 -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 - 분석 - 계획과 결정 - 지식의 창의적 활용 - 근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 위험 또는 문제의 정의와 평가, 관리 - 사회규범의 평가 - 진보와 발전의 검토

* 출처: PSHE Association, 2014. PSHE Education Programme of Study (Key Stages 1-4). London: PSHE Association.

그런데 PSHE 교육에서 다루는 많은 소주제와 내용들은 진로지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이해, 역할 이해, 선택과 결정, 변화의 극복,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건강한 삶과 행복, 비즈니스 환경의 이해와 경제적 생활 등은 모두 진로지도로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7). 이 때문에 PSHE 협회는 중등학교 과정(Key Stage 3-4)의 PSHE 교육의 중요한 테마를 'Living in the wider world(보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정하면서, 그 하위테마로 경제적 행복과 함께 진로와 직업세계를 제시하였다(PSHE Association, 2014). 또한 'Living in the wider world' 테마의 학습목표를 다원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적극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배우고, 충분한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법, 자신의 고용가능성 및 팀워크 기술과 리더십 기술, 융통성과 레질리언스를 훈련하는 법 등을 훈련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며, 개인의 재정 관련 선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는지 등을 배우는 것으로 설정하여, 중요한 교육내용이 사회 및 직업세계, 진로탐색,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과 결정, 자신의 강점과 기술, 역량 등의 이해와 함양, 취업 및 직무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됨을 보여주었다.

CEC 역시 교육과정 내 진로지도에 관하여 논하면서, PSHE 교육과 진로지도의 높은 연계성 그리고 통합교육의 강점을 설명하였다. CEC는 진로지도를 PSHE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정규 시간표 구성 내에서 진행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PSHE 교육과 진로지도를 결합할 경우 수업시간의 부족 및 수업시간 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룸으로써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7).

C.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난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CEC는 개츠비 기준점에 근거하여 학교들을 위한 진로지도 툴킷을 개발, 배포하

면서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ies, SEND)를 지닌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툴킷을 마련, 함께 배포하고 있다. 관련 법령들은 '특수교육 욕구(Special education needs, SEN)'를 지닌 아동·청소년은 '학습의 어려움 또는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 제공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하고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장기간 상당한 역효과'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보다 폭넓게 '의사소통 및 상호관계, 인지와 학습, 사회적·정서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지닌 경우'로 정의하여 학습 및 진로 준비의 어려움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크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c). 위와 같이 정의 아래 현재 영국 내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청소년의 수는 약 150만 명, 학습 장애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은 전체의 15%에 달하며, 이들의 60%가 직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단 6%만이 일자리를 얻는데 불과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c).

이에 CEC는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툴킷(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c)에서 학교와 대학, 기업 모두가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들의 상황과 어려움, 욕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개츠비 기준점들을 달성해 나갈 것을 주지하며, 구체저인 방법과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그중 하나인 'Catcote Academy'는 잉글랜드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하틀풀(Hartlepool)의 특수학교로 7학년부터 14학년(Key Stage 3-5)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및 수업 외 다양한 교육과 상담과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일상생활 기술 및 직업기술, 사회성 등을 훈련하고 있다[85].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사회 내 카페와 레스토랑, 쇼핑몰, 아트 갤러리,

85) 출처: Catcote Academy 홈페이지. https://www.catcoteacademy.co.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미용실 등 다양한 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협력하고 있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c). 다음 표로 Catcote Academy의 전략 및 진로 프로그램 구성안을 요약하였다.

표 Ⅲ-13. SEND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시(Catcote Academy)

<table>
<tr><th>구분</th><th>7학년</th><th>8학년</th><th>9학년</th></tr>
<tr><td>Key Stage 3</td><td>• 부모 간담회 - 진로 선택</td><td>• 진로 탐색의 날 (Careers Day)
• 외부 강사 진로특강
• 부모 간담회 - 진로 선택
• 직무현장 견학</td><td>• 진로 탐색의 날 (Careers Day)
• 외부 강사 진로특강
• 부모 간담회 - 진로 선택
• 직무현장 견학
• 진로 관련 기초 학습 및 선택 학습
• 진로 박람회/기업채용 행사 참가</td></tr>
<tr><th>구분</th><th colspan="2">10학년</th><th>11학년</th></tr>
<tr><td>Key Stage 4</td><td colspan="2">• 포괄적이고 공평한 진로 조언
• 진로 관련 포스터와 전시
•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 PHSE / Life Skills, Careers at Every Level, Employability 수업들
• 진로 관련 정보와 자료 접근 지원
• 연 1회 이상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 집체교육 및 기업 활동
• 노동시장 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부모, 보호자의 접근 지원
• 기초학습기회 접근 지원</td><td>• 포괄적이고 공평한 1:1 진로지도 면담
• 진로 관련 포스터와 전시
•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 PHSE / Life Skills, Careers at Every Level, Employability 수업들
• 진로 관련 정보와 자료 접근 지원
• 연 1회 이상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 집체교육 및 기업 활동
• 노동시장 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부모, 보호자의 접근 지원</td></tr>
<tr><th>구분</th><th>12학년</th><th>13학년</th><th>14학년</th></tr>
<tr><td>Key Stage 5</td><td colspan="3">• 포괄적이고 공평한 1:1 진로지도 면담
• 진로 관련 포스터와 전시
•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 진로 관련 정보와 자료 접근 지원
• 연 1회 이상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 집체교육 및 기업 활동
• 노동시장 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부모, 보호자의 접근 지원
• 모의 면접
• 직무체험(학교 내, 학교 외)
• SEND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조언</td></tr>
</table>

* 출처: Catcote Academy 홈페이지. https://www.catcoteacademy.co.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3) 소결(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은 청소년 진로교육을 공교육기관 곧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이 진로교육을 견인하고 있기에, 중등교육 과정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상당히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영국은 진로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 곧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실현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을 발견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개인적, 미시적 차원의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가정환경이나 배경 등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미래의 삶이 과거의 배경과 환경에 속박 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영국은 이러한 진로교육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중요시하며 공교육에서의 의무교육으로서 진로교육을 추진, 특히 그 과정에서의 '공평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진로교육은 교육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및 공교육기관(학교)의 실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실제 학교들의 실천, 점검과 평가 전 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참여 및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 간의 상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Department for Education, 2017)에서 민간재단인 개츠비자선재단이 개발한 개츠비 기준점들을 진로교육이 갖춰야 할 기준으로서 제시하였고, 진로교육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추진체계로 민간기관인 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를 설립하여 개츠비자선재단과 함께 학교들에 제공하는 지침, 툴킷, 평가도구 등의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며 민관 협력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의 실제 진로지도 현장에서도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활발하다.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은 학교 내부 차원만의 진로지도를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독립적'인 진로지도를 독려하고 있어, 자연히 기업, 직업교육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진로 제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상당하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업이나 직업교육기관 등 진로 제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셋째, 영국은 각 학교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CEC 및 개츠비자선재단 등을 통하여 진로지도에 관한 지침과 기준, 툴킷(tool kit), 우수사례, 관련 자료 등을 꾸준히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본격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려는 학교들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침과 기준, 툴킷, 학년 및 학기별 구성안, 수업연계 방안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서 등을 배포하여 구체적인 진로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보고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지도 서비스의 질(quality)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 진로지도 코디네이터(Careers Coordinator)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여 이들 진로지도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관심, 재능이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희망하는 진로가 취업, 진학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지도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지도가 중요하다. 실제로 개츠비 기준점에서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개인

지도(personal guidance)를 제시하며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면담의 기회 및 그 면담의 질(qualit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학교의 진로교육 방향성과 전략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학년별, 학기별 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이끌어가고 관리.감독하는 진로지도 리더, 그 리더의 지휘 아래 세부 진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준비를 돕는 진로지도 코디네이터, 그리고 이러한 진로지도 활동 가운데 기업측 담당자로서 참여하여 현장경험 및 의미 있는 만남 등을 주관하고 때로 청소년들에게 강연, 조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기업 코디네이터(Enterprise Coordinator)와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 등의 역량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한 축으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지역과 학교, 담당자 역량 등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과 툴킷, 자료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영국은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진로지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먼저 교육기준청은 학교 평가항목 내 진로지도에 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들에서 진로지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EC는 개별 학교에서 진로지도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평가도구 'Compass'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진로지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EC는 매년 학교들의 자체평가 결과자료 전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에서 학교 진로지도 현황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CEC는 Future Skills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각 학교가 실행 중인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취업 기술, 진로 준비도, 개인적 효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지도 효과성 검증을 통해, 각 학교는 진로지도의 효과와 질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Department for Education, 2017)를 살펴보면, 영국은 진로지도를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사회통합 내지 사회정의 확산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진로지도의 실천에 있어 필요가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아래,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툴킷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그 구체적 적용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교와 특수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력이다.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Catcote Academy의 경우, 지역사회 내 카페와 레스토랑, 쇼핑몰, 미용실과 뷰티살롱, 아트갤러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직무현장 체험,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모의 면접 등 체험형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지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기 위하여는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특히 취약계층 대상의 진로지도를 계획하고 시도함에 있어서는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바다.

4) 일본

(1) 서론

일본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육제도가 제정된 것은 701년으로, 에도시대(江戸時代), 메이지시대(明治時代)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憲法),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그리고 학교기본법(学校基本法) 등과 같은 법률 제정 작업을 통하여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교육정책 전반은 중앙에서는 문부과학성, 지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문부과학성과 내각부(内閣府)(공생사회정책총괄관실(共生社会政策総括官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86].

일본의 교육제도는 1945년 패전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 학교기본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중고일관교육(中高一貫教育)제도를 도입하였다[87]. 단, 중고일관교육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일본에는 초등학생이 645만명(20,095개소), 중학생이 333만명(10,325개소) 그리고 고등학생이 318만명(4,907개소)이며, 중학교 졸업생의 98.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54.8%가 대학(4년제, 2년제)에 진학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가운데 청소년교육시설 이용자는 연간 2,006만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8].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교육시설이란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国立オリンピック青少年総合センター), 국립청소년교류의 집(国立青少年交流の家)(13개소), 국립청소년자연의 집(国立青少年自然の家)(14개소)을 말한다. 참고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간하는 문부과학백서(文部科学白書)(평성29년도)에 따르면, 일본은 교육정책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의 개정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89].

86) https://www.cao.go.jp/about/doc/soshikizu.pdf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87) http://www.mext.go.jp/a_menu/shotou/ikkan/2/1316125.htm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88)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801/1407992_021.pdf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89)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801/detail/1411385.htm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최근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 명시된 교육의 주요 방향성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및 역량의 강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조화로운 발달, 인성교육 및 체험활동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진로교육의 방향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学)의 데라타(寺田)교수는 일본의 진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목적과 내용면에서 획일화, 형식화되어 있다는 점과 직업체험이 진로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 그리고 근로관, 직업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모호함 등을 지적하고 있다[90]. 특히, 진로교육의 내용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론적 관점에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2004년 문부과학성에서는 진로교육의 기본적 방향성을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발달 지원, '일(노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의 고양 및 학습의욕의 향상,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의 충실, 자립의식의 함양과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으로 설정하였다[91]. 이러한 진로교육 방향의 설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수용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진로교육을 학생 개개인의 근로관, 직업관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진로 발달을 지원하고, 각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욕, 태도 또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진로

90)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08/04/pdf/054-057.pdf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91)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3/toushin/04012801.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2].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산업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고용의 다양성 및 유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취직, 취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의 근로관, 직업관 및 사회인, 직업인으로서의 기초적, 기본적 자질을 둘러싸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의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지연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구축해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며, 자기긍정감이 낮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나아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고학력사회에서 유예적(모라토리움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채 진로의식 및 목적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대로' 진학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93].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관련 대책

① 법·제도

교육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94]는 2011년(평성 23년) 「향후 학교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방향성에 관하여(今後の学校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職業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라는 답신(答申)을 제출하였다. 이 답신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및 직업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문제인식하에 청소년들의

92) http://www.mext.go.jp/a_menu/shotou/career/05062401/001.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93) http://www.mext.go.jp/a_menu/shotou/career/05062401/001.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94) 중앙교육심의회는 문부과학성 조직령(2000년 정령 제251호) 제75, 7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으로 문부과학성내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진로를 개인의 문제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답신에서 진로교육을 개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능력 및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진로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일정한 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 기능, 능력 또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답신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초적, 범용(汎用)적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95].

표 Ⅲ-14.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영역	영역설명	능력설명
인간관계 형성능력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일을 추진	【타인 이해능력】 자기이해를 심화하며,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인정의 중요함을 알고 행동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집단, 조직에서 의사소통,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추진해나가는 능력
정보활용 능력	학습, 일의 의의, 역할 및 다양성의 이해, 폭넓은 정보를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선택하는 데 활용	【정보수집 및 탐색능력】 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라이프스타일을 검토하는 능력
		【직업이해능력】 진로직업체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 기업과의 관련성과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
미래설계 능력	꿈,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인생과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	【역할파악 및 인식능력】 생활, 일에서 다양한 역할, 의의 및 그 관련성을 이해하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나가는 능력

95) http://www.mext.go.jp/b_menu/houdou/23/12/attach/1314525.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영역	영역설명	능력설명
		【계획실행능력】 자신의 장래 목표로 하는 진로를 생각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며,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기초하여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과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극복	【선택능력】 다양한 진로선택지를 비교, 검토하거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 결정하는 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며, 선택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나가는 능력

* 출처: 김기헌, 맹영임(2011). p.13.

표 Ⅲ-15. 법, 제도상 진로교육 관련 내용의 변화

시기	법·제도	(개정) 내용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제2조 교육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다음에 열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1 (생략) 2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신장하며, 창조성을 배양하고, 자주 및 자율의 정신을 기름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정의와 책임, 남녀의 평등, 자타(自他)의 경애와 협력을 중시함과 더불어 공공(公共)의 정신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획(참가, 기획)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5 (생략)
2007년	학교교육법 개정	제21조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보통교육은 교육기본법 제5조의 제2항이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학교내외에서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자주, 자율 및 협동의 정신, 규범의식, 공정한 판단력 및 공공의 정신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획(참여, 기획)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2-3(생략) 4 가족과 가정의 역할, 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 정보, 산업 그밖에 사항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술을 함양한다.

시기	법·제도	(개정) 내용
		5-9 (생략) 10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기술,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 및 개성에 따라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2008년	중앙교육심의위원회 답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적 관점에서 교과 등을 횡단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진로교육 최근 산업,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고용의 다양화, 유동화 등을 배경으로 취업, 진학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진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래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과제에 유연하고 대담하게 대응하고, 사회인, 직업인으로서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히, 비정규직고용자가 증가하는 고용환경의 변화, '대학전입(全入)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장래에 불안을 느끼거나 학교에서의 학습에 자신의 장래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학습의욕이 저하하고, 학습습관이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 엿보인다. 나아가 근로관.직업관의 희박화, 프리터 지향의 확산, 소위 니트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존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향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춰 학교교육활동 전체를 통한 조직적, 계통적인 진로교육의 충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활, 사회, 직업, 일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특별활동, 총합적 학습시간을 비롯한 각 교과 등의 특징에 맞춰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하기, 일하기, 그리고 살아가기 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중요하며, 그것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꿈, 동경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 특별활동에서 바람직한 근로관, 직업관의 육성 중시 ○ 총합적인 학습시간, 사회과, 특별활동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직장견학, 중학교에서의 직장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출처: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09). p. 13.

먼저, 일본의 교육에 관한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과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서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교육기본법은 2006년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제2조의 제2호에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신장하며, 창조성을 배양하고, 자주 및 자율의 정신을 배양함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지민, 2013, p.55). 또한 제5조(의무교육) 제2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보통교육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사회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함양하며, 또한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학교교육)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자의 심신의 발달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지민, 2013, p.55). 이때, 교육을 받는 자는 학교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율을 존중함과 더불어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의욕을 높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제13조(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 현계협력)에서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는 교육에 있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발맞춰 다음 해인 2007년 학교교육법도 개정되었다. 동법 제21조(의무교육)의 제1호에서는 '학교안과 밖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자주, 자율 및 협동의 정신, 규범의식, 공정한 판단력 및 공공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제4호 '가족과 가정의 역할,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정보·산업 기타 사항에 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술을 함양한다', 제10호 '직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 및 개성에 따라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51조가 교육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진 보통교육의 성과를 더욱더 발전, 확충시켜 풍부한 인간성, 창조성 및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고,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것', 제2호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고, 개성에 따라 장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습득시킬 것, 제3호 '개성의

확립을 위해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사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건전한 판단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육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목표는 모든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추진 및 충실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96]. 이처럼, 개정된 교육기본법과 학교기본법은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若本純子.石井宏祐, 2017).

다음으로,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기본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준이다. 대략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5년이다. 각 학교의 교과서 및 시간표는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여 작성된다[97].

먼저, 초등학교 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떠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자[98].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학습지도요령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각 교과[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공작(図画工作), 가정, 체육]에 대한 내용, 제3장은 특별 교과인 '도덕'에 관한 내용, 제4장은 외국어활동, 제5장은 총합적 학습시간, 마지막으로 제6장은 특별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초등교육의 기본 및 교육과정의 역할,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의 실시 및 학습평가, 아동의 발달 및 지원, 학교운영상의 유의사항, 도덕교육에 관한 배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96)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1/11/04/1312817_02.pdf 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97)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idea/index.htm 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98) http://www.nier.go.jp/shido/centerhp/30career_shiryoushu/1-2.pdf 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이 가운데 제3절 교육과정의 실시 및 학습평가 영역에서 '교육활동이 있어 아동이 학습에 대한 전망을 세우거나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궁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절 아동의 발달 지원 영역에서는 '아동이 배우는 행위와 자신의 미래와의 연결고리를 예측하면서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향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자질 및 능력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축으로 해서 각 교과 등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충실하게 추진해야 하며, 그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조직적 및 계획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5절(학교운영상의 유의사항)에서는 학교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는 지역의 실태 등에 따라 교육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체제를 가정,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얻으면서 정비하는 등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동을 강화할 것, 또한 고령자 및 연령이 상이한 또래 친구 등 지역에서 세대를 초월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학교, 학급 내 인간관계,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집단숙박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연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체험의 제공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과정에 대한 학습지도요령 가운데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전문(前文)에서는 '학생이 학습에 대한 의의를 실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개개인의 자질,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은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교관계자를 비롯한 가정,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학생, 학교에 관련된 모든 성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다. 유아기의 교육 및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생애에 걸친 학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하는 태도를 전망해나가기 위해 폭넓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중학교학습요령을 정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총칙 제4절(학생의 발달 지원)에서는

‘학생이 배움과 자신의 장래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가 되는 자질 및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교과 등의 특징에 맞게 진로교육을 충실히 진행해나갈 것. 그 가운데서 학생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진로지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특별활동)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형성과 자기실현’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생활, 직업생활과의 접속을 고려한 주체적인 학습태도의 형성과 학교도서관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학습과 자기실현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자주적으로 학습하는 장으로서의 학교도서관 등을 활용하면서 학습과 일의 의의를 의식하여 학습의 전망을 세우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 배양과 근로관, 직업관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각, 책임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매너, 규칙, 직업가지기,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지도할 것. 셋째, 주체적인 진로선택과 장래설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식, 진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자신의 개성, 흥미, 관심에 비추어 사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과정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목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힘(生きる力)’의 함양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역할로 ‘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학교의 실태에 따라 취업,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체험학습지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하며, 근로의 존엄, 창조의 즐거움 등을 체득시켜, 바람직한 근로관, 직업관의 육성, 사회봉사 정신의 함양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2절(교육과정의 편성)에서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있어 배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에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특성, 진로, 학교,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지역, 산업계와 연계하여 산업현장 등에서의 장기간의 실습을 동반한 취업체험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계 관계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둘째, 보통과에서는 학생의 특성, 진로, 학교,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관한 각 교과, 과목의 이수 기회를 확보하도록 배려할 것(이찬희, 임상선, 2002). 셋째, 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학과에서는 학교에서의 실습보다는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과 수산 관련 교과에서는 홈 프로젝트, 농업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효과를 높일 것. 이때 홈 프로젝트를 교과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해줄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학교기본법 그리고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교육의 방향성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진로교육이 사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진학을 위한 지도에 치우쳐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진로교육에서는 사회적 및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중심, 학교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및 현장중심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현재의 자기 자신과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해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표 Ⅲ-16. 학습지도요령상 진로교육 관련 내용

학교급	연도	주요내용
초등학교	2017	제1장 총칙 제4 아동 발달의 지원 (3) 아동이 학습과 자신의 장래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자질·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축으로 하여 각 교과 등의 특징에 맞춰 진로교육의 충실을 도모할 것
중학교	2017	제1장 총칙 제4 학생 발달의 지원 (3) 학생이 학습과 자신의 장래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자질·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축으로 하여 각 교과 등의 특징에 맞춰 진로교육의 충실을 도모할 것. 그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할 것.
고등학교	2018	제1장 고등학교교육의 기반과 교육과정의 역할 4 학교에서는 지역, 학교의 실태 등에 맞춰 취업, 자원봉사에 관한 체험학습의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근로의 존엄함, 창조하는 행위의 즐거움을 체득시키고, 바람직한 근로관, 직업관의 육성, 사회봉사 정신의 함양에 힘쓸 것. 제2장 교육과정의 편성 3 교육과정 편성 시 공통 사항 (7)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관련 배려사항 ㄱ. 학교에서는 제5장 1에서 제시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의 특성, 진로, 학교, 지역사회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계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장기간의 실습을 포함하는 등의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계 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5장 학생 발달의 지원 1 학생 발달을 지원하는 지도의 충실 (3) 학생이 학습과 자신의 장래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자질·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축으로 하여 각 교과 등의 특징에 맞춰 진로교육의 충실을 도모할 것. 그 가운데 학생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 등을 생각하면서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할 것.

* 출처: 문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apollon/mod/pdf/mext_propulsion_20180223.pdf 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② 수행기관(공공영역,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지역청소년스포트스테이션(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이하 서포스테)」을 들 수 있다. 먼저, 서포스테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니트 및 프리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2003년 「청소년 자립 도전전략회의(若者自立.挑戦戦略会議)」를 발족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청소년 실업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청소년자립도전계획(若者自立.挑戦プラン)」을 수립하였으며[99], 이 계획에서는 크게 5가지의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다[100].

첫째, 학교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니트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셋째, 기업 내 인재 육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재의 육성, 강화를 도모한다.

넷째, 잡 카페(ジョブカフェ), 일본판 듀얼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적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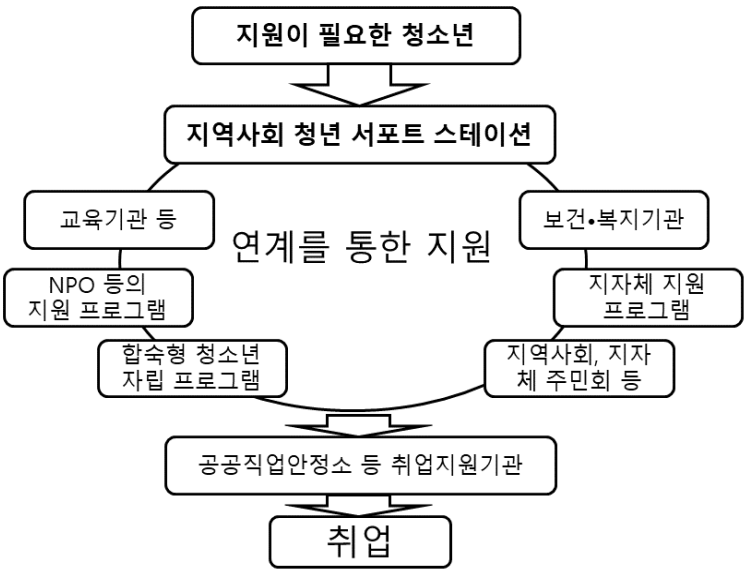
다섯째,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을 추진한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생(厚生労働省)은 취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결여, 면접에 대한 불안, 직장생활에 대한 막연한

99) https://www.myilw.co.jp/publication/myilw/pdf/myilw_no74_feature_3.pdf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100)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10/09/pdf/017-026.pdf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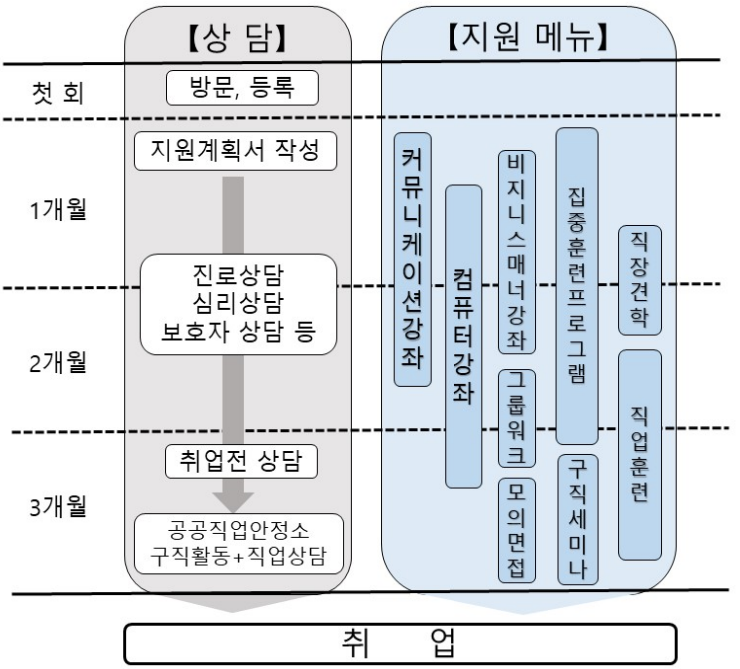
두려움 그리고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101].



* 출처: https://saposutenago.roukyou.gr.jp/how-to-saposute.html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그림 Ⅲ-12.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 운영 모형

101) http://saposute-net.mhlw.go.jp/about.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 출처: https://ishisapo.roukyou.gr.jp/flow.html (검색일: 2019년 8월 9일)

그림 Ⅲ-13.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 흐름도

서포스테를 이용 가능한 연령은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며, 이들의 보호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포스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102].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서포스테는 사업 초기인 2006년에는 전국에 25개소, 2007년에는 50개소, 2010년에는 100개가 설치되었으며, 2018년 현재 전국에 총 17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017년 총 이용건수는 474, 749건이며, 2017년에 신규등록자는 16,122명이다. 이용자 가

102) http://saposute-net.mhlw.go.jp/qa.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운데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은 8,930명으로 이용자 가운데 55.4%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신규 등록 이후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89.0%로 매우 높은 편이다[103].

서포스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으로, 각 지역 서포스테에는 임상심리사, 커리어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강좌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며, 대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셋째, 직업체험으로, 상담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이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도치키현남(栃木県南) 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에서는 종합물류기업인 (주)세이코(セイコ)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분류작업, 포장, 검수 작업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04].

넷째, 비즈니스 매너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서포스테 이용자들이 대부분 인간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장생활을 유지해나가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절, 예를 들어 전화응대법, 인사법 그리고 적절한 어휘 및 표현 선택법 등을 가르친다.

다섯째, 이력서 작성 및 면접요령에 대해 지도한다.

여섯째,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와 직업체험, 그리고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 취업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함양한다.

일곱째, 컴퓨터 강좌로, MS Word, Excel 등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치며, 일부 강좌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을 얻어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UP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일본 마이크로

103) http://saposute-net.mhlw.go.jp/index.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104) http://saposute-net.mhlw.go.jp/company.html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소프트사와 청소년지원 NPO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201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약 30개 서포스테에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105].

여덟째, WORK-FIT[106]이란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리쿠르트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홉째, 아웃리치 서비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의 의사에 따라 상담사가 학교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수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영역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다양한 비영리법인들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전국 단위로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소나테아게넷(育て上げネット)'과 요코하마 지역을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2 International'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다테아게넷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2001년 설립 이래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89,152명의 청년들이 이 단체를 이용하였다. 이 단체는 동경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위탁사업(66%)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고, 자체 기획 사업(10%), 기부(16%), 보조금(7%) 등을 통해서도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취업지원사업, 기업연계사업, 보호자지원사업, 진로교육사업, 행정관

105) http://saposute-net.mhlw.go.jp/wakamonoup.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106) WORK-FIT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iraisim.iction.jp/workfit/ 이다.

청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취업지원사업, 일명 「잡트레(ジョブトレ)」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니트 또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15-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성, 의사소통방법, 대인관계형성방법, 협업방법 등을 익히도록 훈련한 다음, 전단지 배포, 농촌 일자리 돕기, 현장실습 등 비교적 적응하는데 부담이 적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으로 개인별로 원하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아르바이트 찾기, 구직활동 등을 거친 다음, 최종적인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업지원과 더불어 개별 진로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다타아게넷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잡트레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 가운데 취업 후 계속해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전체 졸업생의 81%에 달한다.

다음으로, 니트 예방 프로그램인 「Money Connection」프로그램이다. 잡트레 프로그램이 청년 니트에 대한 사후지원프로그램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니트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청년단체와 민간기업(신생 파이낸셜(新生))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니트 예방을 목표로 주로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2007년에 동경의 고등학교에 처음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래 2016년도까지 96,320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다테아게넷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강사 파견 또는 강사 육성 업무를 담당한다. 프로그램 진행은 기본적으로는 학교로부터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진로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진학안내 등과 같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뢰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강사가 양성되었는데, 사업 초기에는 동경에서 각 지역별로 강사를 파견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요코하마시(横浜市)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2 International(이하, K-2)을 들 수 있다. K-2는 1988년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니트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기업이다. K-2는 요코하마(横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K-2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는 기숙사, 중간적 취업기회, 학습, 심리상담, 쉼터, 보호자 지원, 아웃리치, 취업기회 제공 등이 있다. K-2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K-2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활 서비스이다. K-2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매너 등을 배우게 된다.

둘째, 자립 및 취업지원 서비스이다. K-2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요코하마 남부지역의 청년들(15-40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립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합숙형 청년자립 지원프로그램인 Y-MAC 요코하마 견습(見習)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40세 미만의 청년들 가운데 취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략 6개월 정도에 걸쳐 정상적인 취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한다.

셋째, 취업기회 제공 서비스이다. K-2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습관 훈련, 직업훈련 등을 수료한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카페, 세탁소 등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K-2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및 카페는 5개소이며,

세탁소는 1개소이다. 현재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의 80% 이상이 K-2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인 것과 달리 K-2가 민간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보다는 영리목적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비영리단체의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③ 프로그램

○ 세토시진로교육추진협의회(瀬戸市キャリア教育推進協議会)[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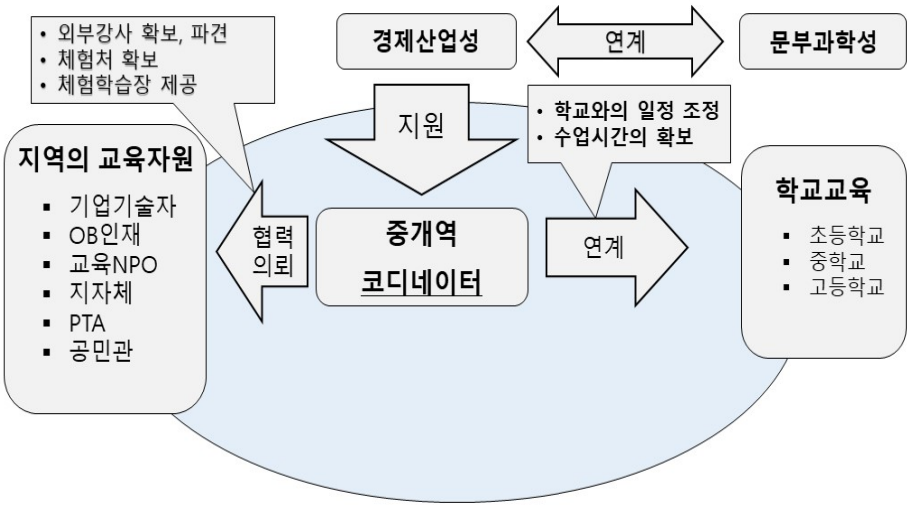
세토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위탁을 받아 「지역자율.민간활용형진로교육프로젝트(地域自律民間活用型キャリア教育プロジェクト)」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학교나 산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산업계가 일체가 된 진로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07년 전국에서 28개 모델 사업이 채택되었다[108]. 세토시상공회의소도 이 프로젝트에 채택이 되어 진로교육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지자체, 교육위원회, 학교, 기업, 상점가 등을 연계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109]. 프로젝트는 2009년 종료되었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로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토시진로교육추진협의회는 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계에서는 나고야대학을 비롯한 각급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각 직능별 협의회 및 협동조합이 그리고 각종 비영리법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107) http://setocareer.sakura.ne.jp/wp/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108)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83/shiryo/__icsFiles/afieldfile/2011/04/04/1303504_5.pdf 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109) http://www.city.seto.aichi.jp/docs/2011120900017/files/111215_04_05.pdf 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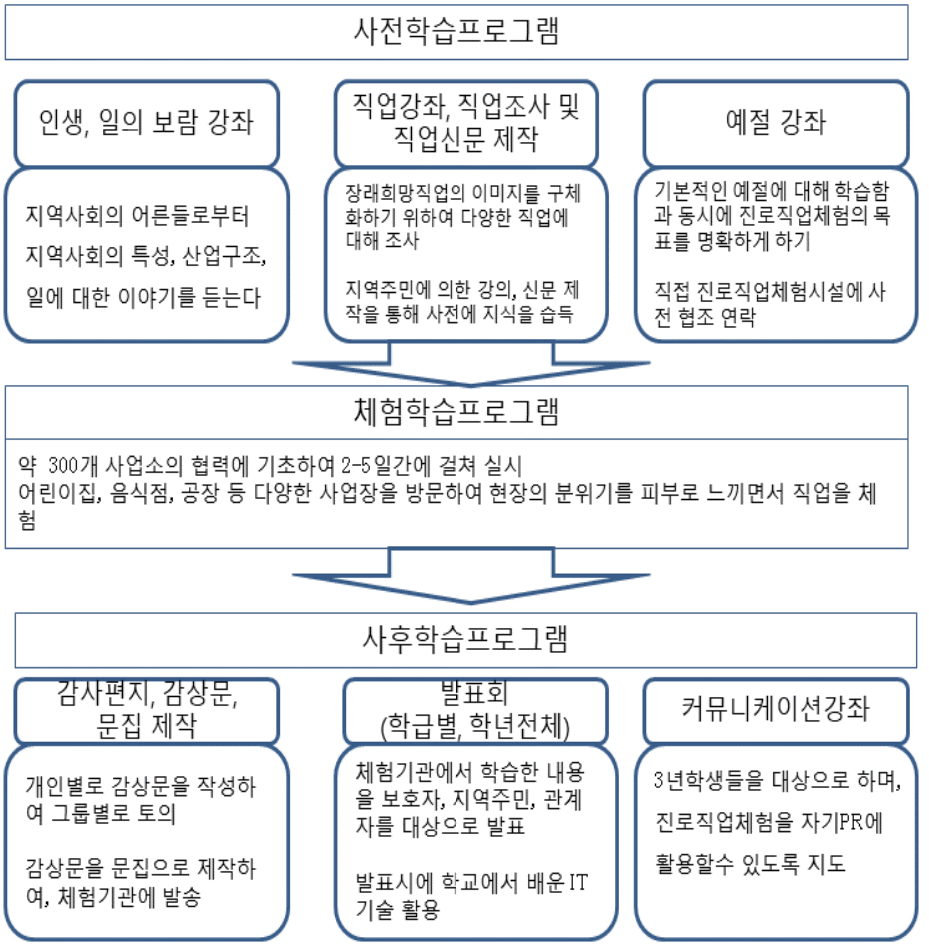
세토시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체험형 워크숍, 프로젝트형 학습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체험형 워크숍은 무역게임, 세토판드림맵, 벽돌아트, 카이젠(改善) 세미나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무역게임은 국가대항 체험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각각의 국가 사정에 맞게 팀별로 물자, 기술력, 자본 등이 지급되고, 각 팀은 주어진 재료, 기술력 및 자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를 풍요롭게 만들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카이젠 세미나는 공장견학을 위한 사전 학습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사회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 학교에 파견이 되며, 학생들은 팀별로 '상자 만들기'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상자를 만드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팀원들끼리 소통을 통해 어느 팀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깔끔한 상자를 만드느냐를 겨루는 놀이형 세미나이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를 궁리하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형 학습은 농업체험, 판매체험 그리고 도자기 굽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업체험은 지역 농민들의 협조를 받아 1년간 농사의 전 과정(농사법 강좌, 모내기, 추수, 탈곡 등)을 체험하며,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어 성과발표회에서 떡을 나누어먹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 학습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학습 프로그램에는 직장체험학습, 매너강좌, 직업강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강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직장체험학습은 약 200개 사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2-3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체험학습의 내용으로는 손님응대, 보육, 의료, 제조업 분야 등 다양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 공공직업안정소와 같은 구조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들이 희망하는 체험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강좌는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직업인을 시민강사로 초빙하여 자신들의 일의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출처: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83/shiryo/__icsFiles/afieldfile/2011/04/04/1303504_5.pdf (검색일: 2019년 7월 18일)

그림 Ⅲ-14. 지역자율·민간활용형 진로교육 프로젝트 사업모델



* 출처: 仙崎武.池場望.下村英男.藤田晃之.三村隆男.宮崎冴子編著(2010), p.176

그림Ⅲ-15. 세토시진로교육추진협의회 사업 모형



무역게임을 진행하는 모습



농사체험 장면

* 출처: http://setocareer.sakura.ne.jp/wp/?page_id=70 (검색일: 2019년 7월 18일)

그림 Ⅲ-16. 세토시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형학습 관련 자료

○ 후쿠이진로교육연락협의회(福井市キャリア教育連絡協議会)[110]

후쿠이시(福井市)는 2012년부터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후쿠이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 연락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시내 각종경제단체 및 후쿠이교육위원회가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협의회에 진로교육코디네이터[111]를 배치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후쿠이시가 부담하고 있다. 진로교육코디네이터는 주로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역자원의 파악,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교육자원과 학교를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락협의회는 교육위원회, 시청내 담당부서(일지원과(しごと支援課)), 후쿠이청년회의소, 후쿠이상공회의소 청년부, 후쿠이경제동우

110) http://www.mext.go.jp/a_menu/shotou/career/detail/1413996.htm 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111) 진로교육코디네이터는 진로교육코디네이터네트워크협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국가 공인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2011년 「진로교육코디네이터 육성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으며, 협의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디네이터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논문,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진로교육코디네이터네트워크 협의회 홈페이지는 http://www.human-edu.jp/ccec 이다.)

회, 후쿠이대학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협의회가 수행하는 역할로는 지역의 단체,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일람표를 제작하며, 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쿠이상공회의소 청년부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업무내용, 역할,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일탐험안트레키즈(おしごと探検隊アントレ・キッズ)」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청소년들로부터 신뢰, 안심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사회투자활동'으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다. 2006년 기준으로 2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112]. 2018년 기준으로 연락협의회가 제공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28개이며, 연락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후쿠이대학도 청소년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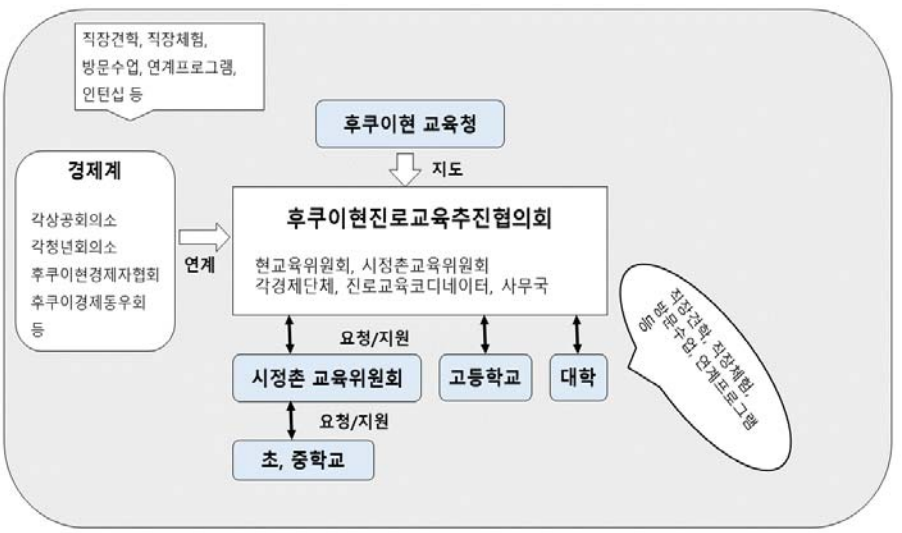


그림 Ⅲ-17. 후쿠이현진로교육연락협의회 모형

112) https://fukui-yeg.jp/entrekids/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1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3/28/1413997_001.pdf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출처: https://fukui-yeg.jp/entrekids/ (검색일: 2019년 7월 19일)

그림 Ⅲ-18. 안트레키즈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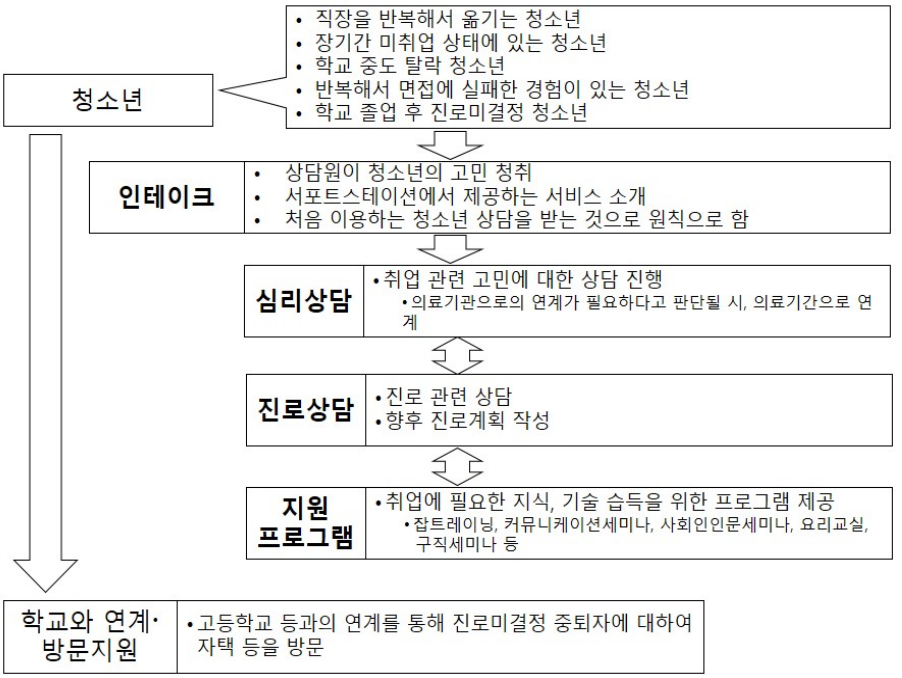
○ 이시노마키(石巻)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114]

이시노마키시(石巻市)는 일본 혼슈 동북지방의 미야기현(宮城県)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약 14만 명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10-24세) 인구는 약 1만 9천 명 정도인 소도시급에 해당한다[115]. 서포트스테이션은 지자체가 매년 운영주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주체는 워커즈 쿱(ワーカーズコープ)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서포트스테이션 이용자는 학교를 졸업, 중도 포기,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이정 기간 무직 상태에 있는 15-39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이들의 보호자 및 가족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테이크(intake) 단계로, 스테이션에 방문하기 이전 단계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원은 전화로 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상담의 단계로 임상심리사 등이 상담을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진로상담으로 커리어 컨설턴트 등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114) https://ishisapo.roukyou.gr.jp/organization.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115) https://www.city.ishinomaki.lg.jp/cont/10102000/0040/3914/20130301161659.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 방법, 향후 생활 계획, 취업에 있어 불안하게 느끼는 점, 자신이 없는 부분 등 현재 진로와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고민, 걱정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요령 강좌(첫 만남 시 대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직장생활 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 강좌세미나(사회보험, 세금 체계 등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그러나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지식 등), 구직활동 강좌(모의면접, 비즈니스 매너, 이력서 및 직무계획서 작성법 등), 직업훈련(직장견학 및 직장체험, 체험 기간은 1일에서 수 주간에 걸쳐 다양함)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스테이션을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시노마키스포트스테이션은 12개의 기업, 5개의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출처: https://ishisapo.roukyou.gr.jp/flow.html (검색일: 2019년 7월 22일)

그림 Ⅲ-19. 이시노마키서포트스테이션 지원 흐름도

(3) 소결(시사점)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실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위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체험 지원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서포스테는 2000년 중반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포스테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또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 단계까지 청소년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서도 전체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취업한 이후에도 이직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그리고 취업보다는 직업체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서포스테와는 차별된다. 그리고 서포스테는 이용대상자의 연령이 15-39세까지로 매우 폭넓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포스테에는 심리, 상담 전문가인 임상심리사와 직업 및 진로 분야의 전문가인 커리어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지역자율 및 민간활용형 진로교육프로젝트와 소다테아게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참고할 만하다. 먼저, 지역자율 및 민간활용형 진로교육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역의 비영리법인(NPO)이 학교, 학부모, 산업계 등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116]. 그리고 소다테아게넷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117]. 즉, 현재 한국의 경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주로 관(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도하거나 관에서 설립한 기관에

116)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19honpenhtml/html/07yh_sp001.html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117) https://www.sodateage.net/about/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서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민은 객체적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주민은 기획자, 운영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적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산업계를 연결한 매개체(중계기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의 경우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산업계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상공회의소가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단위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산업계와의 접점 및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들 기관들을 연결 또는 연계함에 있어 상공회의소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지역별로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기타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연계하여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및 장기(長期)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학업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요코하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K-2 International 그룹(이하, K-2)을 들 수 있다. K-2는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1단계, 기본적인 생활습관 습득, 제2단계,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생활 경험

그리고 제3단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식당, 카페, 세탁소 등)에서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히키코모리 청소년 등은 생활리듬이 불규칙하거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낮은 단계의 직업훈련, 예를 들어 식당에서의 서빙, 손님 접대 등의 단계에서 요리, 마케팅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한국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 위스쿨, 청소년쉼터 등이 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서도 K-2의 시스템 및 경험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단, K-2의 경우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지원 비용을 참여자인 청소년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적 영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성(CSR, Community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무성(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요구되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책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에서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일본 아이치현 세토시의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토시는 총인구가 약 13만 명으로 중소도시 규모에 해당하지만[118],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는 약 300개로 상당

118) http://www.city.seto.aichi.jp/docs/2019041500033/files/gaiyou.pdf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 공제 혜택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 주민들에게도 별도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토시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마인드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수행하고 있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념 정의와 운영구조에 대한 제도화 등의 '법제적 접근(a legal approach)'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일-기반 학습(WBL)'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기업체 등을 연계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ray & Lewis, 2018).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3조) 등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진로교육을 개인적 차원을 넘은 사회적 차원, 곧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실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의무교육으로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이 진로교육을 견인하며, 중등교육 과정 학생들에 대해 진로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준청은 학교

평가항목 내 진로지도에 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들에서 진로지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내부 차원만의 진로지도를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진로지도를 지향하여 기업, 직업교육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진로 제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간의 상호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진로교육 전략 보고서(2017)에서 민간재단인 개츠비자선재단이 개발한 개츠비 기준점들을 진로교육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점, 진로교육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추진체계로 민간기관인 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를 설립하여 개츠비자선재단과 함께 학교에 제공하는 지침, 툴킷, 평가도구 등의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민관 협력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 점 등이다. CEC는 또한 개별 학교에서 진로지도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평가도구 'Compass'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학교 스스로 진로지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년 학교들의 자체평가 결과자료 전체의 총체적 분석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에서 학교 진로지도 현황도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서 등을 배포하여 구체적인 진로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보고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부 주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길'이 있다. 인터넷포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에서 체험했던 데이터를 교육부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데이터며,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각 지역의 진로센터가 꿈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관 당 연간 사업비가 1억이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센터는 대략 224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진로센터를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특화시설 등 청소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고, 청소년기관에서 체험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진로센터 역할은 체험처 발굴, 인증제 심사, 체험처-학교 간 프로그

램 매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지원 인력 관리 등이다. 아쉬운 점은 진로지도에 있어 개개인의 성향과 관심, 재능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진로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CEC는 학교의 진로교육 방향성과 전략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학년별, 학기별 진로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관리 감독하는 진로지도 리더(Careers Leader), 그 리더의 지휘 아래 세부 진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준비를 돕는 진로지도 코디네이터(Careers Coordinator)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여 이들 진로지도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기업 측 담당자로서 현장경험 및 의미 있는 만남 등을 주관하고 때로 청소년들에게 강연, 조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기업 코디네이터(Enterprise Coordinator)와 기업 조언자(Enterprise Adviser)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진로교육을 강조하면서 진로담당 전문가 양성체계가 없다. 사범대에도 진로교사가 아닌 진로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을 뿐 음·미·체 등 시수가 적은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전문가 양성이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도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진로체험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기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미국의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주 정부차원의 정책 제도의 하나로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가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Perkins Act에 의해 연방이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주정부의 경우 우선 7-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주정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진로지도 상담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①개인 및 집단상담 ②진로사정(assessment) ③직업 정보 ④학생조사 및 요구분석 ⑤직업 소개(placement) ⑥후속활동(follow-up) ⑦기타 학생들의 진로발달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등의

요소들로 구성해야 한다(정윤경 외, 2011).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가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센터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인데 수련관 등 청소년기관이 진로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 쪽 시설들이 열악한 편이다. 시설들이 진로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 인프라들이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수련관 등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유치하고 허브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산업기반과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체험활동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주정부-지방정부 등으로 연계되는 역할 분담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와 학교, 청소년기관 등은 횡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형 진로체험 활동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으로서 한국의 경우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명칭을 앞세운 정책적 접근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선도기술, 주요 생산물, 산업단지의 성과,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특성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기업과 산업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로 일본의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중반에 설립된 일본의 서포스테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들에게 상담 또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 단계까지 청소년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한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그리고 취업보다는 직업체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서포스테와 비교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자율 및 민간활용형 진로교육프로젝트와 소다테아게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참고할 만하다. 먼저, 지역자율 및 민간활용형 진로교육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역의 비영리법인(NPO)이 학교, 학부모, 산업계 등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119]. 그리고 소다테아게넷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120]. 즉, 현재 한국의 경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주로 관(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주도하거나 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민은 객체적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주민은 기획자, 운영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적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성(CSR, Community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의 책무성에 대한 의식이 높다. 지역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아이치현 세토시의 경우, 정부 공모사업으

119)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19honpenhtml/html/07yh_sp001.html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120) https://www.sodateage.net/about/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아울러 세토시의 총인구가 약 13만 명으로 중소도시 규모에 해당하지만[121],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는 약 300개라는 사실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모범사례라 하겠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꿈길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대부분 기업이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임을 비교해 볼 때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관한 국외 사례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배려이다. 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노동투자법(WIA)에 의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Job Corps(직업봉사단), 직업훈련 파트너십(Job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직접적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노동 숙련성을 높이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Catcote Academy 같은 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 욕구 및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인상적인데, 지역사회 내 카페와 레스토랑, 쇼핑몰, 미용실과 뷰티살롱, 아트갤러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직무현장 체험,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모의면접 등 체험형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및 장기(長期)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대표적인 사례로 요코하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K-2 International 그룹(이하, K-2)을 들 수 있다. K-2는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1단계, 기본적인 생활습관 습득, 제2단계,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생활 경험 그리고 제3단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식당, 카페, 세탁소 등)에서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121) http://www.city.seto.aichi.jp/docs/2019041500033/files/gaiyou.pdf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다. 단계적 심리적, 신체적 토대를 마련한 후에 낮은 단계의 직업훈련, 예를 들어 식당에서의 서빙, 손님 접대 등의 단계에서 요리, 마케팅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한국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 위스쿨, 청소년쉼터 등이 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서도 K-2의 시스템 및 경험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진로체험활동정책이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량중개소(Kompetenzagenturen)'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역량중개소'는 취약 청소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을 목표로 마련된 독일 정부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로서, 예를 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무직 청소년, 비행 청소년, 사회부적응 청소년, 언어장애 청소년, 학습부적응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 중독 청소년, 성격장애 청소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교 밖의 청소년시설, 기관, 단체 혹은 추천으로 인해서 역량중개소로 오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역량중개소의 목표 그룹 중 하나이다. 직업·진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졸업 성적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졸업장 이외의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로나 직업 필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주는 모델이다. 2002년 18개로 시작, 현재 독일 전역에 걸쳐 200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유럽사회기금의 지원 하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각 지역의 역량중개소는 자신이 속해있는 자치단체 내의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 및 청소년 상담과 심리치료, 병원, 법조기관, 현장실습 기업 등과 촘촘히 네트워크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와 관련된 직업 또는 직업과 관련된 주제를 뽑아서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고 몇몇 청소년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고용 약속을 받아 실습과 고용의

기회를 동시에 얻는다.

한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나 교육청 산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역량중개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의 역량중개소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노동청에서 긴밀히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직업교육 체계 안에서 이원체계로 직업을 실습하는 현장과 잘 연계되어 있다. 국내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들을 직업체험 인턴제도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강사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자격증도 따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의 고민에 빠지고 있는 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제학교와 특성화고의 지속적인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교육에의 질적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안팎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Ⅳ장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1. 연구개요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요구 조사
4. 소결

Ⅳ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1. 연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의 자료를 찾기 위하여 꿈길 누리집에 탑재된 진로체험지원센터 안내 자료(2019년 4월 기준)를 기준으로 진로체험센터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17개 시.도에 216개소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 중 꿈길 자료의 주소, 홈페이지, 비고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은 총 58개소(지자체 및 민간단체 직영 포함)이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 5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해당 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센터장 및 팀장),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한 학교의 교사와 청소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을 진로체험지원센터

* 이 장은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학교(교사, 학생),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경험에 따른 요구와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1)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청소년 관련 진로교육,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진로체험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에서 내용 관련성이 있는 통계 조사의 조사표와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기존 문헌의 조사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현장 실무자인 학교 교사, 교육지원청 진로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자,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연구 전문가와 함께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 영역 및 선택지의 내용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사 분야의 전문가 및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사 목적에 따라 설문지 영역의 배치, 설문지 안내문, 설문 문항의 길이, 설문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온라인 웹 설문 방식으로 구성하고, 수정된 설문지를 통해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청소년이 응답하기 어려운 일부 문항의 표현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었으며, 기관의 IRB 승인(201906-HR-고유-016-22) 절차를 거쳐 설문 조사에 활용하였다.



그림 Ⅳ-1. 설문지 구성 및 문항 개발 절차

(2)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개발

본 조사의 구성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진로체험활동을 인솔한 학교의 교사,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경험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센터를 대상으로 본 조사 목적에 따라 일반적 사항,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의 경우, 일반적 사항 외에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효과에 대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과 항목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문항수	응답범주	신뢰도 (cronbach α)
▣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진로체험 운영 현황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및 제목			
	• 지역사회(학교, 지자치, 교육청 등)와의 협력 및 연계 정도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예산, 프로그램, 조직, 인력, 공간 및 시설)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청소년기관에 미치는 효과	5	1=전혀 크지 않다 ~ 4=매우 크다	.834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에 대한 중요도	7	1=전혀 중요하지 않다 ~ 5=매우 중요하다	.899
	• 실행도	7	1=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 5=매우 잘 이행된다	.949
	•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인적 자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여건)			
	• 재위탁 운영 의사 및 기타 개선사항			
▣ 교사용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및 제목			
	• 진로체험 참여 방식 및 연계 유형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만족도			
	- 진로체험 연계 유형	3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	.715
	- 청소년기관의 운영	5		.936
	- 프로그램	10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959
	- 시설 및 환경	3		.686
	•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 정도	7	1=전혀 활발하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947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교육활동 시 애로사항			
	• 참여 의사 및 기타 개선사항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문항수	응답범주	신뢰도 (cronbach α)
▣ 청소년용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및 제목			
	• 진로체험 참여 방식			
	•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10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954
	-시설 및 환경	3		.906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	• 진로체험을 통한 역량 변화	10		.977
	• 재참여 의사			
	• 추후 하고 싶은 진로활동 및 기타 청소년기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			
	• 기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			
▣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진로체험 운영 현황	• 기관의 참여 및 사업의견 반영			
	• 청소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5	1=전혀 활발하지 않다 ~ 4=매우 활발하다	.901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6		.832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	5	1=전혀 크지 않다 ~ 4=매우 크다	.911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 공공기관이 협력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도	6	1=전혀 중요하지 않다 ~ 5=매우 중요하다	.924
	실행정도	6	1=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 5=매우 잘 이행된다	.925
	• 청소년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여건)			
	• 재위탁 의사 및 기타 개선사항			

▣ 인구사회학적 배경

본 설문조사에 있어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진로체험활동을 인솔한 학교의 교사,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기본 특성, 소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기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은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및 제목 관련 문항은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진로체험활동을 인솔한 학교의 교사, 청소년의 공통 항목이다. 이 문항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의 '2017 진로체험매뉴얼'을 참고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및 제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관, 교사,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의 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과의 진로체험을 위한 협력 및 연계 관련 정도에 대한 문항은 임지연(2017)의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 지침과 윤형한 외(2018)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교사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만족도의 경우 임지연 외(2016)의 지역사회 운영 틀과 이수근(2018)의 교육환경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 외 문항들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경우,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신훈희(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로체험활동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요구와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윤형한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하여 각각 중요도와 실행 정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원시의 요구 및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지연 외(2016), 이기봉 외(2011) 연구의 진로체

험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항목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 여건(교육환경) 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의 경우,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기봉 외(2011)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김기헌, 맹영임(2011)의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기대효과 및 역량 변화를 참고하여 진로체험을 통한 역량 변화를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경우 진로체험센터의 재위탁, 교사 및 청소년에게는 재참여의 여부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전국에 위치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및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Ⅳ-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대상	대상	수집	분석
청소년기관의 현장전문가(센터장, 팀장, 운영자)	58	40	40
청소년(중, 고)	1,160	604	527
교사	58	37	37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58	46	46
계	1,334	727	650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에 따라 수집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을 비교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에 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에 대한 설문 자료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로부터 공공기관이 협력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정도에 대한 설문자료에 대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1) 기관 담당자

(1) 응답 기관 일반사항

청소년기관의 현장전문가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센터 운영자의 응답 사례수는 40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20.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15.0%), 부산(12.5%), 강원(10.0%), 충남(10.0%) 등의 순이었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지역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광역시(35.0%), 서울(15.0%)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47.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27.5%), 기타 진로체험지원센터(20.0%) 등의 순이었고,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각각 2.5%씩 조사되었다. 운영 주체별로는 민간 위탁(62.5%)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22.5%), 지방자치단체 직영(12.5%) 등의 순이었고, 교육지원청 위탁은 2.5%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담당기간별로는 2년 이상이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2년 미만(25.0%), 6개월 이상~1년 미만(20.0%), 6개월 미만(10.0%) 순으로 나타나, 담당

기간이 상대적으로 2년 이상 운영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응답 기관 일반사항(기관담당자) (단위: 건, %)

전체		사례 수	비율
		40	100.0
지역	서울특별시	6	15.0
	부산광역시	5	12.5
	광주광역시	1	2.5
	인천광역시	2	5.0
	대전광역시	3	7.5
	울산광역시	3	7.5
	경기도	8	20.0
	강원도	4	10.0
	충청북도	2	5.0
	충청남도	4	10.0
	전라북도	1	2.5
	전라남도	1	2.5
지역 유형	서울특별시	6	15.0
	광역시	14	35.0
	일반도	20	5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19	47.5
	청소년수련원	1	2.5
	청소년문화의집	11	27.5
	유스호스텔	1	2.5
	기타	8	20.0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 직영	5	12.5
	민간 위탁	25	62.5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9	22.5
	교육지원청 위탁	1	2.5
담당 기간	6개월 미만	4	10.0
	6개월 이상~1년 미만	8	20.0
	1년 이상~2년 미만	10	25.0
	2년 이상	18	45.0
직위	운영책임자(센터장)	5	12.5
	중간관리자(부장 및 팀장)	12	30.0
	담당 실무자(운영자)	23	57.5

(2)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강연형/대화형(8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실무 체험형(80.0%), 현장직업체험형(70.0%), 현장견학형(70.0%), 진로캠프형(60.0%), 학과체험형(5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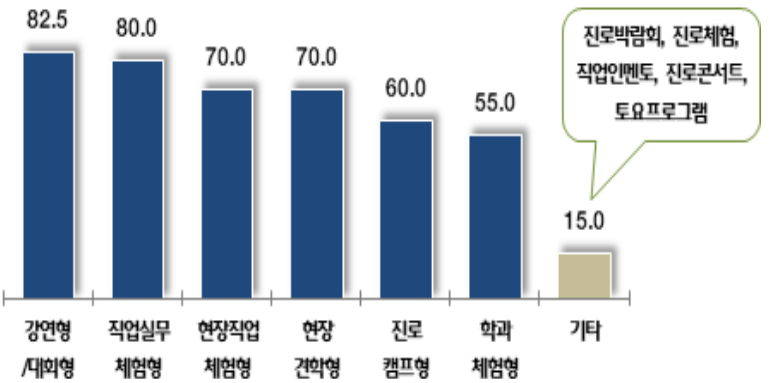


그림 Ⅳ-2.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기관담당자) (단위: %)

지역 유형별로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연형/대화형과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 등은 서울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역시, 도지역의 순으로, 현장직업체험형은 도지역이 가장 많고, 서울, 광역시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4. 지역 유형별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기관담당자)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강연형/대화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현장견학형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
전체		(40)	82.5	80.0	70.0	70.0	60.0	55.0
지역유형	서울	(6)	100.0	100.0	66.7	83.3	66.7	83.3
	광역시	(14)	85.7	92.9	64.3	71.4	64.3	57.1
	일반도	(20)	75.0	65.0	75.0	65.0	55.0	45.0

(3)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 유형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강연형/대화형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진로이야기(이하 청진기)와 진로콘서트가 각각 18.2%로 가장 많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15.2%), 드림잡(Job)스(12.1%) 등의 순이었다. 직업실무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청진기가 18.8%로 가장 많고, 진로콘서트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15.6%), 드림잡(Job)스(12.5%) 등의 순이었다. 현장직업체험형은 진로콘서트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각각 17.9%로 가장 많고, 현장직업체험(14.3%), 청진기와 드림잡(Job)스(10.7%) 등의 순으로, 현장견학형은 청진기가 21.4%로 가장 많고, 진로콘서트(17.9%), 드림잡(Job)스와 현장직업체험(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캠프형은 청진기가 20.8%로 가장 많고, 진로콘서트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드림잡(Job)스(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체험형은 진로콘서트가 27.3%로 가장 많고, 청진기(22.7%), 현장직업체험(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유형별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별 기관 실시 진로체험프로그램(기관담당자)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청진기	진로 콘서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드림잡 (Job)스	현장직업 체험
전체		(40)	15.0	15.0	12.5	10.0	10.0
청소년 진로체험 유형	현장직업 체험형	(28)	10.7	17.9	17.9	10.7	14.3
	현장견학형	(28)	21.4	17.9	0.0	14.3	14.3
	강연형 /대화형	(33)	18.2	18.2	15.2	12.1	9.1
	직업실무 체험형	(32)	18.8	15.6	15.6	12.5	9.4
	진로캠프형	(24)	20.8	16.7	16.7	16.7	12.5
	학과체험형	(22)	22.7	27.3	0.0	4.5	13.6
	기타	(6)	33.3	0.0	66.7	50.0	16.7

(4) 지역사회 기관과의 지원 협력 및 연계 수준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및 연계정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는 관련기관별 차이가 20점 이상(100점 기준)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별로 살펴보면, 학교와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75.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강사 및 인력 구축'(70.83점),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67.50점), '예산 운영'(62.50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61.6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66.6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예산 운영'(63.33점), '강사 및 인력 구축'(62.50점),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61.67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59.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는 '예산 운영'이 65.8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65.00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61.67점), '강사 및 인력 구축'(60.83점),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60.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는 '강사 및 인력 구축'이 60.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8.33점),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55.83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8.33점), '예산 운영'(45.8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는 '강사 및 인력 구축'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가 63.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60.83점), '예산 운영'(48.33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7.5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정도에 대한 점수는 '강사 및 인력 구축'이 56.6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5.00점),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54.17점), '예산 운영'(46.67점),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5.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정도는 기관별로 편차는 있으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 및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와의 협력 및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사 및 인력 구축도 다른 기관보다는 학교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 운영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는 학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은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가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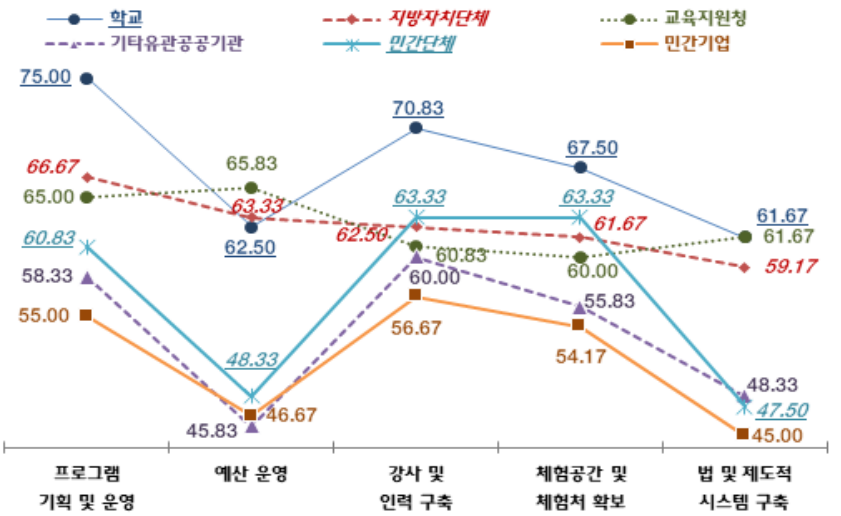


그림 Ⅳ-3.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기관담당자) (단위: 점)

지역 유형별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을 살펴보면, 학교와의 협력 및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강사 및 인력 구축'(72.22점)이 가장 높았으며,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50.00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와 일반도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78.57점, 75.00점)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61.90점)이, 일반도는 '예산 운영'(61.67점)이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산 운영', '강사 및 인력 구축',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가 각각 61.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50.00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와 일반도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64.29점, 70.00점)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강사 및 인력 구축',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57.14점)이, 일반도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63.33점)이 가장 낮았다.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예산 운영'(33.33점)이 가장 높

았으며, '강사 및 인력 구축'과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22.22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는 '예산 운영'(71.43점)이, 일반도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75.00점)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강사 및 인력 구축'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59.52점)가, 일반도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70.00점)이 가장 낮았다. 기타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강사 및 인력 구축'(50.00점)이 가장 높았으며, '예산 운영'과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27.78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는 '강사 및 인력 구축'(59.52점)이, 일반도는 '강사 및 인력 구축'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63.33점)가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7.62점)이, 일반도는 '예산 운영'(48.33점)이 가장 낮았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강사 및 인력 구축'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55.56점)가 가장 높았으며, '예산 운영'과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27.78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강사 및 인력 구축'(61.90점)이, 일반도는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68.33점)가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7.62점)이, 일반도는 '예산 운영'(51.67점)이 가장 낮았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연계 수준에서는 서울은 '강사 및 인력 구축'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50.00점)가 가장 높았으며,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22.22점)이 가장 낮았다. 광역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2.38점)이, 일반도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예산 운영'(63.33점)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40.48점)이, 일반도는 '예산 운영'(50.00점)이 가장 낮았다.

표 Ⅳ-6. 지역 유형별 관련기관과의 지원 협력 및 연계 수준(기관담당자) (단위: 건, 점)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산 운영	강사 및 인력 구축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학교	전체		(40)	75.00	62.50	70.83	67.50	61.67
	지역 유형	서울	(6)	66.67	61.11	72.22	66.67	50.00
		광역시	(14)	78.57	64.29	69.05	66.67	61.90
		일반도	(20)	75.00	61.67	71.67	68.33	65.00
지방 자치 단체	전체		(40)	66.67	63.33	62.50	61.67	59.17
	지역 유형	서울	(6)	61.11	61.11	61.11	61.11	50.00
		광역시	(14)	64.29	61.90	57.14	57.14	57.14
		일반도	(20)	70.00	65.00	66.67	65.00	63.33
교육 지원청	전체		(40)	65.00	65.83	60.83	60.00	61.67
	지역 유형	서울	(6)	27.78	33.33	22.22	22.22	27.78
		광역시	(14)	66.67	71.43	59.52	59.52	64.29
		일반도	(20)	75.00	71.67	73.33	71.67	70.00
기타 유관 공공기관	전체		(40)	58.33	45.83	60.00	55.83	48.33
	지역 유형	서울	(6)	50.00	27.78	50.00	44.44	27.78
		광역시	(14)	57.14	50.00	59.52	50.00	47.62
		일반도	(20)	61.67	48.33	63.33	63.33	55.00
민간 단체	전체		(40)	60.83	48.33	63.33	63.33	47.50
	지역 유형	서울	(6)	50.00	27.78	55.56	55.56	27.78
		광역시	(14)	61.90	52.38	61.90	59.52	47.62
		일반도	(20)	63.33	51.67	66.67	68.33	53.33
민간 기업	전체		(40)	55.00	46.67	56.67	54.17	45.00
	지역 유형	서울	(6)	33.33	38.89	50.00	50.00	22.22
		광역시	(14)	52.38	45.24	50.00	47.62	40.48
		일반도	(20)	63.33	50.00	63.33	60.00	55.00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연간 예산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연간 예산을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 예산이 전체 예산의 6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37.2%, 교육부 특별 교부금 2.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 구성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과 별도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곳도 32.5%이었다.

표 Ⅳ-7.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 구성(기관담당자)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 운영	청소년수련시설과 별도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타
전체		(40)	57.5	32.5	12.5
지역 유형	서울	(6)	83.3	16.7	0.0
	광역시	(14)	42.9	42.9	14.3
	일반도	(20)	60.0	30.0	15.0

지역 유형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83.3%)과 일반도(60.0%)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광역시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청소년수련시설과 별도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각각 42.9%로 지역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7)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구성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내 진로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신설하는 경우가 82.5%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진로체험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경우도 80.0%로 많았다. 기관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로체험활동으로 재구성하는 경우는 40.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외에도 체험처 연계 및 학교연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센터 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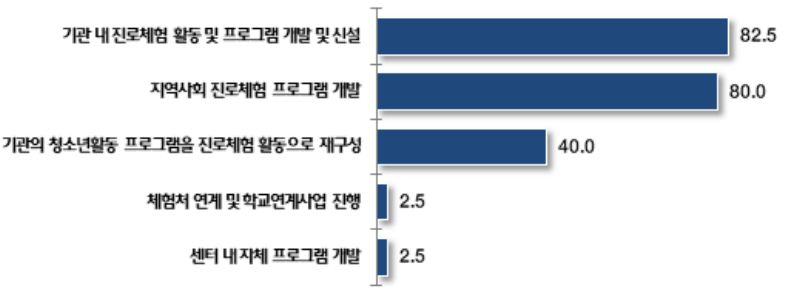


그림 Ⅳ-4.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구성(기관담당자) (단위: %)

지역 유형별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기관 내 진로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이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운영하는 경우가 90.0%, 지역사회 체험처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87.5%, 청소년기관의 공간

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80.0%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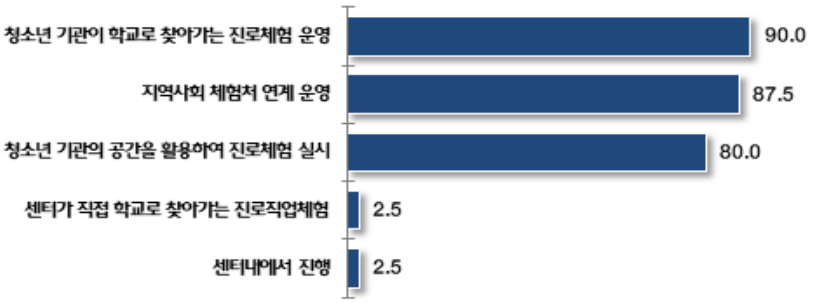


그림 Ⅳ-5.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담당자) (단위: %)

(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인력 구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관련 인력 구성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한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하게 하는 경우(35.0%),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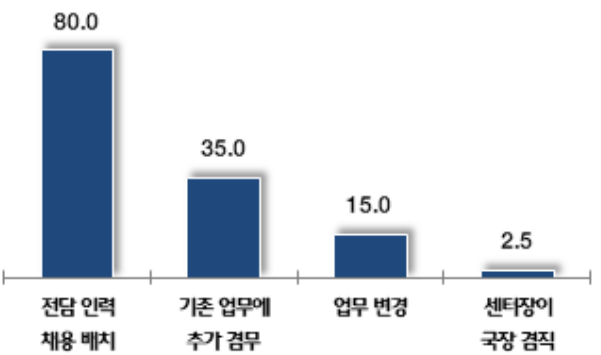


그림 Ⅳ-6.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 구성(기관담당자) (단위: %)

지역 유형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한 경우는 서울(100%), 광역시(78.6%), 일반도(75.0%)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전담 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하는 경우는 일반도(45.0%), 광역시(28.6%), 서울(16.7%) 순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 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8.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 구성(기관담당자)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전담 인력 채용 배치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	업무 변경	센터장이 국장 겸직
전체		(40)	80.0	35.0	15.0	2.5
지역 유형	서울	(6)	100.0	16.7	16.7	0.0
	광역시	(14)	78.6	28.6	7.1	7.1
	일반도	(20)	75.0	45.0	20.0	0.0

(10)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공간 및 시설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진로체험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한 경우는 40.0%, 기관 내 새로운 진로체험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한 경우는 3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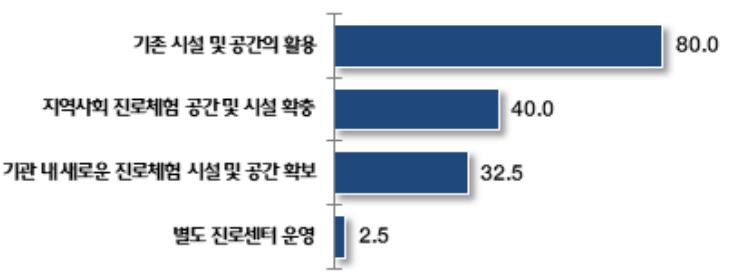


그림 Ⅳ-7. 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기관담당자) (단위: %)

(11)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을 조사한 결과, 기관별 평균 4.9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무자(운영자)가 평균 2.2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운영책임자(평균 0.98명), 중간관리자(평균 0.98명), 기타(평균 0.7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기관담당자) (단위: 명)

지역 유형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 인력을 살펴보면, 전체 인력은 서울이 평균 5.67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평균 5.64명), 일반도(평균 4.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균 실무자(운영자) 수는 서울이 평균 4.00명으로 광역시(평균 1.79명)와 일반도(평균 2.05명)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표 Ⅳ-9. 지역 유형별 진로체험 지원 조직 인력(기관담당자, 평균) (단위: 건, 명)

구분		사례수	전체	운영책임자 (센터장)	중간관리자 (부장 및 팀장)	실무자 (운영자)	기타
전체		(40)	4.93	0.98	0.98	2.25	0.73
지역 유형	서울	(6)	5.67	1.00	0.67	4.00	0.00
	광역시	(14)	5.64	1.00	1.14	1.79	1.71
	일반도	(20)	4.20	0.95	0.95	2.05	0.25

(12)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효과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가 100점 만점(100점=매우 크다) 기준으로 78.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77.50점),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75.83점),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74.17점),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62.5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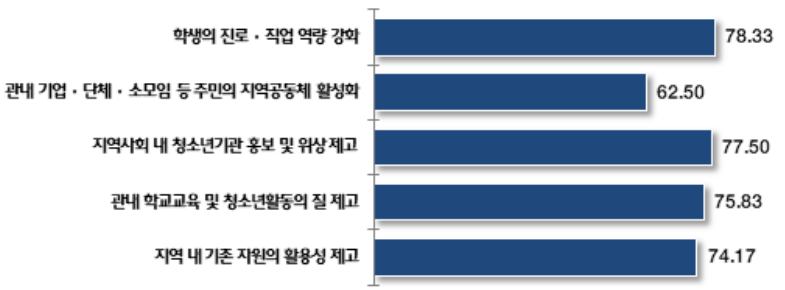


그림 Ⅳ-9.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기관담당자) (단위: 점)

2) 학생

(1)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 응답 사례 수는 527명이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2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인천(19.7%), 경기(16.7%), 서울(13.3%), 대전(11.2%)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경인권이 3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상권(30.2%), 서울(13.3%), 충청권(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57.5%)가 남자(42.5%)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학생(96.2%)이 대부분이었고, 고등학교 학생은 3.8%였다.

표 Ⅳ-10. 응답자 일반사항(학생) (단위: 명, %)

전체		사례 수	비율
		(527)	100.0
지역	서울특별시	(70)	13.3
	부산광역시	(139)	26.4
	광주광역시	(11)	2.1
	인천광역시	(104)	19.7
	대전광역시	(59)	11.2
	울산광역시	(20)	3.8
	경기도	(88)	16.7
	강원도	(26)	4.9
	충청남도	(10)	1.9
권역	서울	(70)	13.3
	경인권	(192)	36.4
	충청권	(69)	13.1
	전라권	(11)	2.1
	경상권	(159)	30.2
	기타권	(26)	4.9
지역 유형	서울	(70)	13.3
	광역시	(333)	63.2
	일반도	(124)	23.5
성별	남자	(224)	42.5
	여자	(303)	57.5
학교급	중학교	(507)	96.2
	고등학교	(20)	3.8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체험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직업체험형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실무체험형(28.3%), 진로캠프형(26.0%), 강연형/대화형(25.8%), 현장견학형(19.4%), 학과체험형(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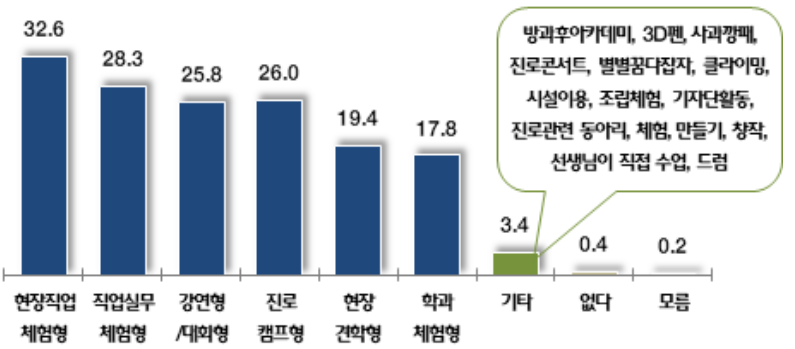


그림 Ⅳ-10.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학생) (단위: %)

(3) 진로체험 참여 방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센터에서 진로체험에 참여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에 희망 신청 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참여(18.6%), 학급 학생만 참여(13.7%),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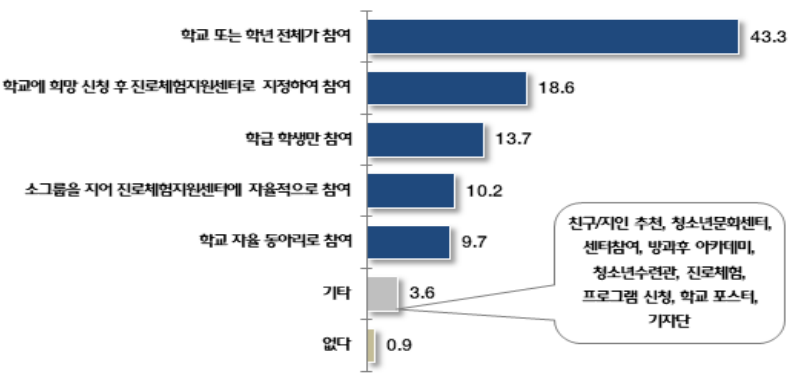


그림 Ⅳ-11.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단위: %)

응답자 일반사항별로 진로체험센터에서 진로체험에 참여한 방식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한 경우는 전라권(72.7%)과 경상권(57.2%)이 많았다. 학교에 희망 신청 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참여한 경우는 경인권(26.0%)에서, 학급 학생만 참여한 경우도 경인권(18.8%),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서울(21.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한 경우는 강연형/대화형(58.1%)과 학과체험형(52.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11.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	학교에 희망신청 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참여	학급 학생만 참여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 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	기타	없다
전체		(527)	43.3	18.6	13.7	10.2	9.7	3.6	0.9
권역	서울	(70)	31.4	20.0	8.6	21.4	10.0	7.1	1.4
	경인권	(192)	38.0	26.0	18.8	8.9	1.6	5.7	1.0
	충청권	(69)	40.6	8.7	10.1	7.2	33.3	0.0	0.0
	전라권	(11)	72.7	9.1	9.1	9.1	0.0	0.0	0.0
	경상권	(159)	57.2	13.2	11.3	6.3	10.7	0.0	1.3
	기타권	(26)	23.1	23.1	15.4	23.1	3.8	11.5	0.0
지역 유형	서울	(70)	31.4	20.0	8.6	21.4	10.0	7.1	1.4
	광역시	(333)	54.7	14.1	11.1	6.6	12.6	0.3	0.6
	일반도	(124)	19.4	29.8	23.4	13.7	1.6	10.5	1.6
성별	남자	(224)	46.4	18.3	15.6	9.4	8.5	1.3	0.4
	여자	(303)	40.9	18.8	12.2	10.9	10.6	5.3	1.3
학교급	중학교	(507)	44.6	17.8	13.8	9.7	10.1	3.4	0.8
	고등학교	(20)	10.0	40.0	10.0	25.0	0.0	10.0	5.0
체험 이전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지 여부	인지	(303)	39.6	18.8	15.2	13.9	8.9	3.0	0.7
	비인지	(224)	48.2	18.3	11.6	5.4	10.7	4.5	1.3
체험 이전 진로체험지원센터 방문 경험	있음	(241)	38.2	19.9	15.4	13.3	9.5	2.9	0.8
	없음	(286)	47.6	17.5	12.2	7.7	9.8	4.2	1.0

표 Ⅳ-12.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진로체험 참여 방식(학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	학교에 희망신청 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참여	학급 학생만 참여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 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	기타	없다
전체		(527)	43.3	18.6	13.7	10.2	9.7	3.6	0.9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172)	40.7	19.8	16.9	7.0	11.0	3.5	1.2
	현장견학형	(102)	34.3	17.6	16.7	15.7	10.8	2.9	2.0
	강연형/대화형	(136)	58.1	11.8	8.1	9.6	8.8	2.2	1.5
	직업실무체험형	(147)	40.1	19.7	15.0	11.6	7.5	4.8	1.4
	진로캠프형	(137)	46.7	16.8	15.3	9.5	3.6	5.8	2.2
	학과체험형	(94)	52.1	17.0	11.7	10.6	4.3	2.1	2.1
	기타	(21)	28.6	4.8	0.0	23.8	23.8	9.5	9.5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진로체험 전반 만족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93.4%(매우 만족 56.4% + 만족하는 편이다 37.0%)로 만족하지 않는다(6.7%)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를 100점 만점(100점= 매우 만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82.48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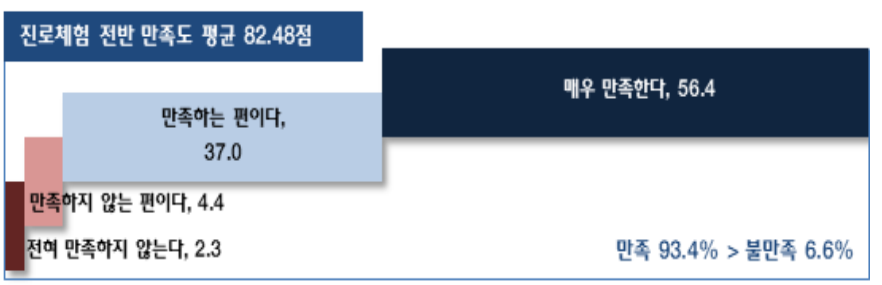


그림 Ⅳ-12.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의 전반적 만족도(학생) (단위: %, 점)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진로캠프형이 85.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연형/대화형(83.82점), 학과체험형(82.98점), 현장견학형(82.35점), 직업실무체험형(82.3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전반 만족도(학생) (단위: 건,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전체		(527)	2.3	4.4	37.0	56.4	82.48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172)	3.5	2.9	37.8	55.8	81.98
	현장견학형	(102)	2.9	5.9	32.4	58.8	82.35
	강연형/대화형	(136)	3.7	1.5	34.6	60.3	83.82
	직업실무체험형	(147)	3.4	3.4	36.1	57.1	82.31
	진로캠프형	(137)	2.9	1.5	32.8	62.8	85.16
	학과체험형	(94)	5.3	1.1	33.0	60.6	82.98
	기타	(21)	0.0	19.0	23.8	57.1	79.37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평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운영된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82.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82.35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82.29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이나 진행이 적절하였다(80.39점) 등의 순이었고,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72.8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Ⅳ-1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평가(학생) (단위: 점)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운영된다'의 응답자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87.63점으로 가장 높고, 기타권이 71.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유형별로는 광역시가 85.09점으로 가장 높았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지 여부별로는 인지자(85.15점)가 비인지자(80.06점)보다 높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방문 여부별로는 방문 경험자(85.48점)가 방문 비경험자(80.89점)보다 높았다.

(6) 진로체험 지원 시설 및 환경 평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해 3개 항목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8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로체험 기관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82.29점), 진로체험 기관까지의 접근성(이동, 통학)에 대해 만족한다(81.02점) 등의 순이었다.

표 Ⅳ-14.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시설 및 환경 평가(학생)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진로체험 시설 및 장비	진로체험 기관의 시간 운영 방식	진로체험 기관까지의 접근성
전체		(527)	83.36	82.29	81.02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172)	83.53	81.59	79.26
	현장견학형	(102)	81.05	78.10	75.82
	강연형/대화형	(136)	83.82	83.33	82.60
	직업실무체험형	(147)	83.90	82.99	82.09
	진로캠프형	(137)	85.16	85.64	83.45
	학과체험형	(94)	85.11	84.75	81.91
	기타	(21)	84.13	82.54	84.13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진로체험 시설 및 장비의 만족도 점수는 진로캠프형이 85.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과체험형(85.11점), 기타(84.13점), 직업실무체험형(83.90점), 강연형/대화형(83.82점), 현장직업체험형(83.53점), 현장견학형(81.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사

(1)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 분석에 포함된 교사 응답 사례 수는 37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산(16.2%), 경기(16.2%), 인천(13.5%) 등의 순이었고, 권역별로는 서울 다음으로 경인권(29.7%), 경상권(18.9%), 충청권(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75.7%)가 남자(24.3%)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94.6%)가 대부분이었고, 고등학교는 5.4%였다.

표 Ⅳ-15. 응답자 일반사항(교사) (단위: 명, %)

전체		사례수	비율
		(37)	100.0
지역	서울특별시	(12)	32.4
	부산광역시	(6)	16.2
	광주광역시	(1)	2.7
	인천광역시	(5)	13.5
	대전광역시	(4)	10.8
	울산광역시	(1)	2.7
	경기도	(6)	16.2
	강원도	(1)	2.7
	충청북도	(1)	2.7
권역	서울	(12)	32.4
	경인권	(11)	29.7
	충청권	(5)	13.5
	전라권	(1)	2.7
	경상권	(7)	18.9
	기타권	(1)	2.7
지역 유형	서울	(12)	32.4
	광역시	(17)	45.9
	일반도	(8)	21.6
성별	남자	(9)	24.3
	여자	(28)	75.7
학교급	중학교	(35)	94.6
	고등학교	(2)	5.4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을 경험한 소속 기관의 유형

교사와 학생이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가 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21.6%), 청소년수련원(18.9%),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3) 체험한 진로체험활동 유형

청소년기관에서 학생들이 체험한 진로체험활동에 대해 교사의 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직업실무 체험형이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연형/대화형(59.5%), 현장직업체험형(45.9%), 현장견학형(29.7%), 진로캠프형(21.6%), 학과체험형(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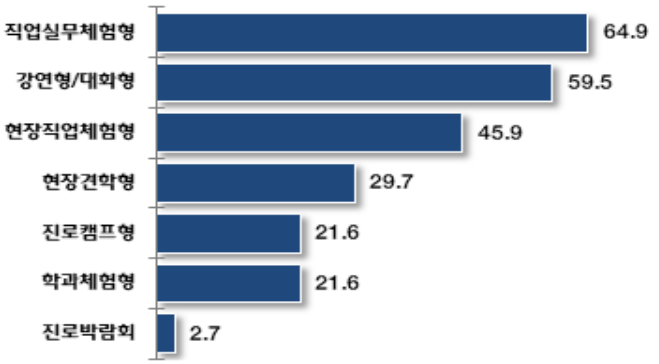


그림 Ⅳ-14. 체험한 진로체험활동 유형(교사) (단위: %)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식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참여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희망학생 배정 참여(29.7%),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5.4%), 학급 학생만 참여(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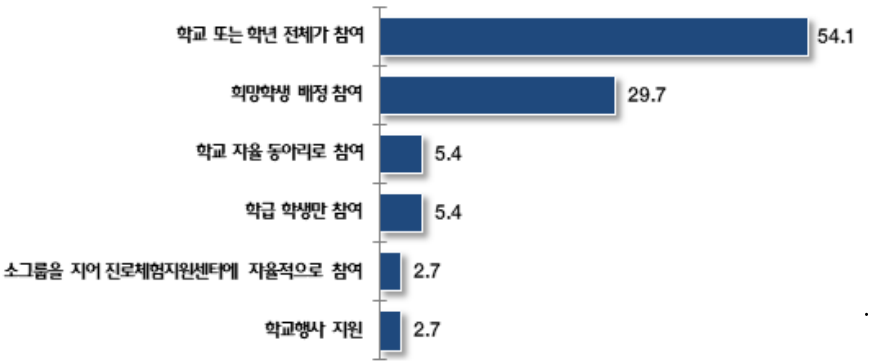


그림 Ⅳ-15.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식(교사) (단위: %)

진로체험활동 유형별로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참여한 방식을 살펴보면, 강연형/대화형과 직업실무체험형의 경우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각각 59.1%, 58.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16.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식(교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	희망학생 배정 참여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	학급 학생만 참여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	학교행사 지원
전체		(37)	54.1	29.7	5.4	5.4	2.7	2.7
진로체험활동유형	현장직업체험형	(17)	47.1	29.4	5.9	5.9	5.9	5.9
	현장견학형	(11)	36.4	36.4	18.2	0.0	9.1	0.0
	강연형/대화형	(22)	59.1	18.2	9.1	4.5	4.5	4.5
	직업실무체험형	(24)	58.3	20.8	8.3	4.2	4.2	4.2
	진로캠프형	(8)	25.0	37.5	12.5	12.5	12.5	0.0
	학과체험형	(8)	50.0	37.5	0.0	0.0	12.5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5) 진로체험 참여율 및 연계 만족도

진로체험의 3가지 유형별로 참여 여부와 참여한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율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 참여율이 8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진로체험(81.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체험(6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한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100점=매우 크다)으로 분석하였을 때,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진로체험 만족도 점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체험(92.75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91.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해, 참여율은 가장 높아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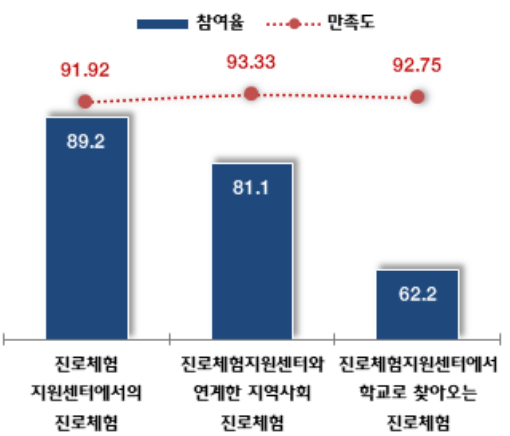


그림 Ⅳ-16. 진로체험 참여율 및 연계 만족도(교사) (단위: %, 점)

(6) 진로체험 만족도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해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100점=매우 만족) 기준으로 했을 때 94.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성(92.79점), 지역사회와 연계한 충분한 진로체험(91.89점),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진로체험 연계에서 진로체험센터의 매개 역할(91.89점) 등의 순이었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충분한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90.9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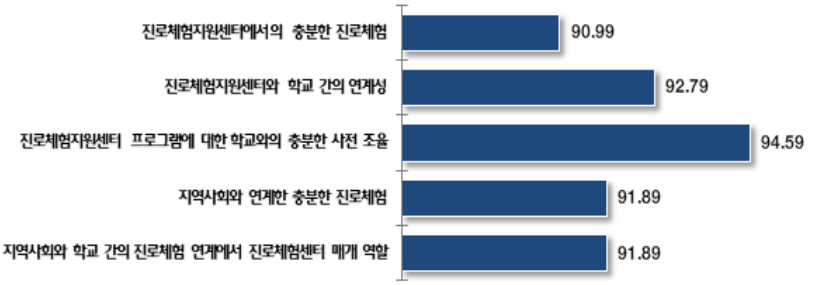


그림 Ⅳ-17. 진로체험 만족도(교사) (단위: 점)

(7)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시설 및 환경 평가

청소년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이나 진행이 적절하였다'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91.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88.29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87.39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87.39점),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다'(87.39점) 등의 순이었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향상시켰다'에 대한 평가 점수가 82.8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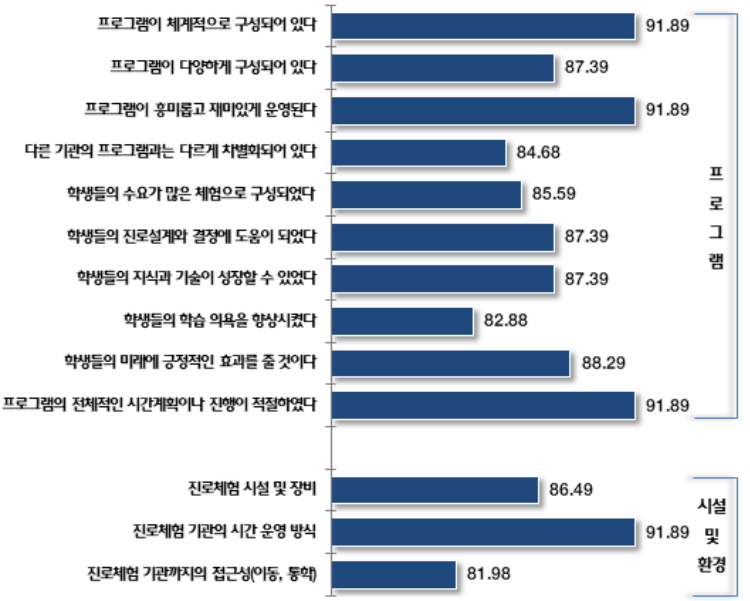


그림 Ⅳ-18.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시설 및 환경 평가(교사) (단위: 점)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시설 및 환경에 대해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진로체험 기관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점수가 91.89점으로 가장 높았다.

(8) 진로체험지원센터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진로체험 운영을 위해 얼마나 상호 협력 및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내용이 90.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정 및 인원(89.19점), 역할 분담(89.19

점), 강사 구성(88.29점), 예산(87.39점), 장소 및 체험처(87.39점) 등의 순이었다. 학생 평가는 83.78점으로 가장 낮아 진로체험 당사자의 피드백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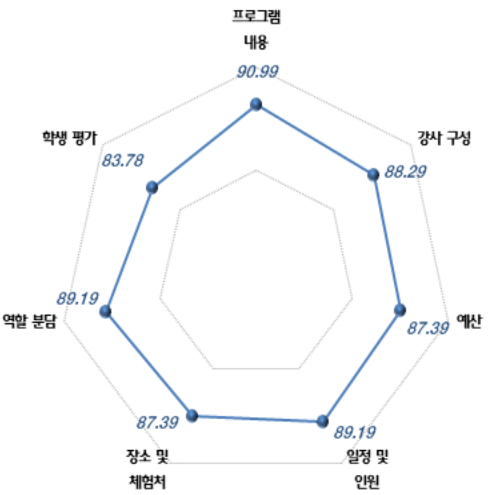


그림 Ⅳ-19. 진로체험지원센터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사) (단위: 점)

(9) 기타 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및 협력 필요사항

학생들의 진로체험 운영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연계 및 협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산 추가지원, 접근 용이성, 학생들의 의견 반영, 교통편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4)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1)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 분석에 포함된 교육(지원)청 응답 사례 수는 32명, 지자체 응답 사례 수는 14명으로 총 46명(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산(10.9%), 대전(10.9%), 강원(10.9%), 충남(10.9%)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인권(19.6%), 경상권(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는 일반도(58.7%), 광역시(32.6%), 서울(8.7%) 순이었다. 근무 기간별로는 5년 이상과 1년 이상~2년 미만이 각각 26.1%로 나타났고, 1년 미만과 2년 이상~5년 미만은 26.1%였다. 담당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개월~1년 미만(32.6%), 1년~2년 미만(19.6%), 2년 이상(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응답자 일반사항(교육청/지자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6)	100.0
소속	교육(지원)청	(32)	69.6
	지자체	(14)	30.4
지역	서울특별시	(4)	8.7
	부산광역시	(5)	10.9
	광주광역시	(1)	2.2
	인천광역시	(1)	2.2
	대전광역시	(5)	10.9
	울산광역시	(3)	6.5
	경기도	(8)	17.4
	강원도	(5)	10.9
	충청북도	(4)	8.7
	충청남도	(5)	10.9
	전라북도	(1)	2.2
	전라남도	(3)	6.5
	경상북도	(1)	2.2
권역	서울	(4)	8.7
	경인권	(9)	19.6
	충청권	(14)	30.4
	전라권	(5)	10.9
	경상권	(9)	19.6
	기타권	(5)	10.9
지역 유형	서울	(4)	8.7
	광역시	(15)	32.6
	일반도	(27)	58.7
근무 기간	1년 미만	(11)	23.9
	1년 이상~2년 미만	(12)	26.1
	2년 이상~5년 미만	(11)	23.9
	5년 이상	(12)	26.1
담당 기간	6개월 미만	(17)	37.0
	6개월 이상~1년 미만	(15)	32.6
	1년 이상~2년 미만	(9)	19.6
	2년 이상	(5)	10.9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참여 적극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조사한 결과, 참여 적극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76.1%(매우 그렇다 43.5%, 그렇다 32.6%)로 부정적인 응답(6.5%, 전혀 그렇지 않다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보다 높았다. 교육(지원)청의 참여 적극성 점수는 78.91점으로 지자체의 점수(75.00점)보다 높았다.



그림 Ⅳ-20.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참여 적극성(교육청/지자체) (단위: %, 점)

(3) 청소년기관의 진로교육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도

청소년기관의 진로교육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견 반영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82.6%(매우 그렇다 41.3%, 그렇다 41.3%)로 부정적인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보다 높았다. 교육(지원)청의 의견 반영도 점수는 82.03점으로 지자체의 점수(76.79점)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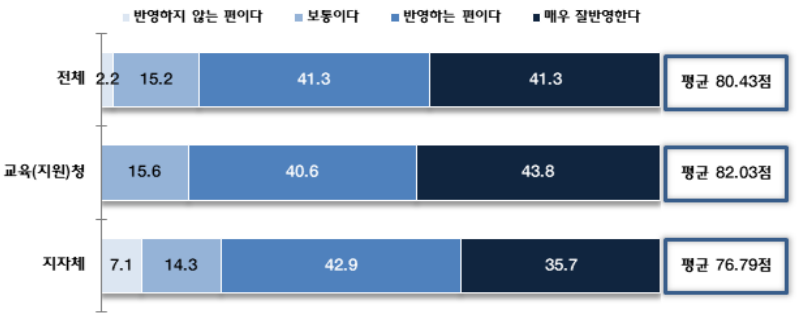


그림 Ⅳ-21. 청소년기관의 진로교육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도(교육청/지자체)(단위: %, 점)

(4)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진로체험 운영을 위해 얼마나 상호 협력 및 연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가 7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예산 운영(72.92점), 강사 및 인력 구축(72.92점) 등의 순이었고,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은 64.58점으로 가장 낮았다. 5가지 항목 모두에서 교육(지원)청의 평가 점수가 지자체의 평가 점수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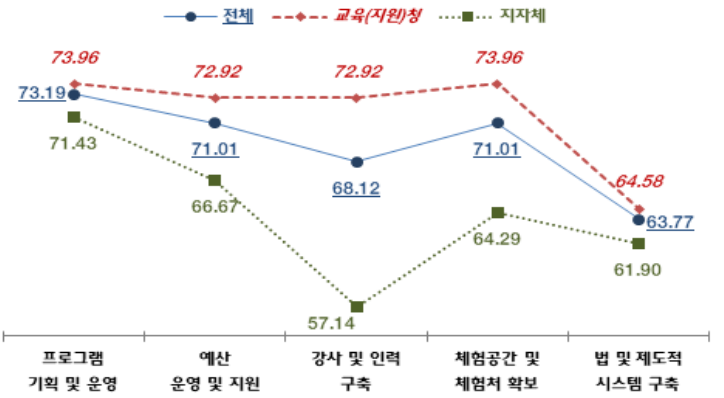


그림 Ⅳ-22.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

표 Ⅳ-18.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상호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산 운영 및 지원	강사 및 인력 구축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전체		(46)	73.19	71.01	68.12	71.01	63.77
소속	교육(지원)청	(32)	73.96	72.92	72.92	73.96	64.58
	지자체	(14)	71.43	66.67	57.14	64.29	61.90

(5)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을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이 78.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교(76.09점), 지자체(71.74점) 등의 순이었고, 민간기업은 59.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교육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의 점수는 교육(지원)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교, 민간단체, 민간기업의 점수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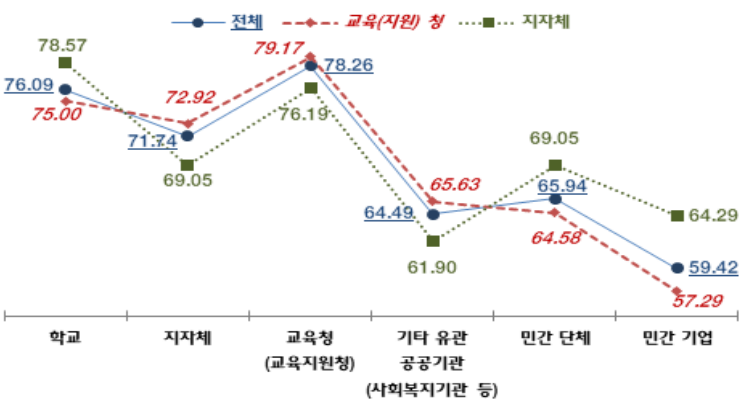


그림 Ⅳ-2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점)

표 Ⅳ-19.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민간 기업
전체		(46)	76.09	71.74	78.26	64.49	65.94	59.42
소속	교육(지원)청	(32)	75.00	72.92	79.17	65.63	64.58	57.29
	지자체	(14)	78.57	69.05	76.19	61.90	69.05	64.29

(6)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효과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가 81.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77.54점),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73.19점),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72.46점),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68.12점) 순으로 나타났다.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자체의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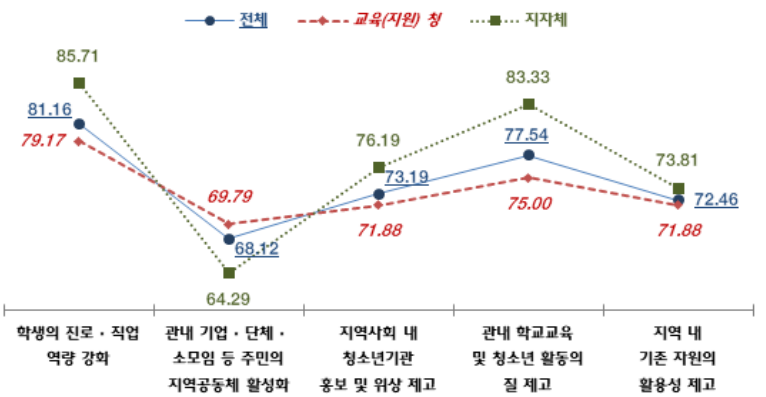


그림 Ⅳ-24.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점)

표 Ⅳ-20.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효과 수준(교육청/지자체) (단위: 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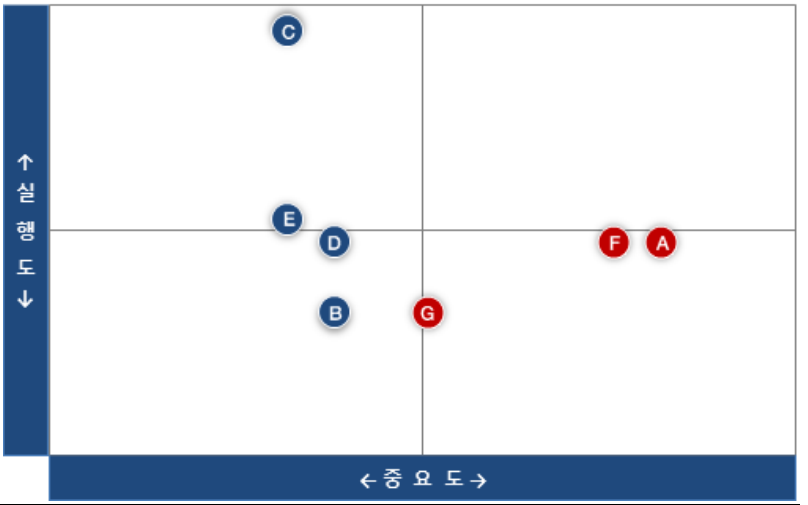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관내 학교 교육 및 청소년활동 질 제고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전체		(46)	81.16	68.12	73.19	77.54	72.46
소속	교육(지원)청	(32)	79.17	69.79	71.88	75.00	71.88
	지자체	(14)	85.71	64.29	76.19	83.33	73.81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요구 조사

1) 기관 담당자

(1)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적극성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적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값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를 비교하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B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C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D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E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F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G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그림 Ⅳ-25.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추진력(기관 담당자)

그 결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A),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F),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G) 등 3가지 항목이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D)와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B) 등 2가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체험활동의 인적 자원 관련 어려움

진로체험활동 운영에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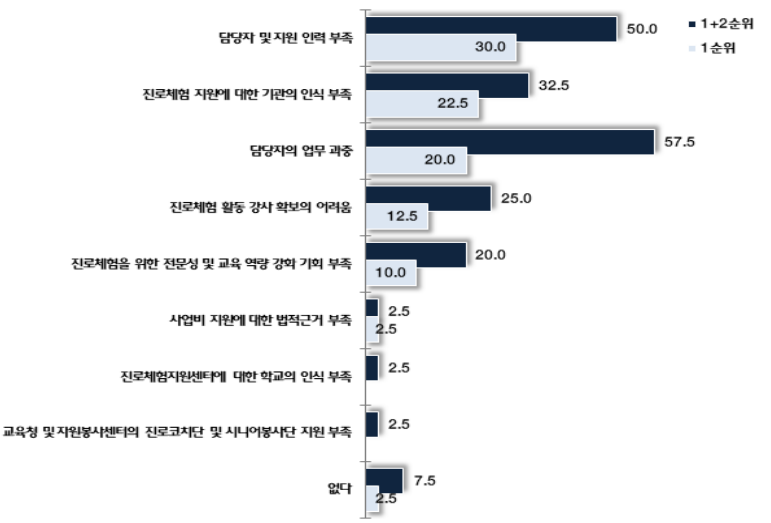


그림 Ⅳ-26. 진로체험활동의 인적 자원 어려움(기관담당자) (단위: %)

(3) 진로체험활동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어려움

진로체험활동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순위형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의 어려움이 6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생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5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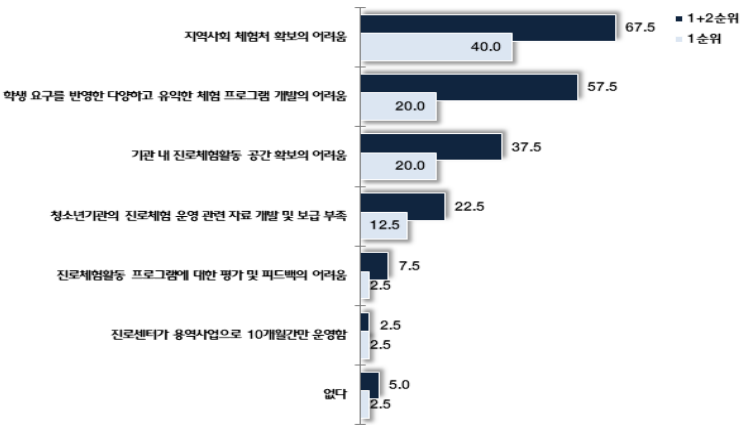


그림 Ⅳ-27. 진로체험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기관 담당자) (단위: %)

(4) 진로체험활동에서 운영 여건 관련 어려움

진로체험활동 운영에서 운영 여건과 관련된 어려움을 순위형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순위(1+2순위)로 접근성의 어려움이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처와 협의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60.0%), 재정적 어려움(5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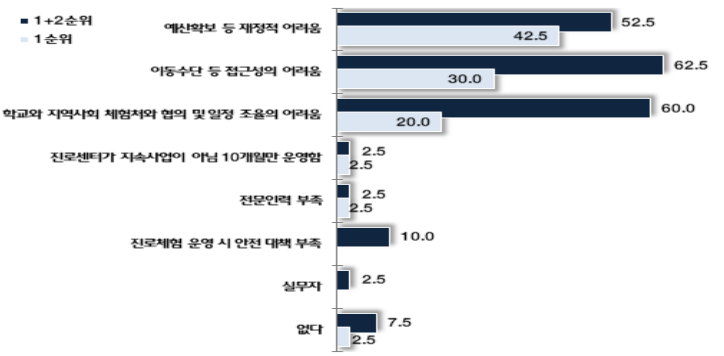


그림 Ⅳ-28. 진로체험활동의 운영 여건 어려움(기관담당자) (단위: %)

(5)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의향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받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95.0%가 재위탁 운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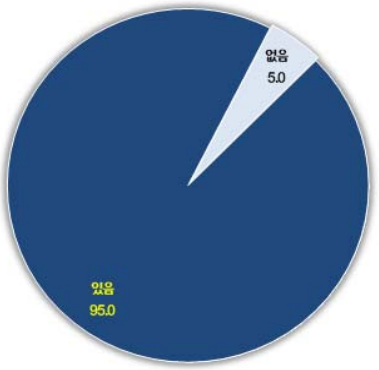


그림 Ⅳ-29.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의향(기관담당자) (단위: %)

(6)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혹은 지원 이유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받아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이유가 42.1%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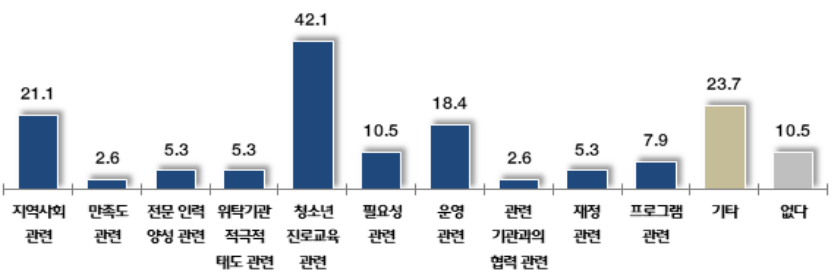


그림 Ⅳ-30.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혹은 지원 이유(기관담당자) (단위: %)

(7)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운영 관련 사항이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력 관련(27.5%), 사업비 지원 관련(25.0%), 관련 기관과의 협력(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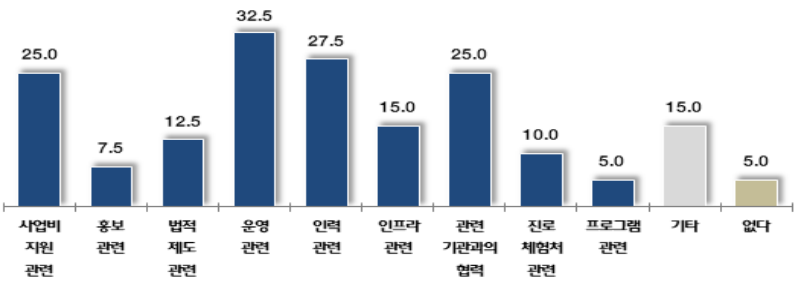


그림 Ⅳ-31.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기관담당자) (단위: %)

2) 학생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의 도움 정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82.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의사소통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81.97점), 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할 수 있다(81.66점), 나의 생활과 직업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81.66점) 등의 순이었고,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평가점수가 80.46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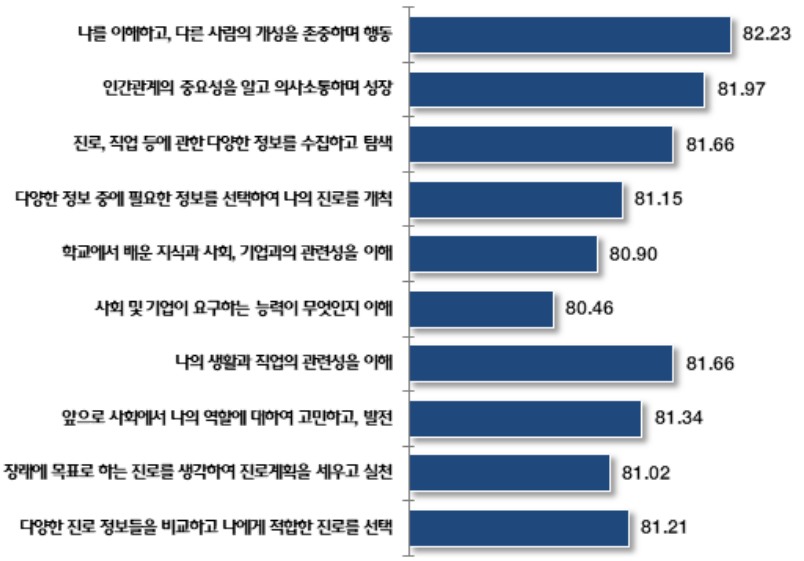


그림 Ⅳ-32.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기여도(학생) (단위: 점)

(2) 진로체험활동 재참여 의향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은 94.9%(매우 그렇다 58.4% + 그런 편이다 36.4%)로 부정적인 응답(5.1%, 전혀 그렇지 않다 1.9% +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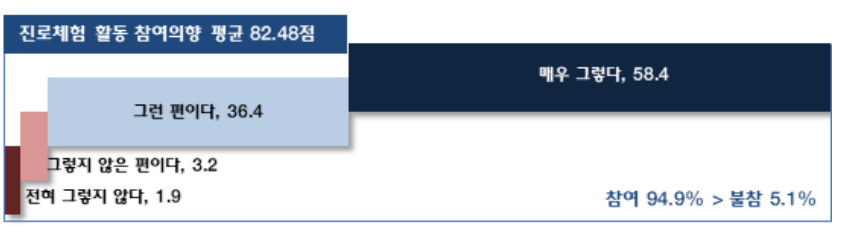


그림 Ⅳ-33. 진로체험활동 참여 의향(학생) (단위: %, 점)

(3) 희망 진로체험활동 유형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싶은 진로체험활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 현장직업체험형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로캠프형(26.8%), 직업실무체험형(22.0%), 현장견학형(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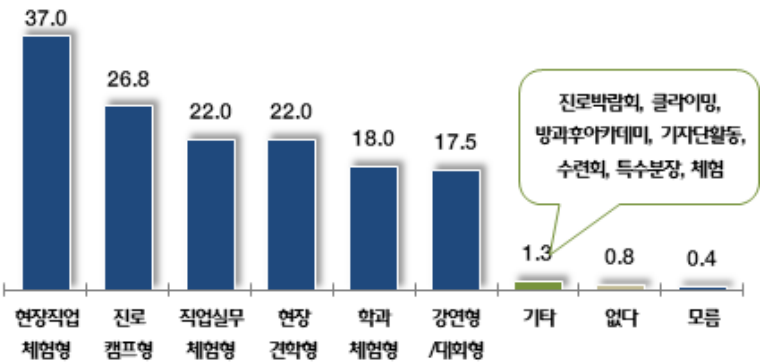


그림 Ⅳ-34. 희망 진로체험활동 유형(학생) (단위: %)

3) 교사

(1) 진로체험 실시의 어려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 시 겪는 어려움을 순위형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순위(1+2+3순위)로 교통접근의 용이성이 5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및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과 불일치(54.1%),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 및 확정 과정의 불편함(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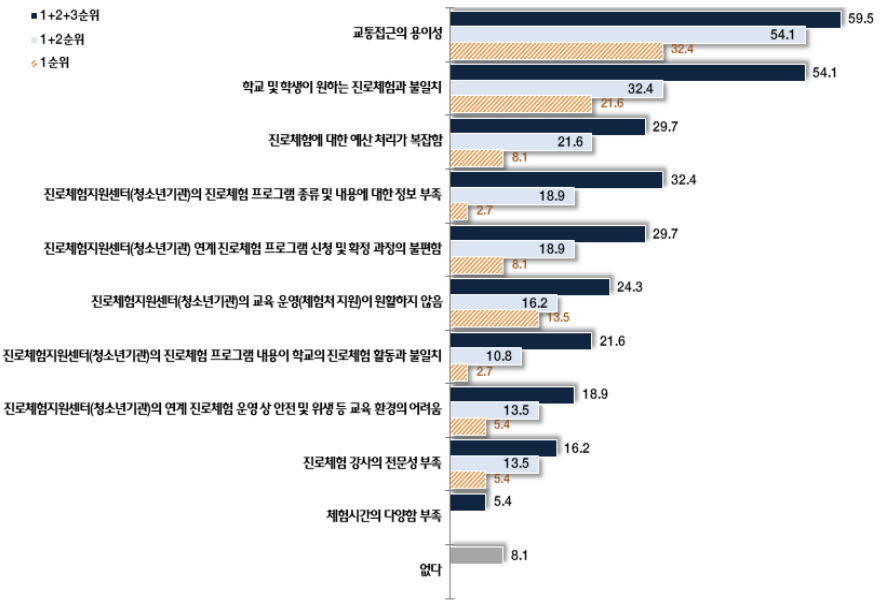


그림 Ⅳ-35. 진로체험 시행의 어려움(교사) (단위: %)

(2) 진로체험지원센터 재방문 의향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는 앞으로도 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평가가 98.20점으로 '나는 앞으로도 센터의 진로체험 외에 다른 활동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94.59점)'는 항목보다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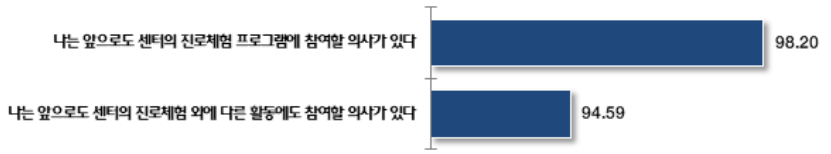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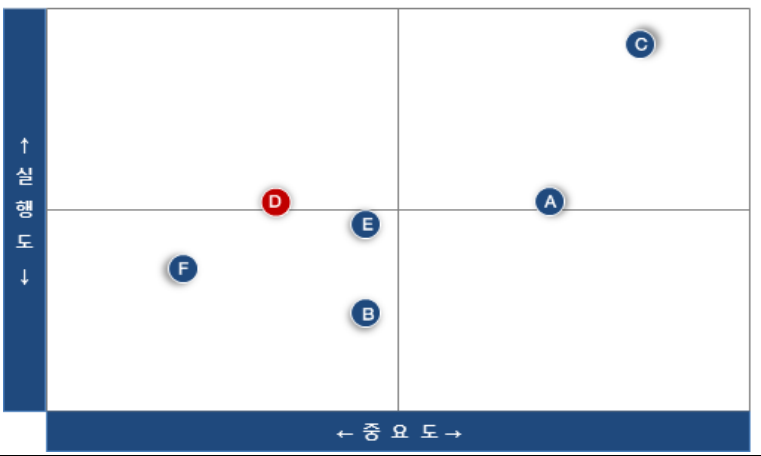


그림 Ⅳ-36. 진로체험지원센터 재방문 의향(교사) (단위: %)

4)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1)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추진력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추진력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와 실행도 값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를 비교하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B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C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D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E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F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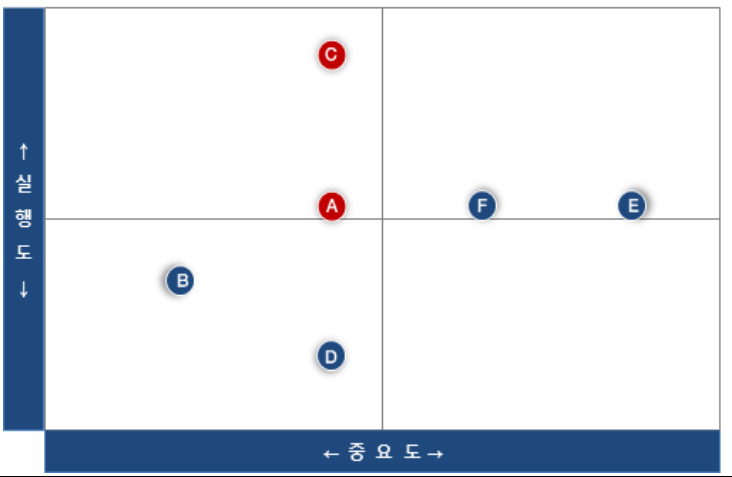
그림 Ⅳ-37.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추진력(교육청)

그 결과,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D)의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도가 높아 실행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A)와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C)

등 2가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B)과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E),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F) 등의 3가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적극성(지자체)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성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값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를 비교하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B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C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D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E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F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그림 Ⅳ-38.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과정별 적극성(지자체)

그 결과,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C)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A) 등 2가지 항목의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E)와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F) 등 2가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B)과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D) 등 2가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시 인적 자원에 대한 어려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이 6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담당자의 업무 과중(4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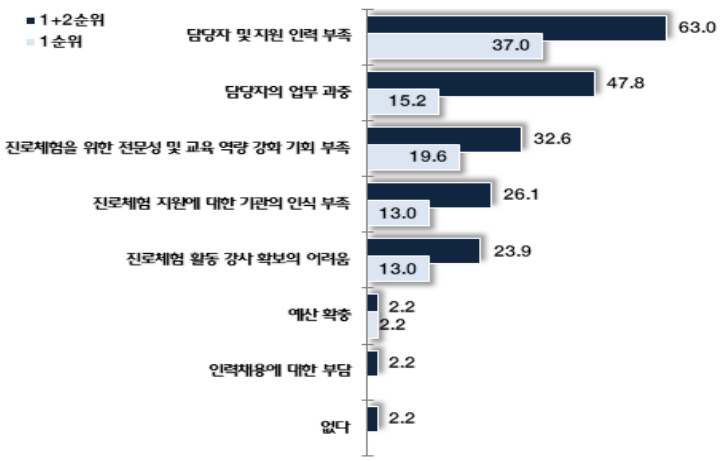


그림 Ⅳ-39.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적 자원 어려움(교육청/지자체) (단위: %)

표 Ⅳ-21. 응답자 일반사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적자원 어려움(교육청/지자체,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담당자 및 지원인력 부족	담당자 업무 과중	진로체험을 위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기회부족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	진로체험 활동 강사 확보의 어려움	예산 확충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없다
전체		(46)	63.0	47.8	32.6	26.1	23.9	2.2	2.2	2.2
소속	교육(지원)청	(32)	62.5	43.8	37.5	28.1	21.9	3.1	3.1	0.0
	지자체	(14)	64.3	57.1	21.4	21.4	28.6	0.0	0.0	7.1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순위형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순위(1+2순위)로 학생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의 어려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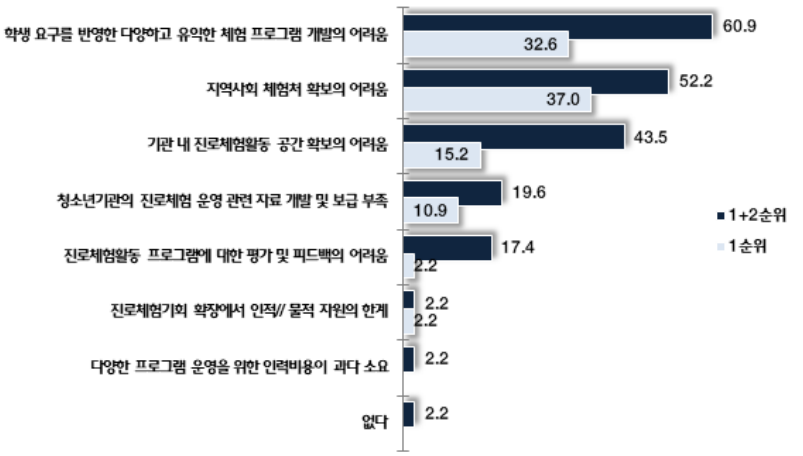


그림 Ⅳ-40.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교육청/지자체) (단위: %)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 여건 관련 어려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여건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종합순위(1+2순위)로 재정적 어려움이 6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과 지역사회 체험처와 협의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60.9%), 접근성의 어려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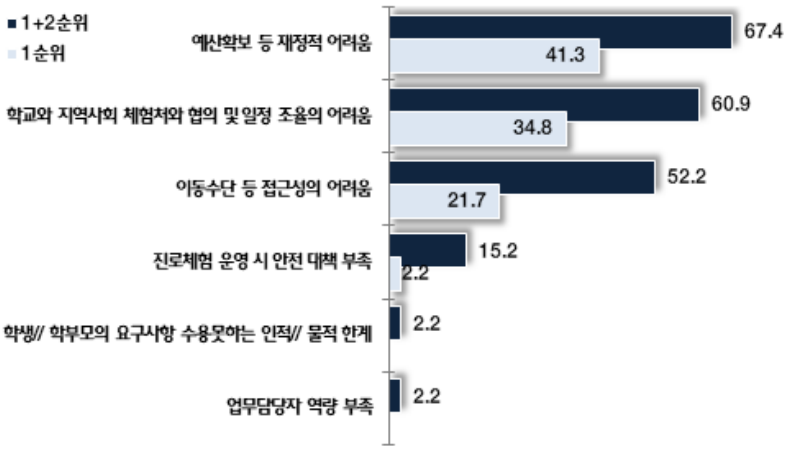


그림 Ⅳ-41.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어려움(교육청/지자체) (단위: %)

(6)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 재위탁 및 지원 의향

향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에 재위탁 또는 재지원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91.3%가 재위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위탁 의향은 92.9%로 교육청의 재위탁 의향(90.6%)보다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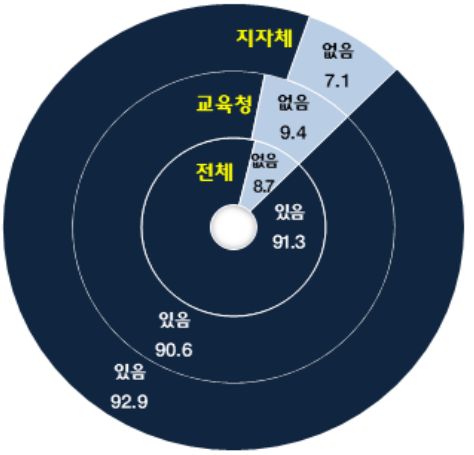


그림 Ⅳ-42.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 재위탁 의향(교육청/지자체) (단위: %)

(7)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및 지원 이유

향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또는 재지원 할 의향이 있다는 42개 기관(교육청 29개, 지자체 13개)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교육 관련의 중요성, 위탁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지역사회 인프라 관련 등의 이유 외에도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안정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필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고취,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발굴된 체험처 직무파악/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 학생들의 요구 상황에 적극 반응하고 수용,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실업률 증가 문제와 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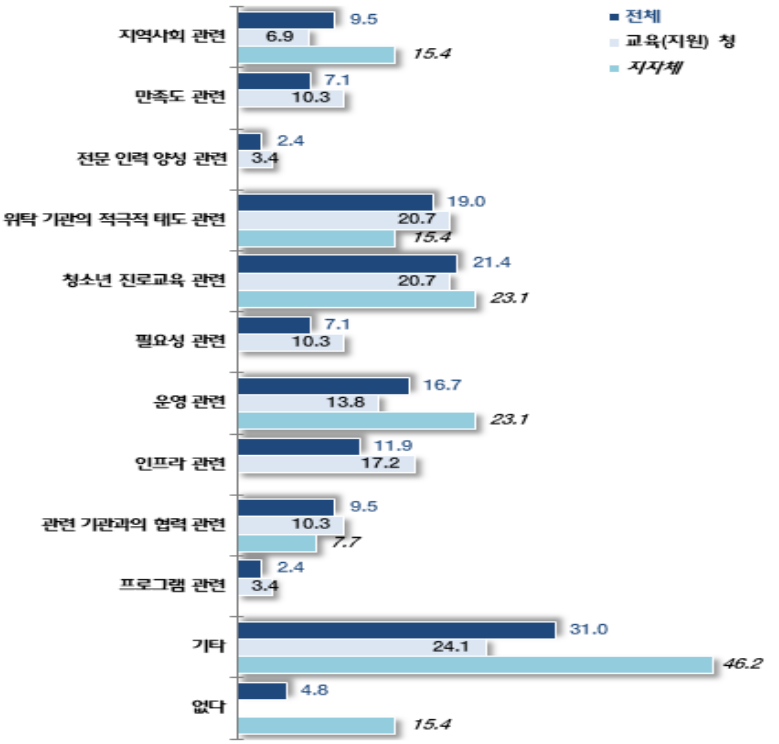


그림 Ⅳ-4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 재위탁 및 지원 이유(교육청/지자체) (단위: %)

(8)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로서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인력 관련 사항(인력 충원, 직원 안정성, 전문인력 충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업비 지원 관련,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타(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학교와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다양화)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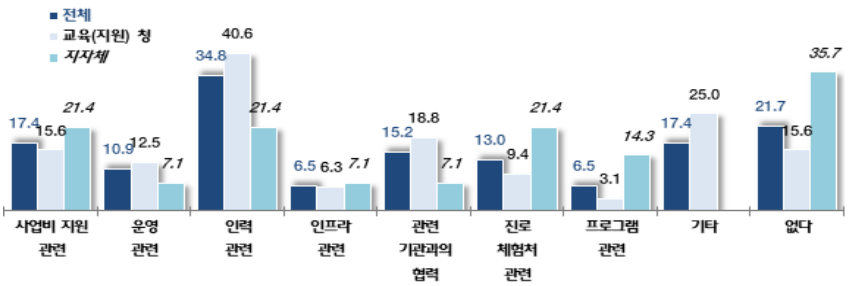


그림 Ⅳ-44.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교육청/지자체) (단위: %)

4. 소결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요구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분석해본 결과,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통해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공급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운영 주체를 통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 교사의 경우, 진로체험 기관까지의 접근성 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각각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가 진로체험 지원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진로체험 지원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장소이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 '청소년기관에

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장소이지만, 별도의 시설을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공간의 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청소년기관 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사회 진로체험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관 내 새로운 진로체험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새로운 진로체험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로의 진로체험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위 학교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사 및 인력 구축,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또한 단위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 지원에 있어 단위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관과 단위학교가 참여 방식, 프로그램, 체험 공간, 강사 및 인력 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소년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학교 관계자에게 청소년기관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상담부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청소년기관을 학교관계자와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로체험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체험 공간 및 체험처 확보, 예산 운영, 강사 및 인력 구축,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에 순으로 협력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였다. 기존의 청소

년활동 프로그램과 어우러지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한 별도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내 진로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신설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체험처 연계 및 학교연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센터 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체험처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기관이 진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에서 진로박람회를 구성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다른 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면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청소년이 원하는(관심이 있는) 체험이 아닌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소규모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다면, 청소년의 주도적인 진로활동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할 때에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하도록 하는 경우,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구조사에서도 담당자의 업무 과중,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로체험활동 운영 여건에 있어서도 청소년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업무에 추가 겸무를 하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지도사 자격 및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관에서 연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경우의 운영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이 효율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역량 개발을 함양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지원의 목적은 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이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진로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존재감과 진로체험에 대한 전문성을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추진력과 적극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 공간을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며,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함께 상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처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및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은 진로체험 지원에 재참여할 의사가 있었다. 청소년기관의 경우 청소년과 관련된 진로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체성을 가지고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청소년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및 수년간의 청소년 활동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역량에 대하여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Ⅴ장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체계 모형 개발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체계 모형 타당화

V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1)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 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례의 맥락과 사례 기술로부터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 p.117). 본 연구에서는 다중사례연구(qualitative multiple case study)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사례를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주제를 분석하며, 사례 간 주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도출하기에 앞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하였다. 첫 번째,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체험을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가? 두 번째,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 이 장은 강경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형태(공간 구성, 프로그램)로 운영하는가? 세 번째,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활용하였는가? 네 번째,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의 사례 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유형, 방향, 공간 구성, 프로그램, 지원 전략,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요인을 도출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면담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사례를 탐색하였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진로 관련 활동의 지원 주체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총 7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V-1. 면담 일정 및 참여자 인원

참여자	면담 참여자			면담일자	면담시간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운영 경험	소속	직위		
A	지자체 지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관장	2019.06.05	80분
B	교육(지원)청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관장	2019.07.31	50분
C	청소년진로수련활동 운영	청소년수련원	원장	2019.08.07	70분
D	직업체험 특화시설 운영	특화시설	부장	2019.08.08	90분
E	교육(지원)청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019.08.27	50분
F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고등학교	교감	2019.09.10	60분
G	마을학교 연계 진로체험 지원	청소년수련관	관장	2019.09.24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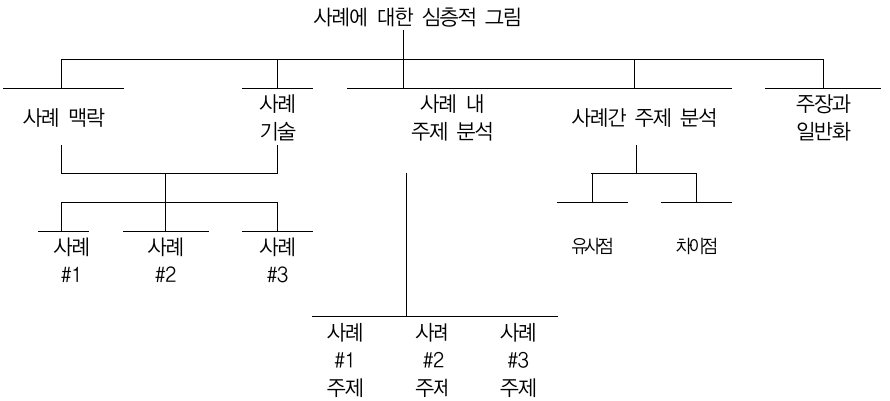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 등 각각의 사례별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이후 주제 간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 사례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운영 및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각 사례별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사례에 따라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을 상기시키고자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지원 경험과 함께 기관의 홍보용 자료 및 홈페이지의 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활동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과 함께 수집한 자료는 그동안 청소년기관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했던 진로 관련 행사, 프로그램, 연간 일정, 활동자료, 보고서 등이었다. 면담의 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면담 전에 전화를 통해 면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면담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면담 장소에서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메모와 녹음을 통해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5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활동, 운영 절차 및 방식, 운영 시 어려운 점, 개선 사항 등이다. 예컨대, '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를 시작으로 '그동안 진로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요?',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지역사회와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였나요?', '진로체

험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활용한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기술(description)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에 대한 사례 내 주제 분석을 실시하고 사례 간 주제 분석을 통해 범주별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의 사례 및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면담 시에 메모, 기관의 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 출처: 조흥식 외(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 학지사. p.238.

그림 Ⅴ-1. 사례연구 분석 절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자료 분석과 주제 도출은 이론적 고찰, 청소년진로체험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방향, 진로체험활동 공간 구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의 틀로 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도출된 주제는 주제 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일반화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와 모형에 대하여 엄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멤버 체킹(member checking)과 메모, 홈페이지, 인터뷰 자료, 각 기관별 홍보자료, 기관별 보고서 등을 통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개발하였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사례 탐색

(1) 사례의 맥락과 사례 기술

청소년의 진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 지역사회, 단위학교를 연계하여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체험처와 학교를 매칭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수련시설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혹은 별도의 사업 예산을 받아 진로 활동 및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진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 협력한다면 청소년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생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A’사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독립적으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재단이 수탁 운영하여 청소년 진로 특화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여 2016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분리되어 재단에서 운영하며 현재까지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 거점센터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찾아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당당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사례는 청소년진로체험을 위한 운영전략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직업체험 지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 진로직업체험 진행,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 진로설계 및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체험이 가능하도록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주는 마을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B’ 사례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의 멘토 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지역 상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체험관 및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시장상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C’ 사례는 청소년수련원의 수련활동을 활용하여 2박 3일 진로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진로활동을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시간 진로에 대하여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D’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중 특화시설로, 직업체험 특화시설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역량 중심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써 청소년이 스스로 직업에 대해 체험하고 진정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회기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 사례 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로체험 지원을 하는 사례로서,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위하여 마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직업 관련 마을지도를 청소년과 함께 제작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진로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메이커 X 진로 박람회'를 개최한 사례이다.

'F' 사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오랜 동안 지역의 혁신교육사업과 진로 관련 활동을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한 사례이다.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기획하고 협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하는 등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G' 사례는 지역공동체의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자체적으로 마을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마을의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모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마을을 지정하여 학교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직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주제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가독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청소년기관의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의 체험처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지원한 사례이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방향, 공간 구성, 프로그램, 전략, 교육 여건에 대한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사례 탐색을 위한 주제 분석 결과

분석 틀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지역 연계 진로체험
진로체험 활동 지원의 방향	청소년기관에서 효율성 있는 체험을 지원함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 체험을 지역자원과 결합하여 운영함
	'말 걸기'를 통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지원을 견인함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함
진로체험 활동 공간구성	청소년기관 내 시설에 진로와 어우러지게 공간을 구성함	지속적으로 현장과 만날 수 있는 진로체험
	유연한 공간을 통해 진로역량을 개발함	생활 속에서 현장감 있는 진로 체험을 지원함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함께 체험활동을 경험함
	기관의 프로그램을 진로와 연계하여 운영함	지역 멘토를 구성하여 학교와 연계함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기초로 조직 내의 공감을 통한 협업	지역 내 공감을 통해 자발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지속적으로 활성화함
	청소년기관의 개방과 협업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식함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하며 만들어 나아감

가)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운영 사례

(가)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방향

청소년기관에는 청소년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관이 가진 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이 목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활동 지원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소년기관에서의 효율성 있는 체험을 제공함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에 대한 수요자들이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효율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련관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련관도 그런 진로라는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은 없이 그냥 동아리실, 교육실, 무슨 체육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진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완전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진로라는 키워드를 넣은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구요('A 참여자').

> 지금 진로센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련시설에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로 오는 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이원화가 되면은...('C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 방문하는 진로활동 관련 수요자에게 청소년기관에서 진로 관련 활동하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관 주도의 진로체험활동 사업은 지역사회의 진로 관련 사업들과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지역 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관이 공간과 관련 활동을 연계하여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 안에서 필요한 진로 영역의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그들과 경쟁할거냐 아니면 함께 협력해서 상생할거냐의 선택은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련관도 그렇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그렇고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를 한 센터가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보다 먼저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함께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산도 합해지고 각각이 갖고 있는 인프라도 합쳐지기 때문에('A 참여자').

의회나 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 접근하거나 말 걸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일상이어서 그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가졌을 때 정무적 기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익년도의 교육 경비 내에 진로와 관련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좀 더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네트워크 안에서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되어줘도 네트워크 안에서 상당히 입지가 높아지는 영향...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 업무 분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A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예산 확보가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청소년기관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말 걸기'를 통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지원을 견인함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말 걸기' 및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의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를 주제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왜 이런 사업과 네트워크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수련관에서 보면 사실 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럴 때 남들이 해야 되지만 못하는 말들을 지역에 '말 걸기'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 차원의 행정부가… 전폭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교육청소년과거든요…(중략)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소년과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식사를 하시든지 인사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님 꼭 좀 참석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굵은 씨줄과 날줄을 탄탄하게 그물망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했었었죠('A 참여자').

지역사회의 스킨십이 결국은 단순히 진로라는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다양한 활동 있잖아요. 그게 자원봉사가 됐든… 청소년참여활동이 됐든…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이 됐든… 그런 활동 안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이 다시 됐더라구요('E 참여자').

청소년 진로체험의 특성화기 때문에 고런 어떤 역할 안에서는 이미 좀 잘 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어요. 지역의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또 되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견인 역할은 좀 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B 참여자').

OO에서 진로를 특성화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은 또 저희가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제안을 좀 했구요('B 참여자'). 수련원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거고, 진로와 매칭이 된… 우리 수련원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은데…… 지금 어차피 청소년 트렌드가 자유학기제가 생겼으니까 진로교육법이 생겼으니까 진로와 연계된 수련활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테마를…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C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지역사회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말 걸기'를 통해 청소년진로지원네트워크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 체제는 지역사회 스킨십을 통해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학교, 지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다양한 영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진로체험활동의 공간 구성

청소년기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던 시설을 진로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거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해 시설에서 공간을 확대하거나 주변의 시설을 활용하여 진로박람회 등의 행사를 운영하였다.

■ 청소년기관 내 시설에 진로와 어우러지게 공간을 구성함

청소년기관이 진로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진로와 어우러지게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진로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과 진로를 어우러지게 구성하여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였다.

> 그러면서 공간 안에 진로라는 영역의 키워드가... 진로탐색실, 진로상담실 할 수 있는 것들을 수련관 내 시설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어요('A 참여자').

> 체험 부스를 비롯해서 백 개의 부스가 쫙 펼쳐지면 자유학기제 1학년 아이들이 학교 수업 빼고 다 와서 박람회에 와서 하는데... 기존 일반 교육 박람회랑 다른 게 사전 매칭이에요. 학교에서 기본 3개씩을 아이들이 사전 신청을 해서 학교 수업처럼 정해진 시간에 고 백 개 부스에서 백 개로 쫙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1, 2, 3교시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자유체험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시간이 있고. 아침부터 네 시까지 저희가 백 개 부스가 그렇게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돌아가죠('E 참여자').

모든 시설을 진로사업에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파이가 굉장히 커진 형태이구요. 베이킹실은 원래 처음에 문화의집만 있을 때도 있긴 했었어요. 진로가 생기면서 주로 진로에서 그 공간을 다 사용을 하게 됐고. 바리스타실은 개조해서 만들었고('E 참여자').

청소년기관의 공간명에 '진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련관 내 시설에 진로와 어우러지게 공간명을 명명하였으며, 진로박람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 유연한 공간을 통해 진로역량을 개발함

청소년기관은 그동안 운영하였던 청소년활동을 진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내 공간을 바꾸거나 기자재를 활용하였다.

근데 우리가 OO장 학교가 빠지면 뭐냐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 라는 식으로 제가 약간 OO들이 기획하는 사업들을 거의 그냥 토 안 달고 승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의 좀 더 결정 단위에서 저희는 뭐 부장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반년동안 물론 이걸 돌리면서 또 별개로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때 뭐 한참 4차 산업혁명 나올 때니까 그 실제 역량이라는 게 뭐고 그걸 청소년들한테 이해시키거나 경험시키려면 어떤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D 참여자').

교구라든가 뭐 이런 거... 자재, 체험교구 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제 12개 선정을 했어요. 12개 선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C 참여자').

일단 강사들이 각자 체험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체험관 언제든지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다양한 또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B 참여자').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관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진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 아이들한테는 되게 진로는 중요하죠. 자신들의 어떤 삶을 꿈꾸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 꼭지를 저는 맡고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제 이 정형화된 안에서... 이미 이제 체험관이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을 너무 한정시켜서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인 거죠('B 참여자').

> 센터장님도 그거에 많이 동의를 하셔서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약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잘한 사업들을 막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초기부터 유망주였기는 했지만 OOOOO소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된 거죠('D 참여자').

> 이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험관을 만들어내고 고 부분 지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OO 같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체험... 어? 우리는 이런 체험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단계부터 조금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부분을 더... 저는 사실 자유학기제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B 참여자').

>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한번 와서 수업할 때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가요. 아이들이 왔을 때 각 실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전문 기자재가 있지 않은 최소한 강의는 가능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자재가 최소한 강의할 수 있도록 노트북하고 빔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문집에서 처음부터 그게 각 실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으로 들지는 않는데('E 참여자').

> 그렇다고 이런 공간, 교육장은 우리가 수련활동 쓰는 공간이고 여기서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어차피 교구가 달라지는 거, 교구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C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한정적이고 고정화되어 있는 체험보다는 공간 내에서 교구나 기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진로활동공간을 활용하였다.

(다)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시에는 학생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이 구성한 멘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학생들이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서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진로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주말 및 방학 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나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몸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체험활동을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을 운영할 때 단체로 관람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떠밀려 배정받는 식의 체험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나는 것이다.

> 학교에서는 딱 아이들 배정해서 강의실에, 어느 프로그램의 강의실에 몇 학년 몇 반 강의실에 거기로 아이들 투입을 해주는데 우리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가위바위보 시키지 말고 줄 세우기 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직업인을 만날 수 있게 그것만 좀 선발해달라, 이번에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프로그램 저희가 사전에 자료 다 드릴테니까, 이들에게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 선택이 우선이 되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나가니까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죠('C 참여자').

> 멘토 풀을 저희가 150명을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좀 하고 또 학교랑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그걸로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B 참여자').

어떤 직업인의 관점에서 좀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그거가 하고 다 있으니까... 지금도 저희가 일 년에 한 팔천 명 오는데... 우리는 좀 다른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역량 중심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거죠. 그 전에는 직업을 체험하는 거였다면, 굳이 말하자면 이런 역량이 직업인에게 필요하다 라는 걸 느껴보는 역량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 예전 말로 하자면? 그런 거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역량을 느껴볼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D 참여자').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남으로써 학생들은 직업인의 관점에서 체험을 하고,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 중심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 같은데 뭔가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것들을 하고 맥락을 좀 알고. 그냥 우리가 애들 그냥 기분 좋게 도와준다 이런 거는 돌봄에 가깝다면 계속해서 너는 뭐지? 너는 이 사회에서 뭐지? 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싶지?를 말하는 게, 그걸 알아가는 게 진로잖아요?('D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멘토와 직업인을 모집하여 직업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기관의 프로그램을 진로와 연계하여 운영함

청소년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기관이 구성한 멘토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거나 기관으로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기관의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계속 청소년활동 하나로 좀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갈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체험관이나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조금 체계화시켜서 체험에 청소년들이 오는 요런 형태인데...('B 참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진로수련활동이라고 그래서 바꿔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 수련활동은 그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로수련활동을 집어넣은 거죠('C 참여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의집에서 하던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진로라는 컨셉에 맞춰서 진로에서 가지고 와서 했다든지. 아니면 방학 특강, 토요 체험 이렇게 주말형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문화의집의 형태의 사업들이 진로라는 컨셉에 맞춰서 진로센터에서 운영이 된...('E 참여자').

예컨대,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서는 진로수련활동으로 2박 3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방학특강, 주말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수련활동과 연계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수련이니까 뭐 아이들 간에 서로 유대감을 위한 소통, 공감, 인성, 그리고 요새 나오는 창의융합, 그리고 진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C 참여자').

교외체험학습. 학교밖 체험학습인 거예요. 개인체험학습이라고도 하고요. 체험학습과 학기말 취학시기에 연계를 하면...(중략)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교육지원청이랑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고런 프로그램들 연간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고걸 리스트화해서 교육지원청 통해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학교는...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수련관 예산이 없으면 학교에 예산은 많아요. 학교에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효율적으로 쓸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동아리활동이랑 연계될 수 있는 거는 '아 이건 동아리랑 연계될 수 있겠네?', '이거는 애들 수능 이후에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은 좋죠('F 참여자').

진로적인 탐험을 좀 해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20주로 구성을 해서 들어가서 했었어요('D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체험활동으로서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진로수련활동을 운영하거나, 주말 및 방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라)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

청소년기관에서는 진로체험 지원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되고 운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공감을 통해 조직 내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로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단체와의 공감을 통해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서 진로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 관련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의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소년기관의 활동과 시설을 알리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기초로 조직 내의 공감을 통한 협업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관 내 조직에서의 공감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청소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기관이 전문적인 청소년 진로지원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자발성이 결여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자발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언제부터 가졌었느냐 안 가졌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for who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냥 떠안겨서 하는 자발성이 결여된 사업은 절대 어떤 좋은 결과...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양적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질적 성과까지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그래서 저는 자발성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A 참여자').

OO에서 진로를 특성화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은 또 저희가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제안을 좀 했구요('B 참여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구조적인 시스템의 탄탄함.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을 누구로 할 거냐... 견인해내는 담당 지도자의 역량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담당 지도자 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을 위해서 내부, 시설 내부에... 함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짐을 나눌 수 있는 협업 체계는 돼 있는가. (중략)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충분한 공감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한 사람의 결정으로는 안 되더라구요. 적어도 공동체, 그 조직 내의 공동체가 충분하게 공감되어졌을 때 정말 좋은 협업들이 일어나거든요('A 참여자').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협업 체계를 가져줘야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이들이 저희 토요일마다 모여서 동아리활동으로 진로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잖아요? 토요일이야... 어 그럼 수련관에서 했으면 좋겠네... 수련관 누구한테 안내말씀 드려 놓을 테니까 전화해서 안내 받아... 그러면 전화해서 이쪽으로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로활동이 또 좋은 파트너에 의해서 진로동아리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런 유기적 관계들이...('A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은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청소년을 위해서 자발성을 기초로 청소년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관 조직 내 및 청소년기관과의 공감을 통해 청소년들이 수련관에서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청소년기관의 개방과 협업을 통해 신뢰와 전문성을 인식함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의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청소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약간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D 참여자').

> 첫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고민이 뭘까에 대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 교육청은? 이게 되게 궁금했고요...(중략)교육장님하고 저희가 이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환영하시고 좋아하시더라구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돕겠다고 말씀 받아서 MOU를 맺었구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서로 필요한... 협업한다는 도장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A 참여자').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청소년의 진로를 주제로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였다.

> 지역 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오면서 지역 안에 청소년OO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구나...('B 참여자').

> 저는 수련관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원 가능한 네트워크들의 모임 공간도 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야 되죠. 그게 공간의 개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심리적 개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부가적으로 존재감도 높여지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공공성도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임 공간을 가져라.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공간을 개방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가 모임을 갖는 공간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A 참여자').

진로체험처로서의 개방이 돼야죠.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중략) 아 우리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을 때 아 수련관이 진로라는 영역의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도 갖추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나는 곧 신뢰나 전문성...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뢰와 전문성과 연결이 되거든요('A 참여자').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진로 체험하러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노래방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가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와서 이용하거나... 저희가 공간대관이라고 해서 공부할 때는 도서관처럼 공부할 수 있게 실을 그냥 빌려주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하고 와서 활동도 하고('E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활동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전문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체를... 교장 선생님단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기관 라운딩도 좀 시키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고런 설명도 하고... ('B 참여자').

학교장 간담회, 교감 선생님 간담회, 진로진학 부장 선생님 간담회를 다 가졌어요. 별도로... 그래서 만나서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만난 분들이 진로 부장 선생님들이예요. 중고등학교는 담당 부장 선생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마침 OO은 그 분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 그 모임 공간 잡기 힘드시죠... 수련관에서 부장단 회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회의실 잘 갖춰져 있으니 여기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구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했어요. 저희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한 번에 모셔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A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신뢰롭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이 진로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기관

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개방을 통해 학교 관계자에게 청소년기관의 활동과 시설에 대해 인식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 지역 연계 진로체험 운영 사례

(가)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방향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활용하여 현장성 있고 실제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 연계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요구와 학교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직업인의 현장 교육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체험을 지역자원과 결합하여 운영함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성 있고 실제적인 진로체험처 발굴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체험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로체험활동 체험처로서 지역의 일터를 연계하여 체험처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금 아이들이 체험할 때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이 가상 직업에서 보면은 실제 현장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어요.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G 참여자').

> 그리고 애들마다 가보고 싶은 체험처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을... (중략)현장에 가서 하는 직업체험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체험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F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활동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체험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 연계 진로체험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현장감 있고 실제적인 직업체험 경험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직업인의 현장 교육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관으로서도 사실은 마을 자원과 결합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관 자체의 혁신과제이기도 한 거예요...(중략) 자치활동이든 동아리활동이든 뭐든 교과와도 연결되든 지역의 자원을 찾아서 학교에 연계시키는 일... ('F 참여자').

그리고 지역 안에서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언제든 미용실, 일반 그냥 미용실 한다 하더라도 이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웃 주민이 생긴다 라는 거('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원하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학교의 진로 활동과 연계하였다.

■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함

청소년기관은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신뢰감을 쌓아간다. 청소년기관이 마주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리더에게 청소년과 청소년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각의 리더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처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하여 신뢰감을 쌓아가고 효율적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장들이 청소년기관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박람회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청소년 시설의 인식과 존재감이 있게 된다.

> 구청장님,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경찰서장님. 그러니까 지역사회 리더층들이 청소년들을 중심을 두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이 분들의 본인들이 있는 소속된 자원도 있지만 연결된 자원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을 거잖아요? 애들한테 더 다양한 어떤 체험처들을 하기 위해서...('G 참여자')

> 그러면 어울마당을 할 때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면 바로 아이들이 여기에 찾아올 정도로 가까워요. 어울마당 때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좀 가졌구요. 매년 이제 청소년의 달 행사는 OO정이에서 하면서 조금 더 더 신뢰가 점점 더 쌓여졌던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B 참여자').

>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처음에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무언가를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 매개를 처음에 박람회로 잡았었고. 박람회를 하면서 그 다음해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다음 해부터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어쨌든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중략) 오늘은 주로 OO동 일대에서 하는데 OO동에 보면은 다른 동에 보면은 또 한 스무 곳 정도 이렇게 쭉 된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또 부회장님이 계시고. 아까 인사드렸던 분이 교육분과장님이시고, 홍보분과, 조직분과 있는데... 홍보분과에서는 예를 들면 마을학교 선생님이 마을학교 소식지를 만드는 거죠. 신문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을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직접 인쇄만 해드려요. 편집까지 싹 하면... 이렇게 홍보분과에서... 이게 일 년에 원래는 4번 내는 걸로 했는데 마을학교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좀 그런 거 같애요('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은 효율적인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의 스킨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간다. 특히 지역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장들이 청소년기관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박람회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으로 인해 청소년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존재감이 생기고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중략) 진로의 해였지만 그 다음은 저희가 한 3년차 작년부터는 공동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G 참여자').

>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돼가지고 현재 상태에는 진로센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진로센터를 그래서 오셨다가 문화의집을 알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문화의집이 하나예요. 구립시설이 저희 하나 밖에 없어요. OOO이 넓은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수련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요 지역분들 아니신 분들은... 고런 부분들도 진로센터랑 같이 하면서 많이 또...('E 참여자').

> 이 O중학교랑 그 다음에 OO동 부녀회랑 같이 연결이 된 거죠. 학교도 주최자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O중학교 선생님도 개발해주신 것도 있어요. 체험처를...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려웠던 부분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한 진로체험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 지역 주민, 학교, 기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과 존재감이 높아졌다.

(나) 진로체험활동 공간 구성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지역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체험처가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청소년들은 지속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 지속적으로 현장과 만날 수 있는 진로체험

청소년들에게 정형화된 체험처를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의 직업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자신이 궁금한 직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체험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은 단시간의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현장을 조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첫째... 그리고 그래서 좀 얘네들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쪽에 사회복지사 정말 꿈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어른을 좀 만들어주는 거('G 참여자').

>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두 시간짜리 또는 하루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을 연구학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루를 체험했을 때 애들의 소감하고 이튿날 셋째 날이 다른 거예요. 들도 낯선 곳이니까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잘 안 들렸나봐요. 안 보이고. 어른들도 애들한테 낯서니까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랬는데...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어른들을 두 번째 날 만날 때 어른들도 어저께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애들도 낯선 장손데 보이는 게 있는 거고. 어른들의 생활 모습도 좀 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튿날 한 오후부터는 실질적인 체험을 해보게 되고, 셋째 날까지 하니까 조금 더 체험을 하게 돼서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F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지역사회의 진로 체험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항상 개방적이고 부담감이 없는 곳을 선택하였다.

■ 생활 속에서 현장감 있는 진로 체험을 지원함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공간은 기관 및 청소년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활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 속의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이 부담 없이 진로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 기관하고 일단은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진로체험지원활동은 상시로 어느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체험을 하든 프로그램 운영하든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내 생활 근거지 옆에('C 참여자').

>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좀 더 현장성 있고 역동감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중략)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을의 꼴을 좀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고. 보통 요즘의 대도시나 저희 진해 지역도 그런 게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대규모 상가 위주로 해서 막 층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걸어가면서 이런 집도 있고, 또 한 집 걸어가다 보면 여기에 빵집도 있고, 한 집 걸어가다 보면 꽃집도 있고. 여기 마을에서는 언제나 보면은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져 있으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마을의 꼴로 생각을 한 거죠. 약간은 좀 개방성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부담감 없이 볼 수 있는?('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지역사회 체험처는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 위치하여야 하며, 청소년기관 또한 진로체험을 운영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 바람직하다.

(다)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한다. 지역의 체험처 발굴은 청소년과 함께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일터를

발굴하고,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하여 지역의 진로체험처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주민과 함께 진로행사를 통해 진로체험활동을 하거나, 지역의 멘토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청소년기관과 함께 주도적으로 체험활동을 경험함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진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청소년이 지역 주민과 함께 체험처를 발굴하고 마을의 진로체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 그래서 거기서 남는 일부의 수익금... 재료비를 빼고 수익금을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저희한테 기부해줘요. 그래서 그 돈이 일 년에 한 1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제가 중요한 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 아닐까? 지금 19개 셀러... 19개 부스 셀러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성인 부스를 같이 참여시켜요. (중략) 성인 부스를 참여시키는데 성인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가급적 물품이 서로 중복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소년들에게 전수해줘라. 그래서 그걸 흥미를 느끼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요('A 참여자').

> 아이들이 좀 중심적으로 이 지역의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발굴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OO마을을 개발할 때는 청소년들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을을 조사를 해보고, 마을지도를 그려보고, 마을학교 선생님들께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주십사 요청을 해서 몇 군데 그렇게 해서 오케이한 것도 있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여기가 OO동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옹기종기 옹기종기 요렇게 체험처들이 쭉 있어요. 여기 학교가 또 두 군데 있고, 요쪽에도 있고('G 참여자').

> 청소년을 이해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게 있죠. 단순히 영업하듯이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이 직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맞는지의 판단부터 시작된다는 게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그것들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역 안에서의 쉬운 일터부터 아이들과 먼저 개발이 된 거예요('E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 진로를 경험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이 체험처 발굴에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지역 멘토를 구성하여 학교와 연계함

청소년기관에서 지역의 멘토를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관련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다양한 직업군들의 지역분들이 멘토 신청을 받고 일정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구요('A 참여자').

저희가 대규모 특강, 동아리 지원, 아니면 대학생들 학과 특강... 대학생들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학과에 대한 특강을 학교로 가서 교실로 쫙 뿌려주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학교 직접 들어가서...('E 참여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을의 진로체험처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진로체험 지도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동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이면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로멘토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생길까봐 학교가 필요한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작전이 훨씬 더 유효하겠다... 그래서 멘토단 구성을 했구요('A 참여자').

> 그럼 일단 지역 안에서 하기도 하고. 지역 안에서 구해지지 않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강사풀로... 하다 못 해 예를 들어서 의사, 의료직에 관한 체험이 필요하다 하면은 직원들 친척분들 이렇게... 학연, 지역... 진로는 거의 섭외나 강사 연계하는 거는 일종의 영업하듯이 해요. 저희 직원들 보면 정말 모르는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부탁해서 하기도 하고('E 참여자').

> 시설이 없으면 결국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밖에는 못해요. 수련시설로 진로체험을 위해서 유입되는 프로그램이... 가는 프로그램과 오는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A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의 멘토와 직업인을 선발하여 학교에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였다.

(라)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

청소년기관은 지역 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을 만들어 나아간다. 특히 지역 주민의 자발적 지원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지원을 지속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이다.

■ 지역 내 공감을 통해 자발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지속적으로 활성화함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 지역 모임, 단체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우리가 정말 순수 자원봉사를 해주십시오. 시간을 내주십시오...(중략). 발굴을 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그 분들을 잘 했더니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동네 주민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본인의 자원을 다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자원을 활용을 하고 어떤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저희 직원, 전 직원이 다 붙어가지고 40개 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의 코디 선생님이 55곳을 개발했다 라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G 참여자').

그게 기반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원이 결합이 된다든지 어떤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진로는 운영하면서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사실 중요한 거는 자원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지속성 있게 가지. 사실 돈으로 하는 거는 갈수록 퀄리티도 떨어지고...자원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먼저... 여기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돼서 필요한 곳이야 라고 결합을 해주시면 사실은 돈 드리고 강사비 드리는 것보다 더 활성화돼서 잘 될 수도 있거든요('E 참여자').

우리 담당자든 나중에 가서 이분들한테 위촉장을 다 드리거든요. 이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세레모니, 절차들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우리 현재는 코디 선생님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서 이 담당자가 가서 위촉장을 드리고, 그리고 바깥에 현판을 붙여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을학교 선생님들도 마을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지역의 학부모 및 주민 협의회, 지역단체를 통해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관리를 운영하였다.

■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하며 만들어 나아감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아간다.

이게 서로 마을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때에 '애들이 고민이 진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본인들의 포지션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활동을 위해서 뭐 한다하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G 참여자').

지역 안에 청소년 우리 센터가 시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라는 것들을 홍보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주력했어요. 그런 시장분들의 모임? 예를 들어 시장 안에 회장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영향이 있는 시장분들 계속 만나는 일들을 좀 많이 했구요. 그 다음에는 사업으로 그걸 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 ('B 참여자').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토론회라는 거를 한 3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런 톡투유 이런 걸 했어요. 만약에 작은 문화의집이나 돈이 많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E 참여자').

마을형으로 가면 일단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귀찮아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요걸 하시겠다고 사전 동의를 하시고 체험처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기본 전제가 약간 오픈 마인드이신 건 있구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략) 연초에 사업 설명회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 진로나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들을 다 초빙을 해가지고 그 마을학교에 뿐만 아니고 저희 자유학기제 함께 다르게도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학교 지원해주는 거라든지?('G 참여자').

위의 진술처럼, 청소년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청소년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감하며,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활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개발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사례 간 분석

가) 진로 활동 지원의 방향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 활동을 체험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지역 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관이 공간과 관련 활동을 연계하여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의 경우 청소년기관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유연성 있는 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사업은 지역사회의 진로 관련 사업들과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체험처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체험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체험을 발굴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말 걸기'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의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를 주제로 서로 협력하며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진로활동 공간 구성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체험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접근

하기 쉬운 진로체험활동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맞춤형 진로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관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있다. 기존의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에 대하여 유연성 있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공간보다는 시설 및 기자재, 공간을 진로와 어우러지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 아울러 직업에 대한 단순 체험보다는 직업에 대하여 알고 진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진로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과 진로를 어우러지게 구성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 내 체험처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은 단시간의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 연계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체험처가 청소년기관과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생활 주변에 위치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부담감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직업체험처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고 실제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체험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일터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체험처를 연계한 체험활동은 청소년에게 현장감 있고 실제적인 직업체험 경험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직업인의 현장 교육을 통해 생동감 있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

다)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이 원하

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진로체험활동, 진로박람회, 주민과 함께 하는 진로 관련 행사,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역의 체험처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관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수련활동과 연계하여 소규모의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원하는 직업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예컨대,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주말, 방학 등의 시간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이나, 수련원에서 진로수련활동을 2박 3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진로박람회 및 지역 행사를 통해 여러 직업체험을 하고 직업인을 만나 의미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로의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처를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자신과 지역 청소년이 체험할 마을의 진로체험지도를 직접 제작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관에서 진로 관련 멘토를 발굴하여 학교로 찾아가 다회기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라) 진로지원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전략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중요하다. 청소년 조직 내에서의 공감을 통한 구성원의 자발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기관, 단체, 지역의 리더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각 기관의 기관장 등과의 청소년 진로에 대한 공감

을 통해 자발적 지원을 견인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기관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개방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항상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로관련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소년기관의 활동과 시설을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신뢰감과 청소년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협업을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정보를 및 진로정책 협의회에 공유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관과 함께 진로체험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진로와 관련된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진로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의 참여를 위한 행정지원을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진로 관련 센터 운영을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이 체험처로 개방할 수 있으며, 지역 기업 및 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학교의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주민이 자발성을 가지고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인해 진로체험활동은 지속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교육적 여건을 주민과 함께 운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개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 진로체험지원 유형, 진로체험활동 공간구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비전,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지역사회 기관의 역할 및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내용

구성 요소	내용
비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목표)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유형 1)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
지원 전략	(설명)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전략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함. 전략3.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함. 전략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5.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6.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

구성 요소		내용
지역 기관의 역할 및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
	교육 (지원)청	1.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 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3.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4.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주민 협의체 및 시민단체	1.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단위학교	1.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방향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전에서 제시하는 '말 걸기'는 지원전략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으로는 1)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 연계 진로개발역량 유형과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현장진로체험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진로체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두 유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한다. 넷째,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섯째,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체험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청소년기관과 협력해야 할 역할 및 지원 내용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가 청소년기관과 협력해야 할 주체로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 지역학교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해 청소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 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지원을 통해 청소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는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학교는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에 제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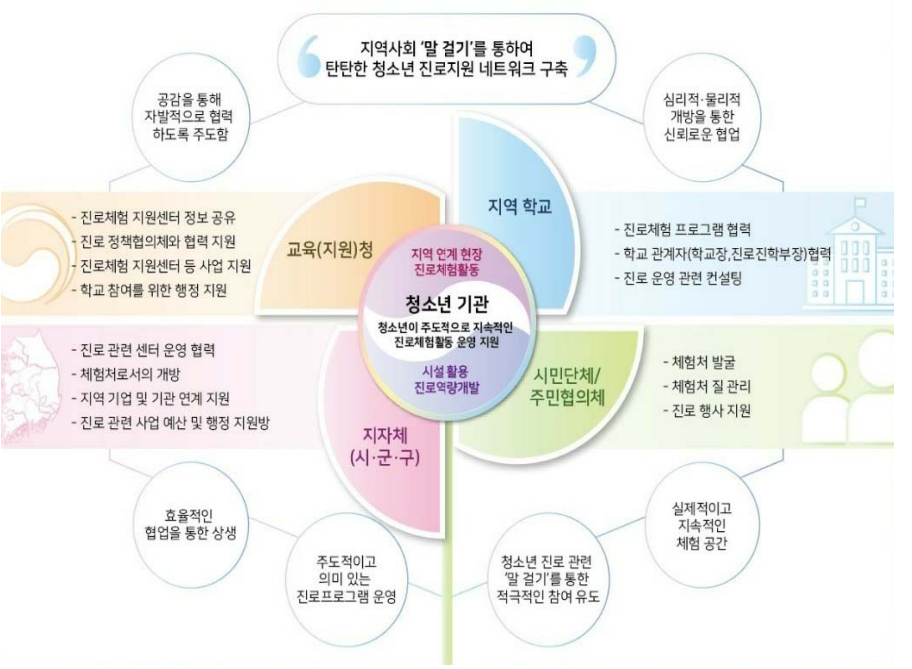


그림 Ⅴ-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타당화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지원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기초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을 경험한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개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모형(안)을 반영한 타당성 있는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조사지를 바탕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추진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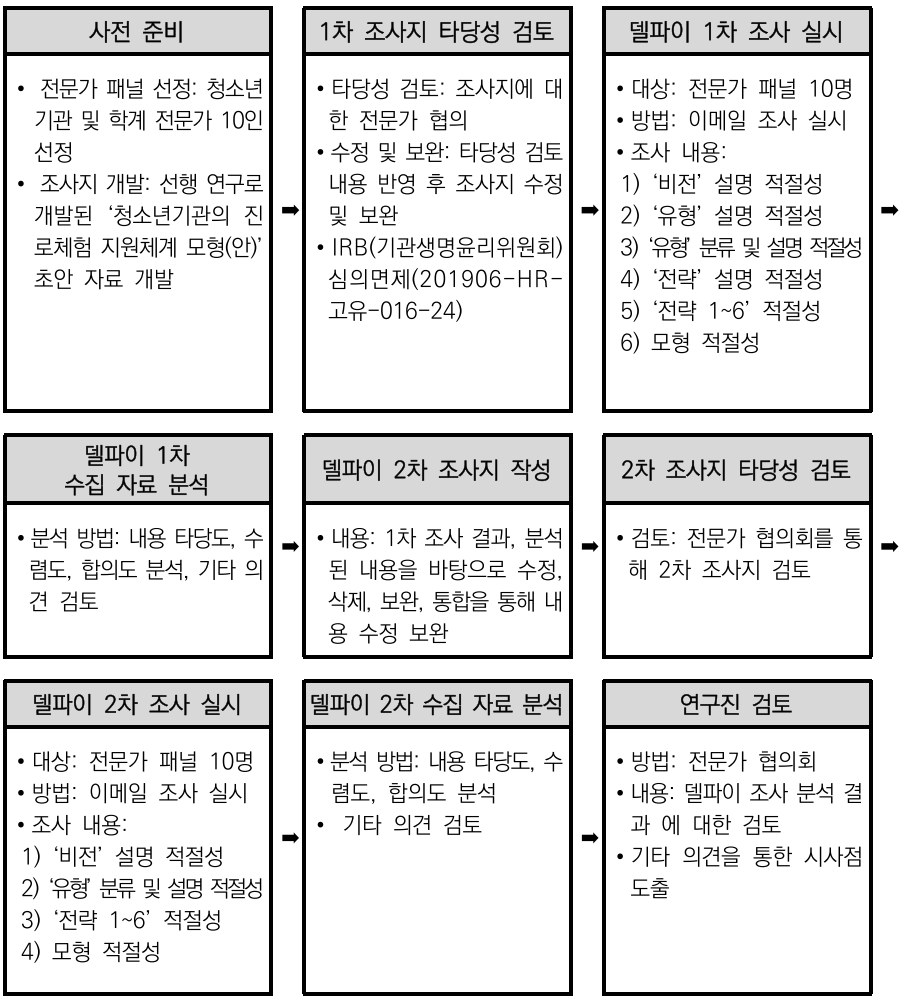


그림 Ⅴ-3. 델파이 조사 추진 절차 및 방법

이종성(2003: 7)에 의하면 델파이 조사 기법이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체제 모형 개발을 위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여 내용타당도(CVR) 값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써 현장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으며, 앞서 개발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기초로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사지는 사전에 구성 및 선정된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타당성이 확보된 조사지는 전문가에게 전자우편(E-mail)을 통해 1차적으로 배부 및 회수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타당도 값이 낮은 문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완을 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델파이 2차 조사지는 1차에서와 같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분석 결과 및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선정 및 구성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종성(2003)은 델파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외에 패널을 선정하고, 델파이 조사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널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경험자로 10명의 패널을 선정 및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역 및 청소년기관의 유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 협의

를 통해 델파이 진행 과정 중에 이탈하지 않고,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되는 마지막 조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0명이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Ⅴ-4.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

번호	소속	직위(급)	연령	청소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연구·학술분야
1	OO청소년 수련관	관장	50대	① 청소년수련관 진로지원센터 운영 ② 진로관련 컨설턴트
2	OO청소년 수련관	센터장	50대	① 직업체험관 운영 ②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진행 ③ 전문가 특강, 진로 캠프 운영 등
3	OO개발원	연구원	50대	① 학교-지역사회 연계 ② 학교 진로교육 정책 연구 ③ 지역사회 진로 학습 생태계 구축
4	OO 고등학교	교사	50대	① 청소년 진로 탄력성 연구 ②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 ③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5	OO대학교	초빙교수	30대	① 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 ②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관련 연구 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진로 프로그램 연구·개발
6	OO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40대	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② 진로 지원 및 학습모듈 개발
7	OO 대학교	교수	40대	① 청소년 진로역량 관련 연구 ②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관련 연구
8	OO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40대	①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②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9	OO교육대학교	교수	30대	① 청소년 진로체험 ②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③ 청소년 진로직업 연구
10	OO청소년 수련원	원장	50대	①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②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 연구 ③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진로교육 정책 포럼 운영

(3) 델파이 조사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의 구성 요소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방향,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4개 주체별 지원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인 모형 및 전략을 정립하고 구안하기 위한 것이다. 델파이 조사 기법은 일반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 시 개방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조사 시에는 구조화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미래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1차 델파이 조사 시에도 구조화된 문항으로 조사지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다(이종성, 2001: 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시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므로, 1차 조사지에서 개방형 문항 대신 구조화된 문항을 포함한 조사지를 개발·활용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 기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패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각 영역 및 내용별 타당성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수정 및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혹은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인 ① 비전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②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설명(목표)에 대한 적절성, ③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분류에 대한 적절성, ④ 유형 1, 유형 2에 대한 적절성, ⑤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 설명에 대한 적절성, ⑥ 전략 1~전략 6에 대한 적절성, ⑦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4개 주체별) 분류의 적절성, ⑧ 4개 주체별 지원 내용(주체별 3~4개로 제시)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문항 구성 현황은 아래의 〈표 V-5〉와 같다.

표 Ⅴ-5.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영역	내용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방향 설명 적절성	①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방향'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적절성	①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2가지 유형 분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1'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2'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청소년 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의 지원 전략' 적절성	①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1'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3'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4'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6'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 분류 및 내용 타당성	①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4개 주체(지자체, 교육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학교)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첫 번째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두 번째 주체인 '교육(지원)청'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세 번째 주체인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내용
	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네 번째 주체인 '단위학교'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타당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후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발된 설문지와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검토 및 내용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1차 조사지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2차 조사지에 반영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 합의도, 수렴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델파이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패널의 추가 의견은 연구팀 회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의 방향 대한 설명,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설명,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분류(유형 1, 유형 2),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 설명, 전략,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 및 주체별 지원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내용타당도 비율을 통해 판단하였다. Lawshe(1975)는 내용타당도(CVR) 수치를 계산할 때 다음의 [그림 V-4]와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해야 하며, 계산된 내용타당도 비율을 델파이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최솟값인 〈표 V-6〉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text{내용 타당도 비율 공식} = \frac{Ne - \frac{N}{2}}{\frac{N}{2}}$$

* 출처: Lawshe(1975). p.567.

그림 Ⅴ-4. 내용 타당도 비율 공식

표 Ⅴ-6. 델파이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 최솟값

패널 수 (N)	CVR 최솟값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 출처: Lawshe(1975). p.568.

Lawshe(1975)는 N은 '전체 패널 수'이며, Ne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 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N은 전체 패널 10명이며, Ne는 조사지의 문항에 대하여 '4(타당하다)'와 '5(매우 타당하다)'로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패널 수는 10명이므로 CVR 최솟값은 .62를 기준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 문항별로 합의도(degree of consensus) 및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를 분석하였다. 이 식에 사용된 값은 중앙값(Mdn), 제1사분위수(Q1)와 제3사분위수(Q3)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렴도(0.50 이하), 합의도(0.7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합의도 = $1-\frac{Q_3-Q_1}{Mdn}$	수렴도 = $\frac{Q_3-Q_1}{2}$

* 출처: 이종성. 2001. p.35.

그림 Ⅴ-5. 합의도 및 수렴도 계산 공식

2) 델파이 1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개발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7.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

구분	항목	M	SD	CVR	Mdn	합의도	수렴도	비고
1. 비전 설명 적절성	'비전' 내용 설명	4.30	0.64	0.80	4	0.75	0.50	
2. 청소년 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적절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목표' 설정	4.10	1.14	0.60	4.5	0.78	0.50	통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분류	4.10	0.70	0.60	4	0.81	0.38	보완
	'유형 1'의 내용 설명	4.40	0.66	0.80	4.5	0.78	0.50	
	'유형 2'의 내용 설명	4.10	0.83	0.80	4	0.81	0.38	
3. 청소년 기관 지원 전략의 적절성	'지원 전략' 내용 설명	4.20	0.60	0.80	4	0.81	0.38	
	'전략 1' 내용	4.30	0.64	0.80	4	0.75	0.50	
	'전략 2' 내용	4.10	0.54	0.80	4	1.00	0.00	
	'전략 3' 내용	4.20	0.60	0.80	4	0.81	0.38	보완
	'전략 4' 내용	4.30	0.46	1.00	4	0.81	0.38	
	'전략 5' 내용	4.10	0.70	0.60	4	0.81	0.38	
	'전략 6' 내용	4.20	0.60	0.80	4	0.81	0.38	
4.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4개 주체 (지자 체, 교육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 학교) 분류	4.40	0.49	1.00	4	0.75	0.50	-

구분	항목	M	SD	CVR	Mdn	합의도	수렴도	비고
지원 내용 분류 및 내용 타당성	첫번째 주체('지자체(시.군.구)')의 지원 내용	4.40	0.66	0.80	4.5	0.78	0.50	-
	두번째 주체('교육(지원)청')의 지원 내용	4.30	0.78	0.60	4.5	0.78	0.50	보완
	세번째 주체('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의 지원 내용	3.70	0.78	0.00	3.5	0.71	0.50	
	네번째 주체 ('단위학교')의 지원 내용	3.80	0.98	0.20	4	0.56	0.88	
5. 청소년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체계 모형 (안) 타당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4.20	0.60	0.80	4	0.81	0.38	-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문항 중, 유형의 '목표' 설정 내용, '유형'의 2가지 분류, '지원 전략' 5의 내용, 지원 주체[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학교]의 지원 내용의 내용타당도 비율이 최솟값(0.62)보다 낮아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내용타당도 비율이 낮은 문항의 의견으로 타 문항과 연계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 경우(청소년기관 지원 전략의 적절성), 연계된 타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합의 및 수렴된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델파이 2차 조사를 위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전문가로부터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 요소 '비전'의 내용 명확화와 '지원 유형'의 '목표'가 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전'의 내용을 '목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방향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전'을 보다 청소년이라는 주체의 '주도적' 측면으로 기술하고, '지원 유형'의 '목표'를 삭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에서 해당 유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유형을 대표하는 중심 단어를 문장 앞의 괄호 안에 제시함으로써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문항에서 ‘~유형’으로 끝맺음함으로써 유형이 지향하는 ‘목표’나 ‘목적’이 아닌, 해당 유형에 대한 ‘설명’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수정·보완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6가지의 순서 조정, 의미 중복, 전략별 차별성 명확화 등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략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전략 1~6의 순서를 재조정하였으며,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적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에서는 4개의 주체[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학교]로 분류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체인 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각각의 지원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었다. 진로체험지원체계 내에 청소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에 대한 중심 단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진로진학 상담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위학교의 지원 내용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각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표 Ⅴ-8. 델파이 1차 분석결과 및 수정·보완 사항

구성 요소	수정 전	수정 여부	수정 후
비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통합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목표)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유형 1)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	통합/보완	(목표 삭제) 유형 1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 유형 2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설명)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전략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지원함. 전략3.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함. 전략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보완	(설명 삭제) 전략 1.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제를 만들어 나아감. 전략 3.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함.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함.

구성 요소		수정 전	수정 여부	수정 후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5.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6.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		전략 5.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함. 전략 6.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지역사회기관및단체의청소년기관	지자체(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	보완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보완(제시 순서 조정)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 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3.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구성 요소		수정 전	수정 여부	수정 후
과의 지원 내용	주민 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1.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보완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단위 학교	1.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보완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3) 델파이 2차

1차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10명이 모두 2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델파이 2차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9. 델파이 2차 조사 분석 결과

구분	항목	M	SD	CVR	Mdn	합의도	수렴도
1. 비전	'비전' 내용 설명	4.60	0.49	1.00	5	0.80	0.50
2. 청소년 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분류	4.60	0.49	1.00	5	0.80	0.50
	'유형 1'의 내용 설명	4.70	0.46	1.00	5	0.85	0.38
	'유형 2'의 내용 설명	4.60	0.49	1.00	5	0.80	0.50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전략 1' 내용	4.40	0.66	0.80	4.5	0.78	0.50
	'전략 2' 내용	4.60	0.49	1.00	5	0.80	0.50
	'전략 3' 내용	4.50	0.92	0.80	5	0.85	0.38
	'전략 4' 내용	4.50	0.92	0.80	5	0.85	0.38
	'전략 5' 내용	4.30	1.19	0.80	5	0.80	0.50
	'전략 6' 내용	4.60	0.49	1.00	5	0.80	0.50
4.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분류	① '지원 내용'의 4개 주체(지자체, 교육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학교) 분류	4.70	0.46	1.00	5	0.85	0.38
	② 첫 번째 주체 ('지자체(시·군·구)')의 지원 내용	4.60	0.49	1.00	5	0.80	0.50
	③ 두 번째 주체 ('교육(지원)청')의 지원 내용	4.70	0.46	1.00	5	0.85	0.38
	④ 세 번째 주체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의 지원 내용	4.10	0.54	0.80	4	1.00	0.00
	⑤ 네 번째 주체 ('단위학교')의 지원 내용	4.50	0.67	0.80	5	0.80	0.50
5. 모형 (안) 타당성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4.50	0.50	1.00	4.5	0.78	0.50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내용타당도 비율이 최솟값(0.62)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값이 4점(타당함)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비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설명(목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분류(유형 1, 유형 2),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 설명(전략 1~전략 6),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 및 주체별 지원 내용을 합의하고 구명하였다. 이후 델파이 1, 2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4) 소결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은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구명되었다. 최종 개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부 구성 요소는 비전(방향에 대한 내용 설명),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2가지 유형 및 유형에 대한 설명),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6가지 지원 전략),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에서는 지원 주체별로 4개[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단위학교]로 구분하였고, 각 주체별 지원 내용을 제시하였다.

최종 개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과 구성 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10.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내용
비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 유형 1(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 ‣ 유형 2(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유형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 전략 1.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제를 만들어 나아감. ‣ 전략 3.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함. ‣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함. ‣ 전략 5.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함. ‣ 전략 6.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지역 사회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단위학교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구성 요소		내용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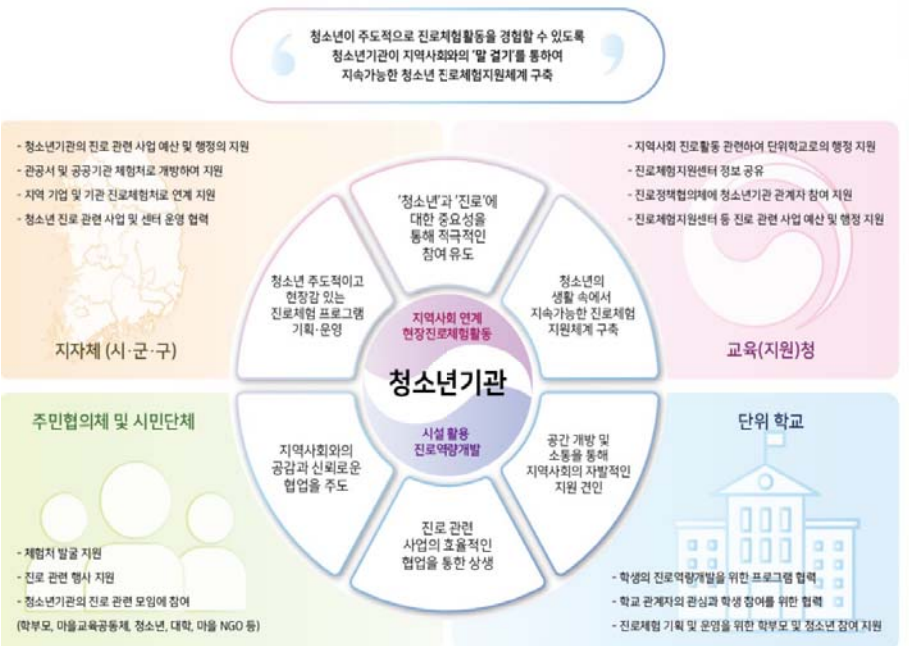


그림 Ⅴ-6.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모형과 연계하여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협의체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제언 사항 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관 공간의 활용, 청소년활동과 진로프로그램 연계 운영,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지역구성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예산 지원 및 평가의 측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관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내·외부적 공간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 내부적으로는 청소년기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적으로 지역사회 내 시설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간과 시설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시설 기능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공간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체험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공간 구조로의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로체험활동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관 내부에서의 다양한 고민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 대한 효율적이 활용을 위하여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통해 이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공간은 청소년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휴 공간 활용 혹은 지역 내 시설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기관 관계자 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체험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공간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활동과 진로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관이 다변화되고, 개별화되어 가는 수요자(청소년,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협력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전략으로 지역사회 진로자원 맵 제작 및 활용,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진로관련 전문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에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표준 자료 보급, 청소년 활동 인증 프로그램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례집 또는 매뉴얼의 제작.배포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기관의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의 청소년기관이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으로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실적이 격년마다 진행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자료로서 활용한다면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하여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진로 활동을 담당하는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에 대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신뢰롭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자격의 이수 과목에 '진로체험활동'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거나, 2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 이수 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로교육의 동향 파악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 교육이나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진로프로그램의 기획 역량도 계발할 수 있는 워크샵, 연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 청소년지도사 확보 지원, 지역사회 진로체험 분야별 지원 코디네이터(시간제 지도자) 양성·운영, 강사 풀과 체험처 등의 공유와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기관 혹은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견인해야 한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위원회나 교육협의체 등에 청소년기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청소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의제를 발굴·제안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지

도를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이 기존에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청소년진로네트워크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 내 자원봉사자 그룹, 기관자문위원 외에도 외부적으로 대안학교, 학교 밖 지원시설 네트워크 등을 진로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의 연계는 단기적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등 지역 진로체험센터, 혹은 그 외 다양한 민간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위한 상시적 협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공모사업 확대,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예산 지원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육기회의 불균형,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적 예산 지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이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의 안정적 증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일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며, 산·관·학계에서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을 주민참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나 캠페인과 연계하는 등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적 홍보 및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시·군 종합평가'의 지표 내 '진로체험활동 지원 실적'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관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진로교육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국내·외 사례분석, 설문조사, 다중사례연구, 델파이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탐색하였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모형 탐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국내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진로체험 우수사례와 국외(미국, 독일, 영국, 일본) 진로체험에 관한 법, 제도, 프로그램 등 사례를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접근, 청소년기관의 역할,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모형 개발에

* 이 장은 강경균 연구위원과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함.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자,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을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운영 경험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역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청소년기관의 전문성 등에 대한 지역사회 진로생태계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지원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모형 개발을 위한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관 중심의 실제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의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다중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시된 사례,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의 비전, 지원 유형, 지역사회의 역할[단위학교, 시민단체/주민협의체, 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도출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하며,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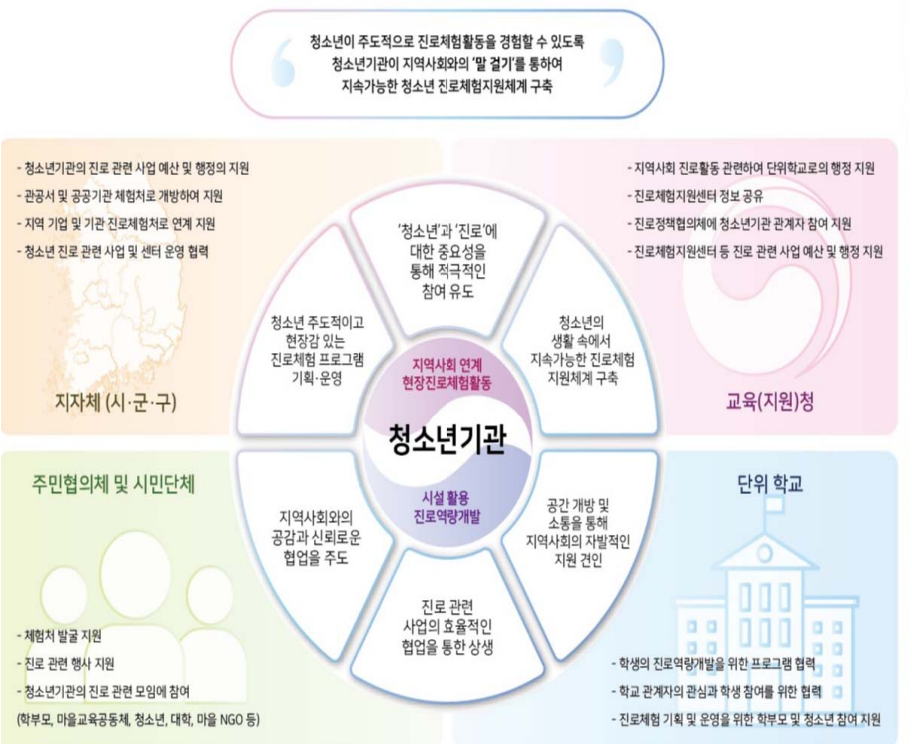


그림 Ⅵ-1.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해야 한다.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시·군·구)는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 지원,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을 협력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학부모, 마을교육 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는 지역구성원의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로서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진로 관련 행사에 대하여 청소년기관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의 경우는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을 협력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는 제언 배경, 세부과제, 세부전략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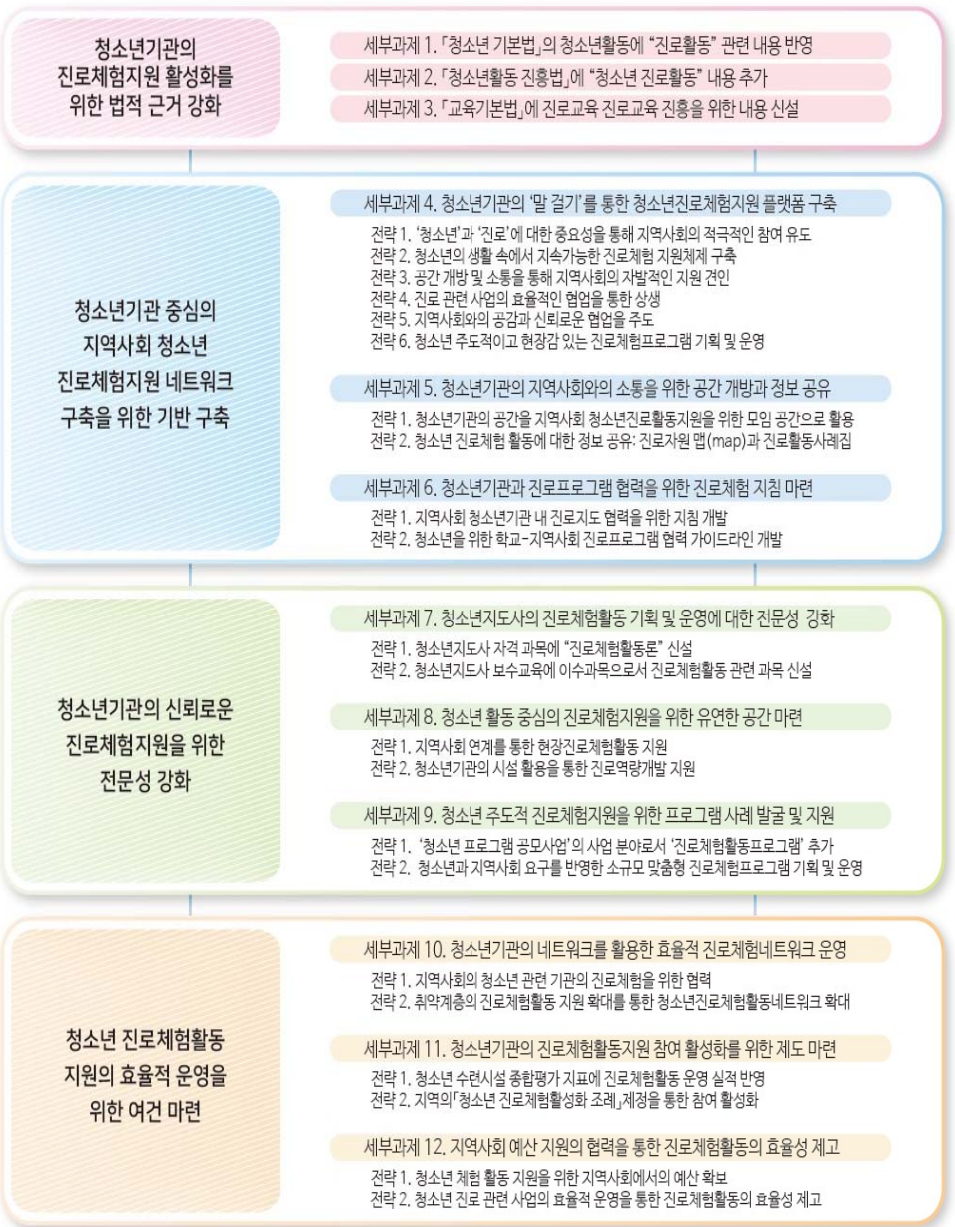


그림 Ⅵ-2. 정책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전략

1) 정책과제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세부과제 1.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 관련 내용 반영
세부과제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진로활동' 내용 추가
세부과제 3. 「교육기본법」에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 신설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 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였다. 현재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과 그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법」, 마지막으로 「진로교육법」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 3항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120]'이라고 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규정에 진로활동의 포함하여 개정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활동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3조) 역시 진로활동을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시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청소년OO활동은 청소년이 ~ 체험활동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121].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역시 청소년진로활동으로 제시되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추상적으로만 내포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규정을 찾기 어렵다. 이는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

120) 출처: 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121)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정되기 전에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교육의 구체적인 분야로 보지 않은데 기인한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진로교육법」이다. 먼저 제2조(정의) 1항에서 '진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진로체험을 진로교육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122]. 동시에 제2조(정의) 3항에서 '진로체험'을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함으로써[12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기본법」과 「진로교육법」 상 진로교육의 한 분야로 귀속되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항은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여[124] 역시 청소년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은 이처럼 국가의 인재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이 법적으로는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인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식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진로교육법」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진로교육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22) 출처: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 법률 제13336호)
123) 출처: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 법률 제13336호)
124)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2)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 관련 내용 반영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 3조 3항의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인식하고, 진로개발역량을 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진로활동에 대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정당성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Ⅵ-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진로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출처 : 현행(좌측)에 제시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제3조(정의)의 3항에서 인용함.

세부과제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진로활동' 내용 추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련된 청소년활동법이다[125]. 따라서 세부과제 1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로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 도 함께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진로활동'에 추가하는 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의 제 2조(정의)에 '청소년 진로활동'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표 Ⅵ-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u>청소년진로활동</u>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중략)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중략)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중략) 체험활동을 말한다.	(추가) '*<u>청소년진로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u>*

* 출처 : 현행(좌측)에 제시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제3조(정의)의 3항에서 인용함.

125)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세부과제 3	「교육기본법」에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 신설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선택적이기보다 의무화되고 효과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의 제3장 교육의 진흥에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진로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진로교육의 진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표 Ⅵ-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제 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교육목적)*** 제21조 (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 현행(좌측)에 제시된 내용은 교육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50호) 제3장 교육의 진흥에서 인용함.

2) 정책과제 2: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과제 4. 청소년기관의 '말 걸기'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구축
세부과제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개방과 정보 공유
세부과제 6. 청소년기관과 진로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진로체험 지침 마련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서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진로체험기관으로서 지자체, 단위학교, 지역 단체 및 협의체, 교육(지원)청와 협력 지원하며 상생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각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역할과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도 진로체험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자원이다. 결국은 학교 주변의 다양한 기관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협력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으로서 공간의 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청소년시설을 건립 시 공간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의 시설 내 공간 마련을 통한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관이 지역 사회 혹은 마을의 기관, 기업, 사업체 등을 발굴하고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중심에서 청소

년과 체험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단순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분산된 진로체험활동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교와 지역의 체험처를 연결하는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영국의 CEC(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진로와 기업)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보인다. CEC는 학교와 고용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와 기금을 바탕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언급한대로 전국 중등학교와 대학의 절반이 넘는 2천여 개 학교를 기업과 고용주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 제공자와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150개 이상의 양질의 고용주 참여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 결과적으로 54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CEC를 통해 상당수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고(80%), 원하는 진로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배우고(75%),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도 강화된 것으로(70%) 나타났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18a). 이렇게 영국의 CEC가 진로프로그램을 체계성이 있고,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으로서의 예산 지원과 개츠비 자선재단을 통하여 진로지도에 관한 지침과 기준, 우수사례, 관련 자료 등을 끊임없이 개발.보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국가전문기관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진로교육센터, 17개 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어 청소년의 전문적인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 중심의 끈끈하고 유연한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기관이 지역 체험처와 지속적인 '말 걸기'를 통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영국의 CEC와 개츠비 자선재단과 같이 진로지도에 관한 지침과 기준, 우수사례, 관련 자료 등을 끊임없이 개발.보급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역사회 진로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청소년 진로 지원에 대한 연구물, 홍보 소식지, 청소년 진로체험 마을지도 등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한 활발한 진로지원 마케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우수사례, 관련 자료 등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며,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에서의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이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으로서 의미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의 예산 지원 및 확보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세부과제 4	청소년기관의 '말 걸기'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 중심의 끈끈하고 유연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기관이 지역 체험처 확보와 지속적인 '말 걸기'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기관의 '말 걸기'는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단위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청소년 진로지원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참여하게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 및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Ⅵ-4.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원 내용

영역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 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단위학교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청소년기관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지역사회 기관 및 협의체와 '말 걸기'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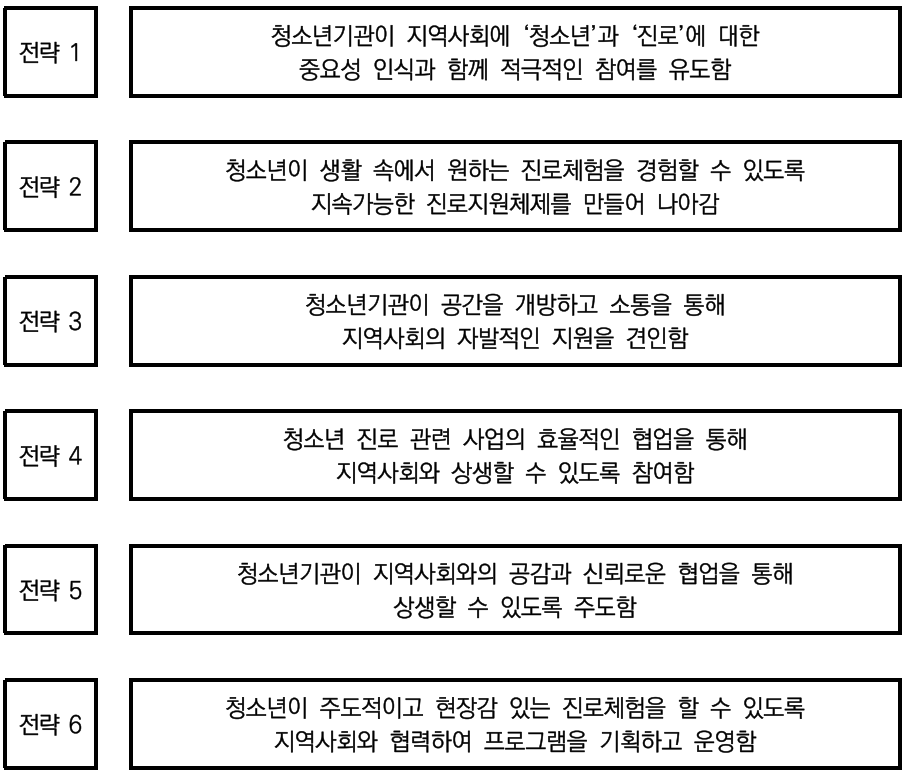


그림 Ⅵ-3.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이러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자체(시·군·구)-청소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진로를 스스로 계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

둘째, [교육(지원)청-청소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전한 청소년활동터가 되어 지속가능한 진로지원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교육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시민단체/주민협의체-청소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회적공동체로써 부모의 양성과 지역 주민의 실천적 참여 확장을 견인해 낼 수 있다. 아울러 공간 개방 및 열린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소년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위학교-청소년기관]의 협력을 통해 단위학교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의 실효적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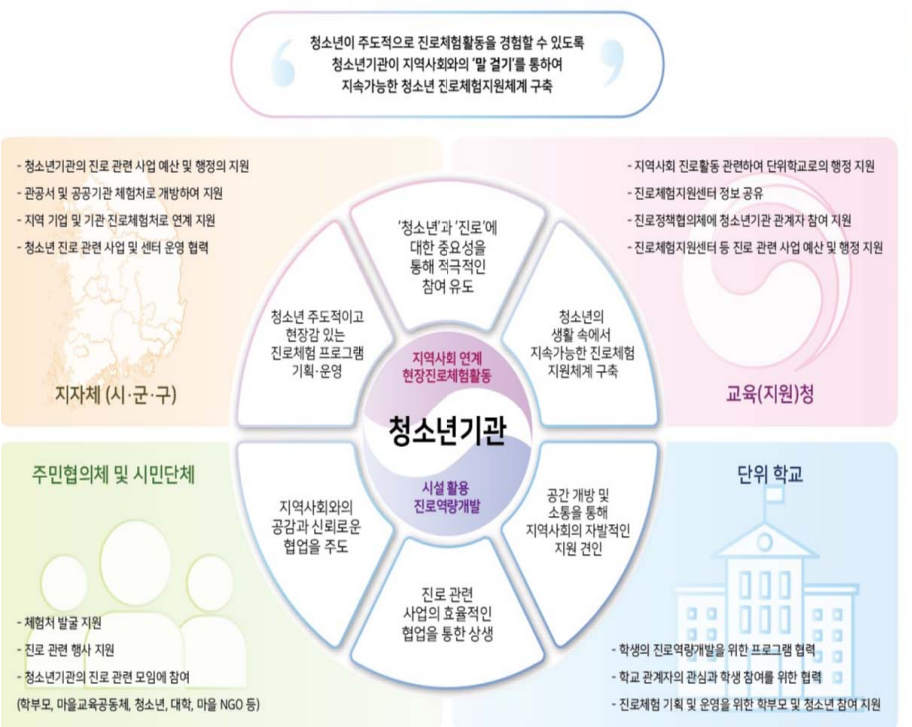


그림 Ⅵ-4. 청소년기관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

세부과제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개방과 정보 공유

본 연구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 진로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청소년진로지원에 대한 연구물, 홍보 소식지, 청소년 진로체험 마을지도 등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우수사례, 관련 자료 등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며,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략 1	청소년기관의 공간을 지역사회 청소년진로활동지원을 위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

청소년기관은 지역에 있는 어른들과 기성세대와 학생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그동안 기관과 학교의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의식 개선, 진로에 대한 중요성 부각 등을 통해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 소상공인, 기업, 단위학교 학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 등과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간담회 등의 회의를 주최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하여 설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유된 환경과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략 2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 진로자원 맵과 진로활동사례집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진로자원-맵을 만들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진로를 위한 공간 및 체험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진로자원 맵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모델'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의 청소년 진로체험 실태조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월 혹은 분기 단위의 진로체험활동 소식지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이 지역사회와 공유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주도적인 전략과 함께 통합형 청소년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부과제 6	청소년기관과 진로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진로체험 지침 마련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과 학교가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지역사회 및 학교의 협력 가운데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 CEC에서 사용하는 개츠비 자선재단에서 개발한 '8가지 개츠비 기준점'을 참고하여 청소년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5.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침(안)

기준점	내용	교육과 연수 제공자를 위한 지침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진로교육과 지도가 내재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진,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게 공개해야 한다.	•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센터가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진로 프로그램 및 이를 위해 훈련된 담당자를 마련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청소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진로 프로그램은 평가 절차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청소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피드백을 수렴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진로와 직업 정보를 통한 학습	모든 학생과 부모는 미래의 학습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있고, 이들이 이러한 정보를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전문가가 지원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학습 선택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업과 미래 학습 관련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과 활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각 학생의 수요 고려	학생들의 진로지도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은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내포해야 하며 청소년기관의 지역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또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 포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학교는 각 학생에게 제공하는 개별 조언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모든 학생은 자신의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의 연계	모든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과 진로를 연계해야 하고,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미래의 다양한 진로가 융합교육과 강조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 경험을 통하여 융합교육과 진로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학생은 중학교 단계에서 융합교육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되고, 보다 효과적인 직무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지역 진로체험처를 통하여 학교의 배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연계하여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기준점	내용	교육과 연수 제공자를 위한 지침
(v)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만남	모든 학생은 지역 체험처의 담당자로부터 일, 취업, 직무현장에서 중시되는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강연과 멘토링, 일터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 중1부터 모든 학생들은 매년 일터의 담당자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의미 있는 만남'이라 함은 학생이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vi) 직무현장 경험	모든 학생은 진로 기회를 탐색하고 인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무현장 방문, 작업 관찰, 직무경험 등의 직접적인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고3까지 최소한 2회 이상 지역사회의 시간제 근무경험 및 직무현장체험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vii) 직업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의 만남	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배움의 기회를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기관, 일터, 대학의 학과 등에서 진로진학을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기관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때의 만남은 해당 기관의 교육자(직원)와 학생 모두를 만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학습 환경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만남이어야 한다. • 대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고3 이전까지 최소한 2곳 이상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의 교직원과 학생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viii) 개인 지도	모든 학생은 진로교육 담당자와의 진로지도를 위한 면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면담 기회는 학습(진학) 또는 진로 관련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꼭 주어져야 한다.	• 모든 학생은 고3이 될 때까지 최소한 2회 이상의 진로지도를 위해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청소년기관의 전문가와 면담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Good Career Guidance. London: Gatsby Charitable Foundation.을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

이러한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마련된 지침을 통해 청소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정책과제 3: 청소년기관의 신뢰로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세부과제 7.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세부과제 8. 청소년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연한 공간 마련
세부과제 9. 청소년 주도적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발굴 및 지원

(1) 제언 배경

본 연구의 국내.외 현황에서 고찰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형 진로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등의 적극적 '지역사회중심 접근(community-based approach)'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주정부-지방정부 등으로 연계되는 역할 분담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와 학교, 청소년기관 등은 횡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른바 지역사회의 개념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산업기반과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체험활동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체험처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의 청소년 업무(youth work)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된 가치이며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기관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소년기관의 신뢰로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진로체험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의견에서 제시하였듯이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기관의 유연한 공간 마련, 청소년의 주도적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 발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이에 따른 전략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에서는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유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가지는 특징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공간 개념적 접근이 아닌 활동 중심의 개념적 접근이다.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공간으로써의 청소년기관이 중요하다.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이 신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역학교,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이 만든 진로체험 마을지도, 마을학교 지도, 청소년수련원의 진로수련활동 2박 3일 프로그램, 학기말 취약시기 고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주말 및 방학 진로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공유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세부과제 7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이 진로체험활동과 어우러져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들은 무엇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지도사들이 진로개발의 관점, 진로프로그램의 기획 등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전략이 요구된다.

전략 1	청소년지도사 자격 과목에 '진로체험활동론' 신설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이나 역량개발에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과목이나 자격기준 반영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자격 과목에 '진로활동론' 등을 신설하고, 청소년지도사를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진로교육법」에 인정한다면, 청소년지도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로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전략 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이수과목으로서 진로체험활동 관련 과목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진로와 관련된 재교육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2년 주기)에서 이수 과목으로 규정한다면 청소년지도사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관 진로체험 담당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진로체험 분야별 지원 코디네이터(시간제 지도자)를 양성하고 운영한다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 및 운영 체제가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과제 8	청소년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연한 공간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이 활동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활용을 통한 진로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현장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전략 1	청소년기관의 시설 활용을 통한 진로역량개발 지원

청소년이 요구하는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간디자인에 대한 시설이용 수요자의 감각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관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 기능 보강비의 지원 및 확보를 통한 지속적 시설 환경 보강 및 개선의 노력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단순 직업체험을 위한 공간 구성이 아닌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직업에 대해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자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간 중심의 체험보다는 활동 중심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유연한 공간의 활용이 요구된다.

전략 2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진로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공간은 청소년기관 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온 마을이 안전하고 친화적인 청소년 활동터’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지역사회에 공감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각별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다양한 체험처의 발굴을 청소년과 함께 발굴하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생활 속에서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진로체험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통해 체험처 관리와 지속적인 ‘말 걸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과제 9	청소년 주도적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발굴 및 지원

청소년이 주도적인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관이 기관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사업 분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주도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소규모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리빙 랩(Living Lab)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략 1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 분야로써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추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다. 본 정책과제에서 청소년활동에 진로활동을 법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진로프로그램 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분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는 활동사업으로서 기획 프로그램, 창의융합 프로그램,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변화 개선 프로그램, 사회구성원 관계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이 있다. 이 중 기획 프로그램의 소주제 테마로 진로개발역량,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으로서 창업·진로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내용의 일부로써 하나의 주제로서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기관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활동사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분야로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략 2	청소년과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 지원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견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요구

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청소년 요구 중심 동아리 형태의 소규모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진로관련 전문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사례집 또는 매뉴얼 제작하여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구성원과의 협력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리빙 랩(Living Lab)을 통해 청소년기관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4) 정책과제 4: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

세부과제 10. 청소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 진로체험네트워크 운영
세부과제 1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세부과제 12. 지역사회 예산 지원의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 제고

(1) 제언 배경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관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지역주민과의 활동, 시설 및 공간 확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은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의 공급처로서 다양한 수요자가 확보 및 효율적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에 조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위원회나 교육협의체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의제(Agenda)를 발굴·제안하고,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이 기존에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진로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관 내 자원봉사자 그룹, 기관자문위원 등에 더해 외부적으로 대안학교, 학교밖 지원시설 네트워크 등을 진로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진로'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대상의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진로체험지원을 위해 효과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관의 효율적인 진로체험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찾아가는 거리 상담'이 있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위기 청소년들이 많다. 그리고 꿈드림센터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아가 '청소년안전망'에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쉼터 소개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성에 부합하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진로지도를 거쳐 학업지속형과 취업형의 구분을 한 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적 전망도 높여주고 또 노동시장의 실질적 진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와 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일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역량중개소'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역량중개소는 자치단체 내의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 및 청소년 상담과 심리치료, 병원, 법조기관, 현장실습 기업 등과 촘촘히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량중개소가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노동청에서 긴밀히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독일의 직업교육 체계 안에서 이원체계로 직업을 실습하는 현장과 잘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후생노동성이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이하 서포스테)'. 서포스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괄적인 서비스이다. 특히 직업체험, 그리고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집중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역량중개소와 서포스테의 장점을 보완한 국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협력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수련시설종합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9년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침이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운영이 반영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의 시군종합평가 등 청소년기관과 협력하는 기관 또한 청소년기관과의 협력 평가제도에 운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평가제도의 반영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체험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와 각 정부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의 기관의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세부과제 10	청소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 진로체험네트워크 운영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을 통해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존재감을 갖고 진로체험활동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이 청소년기관과 협력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활

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략 1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진로체험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관에는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청소년의 수요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략 2	취약계층(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진로체험활동네트워크 확대

현재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위기 청소년 발굴 문제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기관과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참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학교밖지원센터의 청소년에게도 진로체험활동 지원이 이루어져 진로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

세부과제 1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지표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조례 제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대한 운영 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의 시군종합평가 등 청소년기관과 협력하는 기관 또한 청소년기관과의 협력 평가제도에 운영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진로체험활성화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운영을 위한 근거는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기관의 협력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전략 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에 진로체험활동 운영 실적 반영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개정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에 진로체험활동 운영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에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지원 실적 운영이 반영된다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청소년기관의 진로 사업이 포함된다면, 청소년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전략 2	지역의 「청소년진로체험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한 참여 활성화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의원 및 대표자와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활성화 조례」를 추진한다면, 청소년기관의 예산 운영의 다양성 및 당위성 확보, 청소년 활동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세부과제 12	지역사회 예산 지원의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 제고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활동의 질적·양적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시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인 지자체 교육경비 예산과 교육(지원)의 진로관련 예산의 동향과 내용을 파악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이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의 안정적 증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활동지원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과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 1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예산 확보

청소년기관의 경우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에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청소년 진로체험의 질을 제고할 수 없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의 수련시설 관련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량이 가중된다면, 이에 따른 진로체험 관련 담당자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프로그램 개설, 기자재 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사회 공헌, 공모사업 확대,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 등 다양한 예산 확보를 위해 청소년기관에서 진로 관련 예산의 동향과 내용을 파악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 2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활동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진로지원에 대한 효과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예산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기관에서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진로지원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예산 확보는 물론, 청소년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시설의 공간 현황 조사, 청소년시설 이용 신청·예약 신청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세부전략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기헌, 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수시과제 11-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유홍준, 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김승보, 주휘정, 김영식(2016).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 연구(기본연구 2016-32).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은석, 변정현, 어윤경, 양안나, 이승구, 이나라, 김성두(2012). 직업체험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김지민(2013).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 연구: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연구보고 16-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2017).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연구보고 17-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 연구Ⅱ(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대(2014). 미국 중등학교의 진로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용 사례(현안보고 CP 2014-07-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 방안(수탁연구 CR 2014-5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경인교육대학교.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수시과제 13-R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훈희(2015).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기관의 교육환경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2017).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윤형한, 김승보, 정지은(2018),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활성화 과제(기본연구 2018-1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봉(2015). 위기청소년 대상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수근(2018). 사용자 분석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학교 공간 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종성(2003). 교육연구의 설계와 자료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이지연(2014).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업 참여형 진로탐색 지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 2014년 3차 진로교육 국제포럼 발표자료.
임지연(2017).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 지침

분석(연구보고 17-R2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김한별, 한도희(2016).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6-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연순(201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국내외 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연구 II.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윤경, 김나라, 서유정(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기본연구 2011-1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주휘정, 김영식, 양정승(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기본연구 2017-14).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손유미, 주용국(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직업진로분야): 직업진로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진로개발지원 정책(국가청소년 2006-50).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상덕(2005).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2(3), 289-310.
한상근(2014). 통합 진로체험 정보 시스템 구축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3-95.

Kolb, D., A. & Fry, R.(1979).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Learning Experiences in Liberal Arts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Experiential Learning, 6, 79-92.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법령 자료]

교육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5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 법률 제133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 에서 2019년 2월 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2018.12.18. 일부개정, 법률 제1598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2018.3.13. 일부개정, 법률 제1545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에서 2019년 2월 1일 인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0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0&s=moe&m=040401&opType=N 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교육부(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2793&lev=0&searchType=S&statusYN=C&page=3&s=moe&m=020402&opType=N 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교육부 (2017.11.6.).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81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47&s=moe&m=020402&opType=N 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2018.11.16.). 관계부처 합동「진로교육 활성화 방안」발표.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81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47&s=moe&m=020402&opType=N 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진로체험 매뉴얼. 꿈이랑 웹사이트 http://ggumirang.com/community/commu_data.php?ptype=view&code=commu_data&idx=11389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진로교육법령 해설자료. 커리어넷 웹사이트 http://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commBbsView.do?BBS_SEQ=131499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용. 꿈길 웹사이트 https://www.krivet.re.kr/ku/da/kuBBAVw.jsp?gn=E1-E120170420 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 꿈길 웹사이트 http://www.ggoomgil.go.kr/front/bbs/bbsDetail.do?rootMenuId=04&menuId=0402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웹사이트 http://www.opm.go.kr/_res/opm/etc/kukjungfile.pdf 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세미나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웹사이트 https://www.krivet.re.kr

/ku/da/kuBEAVw.jsp?gn=E1-E120184187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세미나 자료집 16-S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웹사이트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5DhrQ4UgI1Q125lXk1244l&menu_nix=Zc410t0e&cont_idx=467&edomweivgp=R 에서 2019년 2월 1일 인출.

career.gmyouth.org/subpage/index/352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gpyc.fgy.or.kr/youth/youth0201.asp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http://www.fgy.or.kr/gpyc/PageLink.do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https://encykorea.aks.ac.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myway1318.or.kr/main/sub/bbs.php?code=sc_21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school.iyouth.or.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www.iyouth.or.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기타 자료]
진해청소년수련관 브로슈어 자료

[일본 사례 자료]
이찬희, 임상선(2002). 일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및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연구자료 RM 2002-4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国立教育政策研究所生徒指導研究センター(2009), 自分に気づき、未来を築くキャリア教育、国立教育政策研究所
仙崎武.池場望.下村英男.藤田晃之.三村隆男.宮崎冴子編著(2010) キャリア教育リーダーのための図説キャリア教育, 社団法人雇用問題研究所.
若本純子.石井宏祐(2017), 初等.中等教育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と進路指導, 佐賀大

学教育学部論文集 2(1), 237-246.

http://saposute-net.mhlw.go.jp/about.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aposute-net.mhlw.go.jp/company.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aposute-net.mhlw.go.jp/index.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http://saposute-net.mhlw.go.jp/qa.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aposute-net.mhlw.go.jp/wakamonoup.html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etocareer.sakura.ne.jp/wp/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etocareer.sakura.ne.jp/wp/?page_id=70 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http://www.city.seto.aichi.jp/docs/2011120900017/files/111215_04_05.pdf 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http://www.city.seto.aichi.jp/docs/2019041500033/files/gaiyou.pdf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areer/05062401/001.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areer/detail/1413996.htm 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http://www.mext.go.jp/a_menu/shotou/ikkan/2/1316125.htm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idea/index.htm 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http://www.mext.go.jp/apollon/mod/pdf/mext_propulsion_20180223.pdf 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801/1407992_021.pdf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801/detail/1411385.htm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http://www.mext.go.jp/b_menu/houdou/23/12/attach/1314525.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3/toushin/04012801.htm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83/shiryo/__icsFiles/afieldfile/2011/04/04/1303504_5.pdf 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1/11/04/1312817_02.pdf 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3/28/1413997_001.pdf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http://www.nier.go.jp/shido/centerhp/30career_shiryoushu/1-2.pdf 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https://fukui-yeg.jp/entrekids/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https://ishisapo.roukyou.gr.jp/flow.html 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https://ishisapo.roukyou.gr.jp/organization.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https://saposutenago.roukyou.gr.jp/how-to-saposute.html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https://www.cao.go.jp/about/doc/soshikizu.pdf 에서 2019년 5월 17일 인출.
https://www.city.ishinomaki.lg.jp/cont/10102000/0040/3914/20130301161659.html 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08/04/pdf/054-057.pdf 에서 2019년 5월 21일 인출.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10/09/pdf/017-026.pdf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www.myilw.co.jp/publication/myilw/pdf/myilw_no74_feature_3.pdf 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https://www.sodateage.net/about/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19honpenhtml/html/07yh_sp001.html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미국 사례 자료]

ACRN(2019). Work experience options for high school students. Alexandria, VA: America's Career Resource Network Association.
Bailey, T.R., Hughes, K. L., & Moore, T. D.(2003). Working knowledge: Work-based learning and education reform. NY: Routledge Falmer.
Brolin, D. E.(1995). Career education: A functional life skills approach. Jew Jercy, NJ: Prentice-Hall, Inc.
Cahill, C.(2016). Making work-based learning work. Jobs for the future.
Gordon, H. R. D.(2014). The history of growth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America.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Gray, L., & Lewis, L.(2018).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rograms in public school districts: 2016-17(NCES 2018-028).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Greenhaus, J. H., & Callanan, G. A.(2006). Encyclopedia of Career Develop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Jesser, D.L. & Vanier, B.(1974). Models,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McFarland, J.W.(1954). What about life adjustment education?. The High School Journal, 37(8), 243-250.

Parton, B.(2017). Youth apprenticeship in America today: Connecting high school students to apprenticeship. New America.

Raelin, J. A.(1997). A model of work-based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8(6), 563-578.

Snell, A., Voss, J., & Kline, J.(2017). Attitude towards apprenticeship programs. New America & Lake Research Partners.

Threenton, M.(2006). The importance of career and technical student organizations(CTSOs) in career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orkforce Education Forum, 33(2), 44-61.

http://www.collegecareerlifeplanning.com/Documents/6%20Teacher%20Resources/d%20Parent%20Guides/ACRN%20workexp%20Options.pdf 에서 2019년 7월 20일 인출.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curriculum-instruction/cdos-pathwayq-9-18.ose_.pdf 에서 2019년 7월 25일에 인출.

http://www.p12.nysed.gov/cte/wbl/docs/WBL2017final.docx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www.p12.nysed.gov/cte/wbl/home.html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www.p12.nysed.gov/specialed/publications/CDOScredential-att3.pd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na-production.s3.amazonaws.com/documents/report.New_America.omnibus.F.2017.08.17.pdf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nyctecenter.org/instruction/work-based-learning#CDOS_Credential-1 에서 2019년 7월 25일에 인출.
https://www.deca.org/ 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https://www.deca.org/high-school-programs/school-based-enterprises/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https://www.deca.org/wp-content/uploads/2014/08/hs_sbe_Outreach_Pamphlet.pdf 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https://www.fbla-pbl.org/ 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https://www.ffa.org/ 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https://www.jakorea.org/front/jakorea/user/organization.do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www.jakorea.org/front/program/user/allprogram.do?navDepth1=1&navDepth2=1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4537608/JA+Job+Shadow+Program+Brief.pdf/4cb8c470-2562-497e-af4b-cf555b565138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4537608/JA+Job+Shadow+Program+Overview.pdf/75d32f83-3290-40af-9996-69fc462759f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www.juniorachievement.org/documents/20009/63782/JA+Scope+and+Sequence+Composite.pdf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https://www.juniorachievement.org/web/ja-usa/home 에서 2019년 7월 25일 인출.

[독일 사례 자료]

이민희(2018). 21세기 통일한국의 청소년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독일의 동

독청소년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018.4, 185-222.

BmfFSFJ.(2012). Praxisbeispiele aus den Standorten. Kompetenzagenturen.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n und Jugend(Hg.).(2007). Kompetenzagenturen. erreichen, halten, stärken. Berlin: Druckrei Thierbach.

Hampel, C.(2006). Jugendberufshilfe. Rechtsgrundlagen, Entwickelungen, Bewertungen. herausgegeben von Landes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e Jugendsozialarbeit Nordrhein-Westfalen e.V. Köln: Books on Demand GmbH.

Lenzen, D.(Hg.)(1989). Pädagogische Grundbegriffe. Band 1.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Spiegel online.(2018). Binnen zehn Jahren: Zahl der Hauptschulen hat sich halbiert, in https://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deutschland-zahl-der-hauptschulen-binnen-zehn-jahren-nahezu-halbiert-a-1208012.html, in https:// de.m.wikipedia.org/wiki/Hauptschule. 2019.08.18 인출

https://www.google.co.kr/search?sa=G&hl=ko&tbs=simg:CAQSowIJnQsJp1KNDgoalwILELCMpwgaYgpgCAMSKNQCyQfdAsoH0wLGB9AH1QLeAtAI9CLyPug_15z-WOe8-8D7xPpspnDkaMCLhxF7LWXQjFpF8W-m4t3O-727pXmWgWY4nIgCuukDQ27-0UVNVXrDTZxvve-RK7yAEDAsQjq7-CBoKCggIARIEaAdt9gwLEJ3twQkajwEKFwoFYXRsYXPapYj2AwoKCC9tLzBjcm5mCh8KDGlsbHVzdHJhdGlvbtqliPYDCwoJL20vMDFrcjhmChkKB2N1bXVsdXPapYj2AwoKCC9tLzBjc2g1ChsKCHBhcmFsbGVs2qWI9gMLCgkvbS8wMzB6Zm4KGwoIZ3JhcGhpY3PapYj2Aws

KCS9tLzAyMXNkZww&q=arbeitslosigkeit+deutschland&tbm=isch&ved=2ahUKEwizgaXjt_XmAhWDad4KHY3yDyIQwg4oAHoECAgQJg&biw=1920&bih=940#imgrc=f9wYam0WLAgnqM:&spf=1578535753075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영국 사례 자료]

Armytage, W. H. G.(2012). The 1870 Education Act. In Arthur, J., Davison, J. & Pricing, R.(Eds.), Education Matters: 60 Years of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pp. 72-85). London: Routledge.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Key stages 1 and 2 framework document.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for Education(2017). Careers strategy: Making the most of everyone's skills and talent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for Education(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school leaders and school staff.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Gatsby Charitable Foundation(2014). Good career guidance. London: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2013). Career guidance for young people: The impact of the new duty on schools. London: Stationery Office.

Ipsos MORI(2018). National careers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and progression annual report: May 2017 - April 2018 fieldwork. London: Ipsos MORI.

Long, R., & Huble, S.(2019). Careers guidance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07236), 1-22.

Mann, A., & Percy, C.(2013). Employer engagement in British secondary education: wage earning outcomes experienced by young adult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7(5), 496-523.

Ofsted(2013).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Career guidance in schools from September 2012. Manchester: Ofsted.

Ofsted(2015). Encouraging girls into STEM-related careers: Sandbach high school and sixth form college. Manchester: Ofsted.

Ofsted(2019). School inspection handbook: Handbook for inspecting schools in England under section 5 of the Education Act. Manchester: Ofsted.

PSHE Association(2014). PSHE Education Programme of Study (Key Stages 1-4). London: PSHE Association.

Simon, B.(1986). The 1944 Education Act: A Conservative measure? History of Education, 15(1), 31-43.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2017). Careers in the curriculum: What work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2018a). Annual Report 2017/18. London: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2018b). The Gatsby benchmark toolkit: Practical signposting tools for schools. London: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2018c). The SEND Gatsby benchmark toolkit: Practical information and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London: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 Gatsby Charitable Foundation(2018).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careers leader: A guide for secondary schools. London: The National Archives.

Catcote Academy. https://www.catcoteacademy.co.kr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https://www.gatsby.org.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National Careers Service. https://nationalcareersservice.direct.gov.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https://www.careersandenterprise.co.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Tomorrow's Engineers. https://www.tomorrowsengineers.org.uk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부 록

부록

[부록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관 담당자, 학생, 교사 통합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관 담당자, 학생, 교사 통합용]

SQ1.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SQ2. 다음 중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또는 최근 방문한 청소년수련기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1) 동작청소년문화의집 2) 홍은청소년문화의집 3) 역삼청소년수련관
4) 강북청소년수련관 5) 광진청소년수련관 6) 은평청소년수련관
7) 중구청소년수련관 8) 청소년미디어센터 9) 마포청소년문화의집
10)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11) 기장군청소년수련관 12) 금곡청소년수련관
13) 사상구청소년수련관 14) 함지골청소년수련관 15)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16)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17) 연수구청소년수련관 18) 대덕구청소년수련관
19) 대전청소년위캔센터 2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2)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23)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24)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25)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26) 수지청소년문화의집 27) 광명시청소년수련관
28)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29) 수원청소년문화센터 30) 시흥시청소년수련관
31) 상록청소년수련관 32) 의왕시청소년수련관 33)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34)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35)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36)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37)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8)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39) 사북청소년장학센터
40) 영월군청소년수련관 41) 춘천시청소년수련관 42) 삼척시청소년수련관
43) 홍천군청소년수련관 44) 단양청소년문화의집 45)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46) 충주시청소년수련원 47) 보령시청소년수련관 48) 서천군청소년수련관
49)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50) 예산군청소년수련관 51) 태조산청소년수련관
52) 홍성군청소년수련관 53)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54) 금산문화의집
55) 익산유스호스텔 56) 곡성청소년문화의집 57) 완도청소년문화의집
58) 보성군청소년수련원 59) 해남군유스호스텔 60) 안동청소년문화센터

SQ3. 다음 중 귀하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청소년수련기관 기관 담당자 2) 청소년수련기관 방문 학생
3) 청소년수련기관 방문 교사

1

[SQ3의 (1) 응답자에게만 제시: 청소년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기관은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동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동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관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입사년도, 직위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SQ3의 (2) 응답자에게만 제시: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체험활동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효과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지역, 학년, 학교명, 학교 유형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SQ3의 (3) 응답자에게만 제시: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기관을 연계하여 진로체험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을 경험한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체험활동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 교육지원청, 지역, 학년, 학교명, 학교 유형, 성별, 작위/직책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PART A. 청소년 기관용

[SQ3의 (1) 응답자에게만 제시: 청소년 기관용]

Ⅰ. 일반 사항

A1. 귀 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무엇인가요?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문화의집 4) 특화시설
5) 청소년야영장 6) 유스호스텔 7) 기타(구체적으로:)

A2. 귀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1) 지방자치단체 직영 2) 민간 위탁
3)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공단 포함) 4) 기타(구체적으로:)

A3. 귀하는 현 소속기관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A4. 귀하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

A5.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운영책임자(센터장) 2) 중간관리자(부장 및 팀장)
3) 담당 실무자(운영자) 4) 기타(구체적으로:)

A6.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Ⅱ.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A7.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진로체험 유형	활동 내용
1)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회사, 병원, 관공서, 가게, 시장과 같은 직업현장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2)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사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3)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대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4) 직업실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5)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6) 학과체험형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7) 기타	

A8. 귀 센터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운영 진로체험 유형	프로그램 제목
A7-1의 응답 보기 제시	
A7-2의 응답 보기 제시	
A7-3의 응답 보기 제시	
A7-4의 응답 보기 제시	
A7-5의 응답 보기 제시	
A7-6의 응답 보기 제시	
A7-7의 응답 보기 제시	

A9-1.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은 '학교'와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2.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3.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과 '교육청(교육지원청)'과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4.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과 '기타 유관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과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5.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과 '민간 단체'와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6.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 기관과 '민간 기업'과 다음 항목에서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9-7. 귀 지역 청소년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앞서 제시된 '학교, 기타 유관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단체, 민간 기업' 이외에 협력 및 연계하는 기관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만약 학교, 지자체, 교육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외 연계기관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A10.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연간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 ) 백만원

A10-1. 앞서 응답하신 연간 예산 금액 [A10 응답값 제시] 백만원에 대한 예산 구성 비율을 기입해 주세요. 총 합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기입해주세요.

항목	연간 예산 금액 중 해당 지원 금액(%)
1) 교육부 특별교부금	( )%
2) 교육청(교육지원청) 예산	( )%
3) 지자체 예산	( )%
4) 민간 단체	( )%
5) 민간 기업	( )%
6) 기타( )	( )%
합계	100%

A11-1.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 구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1) 청소년수련시설과 별도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2) 청소년수련시설 내 조직(팀) 운영
3) 기타: _____

A11-2.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구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1) 기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활동으로 재구성
2) 기관 내 진로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신설
3)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4) 기타: _____

A11-3.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1) 청소년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실시
2) 청소년 기관이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운영
3) 지역사회 체험처 연계 운영
4) 기타: _____

A11-4.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 구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1) 기존 업무에 추가 겸무
2) 업무 변경
3) 전담 인력 채용 배치
4) 기타: _____

A11-5. 귀 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1) 기존 시설 및 공간의 활용
2) 기관 내 새로운 진로체험 시설 및 공간 확보
3) 지역사회 진로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4) 기타: _____

A12. 귀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운영하는 조직 구성별 인력을 숫자로 적어 주세요.

분류	구성인력
1) 운영책임자(센터장)	( )명
2) 중간관리자(부장 및 팀장)	( )명
3) 실무자(운영자)	( )명
4) 기타( )	( )명
합계	( )명

A13. 귀 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음 항목에 귀 기관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크지 않다	크지 않은 편이다	큰 편이다	매우 크다
1)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2)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①	②	③	④
4)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①	②	③	④
5)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①	②	③	④

A13-1. 앞서 제시한 것 외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귀 기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만약 앞서 제시한 것(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외에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Ⅲ.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A14.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쉽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7)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4-1.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실제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쉽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7)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5.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 운영 상 '인적자원'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진로체험을 위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기회 부족
2)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
3) 담당자의 업무 과중
4) 진로체험 활동 강사 확보의 어려움
5)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
6) 기타(구체적으로:)

A16.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부족
2) 학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3)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의 어려움
4)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의 어려움
5) 기관 내 진로체험활동 공간 확보의 어려움
6) 기타(구체적으로:)

A17.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 '운영 여건'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예산확보 등 재정적 어려움
2)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처와 협의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
3) 이동수단 등 접근성의 어려움
4) 진로체험 운영 시 안전 대책 부족
5) 기타(구체적으로:)

A18. 귀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앞으로 재위탁 받아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A18-1. [A18의 (1) 응답자에게만] 앞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혹은 지원하시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A18-2. [A18의 (2) 응답자에게만] 앞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혹은 지원하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A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T B. 학생용

[SQ3의 (2) 응답자에게만 제시: 학생용]

Ⅰ. 일반 사항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체험활동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B2. 학생의 학교는 어디입니까? 학교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B3. 학생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1) 중학교 1학년　　2) 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4) 고등학교 1학년　　5) 고등학교 2학년　　6) 고등학교 3학년

B3-1. [B3의 (4), (5), (6) 응답자에게만] 귀하가 소속된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일반고 및 자율형사립고　　2) 일반고 내 직업학과(종합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마이스터고등학교　　5) 과학고등학교　　6) 외국어고등학교
7) 예술/체육고등학교　　8) 기타

B4. 학교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체험하기 이전에 지역 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를 알고 있었나요?

1) 예　　2) 아니오

B5. 학교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체험하기 이전에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를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B5-1. [B5의 (1) 응답자에게만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활동이었는지 적어주세요.

II.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 경험에 대한 인식

B6. 학생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체험한 프로그램의 유형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두선택]

진로체험 유형	활동 내용
1)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회사, 병원, 관공서, 가게, 시장과 같은 직업현장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2)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사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3)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대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4) 직업실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5)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6) 학과체험형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7) 기타	

B6-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진로체험이었는지 적어주세요.

운영 진로체험 유형	프로그램 제목
A6-1의 응답 보기 제시	
A6-2의 응답 보기 제시	
A6-3의 응답 보기 제시	
A6-4의 응답 보기 제시	
A6-5의 응답 보기 제시	
A6-6의 응답 보기 제시	
A6-7의 응답 보기 제시	

B7. 학생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을 어떻게 참여하였나요?

1)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　　2) 학급 학생만 참여
3)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　　4)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
5) 학교에 희망 신청 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참여
6) 기타(　　)

B8. 학생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B9.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3)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원하는(관심이 있는) 체험이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진로설계와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지식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8) 나의 학습 의욕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9) 미래의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10)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이나 진행이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B10.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체험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진로체험 기관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진로체험 기관까지의 접근성(이동, 통학)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Ⅲ. 청소년기관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

B11.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하여 '나에게 도움이 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해주세요.

나는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의사소통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다양한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나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 기업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생활과 직업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앞으로 사회에서 나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장래에 목표로 하는 진로를 생각하여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양한 진로 정보들을 비교하여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B12. 앞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앞으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B13. 앞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싶은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

진로체험 유형	활동 내용
1)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회사, 병원, 관공서, 가게, 시장과 같은 직업현장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2)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사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3)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대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4) 직업실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5)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6) 학과체험형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7) 기타	

B14.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청소년기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ART C. 교사용

[SQ3의 (3) 응답자에게만 제시: 교사용]

Ⅰ. 일반 사항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체험활동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1. 귀 학교의 소속 교육지원청은 어디입니까?

( ) 교육지원청

C2. 귀 학교의 소재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대도시(특별/광역시) 2) 중소도시 3) 읍지역
4) 면지역 5) 도서벽지

C3.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학교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C4. 청소년 기관에 참여하여 진로체험을 실시한 학생의 학년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모두 선택]

1) 중학교 1학년 2) 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4) 고등학교 1학년 5) 고등학교 2학년 6) 고등학교 3학년

C4-1. [C4의 (4), (5), (6) 응답자에게만] 귀하가 소속된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일반고 및 자율형사립고 2) 일반고 내 직업학과(종합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마이스터고등학교
5) 과학고등학교 6) 외국어고등학교
7) 예술/체육고등학교 8) 기타

C5.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 남자 2) 여자

C6. 선생님의 직위/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1) 담임교사　　2) 교과 담당　　3) 진로상담교사
4) 동아리 활동 담당　　5) 기타(　　)

C7.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체험하기 이전에 지역 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를 알고 있었나요?

1) 예　　2) 아니오

C8.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체험하기 이전에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를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C8-1. [C8의 (1) 응답자에게만]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활동이었는지 적어주세요.

Ⅱ.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C9. 선생님과 학생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소속된 청소년 기관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문화의집
4) 특화시설
5) 청소년야영장
6) 유스호스텔
7) 기타(구체적으로:)

C10.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이 체험한 진로체험 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선택]

진로체험 유형	활동 내용
1)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회사, 병원, 관공서, 가게, 시장과 같은 직업현장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2)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사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3)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대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4) 직업실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5)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6) 학과체험형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7) 기타	

C10-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진로체험이었는지 적어주세요.**

운영 진로체험 유형	프로그램 제목
A10-1의 응답 보기 제시	
A10-2의 응답 보기 제시	
A10-3의 응답 보기 제시	
A10-4의 응답 보기 제시	
A10-5의 응답 보기 제시	
A10-6의 응답 보기 제시	
A10-7의 응답 보기 제시	

C11.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학생들이 참여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 참여 방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1)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참여
2) 학급 학생만 참여
3) 학교 자율 동아리로 참여
4) 소그룹을 지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율적으로 참여
5) 희망학생 배정 참여
6) 기타(　　)

C12.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학생들이 다음의 유형의 진로체험에 참여했습니까?

	예	아니오
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	①	②
2)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진로체험	①	②
3)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체험	①	②

C13.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다음의 연계 진로체험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	①	②	③	④
2)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진로체험	①	②	③	④
3)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체험	①	②	③	④

C14.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충분한 진로체험	①	②	③	④
2)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성	①	②	③	④
3)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충분한 진로체험	①	②	③	④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진로체험 연계에서 진로체험센터의 매개 역할	①	②	③	④

C15.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3)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6)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7)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8)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9)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10)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이나 진행이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C16.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선택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체험 시설 및 장비	①	②	③	④
2) 진로체험 기관의 시간 운영 방식	①	②	③	④
3) 진로체험 기관까지의 접근성(이동, 통학)	①	②	③	④

C17. 학생들의 진로체험 운영을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다음 항목에서 상호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내용	①	②	③	④
2) 강사 구성	①	②	③	④
3) 예산	①	②	③	④
4) 일정 및 인원	①	②	③	④
5) 장소 및 체험처	①	②	③	④
6) 역할 분담	①	②	③	④
7) 학생 평가	①	②	③	④

C17-1. 앞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운영을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만약 '프로그램 내용, 강사 구성, 예산, 일정 및 인원, 장소 및 체험처, 역할 분담, 학생 평가' 외에 추가 연계 및 협력기관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Ⅲ.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C18. 선생님께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을 시행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3개 필수]

1)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2)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 및 확정 과정의 불편함
3)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의 진로체험 활동과 불일치
4)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의 연계 진로체험 운영 상 안전 및 위생 등 교육 환경의 어려움
5)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기관)의 교육 운영(체험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6) 진로체험에 대한 예산 처리가 복잡함
7) 학교 및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과 불일치
8) 진로체험 강사의 전문성 부족
9) 교통접근의 용이성
10)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C19.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진로체험을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도 센터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앞으로도 센터의 진로체험 외에 다른 활동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C20.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현황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기관은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활동 및 진로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기관 소재지, 소속기관 유형,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근무기간, 입사년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조사중단**

1

Ⅰ. 일반 사항

A1.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A2. 귀 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문화의집 4) 특화시설
5) 청소년야영장 6) 유스호스텔 7) 기타(구체적으로:)

A3. 귀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1) 교육(지원)청 2) 지방자치단체

A3-1. [A3의 (1) 응답자에게만]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시·도 교육청(본청) 2) 교육지원청(지청) 3) 기타(구체적으로:)

A3-2. [A3의 (2) 응답자에게만]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 기초자치단체(시) 2) 기초자치단체(군)
3) 기초자치단체(구) 4) 기타(구체적으로:)

A4. 귀하의 현 소속기관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A5. 귀하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

A6. 귀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업무를 맡기 이전에도 지역 내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을 알고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6-1. [A6의 (1) 응답자에게만] 귀하께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체험활동 이전에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과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II.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현황

A7. 귀 기관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8. 귀 기관은 진로교육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역 청소년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교육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영하는 편이다	매우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A9. 귀 기관은 청소년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서 상호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①	②	③	④
2) 예산 운영	①	②	③	④
3) 강사 및 인력 구축	①	②	③	④
4) 체험공간 및 체험처 확보	①	②	③	④
5) 법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A10. 귀 지역 청소년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정도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학교	①	②	③	④
2) 지자체	①	②	③	④
3) 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④
4) 기타 유관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	①	②	③	④
5) 민간 단체	①	②	③	④
6) 민간 기업	①	②	③	④

A10-1. 귀 지역 청소년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앞서 제시된 '학교, 기타 유관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단체, 민간 기업' 이외에 협력 및 연계하는 기관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만약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기타 유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외 연계기관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A11. 귀 지역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음 항목이 청소년기관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크지 않다	크지 않은 편이다	큰 편이다	매우 크다
1)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2)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①	②	③	④
4)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①	②	③	④
5)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①	②	③	④

A11-1. 앞서 제시한 것 외에 귀 지역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만약 앞서 제시한 것(학생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관내 기업·단체·소모임 등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홍보 및 위상 제고, 관내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질 제고, 지역 내 기존 자원의 활용성 제고) 외에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Ⅲ.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A12. [A3의 (1) 응답자에게만]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쉽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2-1. [A3의 (1) 응답자에게만]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실제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이행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이행되는 편이다	매우 잘 이행된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쉽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2. [A3의 (2) 응답자에게만]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2-1. [A3의 (2) 응답자에게만] 귀 기관이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각 항목이 실제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	이행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이행되는 편이다	매우 잘 이행된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파트너십 형성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체험 인프라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A13.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상 '인적 자원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진로체험을 위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기회 부족
2) 담당자 및 지원 인력 부족
3) 담당자의 업무 과중
4) 진로체험 활동 강사 확보의 어려움
5) 진로체험 지원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
6) 기타(구체적으로:)

A14.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상 '프로그램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부족
2) 학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3)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의 어려움
4) 지역사회 체험처 확보의 어려움
5) 기관 내 진로체험활동 공간 확보의 어려움
6) 기타(구체적으로:)

A15. 청소년기관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여건' 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2개 필수]

1) 예산확보 등 재정적 어려움
2)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처와 협의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
3) 이동수단 등 접근성의 어려움
4) 진로체험 운영 시 안전 대책 부족
5) 기타(구체적으로:)

A16. 귀하는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을 앞으로 재위탁 혹은 지원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A16-1. [A16의 (1) 응답자에게만] 앞으로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혹은 지원하시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A16-2. [A16의 (2) 응답자에게만] 앞으로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재위탁 혹은 지원하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A17. 청소년기관이 진로체험지원센터로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델파이 설문지(1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이 설문지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및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을 위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청소년 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진로체험으로 제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기간의 진로체험 지원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오며, 본 조사는 **1차 조사**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10월 15일 (화)』** 까지 이메일(k2bbnn@nate.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락처 연구책임자 강경균 (044-415-214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전문가 위원 승낙서

■ 귀 연구의 취지에 따라 전문가 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명	
연령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최종학력	□ 학사 □ 석사 □ 박사수료 □ 박사 □ 기타
소속기관	
부서/학과	
직위	
담당업무	
청소년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연구·학술분야	① ② ③
경력	청소년 진로 관련 운영 경험 및 연구 경력 약 ( )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 델파이 조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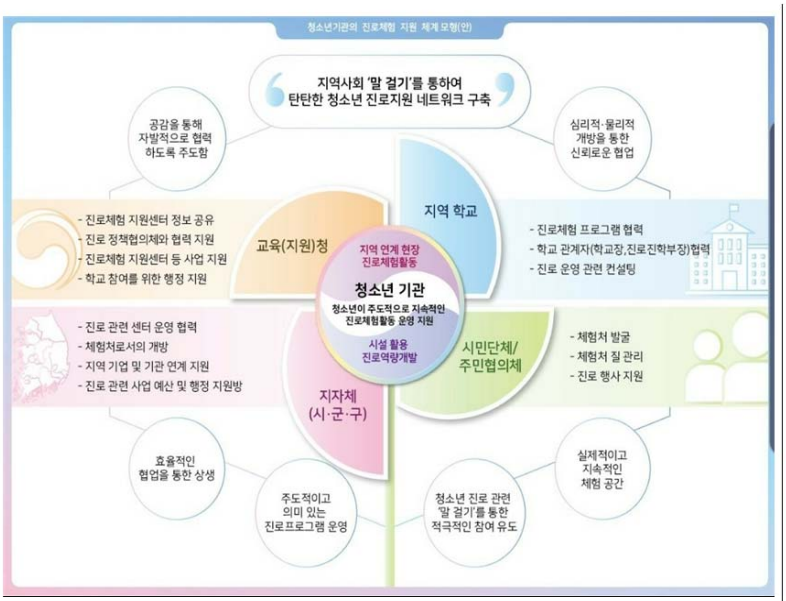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요소

본 설문지는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사례(Case)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제 모형(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구성 요소		내용
비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목표)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유형 1)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전략		(설명)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전략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함. 전략3.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함. 전략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5.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6.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3.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4.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	1.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지역학교	1.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 그림 】 현장 사례에 기초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귀하께서 제시한 응답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 할 예정입니다.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비전' 내용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비전'**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비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비전'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목표와 2가지 유형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목표)**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유형 1)**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의 2가지 유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1'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2'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 설명과 6가지 전략**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청소년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전략	**(설명)**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전략 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함. **전략 3.**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함.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 5.**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 6.**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1'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3'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4'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략' 의 '전략 6'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분류 및 세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에 대한 **지원 주체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지역 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3.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4.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	1.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지역학교	1.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4개 주체(지자체, 교육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지역학교)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첫번째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두번째 주체인 '교육(지원)청'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세번째 주체인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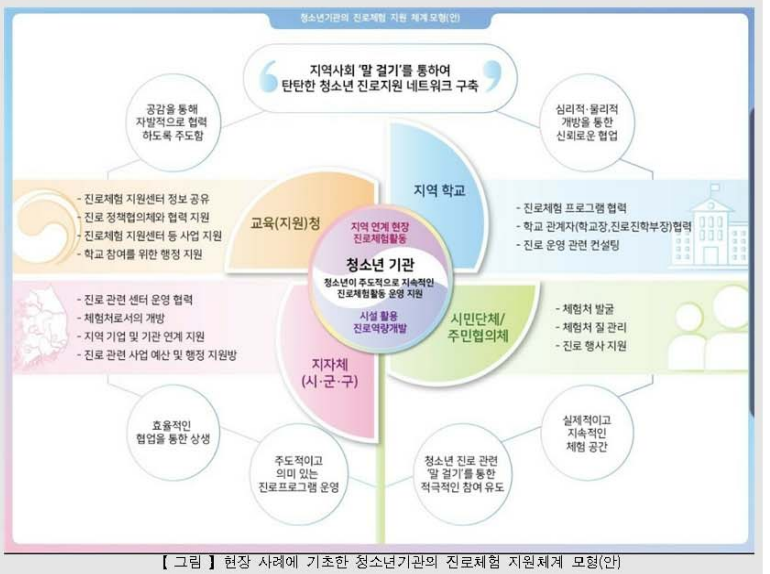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네번째 주체인 '지역학교'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입니다.



【 그림 】 현장 사례에 기초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록 4] 델파이 설문지(2차)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2차)

이 설문지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및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을 위해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체험이 청소년 기관(청소년수련시설)에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응답해주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타당도 결과를 확인하고,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2차 조사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10월 19일 (토)』** 까지 이메일(k2bunn@nate.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락처 연구책임자 강경균 (044-415-214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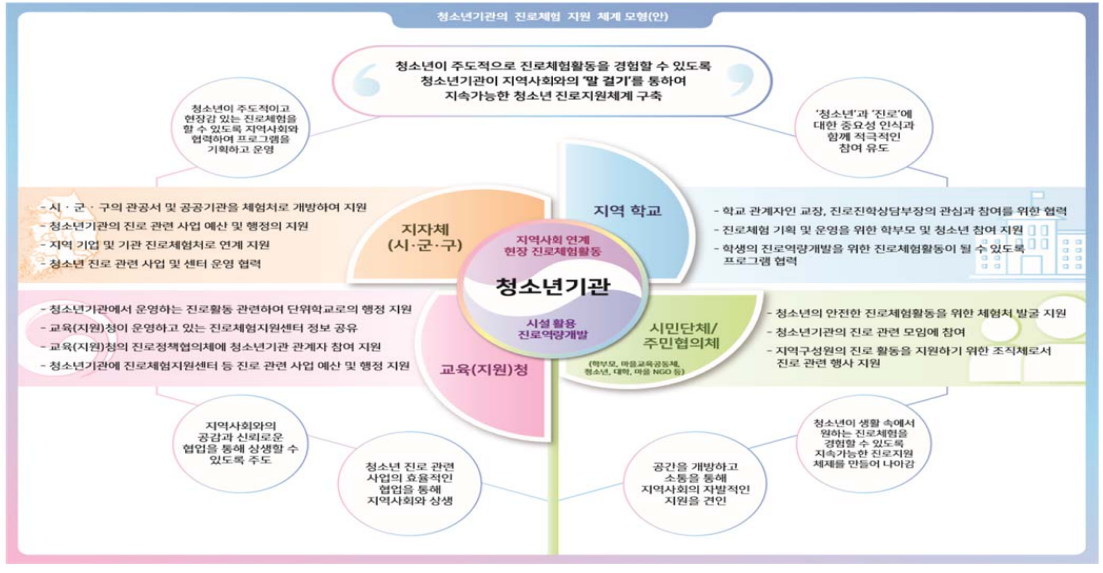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

구성 요소 (수정 전)	구성 요소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여부	수정 후
비전	비전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비전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말 걸기'를 통하여 탄탄한 청소년 진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통합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목표)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 (유형 1)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	통합/ 보완	**(목표 삭제)** 유형 1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 유형 2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유형**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전략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설명)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전략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말 걸기'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함. 전략3. 청소년기관 조직과 지역사회의 기관이 공감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주도함. 전략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진로, 마을교육, 혁신지구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5.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가 심리적·물리적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략6.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통해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함.	보완 (제시 순서 변경 및 일부 문구 수정)	**(설명 삭제)** 전략 1. 청소년 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제를 만들어 나아감.** 전략 3.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함.**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함.** 전략 5.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함. 전략 6.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지자체 (시·군·구)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시설 및 사업의 예산 및 행정지원	보완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기관과의 지원 내용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보완 (제시 순서 조정)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지원단 등)와의 협력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3.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어르신, 상인회, 청년, 대학)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1.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 발굴을 지원	보완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	보완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지역학교	지역학교	1.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보완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보완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보완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 그림 】 현장 사례에 기초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 수정 전



【 그림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 수정 후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개요

◆ 작성 요령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델파이 1차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위원 총 10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하위 구성요소인 **비전,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유형 분류, 유형1~2의 내용), 청소년기관 지원 전략,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타당도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집계된 전문가 위원 총 10분의 의견 수렴 결과가 각 문항마다 아래 <보기>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대체 또는 통합된 문항의 경우 1차 조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음영	귀하의 1차 응답
Mdn	문항별 중앙치(전체 응답 분포의 중앙값)
【 】	사분위 간 범위(전체 응답 중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응답 범위)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정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란 칸 안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난다면 반드시 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예시 1>

질문 :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Mdn	
①	②	③	【 ④	⑤ 】
			✓	

※ 해석

1) 중앙치(Mdn) : 4점, 2) 사분위 범위 : 4~5점, 3) 귀하의 1차 응답 : 3점, 4) 귀하의 2차 응답 : 4점

☞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의견 기술 불필요

<예시 2>

질문 :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Mdn		
①	②	【 ③	④ 】	⑤
	✓			

※ 해석

1) 중앙치(Mdn) : 3점, 2) 사분위 범위 : 2.5~4점, 3) 귀하의 1차 응답 : 2점, 4) 귀하의 2차 응답 : 2점

☞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견 기술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1.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비전' 내용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비전'**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비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비전'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2가지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유형	유형 1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 유형 2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유형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1'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중 **'유형 2'의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6가지**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전략 1. 청소년 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제를 만들어 나아감. 전략 3.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함.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함. 전략 5.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함. 전략 6.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1'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3'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4'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5'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관의 지원 전략' 의 '전략 6'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세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의 구성 요소 중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에 대한 **지원 주체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지역 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기관과의 지원 내용	지자체 (시·군·구)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교육(지원)청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지역학교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4개 주체(지자체, 교육(지원)청,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 지역학교)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첫번째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두번째 주체인 '교육(지원)청'의 4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세번째 주체인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대학, 마을 NGO)'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Mdn 【 ③	④ 】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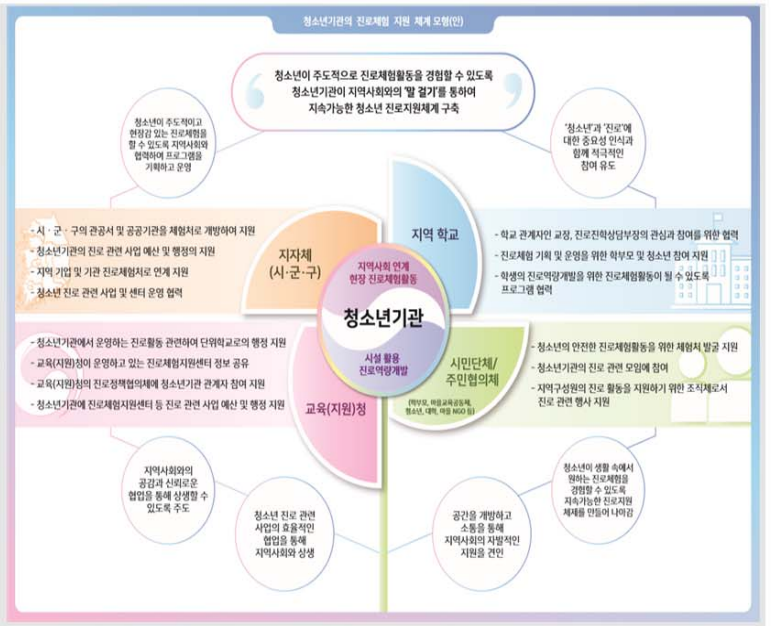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의 **네번째 주체인 '지역학교'의 3가지 지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 ③	Mdn ④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5.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에 대한 타당성

다음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입니다.



【 그림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Mdn 【 ④	】⑤

☞ 귀하의 응답이 【사분점 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6.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델파이 1차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및 수정사항

조사 내용	1차 설문지 내용	수정 여부	수정 결과
'비전' 내용 설명	• '청소년진로지원 확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중심 플랫폼이 됨으로서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수정 고려 필요 • 지역사회 '말 걸기'라는 수단적이기도 하고 약간 모호한 느낌의 수식어가 어색하게 느껴짐. 보다 명료하면서 다소 이상적이면서 멋진 미래모습(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이 아주 잘 되었을때의 모습)을 표현해서 넣어주면 어떨까 싶음.	통합	• 제시된 두 가지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 •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말 걸기'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진로지원체계 구축
'지원 유형'의 '목표' 설정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지원"으로 수정 고려 필요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이라는 표현은 해당 목표의 주체가 불분명 •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처와 협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 수정 필요 • 비전 내용('말 걸기')에 따른 목표가 일관성 확보 필요 • 구성요소는 유형인데 목적이 들어가 있어 적절치 않아 보임. 비전-(미션)-목적-전략-과제 위계 구성이 일반적임. 아예 '목적'으로 명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소 의아함. 전략이나 지원내용이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유형이 벌써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목적 안에서 유형 1과 2를 포함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겠음.	통합	• '목표'의 의미가 모호하여 '목표'를 삭제하고, 상기에 제시된 '비전'이라는 하위 구성 요소 부분에 그 의미를 포함하고자 하였음.
'지원 유형' 분류	• 유형 1, 2 뿐만 아니라 '마을의 우물터'와 같이 사람(교사, 학부모, 진로지원단 등)들이 수시로 모여서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계로 안착될 수 있는 열린 공간제공 필요-회의, 교육, 소규모 스터디 등 • 개인 맞춤형, 소규모 교육 등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이 필요 • '유형 3: 지속가능한 진로지원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마을진로 우물터로서의 공간 지원' 추가 건의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유형 1 (시설 활용 진로역량개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 • 유형 2 (지역사회 연계 현장 진로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유형

조사 내용	1차 설문지 내용	수정 여부	수정 결과
'유형 1', '유형 2'의 내용 설명	•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자'도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 수정 고려 필요 • 유형 2: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 수련시설에서 직업현장을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수련시설 외부로 나가는 활동은 수련활동이 아닐 수 있음. • 지역사회와 연계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진로센터의 역할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 수정 필요 •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반드시 직업 현장을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며, 진로동아리, 멘토링, 대학탐방 등 다양한 진로개발활동이 가능함. • 유형 2에서 목표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을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음.	보완	• 그 외 제시된 의견을 '전략' 부분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 1~6'의 내용 참조 요망
'지원 전략' 내용 설명 및 '전략1'~'전략6' 내용	• 전략 1.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진로지원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소년기 진로체험의 가치 및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말 걸기'라는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음. 구체적인 전략이 더 드러나면 좋겠음.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 • 전략의 순서를 재조정 • 6개 전략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 구체적 제시 • 전략 1.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진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지원 체제를 만들어 나아감. • 전략 3. 청소년기관이 공간을 개방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견인함. • 전략 4.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참여함. • 전략 5.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신뢰로운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도함.
	• 전략 2. 청소년이 학교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이 지속적으로 마을 안에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공간 지원함. •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전략 2: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원함.→청소년수련시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가능함. • 전략 2는 진로체험이라고 명시 필요		
	• 전략 3. 청소년기관 주도의 진로지원단을 조직·운영함으로서 진로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발적 협력을 주도함. • 전략 5와 통합하여 '공감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 수행함.'과 같은 문구로 정리 가능		

조사 내용	1차 설문지 내용	수정 여부	수정 결과
	• 전략 5. 청소년기관이 마을진로 우물터로서의 열린 개방을 통해 신뢰로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략 3과 통합하여 '공감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 수행함.'과 같은 문구로 정리 가능		• 전략 6. 청소년이 주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 전략 2와 통합하여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상 속에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정리 가능		
'지원 내용' 4개 주체 분류	•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지역 기업, 대학, 마을 NGO 등) • 청소년기관과의 지원 내용'이라는 표현 보다는 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부분은 해당 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기관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측면도 있음.	-	•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전략 1~6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각 전략별 수정보완사항은 아래의 내용에 제시함. • 타당도값이 기준치 이상이므로 유형 분류에 대한 재구조화는 진행하지 않음.
주체별 지원 내용	• '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사업예산 및 행정의 지원'으로 수정 필요 • 지자체에서 3번 내용은 지역 기업이 지자체에 포함하는 내용일지는 고민이 필요함. 지역 기업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주민협의체 및 시민단체'에서 '지역단체 및 기업' 등으로 세부 내용을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지역기업 등으로 구분하면 어떨지 고민 필요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1. 청소년 진로 관련 사업 및 센터 운영 협력 • 2. 시·군·구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체험처로 개방하여 지원 • 3. 지역 기업 및 기관 진로체험처로 연계 지원 • 4.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의 지원
	•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1.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진로체험지원체계에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위원참여 의무화 또는 적극 참여지원〉 명시 필요 •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 지원단 등)에 청소년기관장 참여 지원 •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을 삭제,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사업예산 및 행정의 지원" 수정 건의 • 4번 내용은 청소년기관 지원전략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1. 교육(지원)청의 진로정책협의체에 청소년기관 관계자 참여 지원 • 2.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보 공유 • 3.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관련하여 단위학교로의 행정 지원 • 4. 청소년기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진로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

조사 내용	1차 설문지 내용	수정 여부	수정 결과
	•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지원 내용으로 사료됨. 따라서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인적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 청소년기관에서는 수혜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자치 조직인 '동아리, 운영위원회 등'에게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진로교육을 지원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체험처의 질 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는 의미에서 '체험처 질을 놓이기 위한 노력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1. 청소년의 안전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을 지원 • 2.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청소년기관의 진로 관련 모임에 참여 • 3. 지역구성원의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진로 관련 행사 지원
	•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은 단위학교의 지원 내용이기 보다는 '진로정책협의체(진로체험 지원단 등)의 지원내용'으로 더 적합, '3. 학부모 진로지원단 모집 및 참여 지원협력' 수정 건의 •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협력과 지원' 수정 필요 • '청소년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한 학부모 안내 및 참여 유도' 추가 필요 • 3.의 내용은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 협력'으로 정리 필요 • 단위학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인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청소년 참여 독려' 부분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임. • 진로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학생이 원하는(→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보완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보완하였음. • 1. 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협력 • 2. 학교 관계자인 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협력 • 3. 진로체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 지원
모형(안)	• '탄탄한'이란 용어 삭제 고려 필요 • 가운데 원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진로체험활동 운영 지원'의 내용과 주체가 불분명해 보임.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주도 진로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지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함. •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체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함. • 각 주체의 위치, 텍스트의 의미 등을 생각하면 적절한지는 검토 필요함. 4개 주체는 청소년기관 하위 것처럼 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아 보임.	보완	• 6개 전략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놓이는 위치, 제시 순서 등(시계 방향)을 재조직, 재구조화하였음.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Measure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 System of Youth Institutions

The purposes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a system model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s for youth institutions and to induce policy projects that could effectively operate and support the system on actual site of youth center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to ensure that career experiences for youths could be provided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youth centers in the community. To achieve these purposes, varying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surveys, a multi-case study, Delphi method, and etc., were incorporated in the present study. First, literature relevant to career experience support system for youth institutions were reviewed to induce the direction for and points to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youth career experience supports system model for youth centers. In addition, excelling cases of career experiences of varying types of youth centers in Korea in addition to legislation,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of foreign countries (USA, Germany, UK, and Japan) regarding youth career experience had been studied and analyzed to induce implications for policies relevant to development of career experience support system for youths. Also, in order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and demands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 for youths,

surveys were conducted on those in charge of career experience in youth centers, local governments and Office of Education (Support office), teachers with experiences in guiding youth career experiences to study their experiences operating such programs and measures to stimulate career experience supports. Surveys were conducted on youths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 and effects of career experiences to induce current status and demands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s. Also, a system model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s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supports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provision of spaces for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operation of career experience activity programs, and strategies to stimulate career experience supports and through diverse activities and cases supporting youth career experiences provided in youth centers. Lastly,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for the strengthening of legislative evidence for stimulated youth career experience supports, development of a foundation for youth career experience supports, enhancing the expertise of people in charge of such programs in youth centers to provide reliable career experience supports and provision of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youth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Key Words: youth institution(youth center), youth career paths, career experience, career experience supports, stimulation of career experiences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Ⅷ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19-S4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47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Ⅰ: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누리기획 (044-866-067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30-8 93330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3330
9 791156 542308
ISBN 979-11-5654-230-8 93330